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3

동부산 문화권 민요(I)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박경수 · 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일러두기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 서부산 문화권, 내륙·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 자료집과 민요 자료집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제3권으로 동부산 문화권의 민요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동부산 문화권 민요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당초 1권으로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분량이 많아 2권(I, II)으로 나누어 발간하기로 하였다. 제3권은 I. 현장조사 민요를, 제4권은 II. 기존 현장조사 민요와, III. 문헌소재 민요를 각각 읍, 면 단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이 책은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민요 자료들을 제목, 제보자(이름, 성별, 출생년도), 채록 시기, 조사 장소, 본문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 (5) 이 책의 끝에 가창자와 민요 제목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민요의 명칭

- ① 기능요의 명칭은 한국민요학회에서 통용되는 ‘~ 소리’로 통일한다.
예) 모 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
- ② 기능요라도 ‘~ 노래’ 등 다른 명칭이 대중에게 더 자연스럽거나 익숙한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한다.
예) 베를 노래, 베 짜기 노래, 아기 어르는 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성주풀

이, 강강수월래, 뱃노래 등.

- ③ 비기능요(또는 가창유희요)는 대중에게 익숙한 명칭이나 보편화된 명칭인 경우, ‘~타령’, ‘~노래’, ‘~가’ 등에서 적절한 명칭을 사용한다.

예) 화투 타령, 창부타령, 노랫가락, 사발가, 양산도 등.

- ④ 동요나 서사민요 등도 대중에게 익숙한 명칭이나 보편화된 명칭을 사용한다.

예) 천자풀이 노래, 시집살이 노래, 못 갈 장가 노래 등

- ⑤ 각편으로 민요를 부른 경우, 각편이 속한 큰갈래의 민요 명칭을 먼저 쓴 다음 각편의 명칭은 [] 속에 표시한다.

예) 노랫가락[그네 노래], 시집살이 노래[양동가마 노래] 등.

- ⑥ 기능요의 명칭은 기능의 현장성이 드러나도록 관형사형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보리타작 노래’와 같이 명사형으로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예) 모 쪼는 소리, 다리 세는 소리, 잠자리 잡는 노래, 이갈이 노래 등.

2) 민요의 표기와 정렬

- ① 민요는 군, 구의 지역별로 정렬하되, 기장군은 읍면, 다른 지역은 구단위로 나누어 정리한다. 지역별 민요는 리나 동 이름, 마을 이름, 조사장소, 제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 ② 각 민요 자료는 제목을 가운데 쓴 다음, 1행 아래에 제보자, 채록 시기, 조사 장소를 차례대로 행을 바꾸어 오른쪽 정렬이 되도록 한다. 민요의 본문은 다시 1행 아래에 표기하되, 전체 들여쓰기를 한다.

- ③ 한 조사장소에서 동일 인물이 동일 종류의 민요를 계속 불렀거나,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부른 경우라도 동일 제목 아래 해당 인물의 민요로 모두 모아서 표기한다.

예) <모심는 소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보자 A와 B가 번갈아 부른 경우.

A : 모심는 소리1

A : 모심는 소리2

B : 모심는 소리3

A : 모심는 소리4

B : 모심는 소리5

제보자 A의 모심는 소리1, 모심는 소리2, 모심는 소리4를 전사하고
제보자 B의 모심는 소리3, 모심는 소리5를 전사한다.

- ④ 모든 민요는 음보 단위로 분할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요의 기능적 성격이나 의미 단위에 따라 음보를 분할하여 표기한다.

예) 모심는 소리, 논매기 소리,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 : 4음보

아리랑 등 : 3음보 또는 4음보, 동요 대부분 : 2음보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영화볼래

이달크고 저달크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모심기 소리>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힘이들면 앞에다가 쉬고가자

그잎이 푸대접하거든 내품에서 자고가자 -<노랫가락[나비 노래]>

앞니빠진 개오지

아랫니빠진 소오지

연못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란다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 ⑤ 후렴이나 여음구는 사설과 구분하여 별행으로 표기하되, 사설보다 1글자 안에서 시작하도록 표기한다. 단, 처음 시작하는 여음구는 사설처럼 표기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이하 후렴 생략) -<아리랑>

- ⑥ 원칙적으로 노래의 장단이나 높낮이의 구분을 표기상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어떤 어휘를 길게 부르거나 높낮이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는 경우에는 장음(-)이나 물결무늬(~)를 붙여 표기할 수 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영화볼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 ⑦ 제보자가 민요를 노래하기 전, 노래하는 중간, 노래를 한 후에 말을 하거나 청중 또는 조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한다. 단, 조사자와 청중이 개입하는 대사는 () 속에 제보자의 말이나 대화와 구분되도록 ‘조사자’ 또는 ‘청중’임을 표시한다.

예) (청중 : 참 잘한다.) (조사자 : 무슨 노래입니까?) 등.

- ⑧ 특별히 제보자의 구연 상황이나 행동, 구연 태도 등을 나타낼 때에는 [] 속에 해당 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한다. 예) [일동 웃음], [춤을 추며] 등.

3. 주석 및 기타

- ① 방언에 대한 표준어를 표기하거나, 특정한 어휘나 구문의 뜻을 풀이하거나, 조사자의 의견을 붙이거나, 한자·외국어·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등 주석을 넣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가 있는 어절이나 구문의 마지막 어절 뒤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각주에서 주석의 내용을 넣는다.

예) 낭창낭창 벼루¹⁾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²⁾

나도죽어 후생가서³⁾ 낭군부터 사귄란다

- ② 근대 이후 민요로 인식하여 많이 불리는 <노들강변>이나 통속적인 신민요인 <성주풀이> 등은 창작민요이기 때문에 구비 전승 민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일부 창가나 해방 이후에 불린 <해방가> 등은 누군가 창작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창작자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민요화되어 불리는 경우에는 채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1) 벼랑.

2) 우리 오빠야.

3) 후생(後生) 가서.

각/권/별/편/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해운대·수영·남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북·사상·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 / 2018년 발간
- 제8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금정·동래·연제구 편 / 2019년 발간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부산진·동·중·영도·서구 편 / 2020년 발간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 / 2021년 발간

목 차

일러두기

I . 현장조사 민요

1. 기장군 민요	3
1) 기장읍 민요	3
2) 일광면 민요	70
3) 장안읍 민요	92
4) 정관면 민요	180
5) 철마면 민요	224
2. 남구 민요	299
3. 수영구 민요	367
4. 해운대구 민요	421
 제보자 색인	 549
민요 제목 색인	559

I. 현장조사 민요

1. 기장군 민요

- 1) 기장읍 민요
- 2) 일광면 민요
- 4) 장안읍 민요
- 5) 정관면 민요
- 6) 철마면 민요

2. 남구 민요

3. 수영구 민요

4. 해운대구 민요

1. 기장군 민요

1) 기장읍 민요

[기장읍 민요 1]

다리 세는 소리

김경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잣거리
동사맹금 조맹금¹⁾
조래짐치²⁾ 장두칼
까마구 까우
풍지 백
상투 호드락 빼여 흘

[기장읍 민요 2]

모심는 소리

송소남(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모시아적삼 안쇳안에 연적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은 병날끼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1) 동사 망건 도 망건.

2) 도래춤치. 도래 주머니.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이 어데갔노
문에야다리 외와들고³⁾ 첩의야집을 놀러갔네

[기장을 민요 3]

쌍가락지 노래

송소남(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에보이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달일레라
(조사자 : 둘일레라.) (둘일레라. 숨소리 둘일레라.) [웃음] (조사자 : 천도
복숭 뭐뭐 울오랍아 거짓말씀 하지마소.)
천도복상 올라바시 거짓말을 말으시소
이내하나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꽃밑에 묻어주소
연꽃이 꽤거들랑 날온줄로 생각하고
우리친구 날찾거든 여겼다고 갈키주소

[기장을 민요 4]

다리 세는 소리

송소남(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3) 에워 들고, 손에 감싸서 들고.

청상맹근 도맹근
도래짐치 장돏간
까마구 까
열석냥 불화 통

[기장을 민요 5]

너냥 나냥

송소남(여, 1930년 생),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송소남]

난양 난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조분순]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이 기루와 운다
난양 난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기장을 민요 6]

모 찌는 소리

이묘숙(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한강에~에이 모를부아 찌내기도 난감하-다
(이라몬, 저쪽에 받는 사람이가.)

하늘안에~에이 목화심어 따내기도~ 난감하-다
(이러카모 이쪽에서.)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 흙치소
영해영천 초목에 후미손도⁴⁾ 놀리소

[기장을 민요 7]

모심는 소리

이묘숙(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이논뱀이다 모를심어~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에 술을숨어⁵⁾ 영화로-다

절레야~꽃은 상각가고~이 석류야꽃은 장가가네
만중생요 우지를마소~이 씨종자바래고 내가간대

서월이라~어이 남정자야 점심참이 더디온다
미나리야~어이 시금초야 맛본다고 더디온다

사공씨요⁶⁾~어이 배둘러라⁷⁾ 우리동생 보러갈래
너거야~동생 무슨죄로~이 철두섬으로 귀양가노

쫓득쫓득 찰수지비 사우야판에다 다올랐네
헤미야년은⁸⁾ 어디로가고이 딸애기동자로 땔겼던고

4) 호미손도. 호미를 잡은 손도.

5) 술을 심어.

6) 사공을 높여서 말함.

7) 배 돌려라.

8) 에미야 년은. 에미년은.

[기장읍 민요 8]

화투 타령

이묘숙(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삭인마음
이월아매조에 맺어두고
삼월사꾸라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가 허송하다
오월난초 날던나비에
(날로갓다 더럽은 이것 안 받아도 술로 한 잔 받았이몬 더 잘 할긴데.)
[웃음]
유월목단에 날라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아공산아 달좋은데
구월국화야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마 그렇다.)

[기장읍 민요 9]

모심는 소리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우연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댁죽고 우연행상이 (청중: 이별행상이.) 떠나가네 (이래.)

[기장을 민요 10]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 소리]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불매야 불매야
어더매 불매고
경상도 대불매다
펼럭펼럭 잘도분다

[기장을 민요 11]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뺨을한되 얻어다가
찰독안에⁹⁾ 넣었더니
새앙쥐가 다까먹고
다문¹⁰⁾하나 남았는거
부엌에다 영어놓이¹¹⁾
뒷집 할마니가 하리¹²⁾ 불담으로
한쫓가리 띠묵고
한쫓가리 남았는거

9) 찔독 안에.

10) 다만. 오직.

11) 넣어 놓으니.

12) 하루.

껍 데기는 애비주고
보네는 애미주고
알키는¹³⁾ 니캉내캉 갈라먹자

[기장읍 민요 12]

댕기 노래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성안에 널뛰다가 성밖에 잃어뵈네
조왔구나¹⁴⁾ 조왔구나 서당선부 조왔구나
군아군아 서당군아 주안당기¹⁵⁾ 나를주소
문밑에 주안당기 눈꼴없이¹⁶⁾ 너를줄까
석냥짜리 등기봐라¹⁷⁾ 만냥짜리 내몸팔리

[기장읍 민요 13]

다리 세는 소리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래춤치 장뚝간

13) 알맹이는.
14) 주웠구나.
15) 주은 댕기.
16) “눈치 없이”의 뜻인 듯함.
17) 던져 보아라.

(뭐꼬? 잊어뼉다. [기억이 난 듯] 아.)

까마구 까

양지 벌이 범 사심

노래이 좇이가 빵 [일동 웃음]

[기장읍 민요 14]

잠자리 잡는 노래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얹은뱅이 꿈꿈

진지뱅이 꿈꿈

먼데가몬 죽는다

불은자리 불어라

[기장읍 민요 15]

양산도

조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 교리1리경로당]

에헤에헤이~요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도~올~고

울긋불긋¹⁸⁾ 큰아기 나를안고 도~오~온다

18) 울긋불긋.

[기장을 민요 16]

모 찌는 소리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하늘에다 목해¹⁹⁾심어 목해따기 난감하네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기장을 민요 17]

모심는 소리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열래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노

찢레야꽃어는²⁰⁾ 장개²¹⁾가고 석류야꽃은 상각²²⁾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마래 내가가요

이물기 저물기 혈어놓고
우리님은²³⁾ 어디가서 돌아올줄 모리던고²⁴⁾

19) 목화.
20) 꽃은.
21) 장가.
22) 상객.
23) 우리 님은.

서울가는 선부²⁵⁾님요 우리선부 안오더나
너거선부 오기는온다만은 과거분다고²⁶⁾ 늦어온다

[기장읍 민요 18]

베틀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나야나야²⁷⁾ 베틀나야
베틀다리 네다린데 이내다리 두다리요
베틀몸은 두몸인데 이내몸은 한몸이요

[기장읍 민요 19]

제비 노래[옥단춘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제비제비 초록제비 능금한쌍 물어다가
대궐안에 집을지어 그집짓고 삼년만에
울아버지 서울양반 우리엄마 진주댁이
우리오빠 행주별장 우리샌님 매매각시
내하나는 옥단처녀

24) 모르는고.

25) 선비.

26) 과거 분다고.

27) 놓아 놓아. 놓으세 놓으세.

[기장읍 민요 20]

창부타령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리고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이슬 오도록 기다린다

[기장읍 민요 21]

너냥 나냥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너냥 내냥 두리둥실 하고요
아침에²⁸⁾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러 울고요

[기장읍 민요 22]

친구 이별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악수동동 같이놀던 우리동무야

28) 아침에.

변치말고 잘들어라 갔다오리다
태산이 무너져서 강이되어도
우리만은 꿈에라도 변치맙세다

[기장을 민요 23]

새원새기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아가아가 애운아가
한살묵어 엄마죽고
두살묵어 아배²⁹⁾죽고
호부세상³⁰⁾ 말을비워³¹⁾
열다섯에 가운데서
뒷대밭에 새한마리 들치와서
열두평상 갈리놓고
올러가는 올고사리
내리가몬 늦고사리
아금자금 뜯어다가
넌비술에 옥석걸이 데와내어
아래옹지 씻거서러
우엉비 행가서러
열두평상 갈리놓고
한점아 남는구나
등판우에 엮어노니
야수걸은 시누부가³²⁾

29) 아버. 아버지.

30) 호불세상. 홀로 사는 세상.

31) 말을 배워.

오맨가매 다무뿌고³³⁾

[기장읍 민요 24]

다리 세는 소리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³⁴⁾
춤허리 받고 독 받고
열무짐치³⁵⁾ 독 받고

[기장읍 민요 25]

연치 놀리는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연치³⁶⁾야 연치야 방아 찼어라
싸래기³⁷⁾ 주께 방아 찼어라

32) 여우같은 시누이가.

33) 오며 가며 다 먹어버리고.

34) 동사 망건 도 망건.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진주망건 도망건’으로 부른다. 이는 진주에서 만든 망건이 도를 대표하는 망건이란 뜻이다. ‘동사 망건’이란 동서로 있는 망건 중에서도, 즉 “온갖 망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망건”이란 뜻으로 보임.

35) 열무김치.

36) ‘방아깨비’의 방언.

37) ‘싸라기’의 방언.

[기장읍 민요 26]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새는새는 낭계³⁸⁾자고 쥐는쥐는 궁계³⁹⁾자고
어지아래⁴⁰⁾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어지아래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땅구땅구 할마땅구⁴¹⁾ 영감품에 잠을자고

[기장읍 민요 27]

비야비야 오지마라[비 노래]

김모순(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내동마을 내동마을회관]

비야비야 오진마라
우리샌님⁴²⁾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면⁴³⁾
홍지처매⁴⁴⁾ 어렁진다⁴⁵⁾

38) 나무에.

39) 구멍에.

40) 어제 그제. ‘아래’는 그제, 그저께의 옛말임.

41) 할망구. ‘할머니’를 얹잡아 일컫는 말.

42) 일반적으로 ‘샌님’은 선비를 일컫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새이’ 즉 언니나 형을 대신하는 말로 보임.

43) 가마 문에 비가 들이치면.

44) ‘홍지처매’는 홍치마, 즉 붉은 치마를 말함. 보통 ‘다홍치마’로 부르는데, 이 노래에서는 ‘홍지처매’로 불렀다.

45) 얼룩진다.

[기장읍 민요 28]

쌍가락지 노래

김상갑(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땀고보니
먼데보니 처널레요
[가사를 바꾸어]
먼데보니 달일레요 절에보니⁴⁶⁾ 처잘레라
그쳐자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려온다
청도복숭 오라부님⁴⁷⁾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디리부니⁴⁸⁾ 풍지떠는⁴⁹⁾ 소릴레요

[기장읍 민요 2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⁵⁰⁾

김상갑(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멍멍개야 깃지말고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46) 곁에 보니.

47) 오라버님.

48) 세게 부니.

49) 문풍지가 떠는.

50) 노래를 창가 곡조로 불렀다.

엄마품에 폭안겨서
새근새근 꿈나라로
저녁노을 사라지니
돌아오는 밝은달이
우리아기 잠잔얼굴
곱게곱게 비춰주네 (그래 한다.)

[기장읍 민요 30]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⁵¹⁾

김상갑(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서니
은도끼를 찍어내어 옥도끼를 따듬어서
초가상간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사랑하던 양처방은 친구에게 전장하고
무던하던 본택으로 부님에게 전장한다
가오가오 나는가오

[기장읍 민요 31]

모심는 소리

김오금(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51) 노래는 창가 곡조로 불렀다.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부모 산소등에 쫓목으러 내가간다

이논에다 모를부와⁵²⁾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해⁵³⁾갈아 목해따기 난감하네

[기장읍 민요 32]

다리 세는 소리

최말년(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잣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래짐치 장뚫간
열두 장사 칼내 영두 칼

[기장읍 민요 33]

창부타령

최말년(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 같이도 깊은 사랑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 사랑 (청중 : 좋-다.)
구년지수 긴장마에 햇별같이도 반긴 사랑

52) 모를 부어.

53) 목화.

당명왕에⁵⁴⁾ 양귀비요 이대룡에⁵⁵⁾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일을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청중 : 좋-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기장을 민요 34]

자진방아 타령

최말년(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얼씨구 절씨구 자진방아를 돌려라 아하~
에헤요 에히여라 디여라
(뭐꼬? 잊어뿌고 모르겠네.) (조사자 : 자진방아로다.)
자진방아로~다
정월이라 십오일 거무리 장군 긴코메기 앵메기⁵⁶⁾ 형님 떴다 아하~
(아이제?)
에헤요 에히여라 디야 방아로~다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아하~
에헤요 에히여라 방아홍아로다
(이렇다 그지요?) (조사자 : 예예.)
삼월이라 삼짇날 제비새끼 명바구리⁵⁷⁾ 바람개비가 떴다
에헤라 디여~ 에헤요 에히여라 방아홍아로~다
사월이라 초파일 가는말의 입
(글나 맞나?) (조사자 : 맞습니다.)
삼인보살 장안사 아가리 병실 잉어등에 등대줄이 떴~다 아하~
에헤요 에히여라 방아홍아로~다
오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영 푸른가지 높다랗게 걸어매고

54) '당태종에'를 이렇게 불렀다.

55) 이도령에.

56) '귀제비'의 전라도 방언. 제비의 일종.

57) 노고지리. 종달새.

동덕종와 늘어진 가지 뱅덕 버선에 두발길 에- 훌쳐 툅툅 차니 낙엽이
뒀다 등실
에헤라 디여 에히요 에히여라 방아 흥아로다~

[기장읍 민요 35]

좌투 타령

최말년(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⁵⁸⁾ 땀앓구나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세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앓앓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은마음
십월단풍에 뚝떨어졌네

[기장읍 민요 36]

모심는 소리

허상금(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이해논에 모를숨겨 금실금실 영화로다

58) 매조에.

우리부모 산수등에이 술을숨어 영화로네

콩당콩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해미넌은 어데가고~이 딸을너를 맬깃던고

이논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갈어 목화따기가 애럽네요⁵⁹⁾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손에들고~이 첩의집에 놀러갔다

[기장읍 민요 37]

플국새 노래

허상금(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마을회관]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호무차 어째살고
부엄부엄

[기장읍 민요 38]

모심는 소리

강무순 (여, 191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⁵⁹⁾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할마이는 어데가고 딸을동제⁶⁰⁾로 시켰던고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저 연기나네
우리의부모는 어디가고 산골넋에널줄을 모르던고

낭창낭창 벼리⁶¹⁾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⁶²⁾
우리도 언제죽어 오빠한번 만나볼꼬

엄마 해다졌다 업은아기 동재갔다
방실방실 웃는애기 못엄어보고 해다졌다

[기장읍 민요 39]

모 찌는 소리

강무순(여, 191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영애영천 초목에 호미손을 놀리소
영애영천 초목에 호미손을 놀리소

[기장읍 민요 40]

쌍가락지 노래

강무순(여, 191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60) 동자(童子).
61) 벼랑의 지역말.
62) 저 오라비야.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뚫가락지
남풍이 디리부니 풍지뜨는 소리로다
천도복숭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시소
남풍이 디리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기장을 민요 41]

이샤기 노래

강무순(여, 191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이바구때바구 강때바구
가마솔에 누룽바구

[기장을 민요 42]

뱃노래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도많고
어야 디여차 어야디야 어기 야차
뱃노래 가잔다

니가잘나 내가잘나 그누가 잘났노
옥중에 내가슴에 내몸이 잘났지
어야 디여차 어야 디야아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기장읍 민요 43]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하늘에라 한성금아 땅을내리 무성금아
이꼬마들이 이도릉아 내딸금이 봉선금아
너와나와 만날적에는
은자를주도 마다하고 금자를주도 마다하고
은자살고 유자낭계⁶³⁾ 저승나비가 울고간다

달가운데 계수나무 동해동쪽을 뺨은가지
한가지는 옥녀주고 또한가지는 선녀주고
선녀옥녀 자는밤에 벽장우살금 열어본다
목도지가 한새벽 목자르다
대장보은장보 드는칼에 요모조못을 비지놓고
막걸리한잔을 먹고나니 마누라생각이 절로난다

[기장읍 민요 44]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솔떼우는 저양반아 임우정⁶⁴⁾ 정떨어진거 못떼워 주느냐
니가잘나서 일생이 되느냐 내눈이 어둡아서 한잠이로다

63) 유자나무.

64) 임의 정.

칠옥칠복판에 술때우는 양반아 임우정 정떨어진거 못띄워 주느냐

[기장읍 민요 45]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번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시어머니 죽으라꼬 축원을 하였더니
친정엄마 죽었다꼬 부고가 왔구나

[기장읍 민요 46]

신세한탄가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번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임이라고 불러보니 대답은 없고요
임은종종이 간곳이 간곳이 없더라
무정하는 깊은자야 소리말고 가거라
아까운 내칭춘이 다 늙어진단다
엄마엄마 울엄마야 나를놓고서 훌어졌다
이왕지사 가는길에 이팔목숨을 갖고가소
저달 뒤에나 별따러 가는데
우리엄마 뒤에는 내가 따라간다
엄마엄마 목이터져라 불리도
우리엄마는 대답한번 없구나 그길로 가셨다네

지도질 복판에 술때우는 저양반아

임우정 정떨어진거 못떼워주느냐

[기장읍 민요 47]

탄로가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이팔청춘아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박대를 마세요
이내이몸도 어제까지 소년인데 백발되기가 아주쉽더라

[기장읍 민요 48]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달가운데 계수나무 동해동쪽을 뺨은가지
한가지는 옥녀주고 또한가지는 선녀주고
선녀옥녀 자는방에 벽장문 살끔열어보니
목자르다 한세배 목자르다
대장부은장부 드는칼에 연못저못을 비지넣고
막걸리한잔을 먹고나니 마누라생각이 절로난다

[기장읍 민요 49]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번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손금결이 굳은절기는⁶⁵⁾ 매맞는다고 흘러가네
이내몸이 굳은마음 낭군님생각이 절로난다

[기장읍 민요 50]

노랫가락

홍경순(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번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임아임아 목이터지도록 불러도
임은간곳없고 모진강풍이 나를속이는다

저달이 뒤에 별따러 가거만은
우리낭군님 뒤에는 내가따라 간단다

[기장읍 민요 51]

모심는 소리

김말복 (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저기가는 저구름에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명창 내들었소 열씨구 좋다
부인부인 이부인아 훑던쟁피 다시훑나

65) 굳은 절개는.

[기장읍 민요 52]

신세한탄가

김말복(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노들강변 비둘기한쌍 푸른콩알을 물어다가
암놈이물어 숫놈주고 숫놈이물어다 암놈주네
암놈수놈 흐르렁소리 늙은과부 한숨이요
젊은과부는 붓짐싼다 아이고답답 내일이야

[기장읍 민요 53]

모심는 소리

손정조(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절레야꽃은 어디가고 석류꽃은 상각간다
만주성요 웃지마소 씨종자바래서⁶⁶⁾ 내가간다

[기장읍 민요 54]

창부타령

손정조(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봄들었네 봄들었네 이강산삼천리 봄들었네

66) 자식두기를 바란다는 말

푸른것은 버들이요 누런것은 황금이라
황금같은 피꼬리는 버들잎으로 날아들고
백설같은 흰나비는 장다리밭으로 날아든다
씨구 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할레라

[기장읍 민요 55]

노랫가락[나비 노래]

손정조(여,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나비야 청산을가자 푸른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들랑 꽃밭에라도 자고가세
그꽃이 푸대접하거든 이밑에앞에라도 자고가자

[기장읍 민요 56]

모심는 소리

이순자(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다

여게꽃고 저게꽃고 주인네양반 거게꽃고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애미넌은 어디로가고 딸을동제로 맏겼던가

[기장읍 민요 57]

쌍가락지 노래

이순자(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널래야 그쳐자야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래야 말소리도 둘일래야
천도복숭 오라버님 거짓말 하지마라
동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기장읍 민요 58]

진주난봉가

이순자(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삼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하늘같은 낭군님이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가는구나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둥빨래 검게씻고
집에라고 돌아오니 기생침을 옆에끼고
권주가를 하는구나 맹주수건 석자수건
목을매어 자는듯이 죽었구나

[기장읍 민요 59]

노랫가락

이순자(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봄부인을 명할소냐 어른인들 명할소냐
이슬맞은 감나무야 너홀로 늙을소냐
나는죽어 강남땅 제비되어 이모바이
기잡아도 날면보고 들면본다

[기장읍 민요 60]

모심는 소리

정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한개 주웠시면 금년과개⁶⁷⁾ 내할꺼러 이~후후후

[기장읍 민요 61]

화투 타령

지순애(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정월속가지 속속든 내마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헌 내마음

⁶⁷⁾ 과거.

사월흑싸리 흐리굽고
오월난초 오는날이
유월목동아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었던 내마음
시월단풍에 쓰러졌다
동지야선달 설한풍에
임이기러워 못살것다

[기장읍 민요 62]

쌍가락지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늦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짚에보니 쳐잘레라
그쳐자애 자는방에 숨소리도 혼란하네
천도복숭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소
동남풍이 들이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샛별같은 저요강을 발채같이 밀치놓고
석자수건을 목에걸고 자는듯이 죽고싶어
내죽거든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비내팔고⁶⁸⁾ 달매팔고 연당앞에 묻어주소
연당꽃이 피거들랑 우리친구 오거들랑
눈물한쌍 흘리주소

68) 비녀 팔고.

[기장을 민요 63]

모심는 소리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방실네방실네 웃는애기 먼데보고 해다졌네 이~후후후후

한강수에 모를심어 금실네금실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이~후후후후

풍당풍당 찰수지배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애미야넌은 어딜가고 딸년을동자를 맏갔던고

해다지고 어떤행상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유배행상⁶⁹⁾ 떠난다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어머니오기만 기다린다 이~후후후

어른은 죽어서 *o o*이되고 나는죽어 쟁피되어
오월이라는 단옷물에 머리아감을때 만나보자

69) 행상(行喪).

[기장읍 민요 64]

노랫가락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백구야 훨훨날지마라 널쫓아 내안간다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넉넉하다

[기장읍 민요 65]

모심는 소리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높은산 큰산밑에 주초⁷⁰⁾캐는 저처녀야
너의집은 어디나두고 해다진데 주초캐노
이내야집을 찾을라하면
높은산 큰산밑에 초가산간이 내집이요
오실려면 오시웁고 가실려면 가십소서

[기장읍 민요 66]

아기 재우는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70) 지초(之草)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새는새는 낭게자고
쥐는쥐는 궁게자고
미꾸라지 뺨에자고
붕어새끼는 물에자고
따깨비는 돌에자고
어제오는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서 잠을잔다

[기장읍 민요 67]

화투 타령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지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날아들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아서
푸른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오동추에 달이밝아
임의모생각이 절로나네

[기장읍 민요 68]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혀서리
옥도끼를 찍어내고
금도끼를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친부모님 모셔놓고
천년만년 살고지라

[기장읍 민요 69]

친구 이별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악수동방 같이놀던 나의친구야
변치말고 잘있거라 갔다오리라
태산이 무너져서 강이되어도
이내마음 꿈이라도 변치않는다
봄바람이 불거들랑 또다시만나
손목잡고 노던친구 또 만남시다

[기장읍 민요 70]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둥게둥게 둥천아
언뚜렁밑에는 방천아
삿갓밑에는 그늘아
불탄집에는 하건새
오두막집에는 썩은새
넘의자식은 양재요
이쁜자식은 소자요
둥게둥게 둥천아
못다보고 해다졌네
금자동아 옥자동아
칠개산중 보배동아
나랏님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둥실둥실 둥천아
높은강에는 한가지
낮은강에는 전가지
둥게둥게 둥천아

[기장읍 민요 71]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자는데는
멍멍개도 짖지말고
꼬꼬닭도 우지마라

[기장읍 민요 72]

창부타령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아니 아니 노지를 못하노라
이팔청춘아 소년들아 백발노인을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년들아니 늙을소냐
저언뜻 늙은것이 한심하고도 슬프도다
소원없이 오는백발 저밑에 임박하고
열씨구 열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를 못살겠네

[기장읍 민요 73]

모 찌는 소리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밀치라 닥치라 당송당송 다마지기

[기장읍 민요 74]

모심는 소리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낭창낭창 베루끝에 시누부올케가 떠나가네
야속하다 우리오라버니 나도죽어서 하성⁷¹⁾해서
정든님생각을 나도할래
나도죽어 남자되어 우리러보고 살래

[기장읍 민요 75]

시집살이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실금실금 시누부야 시집살이가 어땡드노
도리도리 도리판⁷²⁾에 수제⁷³⁾놓기가 어렵더라
실금실금 시누부야 동해동산 해돋는다
동해동산 돌는해가

[기장읍 민요 76]

아리랑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71) 환생(還生).

72) 두리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둘러 앉아 먹을 수 있도록 크고 둥글게 만든 상.

73)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우르는 말.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춘자가 보리쌀을 씻다가
돌하루⁷⁴⁾ 방구소리에 오줌을쌌네
오줌을 싸면은 작게나쌌나
대동강 청강나무에 홍수가터졌네

니가죽고 내가살면 열매가나나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죽자
한강수 깊은물에 빠질라하니
안하던 눈물이 저리절로난다

[기장읍 민요 77]

산타령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산아산아 솟은산아 사랑하는 우리산아
옷입어라 옷입어라 비단떼기 옷입어라
초록나무 옷입어라 산아산아 솟은산아
사랑하는 우리산아 니아무리 귀한들
내나무만 하오리카

74) 돌로 만든 화(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기장을 민요 78]

파랑새요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앓지마라
녹두꽃이 끓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기장을 민요 79]

반편 딸 노래

강영열(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옛날에 옛날에 반편엄마 살았네
옛날에 옛날에 반편아버지 살았네
두리둥실 살다가 자식하나 낳았네
이름지을게 없어서 뽕아라고 지었네
뽕아야 뽕아야 왜반편이 되었노
반편부모 만나서 반편딸이 되었다

[기장을 민요 80]

모심는 소리

정옥봉(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해발놈해발놈 꼬장주바지 알궁디⁷⁵⁾에시럽아⁷⁶⁾ 못살겠네
덮어주소 덮어주소 한삼소매로 덮어주소 이 후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수자⁷⁷⁾가 울고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오네

[기장읍 민요 81]

다리 세는 소리

공을갑(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래춤치⁷⁸⁾ 장두칼⁷⁹⁾
서울양반 두양반
까마구 까 양지 범
범 소래기 좇이 뺑
꽤 [일동 웃음]

[기장읍 민요 82]

모심는 소리

김순금(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75) 알궁둥이의 지역말. 벌거벗은 궁둥이를 말함.

76) 시려서.

77) 수자(豎子). 미숙자를 말함.

78) 도래매듭으로 만든 주머니.

79) 장도 칼.

낭창낭창 베루끝에⁸⁰⁾ 무정하다 울오랍아⁸¹⁾
나도죽어 화승해서⁸²⁾ 남자몸이 되어
(되어볼까가 뭣이고?) (청중 : “우리낭군 찾아갈래” 이래 아이가?)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내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 [청중(이말명)이 함께 부르며] 전복 손에들고 기생집에 놀러갔네
(첩의집에 놀러갔네다.) (청중 : 첩의 집인가?) (첩의 집이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하나 주았이몬⁸³⁾ 금년과게 내할구로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⁸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댁죽어 유별행상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집집마다 연기나네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기넬줄 모르던가 이후후후후

[기장읍 민요 83]

애원애기 노래

김순금(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시어마니 나무래는
이말듣기 어려워서

80) 벼랑 끝에.

81) 우리 오빠야.

82) 환생하여.

83) 주웠으면.

84) 웬 행상.

하나적에⁸⁵⁾ 첫새복에⁸⁶⁾
 일어나서 싸리도장⁸⁷⁾
 내려가서 찰쌀닷말 뭉쌀닷말
 흘닷말을 내여다가
 가매솔에 헤어놓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낭게앉은⁸⁸⁾ 새두바리 잡아가서
 가매솔에 묶아가주
 열두반상 갈라놓고
 큰방에라 들어가서
 시금시금 시아바씨
 그만자고 일어나서
 은대에다⁸⁹⁾ 세수하고
 맹지수건 닦을뒹고
 아적지나⁹⁰⁾ 자시보소⁹¹⁾
 시금시금 시아마시
 그만자고 일어나서
 은대에다 세수하고
 맹지수건 닦을뒹고
 아적지나 자서보소
 못방에라⁹²⁾ 들어가서
 (신랑을 갖다가 대롱님이라 카대.)
 대롱임요⁹³⁾ 대롱임요
 그만자고 일어나서

85) '어릴 적에'의 뜻인 듯함.

86) 첫 새벽에.

87) 쌀을 넣어둔 도장에,

88) 나무에 앉은.

89) 은색 대야에다.

90) 아침이나.

91) 잡수시오.

92) '못방'은 '모방'의 잘못. 안방의 한 모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방.

93) 도련님요. 여기서는 남편을 지칭하는 말임.

은대에다 세수하고
맹지수건 닦을뒹고
아적지나 자시보소
사랑방에 내려가서
일꾼들아 일꾼들아
그만자고 일어나서
개도랑에 닦을씻고
오시랴에⁹⁴⁾ 닦을뒹고
아적이나 묵고
일하러 가라
소문났네 소문났네
일잘한다고 소문났네
편지왔네 편지왔네
저승에서 편지왔네
일잘한다고 편지왔네
큰방에라 들어가서
시금시금 시아마시
내대신을 가실랑교
소뿔도 목매기고⁹⁵⁾
염불도 각각인데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니대신은 왜내가가야

(이라더랴요.) (조사자 : 아무도 대신 안 가가지고.) (그래가 신랑으로 가라
캬어.)

대롱님요 대롱님요
내대신을 가실랑교

(그래 내 대신을, 니 대신을 내가 가께. 니가 살림 살아라 이라더랴요.
그래가 있는데, 저승에서, 저승에 가이 못 오라 하더랴요. 그래 쫓겨 왔

94) 오지랴에. 오지랴은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함.

95) 목매기송아지인데. 아직 코뚜레를 꿰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인데.

어. 쫓겨 와가지고, 저승에서 안 된다고 잡으러 왔어. 잡으러 오이, 그래
인자 숨을 데가 없어서 뒷 대밭에 가가 숨었어. 그래.)

시금시금 시누부야

앞대밭에 가거들랑 없다카고

뒷대밭에 가거들랑

(없다 캐라 했는데, 그래 시누부가.)

앞대밭에 가고 없거들랑

(뒷대밭에 가보라 카더란다. 갈차줘서 저승에서 마 잡아갔어요. 저거 저
승에서 잡아갔어. 그래 저승에서 잡아가가지고 참, 너무 오래되고 잊어뿌
고 모르겠다. 저승에서 잡아가가지고 그래 참 마 너무 좋은 일 했다고
도로 보내더러요. 보내고 그래 무슨 줄로 놔가지고 이래 고것 타고 가라
카디, 줄로 타고 가다가 마 널찌가 깨이 꿈이더란다. 그래가 살아났다 이
라대. 거 애원애기 이바구라.)

[기장읍 민요 84]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순금(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가

우리아가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기장읍 민요 85]

비야비야 소지마라[비 노래]

김순금(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세이⁹⁶⁾ 시집간다
가매문에 내리치몬
다홍치마 어렁진다⁹⁷⁾

[기장읍 민요 86]

꽤지나 칭칭나네

안계로(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꽤지나 칭칭나네
이것저것 있어도 꽤지나 칭칭나네
잡눔 머시마 오도 꽤지나 칭칭나네
엽전 동전 없어도 꽤지나 칭칭나네
신랑 신부 없어도 좋다 꽤지나 칭칭나네
어던 잡눔이동 꽤지나 칭칭나네

[기장읍 민요 87]

모 찌는 소리

이말명(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96) 우리 형. ‘세이’는 형의 방언.

97) 얼룩진다.

밀치라 닥치라 호미손도 놀리라
줄우자 줄우자 이뭇자리를 줄우자

한강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조사자 : 안자 받는소리. 하늘에다, 하늘에다 목화 심어.) (하늘 뭐꼬?)
(청중 : 하늘에다 목화심어.) ([기억이 나서] 목화따기 난감하다.)
하늘에 목화심어 목화따기 난감하네 [웃음]
(조사자 : 이후후후 해야지요.) 이후후후후.

[기장읍 민요 88]

모심는 소리

이말명(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0일 채록

[만화리 동서마을 동서마을여자 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⁹⁸⁾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년을 맏겼던고 아이가.) (조사자 : 다시 해보이소.)
딸년을 맏겼던가⁹⁹⁾ [웃음]

초랑초랑 영사초랑¹⁰⁰⁾ 임의방에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눕고 저불끝이가 누가있노

[기장읍 민요 89]

망개 소리

노순영(여, 1927년 생) 가창

98) 찰수제비.

99) 맏겼던가.

100) 초롱 초롱 청사초롱.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조사자 : 옛날에 못 막을 때.) (못 막을 때 여럿이가 했거던요. 너것도
좀 여럿이가 해라. 다 같이.) (조사자 : 그래 생각나는 대로.) (다 잊아뿌
고 아나.)

천개 망개는 공중에 놀고 에이여라 차어여~
(이래 우리 이랬거든요.) (조사자 : 공중에 놀고. 또. 할매 그 노랫가락이
살아 있네요.)
천개 망개는 공중에 놀고 (또 뭐?)
땅에 망개는 또 천개 망개다 에이여라 자어여
(이랬거던 우리가 그때.)

[기장읍 민요 90]

모 찌는 소리

노순영(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한강에다이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 후 후 후 후

[기장읍 민요 91]

모심는 소리

노순영(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화성할래¹⁰¹⁾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화성할래 이후후후후
(다 잊어뵈다.)

이물기 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¹⁰²⁾ 대전복 손에들고이 첩의야 방에 놀러갔네 이후후후후

풍당풍당 찰수지비¹⁰³⁾ 사오야판에¹⁰⁴⁾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더로가고이¹⁰⁵⁾ 딸동자를 맡겼더노 이후후- [웃음]

해가지고 저문날에 어떤한량이 올고가노
이태백이 본택죽고 유별행상이¹⁰⁶⁾ 떠나가요 이후후후후

절레꽃은 시집가고 석류꽃은 상각가고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를¹⁰⁷⁾ 바라본다 이후후후후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들기 알을놓아
그알한개 조았시믄¹⁰⁸⁾ 금년과게를 내할구로 이후후후후

[기장읍 민요 92]

창부타령

노순영(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101) ‘화성하다’는 길러서 자라게 하다는 뜻임.
102) 문어야.
103) 찰수제비.
104) 사위 판(또는 상)에.
105) 어디로 가고.
106) 이별 행상이.
107) 씨종자를.
108) 주웠으면.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할레라
아니 소지는 못할레라
일본 가가 오늘 했디 삼년만에 징병났네
기장읍에 열십차타고 부산 삼팔수 도착했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요로키 좋다가는 아들 놓겠다

[기장읍 민요 93]

창부타령

이정수(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포름포름 봄배추는 참이슬 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대룡¹⁰⁹⁾ 오도록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요로کم 좋으면은 딸 놓는다

[기장읍 민요 94]

노랫가락

이정수(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치부다보니¹¹⁰⁾ 난가지요 내부다보니¹¹¹⁾ 술판이네
술판 옆에 앉았는 각시 임도 같고 꽃도 같네
임이거든 변치를 말고 꽃이거든 지지마소

109) 이도령.

110) 쳐다보니.

111) 내다보니.

[기장읍 민요 95]

모심는 소리

김분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이논에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오늘해가 이만되면 산골마중 연기나리
우리님은 어디가고 연개넬줄¹¹²⁾ 모르던공

[기장읍 민요 96]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김분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차는¹¹³⁾ 밤이실¹¹⁴⁾ 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대룡 오기만 기다리네

[기장읍 민요 97]

다리 세는 소리

최상연(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112) 연기 낼 줄.
113) 봄배추는.
114) 밤이슬.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웃으며] 동사맹고 도맹고
주리주리 장독간
끓대 열시
까마구 까까 연지방
범 사춘¹¹⁵⁾ 노리야¹¹⁶⁾
빵구 [웃으면서] 똥 대끈 [일동 웃음]

[기장읍 민요 98]

창부타령

안길태(남,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신천리 신천마을 마을회관]

바람앞에 잘날없고 풀속에 우는새는
수심이 듣자고하니 관계할바가 없건만은
*○*한테 소래소래가 수경이라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일천가지 가진설움 부모님 생각뿐이더라

[기장읍 민요 99]

모심는 소리

정잠술(여, 192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115) 사춘.
116) 노루야.

[신천리 신천마을 정잠술씨 덕]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의집을 갔더란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며늘넌은 어데가고 딸넌한테 맡겼더노

[기장읍 민요 100]

쌍가락지 노래

정잠술(여, 192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7일 채록

[신천리 신천마을 정잠술씨 덕]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늦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야 잘해보니 처잘레라

[기장읍 민요 101]

용왕 풀이

김문연(여, 195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연화리 신암마을 해녀 아지매식당]

어짜든지 꼭꼭쫓아라 용왕님네요
어짜든지 미역많이줄라고 꼭꼭쫓아라
쫓아라 천물이나도록 쫓아라
검은물은 나가고 천물아 들어와라

동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사천왕 용왕대신님네요
구정물은 나가고 천물아 들어와라

[기장읍 민요 102]

가래질 소리

김문연(여, 195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5일 채록
[연화리 신암마을 해녀 아지매식당]

어기나 여차
어기나 여차
어기나 여차
잘도 턴다
어기나 여차

[기장읍 민요 103]

모심는 소리

김명조(남,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댁]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예와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기장읍 민요 104]

모심는 소리

정귀순(여, 194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마을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가고 저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년을 맏겼던가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이 떠나간다
우리의부모는 어디가고 연개¹¹⁷⁾도 안오르는고

[기장을 민요 105]

쌍가락지 노래

정명선(여, 1922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정명선씨 댁]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짚에보니 처잘레라
그쳐자야 자는방에 숨소리야 둘일레야

[기장을 민요 106]

모심는 소리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117) 연기의 지역말.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 연기나네
우리부모 어디가고 연기넬줄 모르더노

[기장읍 민요 107]

시집살이 노래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시금시금 시누부야 시집살이 어땡더노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수박겉은 낫주바리에 밥담기도 어렵더라
오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오리돌방 수박깨어 박다기도 어렵더라

[기장읍 민요 108]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우리애기 잠잘잔다
자장자장
칠이층 복화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잖애 효자동아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잘잔다

[기장읍 민요 109]

모심는 소리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대전복 에와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다

쟁피훅는 저큰아가 뜯사람팔자 훅던쟁피로 다시훅노
이내팔자 기박해요 한림학사

헤불랑헤불랑 꼬장구바지¹¹⁸⁾ 열두가지 입었건만
알궁디속속 나오더라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넌을 맬깃던고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도록 기다린데
옥에간힌 춘향아몸은 이대롱오도록 기다린다

수군수군 방패수군 수군기가 떨어지면
임의정도 떨어진다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심참이 늦어오네
서울배추 시락¹¹⁹⁾나물 맛본다고 늦어온다

118) 고쟁이의 지역말로 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을 말함.

119) 시락이, 무청이나 배추 잎 말린 것을 말하는 시래기의 옛말.

[기장읍 민요 110]

사발가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퐁퐁 나건만은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짐도 아니난다

[기장읍 민요 111]

사랑가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우리야 연애는 솔방구연앤데
바람만 불어도 똑떨어진다

[기장읍 민요 112]

아기 어르는 노래

이동희(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불매야 불매야
불매딱딱 불매야
김도령이 지왔나
이대목이 지왔나

박대목이 지았나

[기장읍 민요 113]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정동선(여, 194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두호마을 두호마을경로당]

보고싶어 보고싶어 참외를 묵았는가
참참이도 보고싶고
보고싶어 보고싶어 물회를 묵았는가
물물이도 보고싶고
보고싶어 보고싶어 달피기¹²⁰⁾를 묵았는가
달달이도 보고싶고
보고싶어 보고싶어 소고기를 묵았는가
속속들이 보고싶고

[기장읍 민요 114]

모심는 소리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농사법은 있다하마는 신농씨는 어디가노
고래대궐 언제라꼬 신농씨가 있단말고

120) 닭고기.

[기장읍 민요 115]

모 찌는 소리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한강에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 모케¹²¹⁾갈아 모케따기 난감하네

[기장읍 민요 116]

모심는 소리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머리 좋고 수단처녀 올뽕낭개¹²²⁾ 앓아우네
올뽕돌뽕 내따주마 살림살이 내카살자

사공씨여 이배돌리소 우리동생 보러가자
(인자 동생이가 절도섬으로 죄를 짓고 귀양을 갔단 말이니 옛날에. 그래
가지고.)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귀양갔노.

[기장읍 민요 117]

쌍가락지 노래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121) 목화의 지역말.

122) 올뽕나무, 올뽕은 잎이 빨리 피는 뽕나무를 말함.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에보이¹²³⁾ 처잘레라
저처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혼란하다
청도복상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으시오
동남풍이 디리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기장읍 민요 118]

시집살이 노래[부모부음쇼]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가라가라 매물가라 이등저등 매물가라
태는보니 붉은데요 잎은보니 푸를레라
꽃은보니 흰꽃이요 열매는 검은열매
단단히 비어다가 칭칭히 묶었구나
앞마당에 꼬인어라
(옛날에 쇠도리깨가 난장 때린다.)
쇠도리깨 난장마차 얼석털석 떨어볼라
뒷강물에 씻거다가 앞강물에 헤아서로
쇠방간에 벼락¹²⁴⁾마차 국을얹히 더디놓고
큰방에 아버님요 일어나서 국줍이나 하옵시다
쫓그만헌 제피방¹²⁵⁾에 칼날같은 시누부야
너거문에 해돋았다 밥을먹고 일을가자

123) 곁에서 보니.
124) 벼락의 지역말.
125) 쫓그만 방.

오전방에 머슴들아 너거머리에 해돋았다
 밥을먹고 일을가자
 첫닭울아 밥해먹고 두해울아 신발하고
 한손에 수건들고 한손에 호미들고
 골골이 짙은밭을 한골매고 두골매니
 부고왔네 부고왔네 부고는 무슨부고
 어머니 죽은부고로다
 그소리 그리듣고 땡기끌라 낭게걸고¹²⁶⁾
 (그때는 상주가 되면 머리 풀아 산발한다 아이가?)
 땡기끌라 낭게걸고
 (인자, 엄마 상봉하러 간다.)
 한고개 올라가니 곡소리가 진동하고
 두고개 올라가니 행상이 떠나온다
 삼세고개 올라서서 사촌에도 못오르바
 육촌에도 못오르바 엄마얼굴 비아주소
 (그때 인자 행상이 떠나가는데. 인자 미차 몬 가가이고 사흘날 가는 길
 로 하루 반 만에 내가 당도를 했으니까.)
 엄마얼굴 비아주소 에라이년 물러가라
 엄마얼굴을 볼라더면 어제아리¹²⁷⁾ 못오더나
 사촌에 못오르바 육촌에 못오르바
 사흘날 가는길을 하루반에 내왔심더
 (이러니께네, 그래 엄마 얼굴을 몬 보고.)
 우리엄마 자던방에 앓아삼년 쉬어삼년
 석삼년 울고나니 베개너매 강이로다
 (그래가 인자.)
 베개너매 강이되어 오리한쌍 기우한쌍¹²⁸⁾
 쌍쌍이 떠돈다 얄밋다 이기우야
 대동강은 어디두고 눈물강에 니들어노

126) 땡기 끌러서 나무에 걸고.

127) 옛그저께의 지역말

128) 거위 한 쌍.

대동강은 있건마는 정이달라 떠들온다
(엄마 혼이라. 엄마가 인자, 산 적에 못 보고 죽아가지고, 그기 원혼이
돼가이고. 어마이 자던 방에 석삼년 울고나이 배개 너매 강이 돼가, 눈물
강이 돼가이고. 오리가 쌍쌍이 세 바리가 떠들어온다. 그기 인자 끝이
다.)

[기장읍 민요 119]

시집살이 노래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에구애야 말말어라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애럽더라
쫄꼬만한 웅당샘이 물퍼기도 애럽구나
아랫도리벗은 시아주바이 말하기도 애럽도다

[기장읍 민요 120]

화투 타령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데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지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날아들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았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기장읍 민요 121]

창부타령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오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놀고서 무엇할까

[기장읍 민요 122]

담배 타령[담바구 타령]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 담바구야
너거국이 좋다해도 대한민국을 내나왔네
한때는 앞동산홀고 또한때는 뒷동산에 홀여서
낮이되면 실안개 베자찌우고
밤이되면 밤이슬맞고 고이곱게 잘길러서
이잎저잎을 제치놓고 그중에속잎을 똑따다가
편수목수 드는칼에 어석자적 빠져다가

어른은쌈지는 한쌈지 도린님쌈지는 두쌈지
풍로화로에 불떠놓고 김해간죽에 길기매여
한때를 쫓고나니 도련님입안에 실안개돌고
두때를 쫓고나니 천지일월이 빙빙돌고
삼세때 거듭푸니¹²⁹⁾ 용마가뛰고
(마 날거든.)

[기장읍 민요 123]

청춘가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청천 하늘에요 잔별도 많고요
우리내 가슴속에 수심도 많구나

치부다 부어라 히꼬끼¹³⁰⁾ 떴구나
내비다보니 가석거리 가구나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는 내가슴 풀린다

세월아 봄한철아 가고오지를 말어라
아깍은 이내청춘 다늙어 가는구나

[기장읍 민요 124]

진주난봉가

129) 거듭 피우니.

130) 비행기(ひこうき).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마씨 하는말씀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을 내다보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오동통 뚜드리니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 껌게씻거
집이라꼬 돌아오니

(그 인자, 신랑이가 서울 과게로 갔다 아이가? 갔는데, 이전에는 차가 없
고 말을 타고 과게를 갔는데, 과게를 해가이고 온다 아이가. 그래 그 며
늘아가 빨래로 그때 고서 씻거싸이.)

말을타고 철꺼득철꺼득 잘도간다

(며늘아기는 그것 보고.)

흰빨래 희게씻고 검은빨래는 껌게나씻가
집이라꼬 돌아오니 기생의첩은 옆에다두고
열두가지 술을부아 권주하면서 노는구나
며늘아기는 그것보고 목방을 들어가서
비상불을 피어놓고 자는듯이 죽었구나
시어마씨 하는말씀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기생의첩으는 삼년이요 본처는 백년인데
황천의 길이가 웬말인가

(며늘아가 그 질로 고래 딱 인자, 신랑이가 서울에서 과게를 해가지고
기생첩으로, 말을 타고 오가이고 저저 방에서 막 술 먹고 춤추고 놀아싸
니까네, 그래 본처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 방에 들어 가가이고, 비상불
로 키어놓고 자는 듯이 죽었다 안하나. 그래 기생의 첩은 삼년이요 본처
는 백년인데 니가 왜 그리 죽었노? 이라면서 시어마이가 울더란다. 고렝
다.)

[기장읍 민요 125]

모심는 소리

김금지(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죽성리 월전마을 월전마을경로당]

능청능청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렵이
나도죽아 남자되어 처제부터 생각할래

서울이라 이금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놓아
그알한개 주웠시면 금년과게로 내할꺼로 이~후후후후

[기장읍 민요 126]

모심는 소리

정옥숙(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의야집으로 놀러갔다 이~후후후후

2) 일광면 민요

[일광면 민요 1]

다리 세는 소리

김묘숙(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이거리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춤치 장독간

신째기¹⁾ 열두나

까마구 깍

서씨야 노

구리야 똥

때이

[일광면 민요 2]

모심는 소리

김묘숙(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수자가 울고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에 떠나간다 이~후후후후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심참이 늦아온다

1) 신밭의 지역말.

서울배추 시락나물 맛본다고 더디온다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이~후후후후

배꽃일세 배꽃일세 천년수분에 배꽃일세
배꽃같은 수부나밑에 거울같은 눈매보소
누구간장을 녹힐라고 저러콤저러콤 잘생겼노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동장 맷갠던고

[일광면 민요 3]

모 찌는 소리

김묘숙(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밑치라 닥치라 호매손이나 놀리소
영천여목 초목에 호매손이나 놀리자

쪼르자 쪼르자 이모자리를 쪼르자

[일광면 민요 4]

창부타령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뱅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일광면 민요 5]

꿈 노래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꿈아 무정한꿈아 날과무슨 원수로길래
오는님은 붙들어놓고 잠든나를 깨워주지
칠월춘철 싹을짜느냐 앓았드냐 누웠든가
니가곱게도 지쳤구나
지척도 하천리가되어 나른하기 가이없고
까막까치가 흠어졌더니 건너갈길이 가이없네
북풍한년이 찌고 못잊어서 한이로다

[일광면 민요 6]

창부타령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한송이 떨어진꽃이 낙화가진다고 설워말아
한번피었다 지는줄을 나도변연히 알면서도
모진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전에 내버리니
그흐림도 쓰라린것은 무심코 밟고가니

진들아니 슬프소냐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아파서 못살겠네
오호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의백년이 꿈이로다

[일광면 민요 7]

시집살이 노래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시금시금 시누부야 시집살이가 어떻더노
쫓고만한 도리판에 수제농기가 어렵더라

[일광면 민요 8]

베 짜기 노래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베틀을놓세 베틀을놓세 옥난간에다 베틀놓세
낮에짜면은 일광단이오 밤에짜면은 월광단이오
일광단월광단 다짜나놓고 낭군님수발이나 하여보세

[일광면 민요 9]

모심는 소리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녹수청산에 맑은물에 상추씻는 아가씨야
속에속잎 씻어다가 누를줄라고 치마폭밑에다 감췄느냐
속에속잎는 남주나따나 마음만큼은 날로줄라

황해도원산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저처녀야
너희집은 어데다두고 해다진데 주추캐노
이내집을 알라커거들랑 구월산 안개속에
초가삼간이 내집이다

[일광면 민요 10]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추천당 세모시낭게 낭락끝에다 추천줄매고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매지말어라 줄떨아지면은 정떨아진다

[일광면 민요 11]

아리랑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오동나무 열매는 왈각딸각하구요
큰애기 젓통은 봉실봉실하다

[일광면 민요 12]

태평가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추가월색 달밝은밤에 사로돈으라 이내목에
어두침침 빈방안에 외로이도 홀로누워
밤은겹겹 야심한데 진불안성²⁾ 잠못들고
몸부림에 시달리어 꼬끼오답은 울었건만
오늘또한 뜬눈으로 새벽맛이를 알렸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일광면 민요 13]

좌투 타령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정월이라 속속한 내마음

2) 좌불안석(坐不安席).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사되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임찾아가다가 비만났네

[일광면 민요 14]

달거리 노래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정월이라 대보름날은 복조래장수가 복조래사라고
애원하네
여보시오 복조래장수요 임견진절에는 아니파요
임견진절을 판다면은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따라서가고
가다가 가다가 내말라 죽으면
혼백에넋 이라도 따라가지
칠월이라 칠석날은 건우직녀가 일번에한분씩
하소연하러 만대건만
우런님은 어데로가고 일년에한번도 왜뭇오나
이월이라 한식일은 사토에날이가 지아닌가
(이월 달에는 청명한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토를 많이 하거든.)

삼월이라 삼진날은 강남에갔던 옛제비도
옛집을찾아서 지오건만
우리님은 어데로가고 집찾아올줄을 왜모르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관등날이거든. 등다는 날인데.)
앞집에도 관등을달고 뒷집에도 관등달고
우리님은 어데로가고 관등달줄을 왜모르나
오월이라 단오일은 춘천하절이 지아닌가
유월이라 유두일은 유두명절이 지아닌가
팔월이라 한가위일은 추수의명절이가 지아닌가
구월이라 구일날은 온갖벌레가 지집을찾아서
다드가는데
우리야부모님 어데로가고 집찾아올줄을 왜모르나
시월이라 대보름날은 달맞이명절이가 지아닌가

[일광면 민요 15]

축원

김수열(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비나니다 비나니다 부처님전에 비나니다
금년게 해우년으는 임진년 해운에
남을가나 동을가나 서로가나 북을가나
동서남북을 다닐지라도
님의눈에 꽃이되고 님의눈에 잎이되고
가는데마주
상투끝에 봉기쑈고 봉기끝에 흥기쑈고
웃음소리 꽃이피고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일광면 민요 16]

모심는 소리

김수이(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담상담상 닷마지기 일천섬이 쏟아주소
니가무슨 황제라고³⁾ 일천섬이 쏟아지노

[일광면 민요 17]

모 찌는 소리

김수이(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0일 채록

[신평리 신평마을 신평마을경로당]

조르자 조르자 각기장판을 조르자
이뭇자리도 조르자

[일광면 민요 18]

모 찌는 소리

김정자(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한강에에 모를부아 찌내기도 난감하다
(또 받으소.) (조사자 : 하늘에다 목화 심고.) ([옆 사람에게] 니가 해라.)
하늘에다 목화심어 따내기도 난감하다 이후후후

3) 황제라고.

쫓루자⁴⁾ 쫓루자 이뭇자리를 쫓루자
쫓루자 쫓루자 영감상투를 쫓루자

[일광면 민요 19]

모심는 소리

김정자(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⁵⁾ 늦어온다
이날이어 시금초야⁶⁾ 맛본다고 더디오나⁷⁾ 히후후후

머리아 좋고 실한처녀 ○한 고개로 넘나든다
울뽕달뽕 내따주마 살림살이를 내강살자⁸⁾ [웃음]

해다지고 저문날이 어떠나행상이 떠나가노
(뭐꼬?) (조사자 : 이태백이.)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초롱초롱 영사초롱 임의방에다 불밝혀라
너도놓고 나도놓고 저불끝이가 누가있노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야넌은 어데가고 딸넌으로 맬깃더노⁹⁾

4) 조이자 또는 죄자. '조이다'(준말 죄다)는 공간이 좁아지도록 하다 또는 느슨한 것을 단단하게 하다의 뜻임.

5) 점심 참이.

6) 시금치야.

7) 더디게 오느냐.

8) 나하고 살자.

낭창낭창 베리끝에¹⁰⁾ 무정하다 울오라바
나도야죽어 남자되어 마늘님부터¹¹⁾ 구할라네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네야전복을 에와들고 첩의야집으로 놀러갔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야
그알한되 주었이면 금년과게 내할구로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숨가 정자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기나고
우리야임은 어디가고 연기낼줄로 모르던고

여게뽑고 저게뽑고 주인네 부뜰¹²⁾ 주인네 양반에
(무딘이.¹³⁾ 주인네 북두덤¹⁴⁾에 뽑아보자 이라더라 카네.)

[일광면 민요 20]

사가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김정자(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9) 말겼더냐.

10) 벼랑 끝에.

11) 마누라부터.

12) 부뚜막이거나 축담의 뜻인 듯함.

13) '무딘이'는 언덕의 방언.

14) '부뜰'과 같이 부뚜막이거나 축담의 뜻인 듯하나 정확하지 않다.

알강달강 서울래기
밤한톨을 주와다가
껍데기는 아버지 주고
보네는¹⁵⁾ 엄마주고
알갱이는¹⁶⁾ 니캉내캉¹⁷⁾ 갈라먹자
우리 알강달강
우는 애기 잘도자라

[일광면 민요 21]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김정자(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비야비야 오지를마라
우리언니 시집가는데
(우리, 머꼬?)

가매문에는 비들치고
흥이치마 어룽지면¹⁸⁾
우리아저씨 머리한다¹⁹⁾

[일광면 민요 22]

다리 세는 소리

15) '보네'는 '보늬'의 방언. 속껍질.
16) 알맹이는.
17) 너하고 나하고.
18) 흥치마 얼룩지면.
19) 뭐라고 한다. 즉, 나무란다.

유봉님(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춤치 장돗간
서울양반 두 양반
진주댁이 열 석냥
까마구 까

[일광면 민요 23]

쌍가락지 노래

유봉님(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잘에보니²⁰⁾ 처잘레라
그쳐너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레라
청도복숭 오라배요²¹⁾ 거죽말씀 하지마소
남풍이 디리불어²²⁾ 풍지떠는²³⁾ 소릴레라
(애민 소리²⁴⁾ 하지 마라.)

[일광면 민요 24]

모심는 소리

20) 곁에 보니. 가깝게 보니.
21) 오라버지요.
22) 세게 불어.
23) 문풍지 떠는.
24) 억울하게 덮어씌우는 소리.

정영자(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모시아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야보면 병날기고²⁵⁾ 좁쌀만타만²⁶⁾ 보고가소

[일광면 민요 25]

모심는 소리

문임순(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 연기나네
우리야부모 어데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던가 이후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이후후

[일광면 민요 26]

다리 세는 소리

문임순(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25) 병이 날 것이고.
26) 좁쌀만큼만.

동사맹근 도맹근
도래중치 장득간

[일광면 민요 27]

모심는 소리

신순이(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리갔네 이후후후후

서월²⁷⁾뱌싹 시랑나물 맛본다고 더디온다
서월이라 남정자에 점섬참이 늦어온다

서월뱌싹 시랑나물 이맛본다고 더디온나 이후후후후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²⁸⁾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로 난감하네 이후후후후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관에 나온다네
에미년은 어데로가고 딸이연을²⁹⁾ 땀깃던고

남창남창 베를끝에³⁰⁾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는언제 죽어지서 남자몸이 되여보노 이후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수자가 울고가노

27) 서울.

28) 난감하네.

29) 딸년을.

30) 벼랑 끝에.

부모형제 이별하고 갈곳이없어 울고간다 이 후 후 후 후

초롱초롱 영사초롱 임의야방에 불밝혀라
임도높고 나도높고 저불끝이가 누있으리 이 후 후 후 후

[일광면 민요 28]

다리 세는 소리

신순이(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충을 박기 독 받구
연지통에 음메메
안 템 포

[일광면 민요 29]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신순이(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³¹⁾ 비들온다
소주뱅이 떠내간다³²⁾

31) 가마 문에.

32) 소주병이 떠내려간다.

[일광면 민요 30]

창부타령

신순이(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경로당]

얼씨구나 저얼씨구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나물먹고 물을마시고 밭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보³³⁾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넉넉하다
일이삼사도 모르는 년이 아애들 말자 눈썹은 내그리노
기억자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조등치³⁴⁾ 빨간거 왜칠하노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나 놀지를 못하리라

[일광면 민요 31]

모심는 소리

권태열(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이물끼저물끼 헐아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오늘해가 요만되면 골목골목 연기가나지
우런님은 어데가고 연개넬줄 모르던고

더풀더풀 더풀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33) 대장부.

34) 주둥이. 즉 입술.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나는간다

[일광면 민요 32]

모심는 소리

김성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임의정도 좋지만은 잘에동생 나여두고
먼데올케 건지주나 나도죽어 화성하여
남자되어 낭군님부터 생각할래

[일광면 민요 33]

모심는 소리

오쌍금(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평실평실 가는처녀
모시적삼 해치입고 분통같은 저젓봐라
많이보면은 뱅이들고 쌀날마치만 보고가소

낭기죽어 고목이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고
우리인생도 죽어지른 오던임도 아니온다

[일광면 민요 34]

권주가

오쌍금(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잡으나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그술이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동백술이오

[일광면 민요 35]

사기 어르는 노래

이석남(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어데불무고
경상도 대불매다

[일광면 민요 36]

사기 재우는 노래

이석남(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공공개야 낚지마라
뒷집개도 낚지말고
앞집개도 낚지말고
우리애기 잘도잔다

[일광면 민요 37]

다리 세는 소리

이석남(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남북 도망근

수무리바꾸 도바꾸

연지통에 열두야

[일광면 민요 38]

쌍가락지 노래

한복열(여, 194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짚에보니 처잘레라

저처자 자는밤에 숨소리도 혼란하여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는 못살겠네

[일광면 민요 39]

모심는 소리

한복열(여, 194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애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으로 들어갔네
첩의야방에는 꽃밭이오 이내야방은 연못이오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슴참이가 늦아온다
서울배추 시락나물 맛본다고 더디더라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실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몸은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남창남창 벼리끝에 울오라바 날살리나
나는언제 한량이되어 국화꽃에 놀러갈꼬

저게가는 저처녀야 치마자락을 놓고가라
놓고가나 들고가나 총각눈에는 벗아졌네

[일광면 민요 40]

모 찌는 소리

한복열(여, 194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야 난감하고
우리엄마 산소땅에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일광면 민요 41]

구멍 노래

한복열(여, 194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이동마을경로당]

딱딱구리는 참나무구무³⁵⁾도 뚫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뚫어진구녕도 못찾네

35) 구멍의 지역말.

3) 장안읍 민요

[장안읍 민요 1]

진주난봉가

이두애(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울도담도 없는아집이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시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진주야 난간에¹⁾ 빨래를 가라
그말을 듣자마자 주침주침²⁾ 담어다가
진주야 난간에 빨래를 하니
오동동 오동동 뚜드러니
난데없는 말자적소리³⁾ 울렁출렁 나는구나
혜눈을 걷혀보니⁴⁾ 하늘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지나가네
흰빨래를 한희기씻고⁵⁾ 검은빨래 검은게씻고⁶⁾
집에라고 들어오니
시어무니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아래사랑에 내리가라
첩의년을 잘에다두고 권주가를 권하신다
그말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내리
(그래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니, 신랑이가 서울 과게 갔다 와가 첩을 하
나 얻어가 마 아랫방서 권주가를 하나 권하거든. 그래.)

1) '남강에'를 '난간에'라고 불렀다.

2) 주섬주섬.

3) 말 발자국 소리.

4) "결눈길로 올려보니"의 뜻인 듯함.

5) 매우 희게 씻고.

6) 검은 빨래 검은게 씻고.

권주가를 권하신다
석자수건에 목을매서 내말없이도 니죽었나
본택정은 백년이고 첩의정은 삼년인데
내말없이도 니죽었나
끄네끼도 일곱매끼⁷⁾ 손미끼도 일곱매끼
이칠이 십사 열넷매끼 불끈불끈 찢러가져
서른서이 상두군에 오항칭천 발을맞춰
북망산천을 들어간다
황태혈어 밥을삼고 뗏단지는 집을삼고
버들잎은 울을삼고 어떤친구가 날찾으리
어떤 형제가 날……
(딱 마 그래 죽어뿌이 끝이더람더.)

[장안읍 민요 2]

모심는 소리

이두애(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한강수에 모를부어~이 모찌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갈어~이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이후후후후호 [웃음]

[장안읍 민요 3]

모 찢는 소리

이두애(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7) 일곱 매끼. 매끼는 벼짚으로 만든 벼짚을 묶는 끈을 말함.

홀치자 홀치자 이뭇자리로 홀치자
팽자팽자⁸⁾ 팽자팽자 얼씨구 좋다

[장안읍 민요 4]

춘향이 옥중가⁹⁾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님]

(그래 옛날에 춘향이가 옥 안에 갇힌 작문을 내가 쪼개 일음더.¹⁰⁾ 그것
뿐이다.)

무정세월 여루하야 말다하니 무엇하나
일조참별 떠난후로 청조가 끊어지니
북해만리 너른곳에 흥한이 전혀없네
이화두견 슬피울고 추우오동 적막한데
상사일년 못잊어서 정신없이 발할적에
풍우성이 비갑한다
장산대야 돌난초목 겨울가고 봄이오니
기와방초 유정한데 송구영시¹¹⁾ 회포댄다
오늘이나 소식올까 내일이나 소식올까
주야장차¹²⁾ 바랐더니 빈소식만 흔히온다
타기황정 저피꼬리 마보지산 울지마라
울루가면 이내가삼 누구에라 의논하리
이몸은 무산죄로 달은밝고 명랑한데
독수공방 매인말로 임아임아 임아임아
잊지말고 찾아오소 해달이보고¹³⁾ 축원이오

8) 팽과리를 치는 소리를 흥내낸 구음.

9)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중에서 탄식하는 옥중가의 가사를 기반으로 부른 것이다.

10) 조금 읽을 수 있다.

11) 송구영신.

12) 주야장천.

[장안읍 민요 5]

창부타령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님]

남정호걸¹⁴⁾ 내아들아 백년효부¹⁵⁾ 내메늘아¹⁶⁾
일등미인¹⁷⁾ 내딸이야 동방화초¹⁸⁾ 내사위야
일월유신¹⁹⁾ 내손자야
아들을 키워서 직손봉천²⁰⁾ 딸을키워 대손봉천²¹⁾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할러라

[장안읍 민요 6]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님]

금자동아 옥자동아
칠기청천 보배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13) 해와 달을 보고.
14) 남정호걸(男丁豪傑).
15) 백년효부(百年孝婦).
16) 내 며느리야.
17) 일등미인(一等美人).
18) 동방화초(東方花草).
19) 일월유신(日月維新).
20) 직손봉천(直孫奉天).
21) 대손봉천(代孫奉天).

부모에는 효자동아
형제간에 화목동아
일가간에 인정동아
이불간에 사꺄동아²²⁾
둥둥둥 둥기여
이런 둥기가 어딴노
니어데갔다 이제왔노
하늘에서 널쫓나²³⁾
땅에서 솟았나
구름에²⁴⁾ 싸여왔나
바람에 부쳐왔나
어디갔다 이리왔노
둥둥둥 둥기여
앞을봐도 내사랑아
뒤로봐도 내사랑아
양산통도 들어가도
요런상좌가 또있나
내원사로 들어가도
요런상좌가 또있나
동래범아사²⁵⁾ 들어가도
요런상좌가 또있나
우리 장안사로 들어가도
요런상좌가 또있나
둥둥둥 둥기여
높은낭게는²⁶⁾ 활가지다
낮은낭게 정가지다
높은낭게는 대추씨

22) 사꺄 동아.

23) 떨어졌나.

24) 구름에.

25) 동래 범어사.

26) 높은 나무는.

낮은게는 석노씨²⁷⁾
 씨도씨도 유관하다
 인간씨가 유관하다
 꽃도꽃도 유맹하네²⁸⁾
 인간꽃이가 유맹하다
 이산저산 참꽃이 좋다해도
 만사람 눈에 쓰러지고
 단장안에 해바라기꽃이 좋다해도
 해를보고 쓰러지고
 연당안에 연꽃이 좋다해도
 연당안에서 쓰러진다
 꽃도꽃도 유맹하네²⁹⁾
 인간꽃이가 유맹하다
 씨도씨도 유관하다
 인간씨가 유관하네
 사모썰³⁰⁾ 머리든강
 두리들이도³¹⁾ 생겼네
 부테질³²⁾ 손이든강
 할레할레도 생겼다
 역말탈³³⁾ 군번인가
 털썩털썩 생겼네
 까죽신³⁴⁾ 신을 발이든강
 떨먹떨먹도 생겼다
 덤풀밑에 무질래는

27) 석류 씨.

28) 유명하네.

29) 유명하네.

30) 사모(紗帽)를 썰.

31) 둥글둥글하게도.

32) 부테, 즉 부티를 질. 부티는 베를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를 말함.

33) 역말을 탈.

34) 가죽신.

뜯무리가 끼었구나
돌아오는 반달어는³⁵⁾
기매가³⁶⁾ 끼었구나
각아논 방문은
모가 생겼구나
은을준들 너를사까
금을준들 너를사까
하늘에 구름띠결이
몽실몽실 잘크거라
모래밭에 수박결이
둥글똥글 잘크거라
웅기전으로 갔더나
오목장³⁷⁾도 생겼네
향에 전³⁸⁾으로 갔더나
갯가추도³⁹⁾ 쟁겼다
꼬치낭게⁴⁰⁾ 갔더나
꼬치가 한개 열었네
탱주낭게 갔더나
탱주가 한개 열었다.

[장안을 민요 7]

모심는 소리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댁]

35) 반달에는.

36) 기미가.

37) 대목장. 큰 명절 앞에 생기는 장.

38) “향아리 전”을 일컫는 듯함.

39) 갯가지도. 여러 가지도.

40) 고추 나무에.

서월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둘기가 알을낳여
그알한개 내조왔던들⁴¹⁾ 허이 금년과게를 내할구로

[장안읍 민요 8]

달거리 노래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맥]

삼월이라 삼진날에
울깃쫄깃 찌진절병⁴²⁾ 임이없는 빈방안에
혼차 먹기도 금창이 막혀서도 못먹겠네
사월이라 초파일날에
집집마다 관등을 달고 자손의 소원을 비난니다⁴³⁾
울언님은 어데로 가시고 자손의 소원도 모르시나
오월이라 단옷날에
당신은 죽어서 쟁피가⁴⁴⁾되고 저는죽어 약쫂되야⁴⁵⁾
오월이라 단옷날에
머리물에 만나자고 언약약속을 해였더니
허사로구나 허사로나 죽어지니 허사로다
유월이라 유뒷날에
유두날 맹글이 아니더냐 청춘남녀 짝을지어서
추천을 탄다고 오락가락 하건만은
울언님은 어데로 가시고 추천에 맹글도 모르시나⁴⁶⁾

41) 내가 주웠던들.

42) 지진 전병(煎餅).

43) 비나이다.

44) 강피가 되어.

45) 약쫂이 되어.

46) 추천을 만들 줄도 모르시나.

아이구나 살자고 살다가 보니
하도나 원통한 일도 하도나 많아
칠월이 되었구나
칠월이라 칠석날에 은우야⁴⁷⁾ 오작교 만나건만
울언님은 어디로 가시고 십년이 넘어도 못만내네

[장안읍 민요 9]

각설이타령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님]

어허라 품마 각설아 각설이대로 나간다
품마품마 각설아
거들거리구나 생겼나 거들거리고 잘한다
술동이 (탁배기.⁴⁸⁾)
탁배기로 먹었든강 비틀비틀 잘도한다
지럼동이로⁴⁹⁾ 먹었는가 미끌미끌 잘도한다

[장안읍 민요 10]

항굴레비 노래⁵⁰⁾

정분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 님]

47) '견우야'를 이렇게 불렀다.

48) 탁주. 즉, 막걸리.

49) 기름 동이를.

50) '항굴레비'는 방아깨비를 일컫는 방언. 방아깨비를 잡아서 놀리며 방아깨비의 생김새를 재미있게 말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항글레야 항글레야 니이마가 와벗거졌노
증조할아버지 닳았네 이마이가 벗거졌네
부산고모 알았이몬 돈한차판⁵¹⁾ 가올킨데
제주도고모 알았이모 밀감한차판 가올킨데
정관고모가 알았이모 쌀한차판 싣고올킨데

[장안을 민요 11]

쌍가락지 노래

김명염(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조석길로 늦가락지
먼데본니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혼란하네
청도복숭 오라버님요 거짓말씀 하지마소
남-풍이 디리부니 풍지떠는 소릴레라

[장안을 민요 12]

성주풀이

김명염(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지신 지신을 올리세
이집지안⁵²⁾ 대목아 어느대목이 지왔노
김대목이 지왔나 박대목이 지왔나

51) 돈 한 차 판.

52) 이 집 지은.

술도떡더구리 걸머쥐고 태백산을 지치달라⁵³⁾
 벨노가자⁵⁴⁾ 벨노가자 온갖나무를 벨노가자
 늘어졌다 행제목 도래졌다 앵두나무
 징칭칭 유자나무 온갖나무를 벌목하야⁵⁵⁾
 [잠시 멈추어 웃고는] (고 가마 있어 보소. 온갖 나무를 벌목하야.)
 실걸어 톱질이야
 배가고파서 밥을먹고 목이말라 술을먹고
 온동민 부엌구나⁵⁶⁾ 일심동정을 마야주소⁵⁷⁾
 우리나라 성주님은 이터하나를 잡을라고
 팔도강산을 다돌아서 그중에도 골라잡아
 서울 앞산은 [얼버무리며]다상산⁵⁸⁾ 서울 뒷산은 삼각산
 그산맹기 내령받아⁵⁹⁾ 강원도로 들어가니
 강원도 금강산 임진강이 둘러있고
 그산맹기를 대동받아 충청도로 들어가니
 충청도는 계룡산 백마강이 둘러있고
 그산맹기를 내령받아 전라도를 들어
 전라도 지리산 섬진강이 둘러있고
 그산맹기를 둘러봐 경상도로 내리오니
 경상도 태백산 상주 낙동강이 둘러있고
 그산맹기를 내령받아 구천뒷산이 생겼고
 그산맹기를 빛을받아⁶⁰⁾ 기장 달음산 생겼고
 기장맹기를 내장받아⁶¹⁾ 이터하나 잡았네
 터를잡아 터를잡아 용구머리에 집을짓고
 황례머리에다 감을

53) 재빠르게 올라.

54) 베려 가자.

55) 벌목하여.

56) 온 동민이 모였구나.

57) 맞아 주소.

58) '남산'이라 해야 하나.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 얼버무리려 말했다.

59) 그 산 맹기를 내려 받아.

60) 빛을 받아.

61) 내려 받아.

[숨이 차서 잠시 멈추고 말로] (또 또 있임서. 거 안주 마이 남았는데.)
 (조사자 : 천천 천치이.) (요거는 두 분씩 하고 장단을 치고 하는데, 나는
 한참에 해뿌가이.) (조사자 : 아아 그렇지.) (야, 한참에 해뿌리모 인자.)
 에 행나무 물받아야 호박쭈치를 물리놓고
 산우자 쇠를걸어 옥체에다 값을믿을
 삼오에 팽경달고⁶²⁾ 팽경소리 요란하네
 자재일채장을 그리하고 몸치장을 둘러보니
 들고보니 묻다지 놓고보니 늦다지요
 방치장을 들고보자
 웅자웅자 바께스에 자지한자가 반자진데⁶³⁾
 이불평풍 화초평평⁶⁴⁾ 은자룽에다 다시피고
 유자이불을 잣비개⁶⁵⁾ 여기저기도 얹어놓고
 거울같은 요강을 발치마다 밀치놓고
 가자시오 가자시오 성주님 모시러 가자시오
 이택에 와가라 하면 와가성주를 모시오고
 이택에 초가 초가성주 모시온다
 어서 좌정하소 좌정 성주님이 좌정하소
 성주님 좌정후에
 부모님은 자석애워⁶⁶⁾ 농거들랑 일류소년을 놓고주⁶⁷⁾
 남자 아들에게 농거덩 국회의원을 점지
 아버지에 천년수 자석에는 만년수요
 이택의 대주양반 팔도강산을 다맹기도
 남아논에 꽃이되고 녀의논에 잎이돼
 술은 받아서 양치질하고 떡은 받아서 팔매질하고

62) 풍경 달고.

63) 반단이인데.

64) 화초 평풍. 화초 그림이 그려진 평풍.

65) 잣베개. 색색의 형겼 조각을 조그맣게 고깔로 접어 돌려가며 꿰매 붙여 마구리의 무늬를 잣 모양으로 만든 베개.

66) 자석이 그리워.

67) 농게 해주고.

(안자 달수가 드갑니데이. 요게는 인자 껥차를⁶⁸⁾ 안 침더. 여 여 여게는
껥차를 안 치고 함더.)

정월달에 들온살 이월한가위 맺어놓고
이월한가위 들온살 삼월삼질에⁶⁹⁾ 저줄
삼월삼질에 들온살 사월초파일 끝나고
사월초파일에 들오노 오월단오에 하고
오월단오에 유월살 유월육일에 여어
유월유주에⁷⁰⁾ 두른살 칠월상달에 하고저
팔월보름날 들온살 팔월한가위 떨어지고
팔월달에 들온살 구월쌍구에 디리베고
구월달에 들온살 십월상달에 나갈끼고
십월 상달에 들온살 겨계 겨겨겨 겨겨겨겨⁷¹⁾

정월달에 들온 이살은 고이고이 떠나가
(아이구 어렵다.) (청중 : 잘 한다.) (조사자 : 방금 고계 부분 또, 쪼금만
다시 예. 아까 방금 저기저기 하는 거.) (잡고 잡신은 하는 거.) (조사자 :
어 어 그거.)

잡고잡신은⁷²⁾ 몰알로 만복으는⁷³⁾ 이리로
만세만세 만만세 억만세를 울리소

[장안읍 민요 13]

비야비야 소지마라 [비 노래]

김명염(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68) 껥추. 즉, 껥과리.

69) 삼월 삼진날에.

70) 유월 유두에.

71)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이와 같이 구음으로 얼버무렸다.

72) 잡귀 잡신은.

73) 만복은.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가때문에 비들친다
대양치매도⁷⁴⁾ 어룽지⁷⁵⁾
소주뱅이 물드간다
비야비야 오지마라

[장안읍 민요 14]

잠자리 잡기 노래

김필련(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얹은뱅이 꿈꿈
진주뱅이 꿈꿈
불은자리 불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장안읍 민요 15]

모심는 소리

오정숙(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서울에다 남정자야 점섬참이가 더디온다
서울배차⁷⁶⁾ 씨락나물⁷⁷⁾ 맛본다고 더디온다

74) 다홍치마도.

75) 얼룩지고.

담상담상 닷마지기 일천석이만 쏟아져소
니가나무슨 천재라서 일천석이가 쏟아지노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소자가 울고가노
(뒷소리 거 뭐꼬? 뒷소리.) [청중들이 다 함께 부르자]
이태백이 본댁죽고 이별행상이 떠나가네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문에야대전북⁷⁸⁾ 손에 들고 첩의방-에를 놀러갔네

[장안을 민요 16]

다리 세는 소리

오정숙(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고 도맹고
연도단지 열두단
가 사 머 리 연 두 칼
침 폭

[장안을 민요 17]

신세 타령⁷⁹⁾

76) 서울 배추.
77) 시래기 나물.
78) 문어야 대전북.
79) 노래는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오정숙(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말라꼬⁸⁰⁾ 낳았더노
요내나를 낳지나 말고
봉태기나⁸¹⁾ 매었다면
아쉬울때나 담아쓰지

[장안읍 민요 18]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오정숙(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둥기둥기 둥기야
둥기 맞좌 꽃감인가
자리동산에 알밤인가
높은 낭게 활가진가⁸²⁾
낮은 낭게 전가진가
(아 아이구. 높은 낭게 활가진가 낮은 낭게 전가진가. 아이구 또 달 하이카
네 안 되네.) (조사자 : 그라모 고 좀 뒤에.) (높은 낭게 활가진가, 어 높은
낭게는 활가진가.)
얼음꽁게 수달핀가⁸³⁾
눈속에는 꽃봉진가
둥기둥기 둥기야

80) 나를 뭐 할라고.

81) 소쿠리나. 봉태기는 소쿠리의 방언.

82) 높은 나무에 활가지인가. 활가지는 활처럼 굽은 가지.

83) 얼음 구멍에 수달피인가.

이동기가 누동기고

은을준들 너를사라

금을준들 너를사라

(행님 고 해 봐라. 어, 동기동기 동기야 이 동기가 누 동기고. 뭐.) (조사자 : 나라에는 충신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장안을 민요 19]

모 찌는 소리

장봉애(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한강에서 모를부어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갈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장안을 민요 20]

모심는 소리

장봉애(여, 1929년 생) 구연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이려고.) (조사자 : 우리 님은 어데 가고.)

우런님은 어디가고~오 연개낼줄로 모르는가 이후후후후

(못줄을 치우고 이 찌지.)

초록초록 영사초록⁸⁴⁾ 임의방에 불밝히라

임도눕고 너도누워~이 저불끝이가 누가꺼리

⁸⁴⁾ 초롱초롱 영사초롱.

풍당풍당 참수지베⁸⁵⁾ 사우야판에다 다올랐네
니가아무 축원한들 사우야판이가 웬말이고

모시적삼 세적삼에~이 분통걸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뱅날거고~이⁸⁶⁾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남창남창 베락끝에~이⁸⁷⁾ 물에빠진 울오랍아
나도죽어 화승하여~이 다천부터는⁸⁸⁾ 낚지줄래⁸⁹⁾

[장안읍 민요 21]

노랫가락

김염이(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미영벤가 모시벤가
살금살금 찾아내는 저큰아가
누구간장을 녹힐라고 요로콤저로콤 잘생겼노
냇아내자 냇아내자 낙숫대로 냇아내자

[장안읍 민요 22]

모심는 소리

85) “참수제비”를 이렇게 부름.

86) 병이 날 것이고.

87) 벼랑 끝에.

88) “다음부터는”의 의미로 부른 듯하나 가사를 분명하게 알아 들을 수 없다.

89)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오정숙(여, 1935년 생) 제보자가 동시에 함께 불렀다. 오정숙 제보자는 “남창남창 베리 끝에 무정하신 울오랍아 /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제부터 구하리라”라고 불렀다.

김염이(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 늦어온다
미나리아 시금초⁹⁰⁾를 맛본다고 늦어온다

양산통도사 큰법당에 염불소리 찬란하다
서울이라 안사랑에 글소리도 찬란하다

[장안읍 민요 23]

모심는 소리

이덕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소를숨가 영화로다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내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전복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택죽고 유별행상 떠나간다

서울갔던 선부네야 우리선부 안오더나
오기사 온다만은 칠성판에 실려온다

포롱포롱 봄배차는 참이슬오도록 기다리고

90) 시금치의 지역말.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장안읍 민요 24]

쌍가락지 노래

이덕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널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들일레라
천도복상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으시오
마한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리로다

[장안읍 민요 25]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

이덕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어여
옥도끼를 찍어내고 금도끼를 다듬아서
초가삼간 집을지아 천년만년 살고지고

[장안읍 민요 26]

화투 타령

이덕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정월속가지 솔솔한 내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여
오월난초 나뉘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아 달밝았네
구월국화 비어나서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동지선달 김다해도
선달비에 다녹아진다

[장안읍 민요 27]

아기 어르는 노래

이덕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응거리등거리 대증거리
수레야노야 범부채야
아롱아다롱아 새끈

[장안을 민요 28]

모심는 소리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애미넌은 어디가고 딸넌동자를 맡겼더노

낭창낭창 벼리끝에 이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속 건져볼세

파란부채 지나부⁹¹⁾야 꽃을보고 거저가나
꽃이사 좋다만은 녀우꽃⁹²⁾에 손덜쏘나

모시적삼 안쇳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마이보른 병들끼고 쌀날마치 보여주소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 늦어온다
서른세칸 정지⁹³⁾안에 도니느라 더디더라

새별겉은 저말꼬리 반달같이도 떠나오네
지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단장하고서 어디가요
첩의집에 가실라면은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소
첩의집은 꽃밭이고 본처집은 연못인데

91) 나비의 지역말.

92) 남의 꽃.

93) 부엌의 지역말.

꽃과나비는 봄한철이 좋고 연못의고기는 사철좋다

[장안읍 민요 29]

모 찌는 소리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숨가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장안읍 민요 30]

창부타령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낭기⁹⁴⁾라도 고목이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고
꽃이라도 낙화가되면 오던나비도 아니오고
요내청춘 늙어지니 오던임도 안오시더라
묵고노자시고 노자 찬찬히목을감고 노자
아니놀고 뭐할라꼬

[장안읍 민요 31]

노랫가락[그네 노래]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94) 나무의 지역말.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주천당 세모시낭게 가지가지를 그네매어
내가타면 임이나밀고 임이타면은 내가민다
임아임아 줄잡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장안읍 민요 32]

사발가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짐이나 나건만은
이내심정 불는불은 연개도짐도 아니나고
일본동경 땅불난거는 세계각국이 다아는데
심중에 불불는불은 한요우에 잠자는임도 몰라준다

[장안읍 민요 33]

권주가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노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수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배주요

[장안읍 민요 34]

너냥 나냥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너냥내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기립아⁹⁵⁾ 운다
너냥내냥 두리둥실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발이로 가는데
바람아 불거든 석달열흘만 부소

[장안을 민요 35]

삼 삼는 소리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양청양청 양수재기 사우볼라 원하더니
어머니 그만보고 마는교
(석 삼년이 되가 해로 묵히는데 신랑이 안오거든. 안 온노이 그래 각시가 그라
더란다.)
양청양청 양수재기 사우볼라 원하디
그만보고 마는교
(이리쿠이, 그래 어마씨가.)

95) 임 그리워.

낸들낸들 내가아나 닌들닌들 니가아나
 중신애비 탓이로다 이방저방 뒷방안에
 뒷방이방 골방안에 석자수건 목을매가
 (마 신랑을 기다리다 죽어빠니, 그래 신랑이 인자 과거해가 석삼년만에 오
 가지고.)
 사랑밖에 종년들아 사랑밖에 종년들아
 오늘아침 일찍해라 석삼년을 처갓댁을
 잊었더니 처가 구경하러갈래
 (이라거든. 그래가 인자 오йка네.)
 쪼그만한 아기씨가 한손에는 편지들고
 한손에는 짝지⁹⁶⁾짚고
 (그래가 지가 떡 오이, 신랑이 오니.)
 한고개는 오йка네 질⁹⁷⁾밑에 천금대우
 (질밑에 인자 범이 울고 질우로 올라가 질로 마쿠거든. 그래가 또 그 질로
 넘아서.)
 또한고개 넘어오이 까막까치가 진동하네
 까막까치 진동하이 또한고개 넘어오이
 쪼그만한 아가씨가 나박머리 나풀땡고
 한손에는 편지들고 한손에는 짝지짚고
 여게가는 이선부는 어데까지 가시는교
 (쿠거든. 그래 어데까지 간다카이.)
 어디까지 가시거든 이편지로 받아보라 (카거든.)
 왼손으로 받아가 오른손으로 띠어보니
 신부죽은 편지로다
 (그래 사흘나흘 가는길에 한나절에 그까지 갔거든.)
 눈물일세 눈물일세 쟁인장모 눈물일세
 (인자, 초상이 나이 운다.)
 처남처제 눈물일세 울지마소 울지마소
 쟁인장모 울지마소 처남처제 울지마소

96) 지팡이의 지역말.

97) 길의 지역말.

재물잃어 날만하고 사람잃어 날만하나
(그래 어데 가가, 인자 각시는 어데 있노 찾으이.)
이방저방 뒷방안에 뒷방이방 골방안에
석자수건 목을매가 자는듯이 죽었거던
여보당신 웨이러소 잠이거들랑 깨어지고
꿈이거든 일어나고 잠이거든 깨줄라
(쿠이, 마 죽어가 모르더란다.)

[장안읍 민요 36]

백발가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백발되기 잠시로라
니는무슨 청춘이가 낸들무슨 백발이가
백발되기 잠시로다 백발보고 웃지마라

[장안읍 민요 37]

달거리 노래

주계순(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덕선리 내덕마을 내덕마을경로당]

사월이라 초파일날 앞집에도 관등달고
뒷집에도 관등달고
우런님은 어디가고 관등달줄 모르던가
정월이라 대보름날 달맛이가자는 명절인데

우런님은 어디가고 달맞이가자는 말이없노
삼월이라 삼짱날은 작년에간 제비도오는데
우런님은 어디가고 돌아올줄 모르는고
오월이라 단오날은 주천⁹⁸타자는 명절인데
우런님은 어디가고 주천타자는 말이없노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 만나는데
우런님은 어디가고 날만날줄 모르던고

[장안읍 민요 38]

애원애기 노래

김옥이(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아가아가 애운아가
한살묵어 엄마죽고
두살묵어 아빠죽고
삼촌거게 자라나서
열에다섯 출가하니
(거 부잣집에 갔더람더. 정승의 집에 온창(위낙) 잘 해놓이. 그래.)
시집가는 사흘만에
동제차지 내차지라
정지치장⁹⁹ 둘러보니
큰술은 닷말짜리
동술은 서말짜리
아리도장¹⁰⁰ 내리가여
백미서대 내여다가

98) 추천(鞭鞭).

99) 정지 치장, 곧 부엌 치장.

100) 아래쪽에 있는 도장. 도장은 곳간의 방언.

큰술에는 밥을하고

동술에는 국끓이고¹⁰¹⁾

소천바리¹⁰²⁾ 소죽주고

말천바리¹⁰³⁾ 말죽주고

개천바리 개죽주고

(청중 : 집이 부자던가베.) (그거 아주 부잣집이라노이까네 그제 그래 또
쳐자도 잘 해놓이 텍고 갓지. 아이구 그라고 참 뭐라 카노?)

올러가는 올고사리

내리가는 늦고사리

아금자금 끓거다가

새별같은 동술안에

새파라니 데쳐내어

갓인양님¹⁰⁴⁾ 곱기해여

열두판상 갈라놓고

정지문을 슬쩍여니

새두바리 날라온거

한바리는 떨랴뿌고¹⁰⁵⁾

새한바리 덩석잡어

열두판상 갈라놓고

오리도리 도리판에

수제놓기¹⁰⁶⁾ 어럽도다

둥글둥글 수박게우

밥담기도 애럽도다

중우벗은 시동성은¹⁰⁷⁾

말하기도 애럽더라

101) 국 끓이고.

102) 소 천 마리.

103) 말 천 마리.

104) 갓가지 양념.

105) 한 마리는 놓쳐 버리고.

106) 수저 놓기.

107) 중의(中衣) 벗은 시동생은. 중의는 남자의 여름 홀바지.

(아이구 인자 거 또 뭐라 카노?)
 아리사랑 내리가여
 시금시금 시할배요
 시금시금 시할매요
 손지메늘 봐였다고¹⁰⁸⁾
 새별길은 봉창궁계¹⁰⁹⁾
 해돋도록 자는기요
 어서싸기¹¹⁰⁾ 일어나여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에 양기치고¹¹¹⁾
 석자수건 닦을뒸고
 아척진지 잡으시소¹¹²⁾
 큰채 올라와서
 시금시금 시아부님
 시금시금 시어무니
 메늘하나 봐였다고
 새별같은 봉창궁계
 해돋도록 자는기요
 어석싸기 일어나여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에 양기치고
 석자수건 닦을뒸고
 아척진지 잡으시소
 (와따 대테이.) (청중 : 천히 해라. 천히 해라.)
 못방¹¹³⁾문전 들어서여
 여수같은 시노부야¹¹⁴⁾

108) 손자며느리를 보았다고.

109) 봉창 구멍에. 봉창은 한지로 바른 창.

110) 어서 빨리.

111) 양치질을 하고.

112) 아침 진지 잡주세요.

113) 못방은 '모방'의 잘못. 모방은 안방의 한 모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방.

미호걸은¹¹⁵⁾ 시노부야

올케하나 봐였다고

새별같은 봉창궁계

해돋도록 자는기요

어석싸기 일어나여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에 양기치고

삼베수건 닦을뒹고

아침이나¹¹⁶⁾ 쳐묵어라

([웃으며] 밭어가 글 켜졌제. 그렇죠.)

아리사랑 내리가여

시금시금 시동성요¹¹⁷⁾ ([다음 사설을 기억하기 위해]시금시금 시동성요)

어떡싸기 일어나야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에 향기치고

맹지수건 닦을뒹고

아침이나 잡으시소

머슴문전 들어서야

큰머슴아 점머슴아

어석싸기 일어나여

아침이나 얻어묵고

새끼서발 꼬았거든

(나무하러 가라 카더람더. 머슴 그렇다고. 큰머슴잔테.)

큰채에 올라와여

하늘걸은 서방님요

구름걸은 낭군님요

어떡싸기 일어나여

114) 여우같은 시누이야.

115) 미호(尾狐) 즉, 여우같은.

116) 아침이나.

117) 시동생요.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에 향기치고
 석자수건 닦을뒹고
 아척이나 잡으시소
 (그래 그러카고 나몬 또 뭐라 커노? 아이고 대라 대서러.) (청중 : 대다.
 쉬 가면서 하소.) (대다. 참말로 댁니더. 그래 저게 인자 뭐꼬. 뭐라 카더
 노 아까. 신랑잘에 거게 했제.) (조사자 : 예 했습니다. 신랑 했고.) (야.)
 애원애기 입성치장 불작시니
 짐마불은 적삼입고
 말마불은 처매입고
 축이없는 신발신고
 (아이구 거또 쫘 빠자몐네.¹¹⁸⁾ 애원애기 입성 치장을 불작시니 그렇고.
 인자 애원애기가 살이 찌가 복싹복싹하이 그래 좋더람더. 시집을 삼 년
 을 살고나이.)
 분통걸은 얼굴이는
 지미끼어¹¹⁹⁾ 몬보겠네
 각지통 그몸뎡이
 저탈대가 되었구나
 삼단같은 그머리는
 시시로 다빠지고
 ([잠시 멈추고] 아이구이 줌.) (조사자 : 시집 살기 어렵다 그지예.) (야.
 그래 시집살기가 애롭지요. 하이고 안주따나 많이 있는데. 이기 뵈이. 그
 래 그래 인자 그게 해가 아픈데, 그래 인자 신랑이가 그래 인자, 저 할매
 는, 인자 할매부터. 할매할매잘에 해야 된다.)
 시금시금 시할매요
 시금시금 시할배요
 요내대신 갈란교
 어라야야 시끄럽다
 염불도 목맥이고

118) 빼먹었네.

119) 기미가 끼어.

소뿔도 과객인데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통시질캉 저승질캉¹²⁰⁾
대신같이 전혀없다
그문전에 올라와서
시금시금 시아부니
시금시금 시어무니
요내대신 갈란교
에라야야 시끄럽다
염불도 목맥이고
소뿔도 과객인데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통시질캉 저승질캉
대신같이 전혀없다
(그러 쿠고 인자 하이까네 참 저 삿짝 밖에 저승차사가 더불러 왔더람
더.)
아가아가 애운아가
이승에도 잘한다고
후승에도 썰 데있어¹²¹⁾
너거데불러¹²²⁾ 내가왔다
(그래 시간 늦고 때가 늦다 카더람더. 지 데불러 일찍 올긴데 몬 오가지
고.)
그소리로 깊이듣고
정지안에 들어가서
술채리고 밥채리고
마당 가운데 덕석패고¹²³⁾

120) 통시, 즉 변소. 변소 (가는) 길과 저승 (가는) 길.

121) 썰 데 있어.

122) 너 데리러.

덕석우에 상을채리
 대문전에 오신손님
 목물이몬¹²⁴⁾ 술자시고
 배고푸몬 밥자시고
 돈천냥을 노자하고
 (가자 캐도 안 갈라 카더람더. 지를 텍고 갈라 카더람더. 그래가지고서러
 그래 마 우째 하겠노.) (청중 : 그래가 신랑이 아픈데 간다 아이가.) (그
 래. 인자 신랑은 아프지는 안 하고.)
 쪼끄마는 재피방에¹²⁵⁾
 하늘같은 서방님요
 구름같은 낭군님요
 요내대신 갈란교
 (카이 신랑은 첫말에 갈라 커더람더.) (조사자 : 아하.) (짧어도. 첫말에
 가.)
 양창양창 걷는애기
 밥줄라고 울거들랑
 앞점판에 밥해놔소
 밥을조여 달게하고¹²⁶⁾
 작은애기 젓줄라고 울거들랑
 동술¹²⁷⁾안에
 (젓을 짜가 동술에 넣어놓으몬 작은 애기는 따뜨해야 묵는다고.)
 동술안에 젓짜놔소
 젓을조여 달게하고
 (그래가 인자 지가 마 갈라 카더람더. 그래 큰 문전에 재피방아¹²⁸⁾ 거
 신랑 방아 가가 하늘같은 서방님요 구름같은 낭군님요 그래 그리 카고,
 나는 인자 지는 간다고 그래 인자 큰방아 큰 문전에 오가지고.)

123) 덕석 펴고.

124) 목이 마르면.

125) 조그만 결방에.

126) 밥을 주어서 달래고.

127) '옹달술'의 방언. 작고 오목한 술.

128) 작은방에.

시금시금 시아부니

시금시금 시어무니

볼로효생

(떠나감더 커이까네 그래 또 글 쿠더람더. 잘 저것도 잘 못해도.)

아가아가 메늘아가

이제가몬 언제오노

동솔안에 앓힌닭이

회치고 울거든 내오지요

(카더람더 메느리. 또 인자 한분은 “아가아가 메늘아가 이래가모 언제오노 카이”.)

삼년묵은 명태진이

살불거든 내오지요

(그래 인자 또 한문 더 굴 캐야¹²⁹ 된다. 시 분¹³⁰ 글 칸다.) (조사자 : 병풍에 그린 닭이 화 치거든.) (야. 그래서러, 참 또, 대라. 대라. 그래 오 쯔 있나 그기.) (청중 : 그래 안 돌아온다 말이지.) (그래 인자 지 몬 온다고 그래 장 안 글 카는교.)

아가아가 메늘아가

니가 이리가몬

우리 문전에

(언제 또다시 니오겠노 카이, 그러카이까네 인자 지도 몬 온다고 마 하 직을 하더람더. 그래 하직을 해. 저거 할매 할배가 갓이몬 그런 죽음이 안 났지.) (조사자 : 그렇지.) (그래 안 갓다 말이다. 그래노이 안 글나(그 령나). 그러니이 꺼꼴로 죽었다 옴기 [웃으며] 죽었다 안 죽었나.) [일동 웃음] (조사자 : 그래 참 시집 가가.) (그래 저승차사가 세사나¹³¹ 참 저 걸 하더람더. “쇠방마치¹³² 손에 들고 쇠도루깨¹³³ 어깨 미고¹³⁴ 등을 치 매 어떡 가자” 카더람더. “어서 가자 밧빠 가자 시간 늦고 때가 늦다.”

129) 그렇게 해야.

130) 세 번.

131) 세상에나.

132) 쇠방망이.

133) 쇠도리깨.

134) 메고.

그래가주 세상 인자 또 인자 지 가서러 저거 판 채리놔가 그거 해놔는데
거 와가지고, “속적삼을 휘떡 벗어 성명 삼자 불른 후에 혼백 불러 축원
하고 아리 사랑 내리가여” 할매캉 할배캉 가라 카이 안 가더람더 그기.
그렇더라 카는데 그래 저거 저 저 정지 문, 등으로 치니까네 마 참 대문
앞에 나오도¹³⁵⁾ “깊은 데는 얹푸지고¹³⁶⁾ 얹은 데는 깊어지고” 그래 갔담
더. 그래 가이카 “한 고개 넘어가이 천지가 아득하고 또 한 고개 넘어가
이”, 세 고개채 넘어 가이까네 저거 아기 우는 소리가 지 귀에 듣기서러
천지동지 뛰어오소. 그래서러 구름겉이 날라오가지고 대문, “대문전에 들
어서이 애수겉은¹³⁷⁾ 시누부가 큰방문을 살끔 열고”, 열고 손 치라고 손
치, 오라고 손치는가 이기고 마 마 문 오라고 손 친다고 그래갖고 애원
애기가 마 그집에 이별을 했담니다. 그래가 좋은 데 묻었다고.)

[장안읍 민요 39]

모 찌는 소리

김옥이(여, 1923년 생), 최인순(여, 1924년 생) 가창¹³⁸⁾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한강에라 모를부어~이 모찌기도 난감하다
대문전에 부모잃고~이 부모찾기도 난감하다 이후후후후 잘 한다-

[장안읍 민요 40]

모심는 소리

김옥이(여, 1923년 생), 최인순(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1일 채록

135) 나와도.

136) 깊은 데는 얹아지고.

137) 여우같은.

138) 앞소리를 김옥이가 하고, 뒷소리를 최인순이 했다.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한대-한섬 모를부어 참나락이 절반이다
성안에성밖에 첩을두고~이 기생첩이가 절반이다

모야모야 과란모야~이 니언제커가 열매열래
이달가고 저달가고~이 내훗달에는 열매본다

서월이라 왕대밭에~헤이 금비둘게가 알을낭여
그알한배 조았시면~이 금년과게로 내할구로
(김옥이 : 아이구 잘 한다.)

서월이라 남정자야~이 점심참이가 늦어온다
시금초야 미나리는~이 맛본다고도 더디온다

서월가던 선보네여 우리선보가 안오더나
오기사 온다만은~이 칠성판에 실려온다
(와이고 언제 오꼬?)
일선데는 어데다두고 칠성판이 웬말이고

머리 좋고 실한치녀~이 울뽕낭게서 앓어운다
울뽕줄뽕 내따주께~이 백년살이를 내캉사자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다
할맘구는 어디가고~이
(조사자 : 딸에.) (청중 : 딸에동자를 맏갔던고.) (아!)
딸에동자를 맏갔던고
(김옥이 : 집에 그렇게 그래 안 나간다.)
[김옥이]

에미야종년아 어데가고~이 딸이동제로¹³⁹⁾ 맏갔던고

139) 딸 동자로.

절레꽃은 장개가고~이 석류꽃으는 상각간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하내를 바래간다

남창남창 베리 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랍아
얼른죽어 화승해여~이 남자한분 되어볼세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에와들고~이 첩의야방에 놀러가지

모시적삼 안섰안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땡날끼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이논빼미다 모를숨거~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이 술을숨가서 정자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이 유별행상이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목골목이 연개난다
우리님은 어디가고~이 연기넬줄을 모르는고

[장안읍 민요 41]

모심는 소리

손소레(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외발로~ 한발로 꼬장주¹⁴⁰⁾바지~이 알궁디시럽어¹⁴¹⁾ 못살겠네

140) '고쟁이'의 방언.

덮어주소 덮어주소~이 꼬장주바지를 덮어주소

[장안읍 민요 42]

쌍가락지 노래

최인순(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녹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풍지떠는 소리로다
(조사자 : 숨소리가 들일레라.)
청도복숭 오라바니 거죽말씀 말아시소
남풍이 드리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장안읍 민요 43]

못 갈 장가 노래

최인순(여, 1924년 생) 구연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양산땅 어느아들 밀양땅에 장개들어
앞집에가 궁합보고 뒷집에가 책력보니
아니맞네 아니맞네 궁합에도 아니맞고
책력에도 아니맞네 못썰장개 가는가베
친부모도 상각가고 양부모도 상각가고
김해부산 한인가고 동래부산 단정가고

141) 엉덩이 시려서, ‘알궁디’는 고쟁이를 입어 엉덩이에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이 드러나는 엉덩이와 같다는 말임.

(그래 인자 몬 갈 장개로 가는데 인자 한 십여장 디린직게 제물 주고 하
라칸게 한 고래로 넘어 갔어 그래.) (칭중 : 저저게 안동골 보이까네 그
고개 넘어갔다.) (그래. 그래가.)

한고개라 넘어가니 쪼끄마는 베리씨가
대작지로 둘러지고

저게가는 저신랑은 어데꺼정 가시는공

(버¹⁴²) 부고가 오더람더. 그래 못 썰 장개로 몬가라 카는데 갔어.) (조사
자 : 처이가 죽었던가요?) (어? 그날 처자, 그날 장개 가는 날이라. 장개
가는 날에. 그래 인자.)

저게가는 저신랑은 어데꺼정 가시는공

받아보소 받아보소 팬지한장 받아보소

오른손을 받아가주 왼손을 패여보니¹⁴³)

병들었네 병들었네 신부각시 병들었네

삼석장을 걷어보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신부각시 죽었구나

돌아가소 돌아가소 친부모도 돌아가소

양부모도 돌아가소

동래부산 내리서소 김해부산 내리서소

또한고개 넘어가니 곡소리도 진동한데

대문전에 들어가니 연캥배캥¹⁴⁴) 희롱하네

(버이 행상 끼미났더란다.¹⁴⁵)

연캥배캥 희롱하네

마당 가분데 들어서니

재인장모¹⁴⁶) 나를안고 대성통곡 슬피하네¹⁴⁷)

우준마소¹⁴⁸) 우준마소 장인장모 울지마소

142) 벌써.

143) 펴서 보니.

144) 행상에 종이로 만든 연과 배가.

145) 꾸며놓았더란다.

146) 장인 장모.

147) 슬피하네.

148) 울지 마소.

청태산 짚은골세 만태산 자주골세
 울고가는 날만하나 살새끼는 지만하나
 축담에 올라가니
 처남의택에 나를보고 대성통곡 실피하네
 우준마소 우준마소 처남의택에 우준마소
 천태산 짚은골세 만태산 자주골세
 울고가는 날만하리 살새끼는 지만하리
 조꾸마는¹⁴⁹⁾ 머리방에 들어가니
 앵두같은 풍도각시 벽장으로 안드가네
 꿈이거든 꾸어나고¹⁵⁰⁾ 잠이거든 깨어나소
 새별같은 저요강은 발치마다 밀치놓고
 햇독뺏독 골초시기¹⁵¹⁾ 꿔듯이도¹⁵²⁾ 내여놓고
 남비단 접쳐매는 백비단 밭을따라
 입을듯이 내여놓고
 (에-. 그래 놓고.)
 연지는 찍을듯이 종바리다 개여놓고
 분오는 볼을듯이¹⁵³⁾ 접새기다¹⁵⁴⁾ 개여놓고
 (그래 놓고 인자, 신랑이 인자.)
 앓아울고
 앓아울고 눕우울고 석삼년을 울고나니
 오리한쌍 기우한쌍¹⁵⁵⁾ 한쌍새끼도 떠들어오네
 오리오리야 기우기우야
 대동강은 어데두고 눈물강을 떠돌어노¹⁵⁶⁾
 대동강도 있지만은 강이달라 떠돌은다
 (신랑 울어놓이 강이 달라 떠돈다 카더라.)

149) 조그만.

150) 꿈에서 깨어나고.

151) 골 초시게. 왕골로 만든 초시게.

152) 꿔듯이도.

153) 분은 바를 듯이.

154) 접시에다.

155) 거위 한 쌍.

156) 떠도느냐.

앞집에 김포수요 뒷집에 이포수요
오만짐승 다잡아도 오리한쌍 기우한쌍
쌍새끼도 잡지마소 신부죽은 녀이로다
(아이구 대라. [웃음])

[장안읍 민요 44]

모 찌는 소리

강봉매(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한강수에 모를부어이 모찌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라 목화숨어이¹⁵⁷⁾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오호호호호호

[장안읍 민요 45]

모심는 소리

강봉매(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¹⁵⁸⁾ 손에들고이 첩의야집을 놀러갔네 오후후후후후

모시야적삼 시적삼¹⁵⁹⁾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될기고이 쌀날만치 보고가소 이후후후후

157) 목화 심어.

158) 문어 전복.

159) 훌적삼을 말하는 듯함.

서울이라 남정자¹⁶⁰⁾여이 점슴참이¹⁶¹⁾ 늦어온다
서른시킨 정지안에¹⁶²⁾ 돌고돈다고 더디더라¹⁶³⁾

알금삼사¹⁶⁴⁾ 고운독에이 돌리뻘다¹⁶⁵⁾ 금청주야
(또 모리겠노.) (조사자 : 꽃을 꺾어.)
꽃을꺾어 안주놓고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건 잘 모르겠네.)

초량초량 영사초령이¹⁶⁶⁾ 임의야방에 불밝히라
임도눕고 나도눕고이 초령불을 누가꺼리 이후후후후

낭창낭창 베리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장성¹⁶⁷⁾되어 같은님을 만나보세

절레야꽃은 장개가고이 석류꽃은 유각간다¹⁶⁸⁾
만인간아 웃지말어이 씨종자바래로¹⁶⁹⁾ 내가간다 오후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우리야임은 어데가고 연기별줄로 모르던고 이후후후후

저녁을묵고 썩나서니 울명등¹⁷⁰⁾아래서 손을치네
손치는데는 밤에가고 부모야형제는 낮에간다 우후후후후후

160) ‘남정네’의 별칭인 듯함.

161) 점심 참이.

162) 정지 즉 부엌 안에.

163) 늦더라.

164) 알금삼삼. 잘고 알게 엮은 자국이 드문드문 있는 모양.

165) 술이 다 떠서 익었다는 뜻으로 보임.

166) 초롱초롱 영사초롱, ‘영사초롱’은 청사초롱의 와전.

167) 장성한 남자. 또는 장군.

168) 유곽 간다. 유곽은 기생집을 말함.

169) 씨종자를 바라고, 여기서 씨종자는 대를 이을 남자 아이를 말함.

170) 울명등은 장명등을 일컫는 듯함. 밤에 대문 밖에나 처마 끝에 달아두는 등.

[장안읍 민요 46]

창부타령

강봉매(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장안읍 민요 47]

화투 타령

김근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정월속가지 속속한 내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 내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사리 흥돼지는
팔월공산 달밝은 밤에
니와나와 유람가자
구월국화 굳은 내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동지선달 긴긴 한밤은
임이없는 탓이로다

[장안읍 민요 48]

논매기 소리

김근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불같이도 덥은날에 논매기도 대단한데
메같이¹⁷¹⁾ 지심¹⁷²⁾논에 소리조차 웬말이고
위이~ 위히~ 이후후후

영천칠바다¹⁷³⁾ 넓은들에 쟁피¹⁷⁴⁾훔는 저큰아가
작년게도 훔던쟁피 금년에도 또훔느나
위히~ 위이여웨이~

[장안읍 민요 49]

모 찌는 소리

김근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서 홀치라¹⁷⁵⁾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¹⁷⁶⁾을 놀리소

171) ‘메’는 산의 고어. “산과 같이 거친”의 뜻임.
172) 지심은 ‘깁’, 즉 논밭의 잡풀을 일컫는 방언.
173) ‘치받이’가 와전된 표현임. 위로 비탈진.
174) 논외 ‘피’의 일종인 강피의 방언.
175) 훔어 내라.
176) 호미를 잡은 손이나 손처럼 생긴 호미의 뜻임.

쫓루자 쫓루자 맹근줄을¹⁷⁷⁾ 쫓루자
쫓루자 쫓루자 영감상태기¹⁷⁸⁾를 쫓루자
이뭇자리를 쫓루자

[장안을 민요 50]

모심는 소리

김근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 커가주 시집갈래
(아, 또 뭐꼬?) (조사자: 이달 크고 훗달 크고.) (아!)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시집가지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울뽕낭게서¹⁷⁹⁾ 앓아우네
울뽕줄뽕 내따주게 백년하루¹⁸⁰⁾ 내캥살자¹⁸¹⁾

해다졌네 해다졌네 ○○방에 해다졌네
방실방실 우는 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해가지고 저문날에 어떤 행상이 떠나가노
부모야 형제 이별하고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177) 망건 줄을.

178) 상투의 방언.

179) 울뽕 나무에서. ‘울뽕’은 울타리가 되도록 심은 뽕나무나 그 잎.

180) ‘백년해로’를 와전한 표현.

181) 나와 살자.

[장안읍 민요 51]

모심는 소리

이옥선(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풍당풍당 찰수제비이 사오야판에¹⁸²⁾ 다올랐네
메늘년¹⁸³⁾은 어디가고 딸년으로 땔깃든고

서월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들기가 알을낳여
그알한배를 주왔으면 금년과게는 내가할걸

[장안읍 민요 52]

창부타령

이옥선(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회관]

백설같은 흰나비아 담장님을¹⁸⁴⁾ 넘지마라
못썰나무¹⁸⁵⁾ 왕거미가 줄을쳐놓고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장안읍 민요 53]

모심는 소리

182) 사위 판에.
183) ‘메늘년’은 며느리의 비속어.
184) 담장을. 부르기에 따라 “담장문을”이라고도 한다.
185) 못썰 나무.

김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명례리 신명마을 신명마을회관]

이논빼미 모를숨가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이 술을숨가 영화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행상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댁죽고 유별행상이 떠나가네

남창남창 베리끝에 무정하는 울오랍아
우리는 언제서 남자되어 여자한쌍 낀지주꼬¹⁸⁶⁾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목골목 연개나네¹⁸⁷⁾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이 연개넬줄을 모르는고

머리 좋고 실한¹⁸⁸⁾ 처녀이 울뽕낭게서 혼자우네
울뽕줄뽕 내따주며이 백년해로 맺을긴데

오늘해가 요만되며이 점심참이¹⁸⁹⁾ 늦어온다
미나리야 시금초야이¹⁹⁰⁾ 맛본다고 더디더라
(조사자 : 아 이기 점심 때 노래다 그지예?) (점심 노래.)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186) 건져 줄까.

187) 골목 골목 연기 나네.

188) 실한 즉, 튼튼한.

189) 점심 참이.

190) 시금치야.

[장안읍 민요 54]

다리 세는 소리

김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명례리 신명마을 신명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춤우리 받고 독 받고
연두 참깨 열두 양
가 사 머 리 양 두 칼

[장안읍 민요 55]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김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2일 채록
[명례리 신명마을 신명마을회관]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친다
다홍치매 어렁진다¹⁹¹⁾

[장안읍 민요 56]

산비둘기 소리 노래

김정례(여, 1930년 생) 가창

191) 다홍치마 얼룩진다.

2011년 3월 12일 채록
[명례리 신명마을 신명마을회관]

지집죽고 자식죽고¹⁹²⁾
내호무창¹⁹³⁾ 우예살꼬¹⁹⁴⁾
구구구구

[장안읍 민요 57]

화투 타령

김영경(남,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구기마을 구기노인정]

정월속가지 속속한 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살자는 마음
사월흑사리가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르는 나비
육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아 달밝겠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이 뚝떨어졌네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우주나 활량이 놀러간다

19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193) 나 혼자서.
194) 어찌 살꼬.

[장안읍 민요 58]

모심는 소리

김영경(남, 1932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구기마을 구기노인정]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가노
등넝에다 첩을두고~이 첩의집으로 놀러갔네

[장안읍 민요 59]

시집식구 노래

나경출(남, 194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구기마을 구기노인정]

앞산 솔가지 부엉새가 앉아서 부엉부엉 시아바시
명지주머니 끈달아 차고서 잔소리도 많은 시오마시
언덕에 나가 두릅을 심어서 두렵고 두려운 시숙양반
뒷밭에다 고추를 심어서 짭고도 매운 맛동서야
옆밭에다 수수를 심어서 끝도록 절도록 시동생아
수시우에 제비가 앉아서 조잘조잘 시누애씨
앞마당에다 목화를 심어서 싱글벙글 내낭군아
얼씨구 좋다 정말로 좋다 이렇게 좋다간 딸놓겠다

[장안읍 민요 60]

다리 세는 소리

방정자(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 맹구¹⁹⁵⁾ 도맹구
추바리¹⁹⁶⁾ 받고 도 받고
앵두자개¹⁹⁷⁾ 열두 장
가 소 머 리 앵 두 칼

[장안읍 민요 61]

산비둘기 소리 노래

방정자(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호무창 우째살꼬
구구구구

[장안읍 민요 62]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 노래]

방정자(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불매¹⁹⁸⁾불매 이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¹⁹⁹⁾

195) 망건.
196) 뚝배기의 방언.
197) 앵두나무로 만든 자개농.
198) 풀무의 방언.

우리아기 불매구나
우쭈우쭈 잘크거라
둥실둥실 잘크거라

[장안읍 민요 63]

아기 재우는 노래

방정자(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자공자공²⁰⁰⁾ 자공개야
머리잡은 눈에오고
눈에잡은 머리가고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공 자공 자공 (이래 했다.)

[장안읍 민요 64]

권주가

방정자(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습니다 (새미 정자.)
그물에 술을빚어 만수주라고 하웁니다
이술한잔을 잡으나시면 만수무강 하웁니다

199) 누구 풀무인고.

200) 개가 짖는 소리의 의성어.

[장안읍 민요 65]

모 찌는 소리

손금란(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한강에다이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어이 목화심어 목화따기 어려워라 (안자 다 했지 머.)

[장안읍 민요 66]

모심는 소리

손금란(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이논에다이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어이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이후후후후

모야모야이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화승할래²⁰¹⁾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화승할래 이후후

서월이라²⁰²⁾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낭여
그알한개 어이 주았시믄²⁰³⁾ 금년과게 내할구로 호이호이후후

서월이라이 남정자야 점섬참이 늦어오네
이등저등이 건너등에 돌고보니 늦어오네 이후후후후

201) 꽃을 피워 다 자라면.
202) 서울이라.
203) 주웠으면.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기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이 후 후 후 후

남창남창이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화승하여 낭군님부터 만넨라네 이 후 후 후 후 [웃음]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이 골목골목에 연개나네
우리님은 어이 어디가고 연개넬줄 모르는고 이 후 후 후 후 후

초령초령 영사초령이 임의방에다 불밝히려
임도눕고 나도눕고이 저불한쌍을 누가끌고 이 호 호 호 호 호

[장안을 민요 67]

노랫가락

최전(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헤 ~ 심낭자²⁰⁴⁾ 거동을보소 앞뭇보는 자기부친
굳은눈을 띠우려라고 남경선이 내뭇이팔려
한숨쉬어 동남풍되고 눈물흘러서 임당수로다 좋다²⁰⁵⁾

헤 ~ 뒷동산 푸른청(靑)자요 앞산우에는 봄춘(春)자여
굽이굽이 내천(川)자요 가지가지는 꽃화(花)자라
그냥계²⁰⁶⁾ 열매가열어 아침²⁰⁷⁾ 감주는 알감주로다²⁰⁸⁾

204) 심청이를 말함.

205) 심청가의 내용을 노랫가락으로 부른 것이다.

206) 그 나무에.

207) 아침.

208) 일명 ‘한자 노래’로 한자풀이를 넣어 노랫가락으로 부른 것이다.

[장안읍 민요 68]

애원새기 노래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한살묵어 어멈죽고
두살묵어 아범죽고
호부닷새 길쌈배와
열다섯에 길쌈방적 같이배와
열일곱에 가관하여²⁰⁹⁾
열에여덟에 시집가니
농두바리 개두바리
보리닷주 아홉치와²¹⁰⁾
신내뜰 갱빈뜰에 내리가니
늙은할무니 하는말씀
저게가는 저신행은
어데꺼정 가시는고
착어람도 찬란하네
동네돌때 가신신행
착어람도 찬란하다
시집가는 사흘날에
첫새복에 일어나서
머리빗어 단장하고
물아홉푼²¹¹⁾ 여다놓고
재아홉푼 저다놓고

209) 관례를 치러.

210) 보리 다섯 되 아홉 치와.

211) 물 아홉 번.

뒷발에 올라가서
야애²¹²⁾닷단 머구²¹³⁾닷단
열애닷단 비어다가
머구는 씹을하고
야애는 찹을하고
뒷대발에 올라가서
새두바리 앓았는거
한바리는 날라가고
한바리는 때리잡아 [청중 박수]
새별같은 동술²¹⁴⁾안에
새파라니 데치내어
열두판상 갈라놓고 ([청중에게] 단디 들어보소.)
쪽지벨랑 담았는거
살강²¹⁵⁾곁에 엮어놓고
앞집동세²¹⁶⁾ 줄라하니
뒷집동세 뺏길기고
뒷집동세 줄라하니
앞집동세 뺏길기고
살강곁에 엮어노니
시누부가 호리납작 했구나²¹⁷⁾
아리사랑
(열두 판상 갈라놓고, 쪽지배 담았다 켜제 아까.) (조사자 : 예)
아리사랑 내리가서
시금시금 시할배요
시금시금 시할배요
날같은 손부메늘 봐였다고

212) 채소의 일종인 ‘가지’를 말하는 듯함.

213) 머위의 방언.

214) 옹달술, 작고 오목한 술의 방언.

215) 선반.

216) 앞집 동서.

217) 시누이가 몰래 넙죽 먹었구나.

새별봉창 해돋두룩 자는기요
 은대는 세수하고
 돛대 양개치고²¹⁸⁾
 반포수건²¹⁹⁾ 닦을닦고
 아적진지²²⁰⁾ 잡으시소
 큰방을 후아들어
 시금시금 시아배요
 시금시금 시어매요
 날같은 메늘자석 봐였다고
 새별봉창 해돋두룩 자는기요
 은대는 세수하고
 돛대 양개치고
 반포수건 닦을닦고
 아적진지 잡으시소
 못방에 시대럼요²²¹⁾
 날같은 형수하나 봤다고
 새별봉창 해돋두룩 자는기요
 은대에 세수하고
 돛대 양개치고
 반포수건 닦을닦고
 아적진지 잡으시소
 아릿방에 일꾼들아
 새끼서발 꼬왔거든
 아적이나 잠수웁고
 나말어나²²²⁾ 가시소
 주개²²³⁾자리 둘러미고

218) 양치질하고.

219) 반베수건. 반베는 반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띠나 수건 감의 폭이 좁은 무명.

220) 아침 진지.

221) 시대 도령요.

222) 나무 하러나.

223) 주걱.

밥떨라고 돌아서니
시금시금 시어무님 하신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삼작걸에²²⁴⁾ 니찾아 누가왔다
시금시금 시엄매요
삼작걸에 내찾아 올사람이
아무도 없습시다
아가아가 메늘아가
그리해도 나가봐라
삼작걸에 나가보니
애원애기 일잘한다 소문듣고
안고지고 들어오구나
쇠도루깨 둘러미고
쇠방마치 둘러차고
저승차사 애원애기 일잘한다 소문듣고
[말하듯이 빠르게] 잡으러 왔습시다
시어마님 하신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니언제나 올라하노
시금시금
[가사를 바꾸어]
아리사랑 내리가서
시금시금 시할배요
시금시금 시할배요
이내대신 갈란기요
아가아가 메늘아가
소뿔도 깎꺾이고
염불도 목맥인데
니대신 니가가고

224) 대문 있는 곳에.

내대신 내가가지
 큰방을 후아들어
 시금시금 시아배요
 시금시금 시어매요
 이내대신 갈란기요
 소뿔도 깍꺅이고
 염불도 목맥인데
 메늘대신 메늘가고
 내대신 내가가지
 못방을 후아들어
 시금시금 시대렴요
 이내대신 갈란기요
 형수형수 못형수요
 소뿔도 깍꺅이고
 염불도 목맥인데
 형수대신 형수가고
 내대신 내가가지
 대신가리 없는구나
 신랑님 대신갈라 내떠서네
 굽없는 갓을씩고
 앞없는 신을신고
 뒤척없는²²⁵⁾ 양말신고
 대신갈라 내떠서네
 당신가고 내살아야
 아무희망 없는거라
 혈수없어 내가야지
 시금시금 시어무님 하신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니언제나 올라하노

225) 뒤척 없는.

부뚜막에 혈은밥티²²⁶⁾
썩나거든 내오지요
살강밑에 흐른물은
강되거든 내오지요
아가아가 며늘아가
니언제나 올라하노
삼년묵은 개뻥다구
살불거는 내오지요
동솔에 안친닭이
훼치거든 내오지요
아가아가 며늘아가
니언제나 오실라노
뒷동산 뿌리없는 고목나무
앞패거거든 내오지요
(다 했습니다. 됐소 마 인자.)

[장안읍 민요 69]

정관 노래(17²²⁷⁾)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기장삼동 열두동에 정관면 매학리에
상곡뒷산 매남산이 생겼으면
하나모아 맨우방우 두나모아 송곳방구
그가분대²²⁸⁾ 절을지아 종소리가 당당하네
가동땅 신처자야 일잘한다 소문나도

226) 흘린 밥알.

227) 제보자가 정관에서 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관 노래’라고 했다.

228) 그 가운데.

매골당 김치자는 공단에는 수절놓고
비단에는 애월뜨고 김치자 재주가 생일레라
가동에는 가니꺼네 신준호딸이 되고졌고
평전에는 가니꺼네 정좌수딸이 되고졌고
매월에는 가니꺼네 김양옥이 되고졌고
상곡에는 가니꺼네 박복남이 되고졌고
평전에 정좌수는 깨를둘러 뿔터이요
상곡에 권서박도사는 택일해도 뿔터이요
(다 했습니다.)

[장안읍 민요 70]

정관 노래(2)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머정가서 머리얻고 삼막가서 삼을얻고
팽전가서 팽풍얻고²²⁹⁾ 함박가서 함을얻고
달상가서 달을얻고 땅골가 땅나구²³⁰⁾얻고
매월가서 떡메얻고 상곡가서 상채리고
예름²³¹⁾가 정례하고 방곡가서 방을얻어
첫날밤을 보냈담더 가동 가 가매 얻어 시집갔습니다

[장안읍 민요 71]

쌍가락지 노래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29) 평전 가서 평풍 얻고.
230) 당나귀.
231) 예림.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²³²⁾ 늦가락지
잘에보니²³³⁾ 처잘래라 먼데보니 달일래라
그쳐자는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래라
(청도복숭 올라버시가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청도복숭 올라배요 거짓말씀 말아시소
남풍이 다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래라
(숨소리가 아이라 남풍이 불어 풍지 떠는 소릴래라.)
그말듣기 원통해서 조그만은 채피방²³⁴⁾에
짜깨칼²³⁵⁾을 품에품고 열두가지 옷을입고
아홉가지 약을묵고 자는듯이 죽고져라
이내나는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응꼬밭에²³⁶⁾ 묻어주소
응꽃이 피거들랑²³⁷⁾ 날인줄로 알아주소

[장안읍 민요 72]

청관 꽃 노래²³⁸⁾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뒷동산 저할마꽃은 남낙택이 꽃이로다
논두름에²³⁹⁾ 나발꽃은 고맹숙이 꽃이로다

232) 주석(晝夕)으로. 즉, ‘밤낮으로’의 뜻인 듯함.
233) 곁에 보니.
234) 조그만 방.
235) 작은 접이칼.
236) “연꽃 밭에”의 뜻인 듯함.
237) 연꽃이 피거들랑.
238) 제보자가 ‘청관 꽃 노래’라고 자칭한 것이다.

줄로타고 양대꽃은 군내택이 꽃이로다
 울달밑에²⁴⁰⁾ 메밀꽃은 본동택이 꽃이로다
 뒷동산 붓대꽃은 백전숙이 꽃이로다
 천방지방 호박꽃은 임기택이 꽃이로다
 덩굴밑에 더덕꽃은 두동택이 꽃이로다
 사랑앞에 옥장관은 인동택이 꽃이로다
 어화그꽃 잘지왔네 가지가지 성화로다
 팽직에는 곱기피고²⁴¹⁾ 질직에는 슬퍼진다
 논두름에 쫄레꽃은²⁴²⁾ 중리택이 꽃이로다
 구월구월 국화꽃은 쏜두리아 꽃이로다
 장독간에 주목봉사꽃은 권복술이 꽃이로다
 연당안에 연꽃으는 박맹률이 꽃이로다
 샬랑앞에 목단화는 사운당택이 꽃이로다
 샬랑앞에 월개야는 용당택이 꽃이로다
 어화그꽃 잘지왔네 가지가지 성화로다
 팽직이는 곱기피고 질직에는 슬프지네
 미나리아 새핀꽃은²⁴³⁾ 일동택이 꽃이로다
 장독간에 사발꽃은 가동택이 꽃이로다
 뒷동산 함박꽃은 창원가동택이 꽃이로다
 샬랑앞에 화초꽃은 송자권숙이 꽃이로다
 뒷동산 두견화는 두전택이 꽃이로다
 어화그꽃 잘지왔네 가지가지 성화로다
 팽직에는 곱기피고 질직에는 슬프지네
 (아이구 대라 좀 쉬가 하자. 초성이 안 간다. 안자 초성이 안 간다.)
 이삼월 맹화꽃은 신순옥이 꽃이로다
 이삼월 봉선꽃은 중리택이 꽃이로다
 높은안개 능금꽃은 박애선이 꽃이로다

239) 논두렁에.

240) 울담 밑에.

241) 필 적에는 곱게 피고.

242) 쫄레꽃은.

243) 새로 핀 꽃은.

까뭇 능청능청 칠기꽃은²⁴⁴⁾ 선암택이 꽃이로다
까뭇잡잡 까지꽃은²⁴⁵⁾ 평전택이 꽃이로다
뒷동산 평리꽃은 발용택이 꽃이로다
장독간에 난초꽃은 덕전택이 꽃이로다
울달밑에 앵두꽃은 송복순이 꽃이로다
어화그꽃 잘지왔네 가지가지 성화로다
(펼 직에는 곱게 피고 질 직에는. 아이구 고만하자 됐다.)

[장안읍 민요 73]

땡기 노래

박애선(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3월 5일 채록
[오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우리아배 떠온땡기
우리엄마 접은땡기
우리할매 웃음땡기
우리올케 개살²⁴⁶⁾땡기
우리오빠 용심땡기
우리동승 눈물땡기
이내하나 좋은땡기
석자넉자 미림땡기
점방같은 이내머리
물살같이 흘러빠고
저건네 객사²⁴⁷⁾뜰에
화초좋다 소문듣고
화초기경 하러가서

244) 칠꽃은.

245) 가지 꽃은.

246) 심술이나 샘.

247) 손님을 맞이하는 곳.

점방같은²⁴⁸⁾ 이내머리
 물살같이 흘러빠고
 저건네 객사뜰에
 화초기경²⁴⁹⁾ 하러가서
 금초댕기 잃었구나
 조았다네²⁵⁰⁾ 조았다네
 토연토연 김토연이
 금초댕기 조았다네
 토연토연 김토연아
 조완댕기 나를주소
 금초댕기 나를주소
 너거아배 도복귀카²⁵¹⁾
 우리아배 도복귀카
 마주설때 너를주께
 토연토연 김토연아
 조완댕기 나를주소
 금초댕기 나를주소
 너거엄마 치마귀카²⁵²⁾
 우리엄마 치마귀카
 마주설때 너를주께
 토연토연 김토연아
 금초댕기 나를주소
 너거오빠 우리형님
 맞사돈이 되거들라
 그때새나²⁵³⁾ 너를주께
 토연토연 김토연아

248) 점방은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 “점방같은”은 “다양하게 차린”의 뜻인 듯함.

249) 화초 구경.

250) 주웠다네.

251) 도복 자락과.

252) 치마 자락과.

253) 그때서나. 그때나.

금초댕기 나를주소
너거올케 우리형수
맞사돈이 되거들랑
그때새나 너를주게
헐수없어 갠혼하네
봉채베²⁵⁴도 구만필에
조복돈²⁵⁵도 구만냥에
갱기갱기 왔는구나
봉채베 구만필로
필필이 풀어봐도
금초댕기 안왔구나
조복돈 구만냥을
갱기갱기 풀어봐도
금초댕기 안왔구나
첫날밤에 도복귀에
금초댕기 내어주네
그댕기에 목을매어
자는듯이 죽었구나
모시치마 모진년아
밤을쳐마 발긴년아
니아니면 사람없나
(청중 : 아이구.)

[장안읍 민요 74]

쌍가락지 노래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254) 봉채로 넣은 베.

255) 옷을 짓는 데 쓰는 돈.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절에보니 처잘레라
그쳐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요란하다
남한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리더라
천도복숭 오라버니 거짓말을 하지마소

[장안읍 민요 75]

노랫가락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간다못간다 얼마나올어 이런마당에
한강수고 한강수된데다 배 띄워놓고 임실으러가세
임실으러갈때는 반돛대달고 임실어올때는 온돛대단다
하늘에 뜬구름은 비실어가고 뒷강에 뜬배는 임신고간다

[장안읍 민요 76]

연애 타령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우리야 연애는 솔방구 연앤데
바람만 불어도 툭 떨어지노라
우리야 연애는 찹쌀모찌 연앤데
불기만 불어도 떨어질줄 모르더라
우리야 연애는 미루꾸²⁵⁶⁾ 연앤데

내렸다 들었다가 좋다 다놀아빠졌네

[장안읍 민요 77]

화투 타령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정월술가지 속속한 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지고
오월난초 날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았네
구월국화 굳은 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십일월에는 열매가 열어
십이에 앞에 떨어졌고

[장안읍 민요 78]

모심는 소리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256) 우유(ミルク).

에미년은 어데가고 딸을동제를 맡겼던고 이~후후후

서울가던 선부네여 우리선부님 오시던가
오기사 오련만은 칠성판에다 실려오네 이~후후후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딜갔노
문에야전복을 에와들고 첩의야집에도 놀러가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하성²⁵⁷⁾할래
이달크고 후달크고 칠팔월에 하성할래

낭창낭창 버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속을 섬길래라 이~후후후

바디²⁵⁸⁾정같은 이논빼미 장기야판만큼 남았구나
장기야판은 있건만은 이장기떨이가 누있으리 이~후후후

일을하니 이맘되면 점심참이가 늦어온다
서울아배추 시락나물을 맛본다고 더디온다

오늘낮에 점심반찬 이무슨고기가 오를란고
전라도라 생망청에 이말이많이도 오를란가 이~후후후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도 해다졌네
우리야임은 어들가고 연개넬줄을 모르는고 이~후후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하상할래
이달크고 후달크면 칠팔월에는 하승하지 이~후후후

257) 화생(花生) 또는 환생(還生)이 와전된 것인 듯함.

258) 벼틀, 가마니틀, 방직기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

서울이라 유람하네 해달뜨는 구경가자
상주땅의 홍골못에 노느나 구경가자 이~후후후

포롱포롱 밤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모시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정들끼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절레야꽃은 장개가고 사우야꽃은 상각²⁵⁹⁾가네
많이가나 잊지마소 씨종자를 받아가네 이~후후후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의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이~후후후

초령아초령아 영사초령 임의야방에도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눕고 초롱불을 누가끄리 이~후후후

꽃이라도 낙화가되면 오는나비도 아니오고
우리야임도 밤중이던가오시는 서방님도 못오신다

머리 좋고 수단처녀 올뽕낭개가 앓아운다
올뽕돌뽕 내따줄게 백년해로를 내강하자

[장안읍 민요 79]

수심가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259) 상객(上客).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우리야오빠 재주가좋아 강물밑에다 집을지어
굶은바늘은 지붕을쌓고 가는바늘은 연못쌓고
수심이요 수심이요 강물지나와 수심이야

[장안읍 민요 80]

노랫가락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대천아 한바다에 뿌리없느냐 낭기나서
가지는 열두가지요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그렇게 열매가맺어서 일월하이면 맹월이로다

[장안읍 민요 81]

사발가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나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가 안난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요 에헤요난다 데여라
여생 세월은 다넘어간다

[장안읍 민요 82]

백발가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에헤

이팔청춘아 소연아몸되고²⁶⁰⁾ 백발보고서 웃지를말아라
나도야그제께 청춘이더니 백발보기깡 잠시로구나요

[장안읍 민요 83]

너냥 나냥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그리바 운다
너영 내영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다 참사랑이로다

[장안읍 민요 84]

창부타령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짐도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한줄도 아니난다

²⁶⁰⁾ 소년의 몸 되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 못하겠네

배가고파서 지은저밥 뉘²⁶¹도 많고 돌도 많고
뉘 많고 돌 많은 것은 임이 없는 탓이로다
언제언제나 유정님 만나 이돌없는밥 먹어볼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평생 뉘가 여기로다

[장안읍 민요 85]

권주가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을 묵고나면은 늙도젊도 안합니다

[장안읍 민요 86]

지신밟기 노래

권영숙(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회관]

얼후 지신아 도장지신 지신놀러라
알이나 쫑쫑채우소 천년만년 놀러라

261) 뽕은쌀 속에 등거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장안읍 민요 87]

모심는 소리

이복명(여, 191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 회관]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종자를 맡겼던가

헤빌랑헤빌랑 꼬장바지 알궁텅이시리가 못살겠네

서울이라 금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놓여
그알한개 주었시믄 금년과게 내할고로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하성해여²⁶²⁾ 처자부터 생각하리

해다지고 저문날에 이별행상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온다

달아 뚜렷던달아 임이홀로 누워나더냐
어느부랑자 품었더냐 명월아 본대로일러라

창밖에 오는비에 산란도 하고요
비끝에 돌는다 유정도 하더라

[장안읍 민요 88]

화투 타령

²⁶²⁾ 환생하여.

이복명(여, 191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 회관]

정월속가지 속속한 내마음은
이월매조에 댕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내마음은
사월흑싸리 흐리잘로
오월난초에 나는 나비여
유월목단에 앉으는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나 앉으오
팔월공산에 달도나 밝는다
구월국화 곱은일 만나고
시월단풍에 따라라 지느라

[장안읍 민요 89]

백발가

이복명(여, 191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 회관]

이팔청춘에 소년아들어라 백발보고서 웃지를말아라
우리도그때에 청춘이더니 오늘같이도 백발이되었네

[장안읍 민요 90]

액풀이 노래

이복명(여, 1918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임랑리 임랑마을 회관]

정월달에 들은살은 이월달에 막아주고
이월달에 들은살은 삼월달에 막아주고
삼월달에 들은살은 사월초파일에 막아주고
사월달에 들은살은 오월달에 막아주고
오월달에 들은살은 유월달에 막아주고
칠월달에 들은살은 팔월공살에 막아주고

[장안읍 민요 91]

모심는 소리

김종선(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장안리 상장안마을 상장안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거매들고²⁶³⁾ 첩의방에 놀러가자

모시적삼 시적삼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몬 병날끼고~이 쌀날만틈만 보고가소

[장안읍 민요 92]

모심는 소리

김석권(남,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하장안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²⁶³⁾ 쥐어 들고.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오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모시적삼 안쇳안에~에 연적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들거고~오 쌀날만큼만 보고가소

[장안을 민요 93]

모 찌는 소리

안두리(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하장안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가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러카는가 모르겠다.)
하늘에다 목화숨가 목화따기 난감하-네

[장안을 민요 94]

모심는 소리

안두리(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하장안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에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들어갔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소자가 울고가노
부모야~형제 이별하고~이 갈곳이없어서 울고가네

[장안을 민요 95]

베틀 타령

김봉기(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애다리는 두다리라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이로다
잉엇대는 삼형제여 놀림대는 애동자라
에헤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대노라
잉엇대²⁶⁴)는 노는형국이 하늘에선녀가 노는듯하라
헤에헤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대노라
늙은이가짜면 오방주요 젊은이가짜면 하비단이라
노방주하고 다짜가지고 서방님의수발이나 하여나보자
에헤헤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대노라

[장안을 민요 96]

뱃노래

김봉기(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어여너야 너야 어야 너야 어기여차 뱃노리 가랴나
만경장파에 배를띄어서 슬랑슬랑 배를타고
사공은 가는구나
어야 디어차 어기야 디야
어기 여차 뱃노리 가잔다

부산연락 떠날때는 용두산 올리고
이내몸은 떠날때는 빙모님 닮으런다

264) 잉엇대의 지역말.

어야 디어라 어기야 디야
어기 여차 뱃노래 가랴다

신작로 양옆에 아카시아 심어서
기생아 치맛바람에 스리단풍 들구나
어야 디어라 어기야 디야
어기 여차 뱃노래 가랴다

만경창파에 배를 띄워서 갈매기를 벗을삼고
배는가는구나
어야 디어라 어기야 디야
어기 여차 뱃노래 가랴다

[장안읍 민요 97]

화투 타령

김봉기(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댕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홀어놓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었던이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장안읍 민요 98]

베들 타령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베들농자 베들농자 옥난간에다 베들농아
베짜는 아가씨 베들노래 수심만 지노라
낮에짠것은 월광단이요 저녁에짠것은 일광단이라
일광단월광단 짜여서 정든님웃이나 지어볼까

[장안읍 민요 99]

담배 타령[담바구 타령]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구야구야 담방구야
동네울산에 도리도리 담방구야

[장안읍 민요 100]

각설이타령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우리야형제는 팔형제 한서당에 글을배워
정승감사를 원했는데 요모양요꼴이 되었구나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아가리넓다 대구장 너무넓어서 못갈래야
 질고지는 영천장 너무질어서도 못갈래
 뽕뽕돌아라 돌연장 어려워도 못갈래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나
 일선에갔던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나 들고나보소
 이승만하대나 아즉살은 부대통령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보소
 삼천만에 동포들이 백마오기만 기다린다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보소
 사심사는 유엔군 평화오기만 기다린다
 오자나 한자나 들고나보소
 오십리밖에 대포소리 북한일통을 진동한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보소
 육이오사변에 집태우고 거지생활이 웬말인고
 칠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소
 칠십리밖에 대포소리 북한일통을 진동한다
 팔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소
 팔십묵은 노부모 자녀오도록 기다린다
 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소
 국군에갔던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십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소
 국군에갔던 십년만에 일등병이 웬말이나

[장안읍 민요 101]

화투 타령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정월술아 들고보소
송백서 놀던곳이 신선놀던 송악인가
이월매조 들고보소
상각사 제일봉에 처녀총각이 맺었던가
삼월사쿠라 들고나보소
춘삼월 호시절에 처녀총각이 맺었던가
사월흑조 들고나보소
수목발에 앉은흑조 슬피우는 저흑조야
오월난초 들고나보소
임의순간 난초끝은 보기 좋게 피었건만
우리님은 어디로가고 날사랑할줄을 모르던가
유월목단 들고나보소
대문안에 뿌리박은 가지가지나 버들가지
금강산 벗나무가 기색없이 날아든다
칠월홍조 들고보소
날가같이 어려웁게
팔월공산 들고보소
둥실둥실 저달에는 임의동창에 비취주는데
우리님은 어디로가고 날사랑할줄을 모르던가
구월국화 들고보소
임이숨가²⁶⁵⁾ 국화꽃은 보기 좋게 피었건만
시월단풍 들고나보소
꼬리자른 저노루는 이곳에 십팔열여덟에
짹을잃고 찾아간다
오동잎 긴긴밤에 여자홀로 누웠으니
임이오나 잠이오나 선달누주 들고보소
우산대 높이들고 입을찾아 헤매노라

265) 십어의 지역말.

[장안읍 민요 102]

시집살이 노래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성아성아 올케성아 시집살이 어땠더노
시집살이 좋건만은
조그마한 수박에 밥담기도 어렵더라
조그마한 도리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장안읍 민요 103]

애원새기 노래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한살먹어 엄마죽고 두살먹어 아빠죽고
호부²⁶⁶)다섯 길쌈배워 열다섯에 시집가서
시집갔던 사흘만에 큰방문을 열었더니
시금시금 시어머니 키작다고 나무라시고
시금시금 시아버지 손작다고 나무라시고
날아가는 원앙새야 내마음을 알아주나

[장안읍 민요 104]

사기 재우는 노래

266) 기껏해야 고작.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우리아기 자는데는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온쌀받아 너를주마
개야공공 짓지마라
받은밥상 너를줄게
문아팔딱 새지마라
초지한장 정해줄게

[장안을 민요 105]

야기 어르는 노래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꽃도꽃도 유가나리
인간꽃겉이도 유가나리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겐 효자동아
형제에겐 용기동아
이웃간에 화목동아

[장안읍 민요 106]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한톨을 주워다가
살강밑에 넣어놓고
머리꺼먼 생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한톨만 남겨놓은건
너한조각 내한조각
다 먹었다

[장안읍 민요 107]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김부용(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시장마을 시장마을회관]

불매야 경상도 대불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야 누불매꼬
경상도 대불매
불매나 딱딱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뛰먹고 살았노
이웃집에 쌀한되를
줬는데 먹고나니
불매섬이 떨떨
불매야불매야 떨떨

[장안읍 민요 108]

모심는 소리

홍근례(여, 1911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좌천마을회관]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로가고이 딸년으로 맬깃던고

바다같은 이못자리 장구판만 남았구나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노
문어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포룽포룽 봄배추는 밤이슬을 기다리고
옥에갇힌 나르님은 입을 기다린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처자가 울고가노
이태백의 본댁죽고 울고가는 행상떠나간다

[장안읍 민요 109]

쌍가락지 노래

홍근례(여, 1911년 생) 가창

2011년 3월 1일 채록
[좌천리 좌천마을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래라 짚에보니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들일래라
천도복숭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소

4) 정관면 민요

[정관면 민요 1]

모심는 소리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올뽕낭게서 앓아우네
올뽕달뽕 내따줍세 백년살이로 내캉살자 이~후후후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남창남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야죽어 남자되어 임의부텅 건질라네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들가고 딸의동재로 맷갸더노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이~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우리야임은 어들가고 연기넬줄을 모르던고

모시야적삼 안고름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뽕날끼고 살날만치만 보고가소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들갸노

문에야대전복 손에 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정관면 민요 2]

시집살이 노래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제놓기 에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저바이¹⁾ 말하기도 에렵더라

[정관면 민요 3]

아기 어르는 노래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어데서 어데서 왔느냐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널졌나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부루락 딱딱 불매야

1) 시아주버니의 지역말.

[정관면 민요 4]

진주난봉가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울도담도 없느냐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로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 검은게씻고
오동통통 꾸디리서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 불러거든 사랑방을 들어가라
사랑방을 들어가니 첩을끼고 권주가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매어 죽어뻘다

[정관면 민요 5]

화투 타령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되고
오월난초 날으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특떨어졌다
십일월오동 오실려던손님
십이월비에 허송됐다
얼씨구나 좋다 저얼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정관면 민요 6]

너냥 나냥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그리워 운다

[정관면 민요 7]

아리랑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관면 민요 8]

모심는 소리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애기야도런님 땡이들어 송금씨야 배깎아라
송금씨야 깎은배는 맛도좋고 연하더라

[정관면 민요 9]

사발가

김복수(여,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는 풍풍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난다

[정관면 민요 10]

권주가

박말순(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시오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백주요
받기는 받았건만은 이은혜를 어찌하오리카

[정관면 민요 11]

밀양아리랑

박말순(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총각아 총각아 너뭇허러 왔느냐
씻돌²⁾이 좋아서 낫갈러 왔다
총각머리는 수싯대머리
배나무 발라서³⁾ 윤태난다
아리아리롱 스리스리롱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정관면 민요 12]

풍년가

박말순(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마을경로당]

2) 부싯돌.

3) 발라서.

하느님주신 우리나라 편편옥 독아지
낮은데가면 밭이되어 높은데가면은 논이된다
논이되면 소를몰아 한평한평 논밭갈고
씨를뿌려 덮어노니 에라중구나 싹이났네
아들딸 삼남매 웅기중기
햅쌀에 콩밥이 맛있구나
풍년이왔네 풍년이와 팔도강산에 풍년이와
하나님께 갚으라려 이렇게노래를 불러보세
에헤용 상사디여

[정관면 민요 13]

모심는 소리

구순남(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알금삼상 고운독에~이 놀리뻬다⁴⁾ 금청주야
네모로깎안⁵⁾ 유리잔에~이 술을부어 권주가를 바라보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유별행상이⁶⁾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우런님은 어디가고 연개넬주로⁷⁾ 몰랐던고

초랑초랑 영사초랑⁸⁾ 임의방에 불밝혀라

4) 누룩이 뻬다.

5) 네모로 깎은.

6) 이별행상이.

7) 연기 넬 줄을.

임도늡고 저도늡고 저불끌이는 누있으꼬⁹⁾

[정관면 민요 14]

쌍가락지 노래

구순남(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쌍금쌍금 쌍가락지 녹곡줄로¹⁰⁾ 녹가락지
잘해보니 처널레라¹¹⁾ 먼데보니 달일레라
그쳐자야 자는방에 숨소리도 들일레라
청도복상 오라부님¹²⁾ 거죽말씀 말아시소
남풍이 들어치니 풍지떠는 소릴레라

[정관면 민요 15]

다리 세는 소리

구순남(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정사맹도 도맹도¹³⁾
도리춤치 장뚝간

8) “초롱초롱 청사초롱”을 이렇게 불렀다.

9) 누가 있을까.

10)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석질로”를 제보자는 이렇게 불렀다.

11) 처녀일레라.

12) 청도복숭 오라버니. 청도복숭아처럼 잘 생긴 오라버니.

13) “경상망건 도망건” 또는 “진주망건 도망건”으로 흔히 부른다. 망건은 갓 아래 머리를 감싸기 위해 쓰는 것이다.

서울양반 대양반
댕기댕기
범 사슴 노래비 좇이가 빵

[정관면 민요 16]

모 찌는 소리

남영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조르자 조르자 요뭇자리로 조루자¹⁴⁾

[정관면 민요 17]

모심는 소리

남영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만장¹⁵⁾겉은 이뭇자리~이 장구야¹⁶⁾ 반만뜸¹⁷⁾ 남았구나
임이죽어 연자¹⁸⁾가되어 추영끝에다¹⁹⁾ 집을지여
날때보고 들맨봐도~²⁰⁾ 임인줄은 내몰랐네

새뻐같은²¹⁾ 저밭골에 반달겉이도 떠나오네

14) 줄이자. 모를 찌서 못자리의 넓이를 줄이자는 뜻임. 모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모를 찌기 위해 부르는 소리이다.

15) '만장'은 모로 가득 채워진 못자리를 뜻함.

16) 장구(배미)야. 장구배미는 장구 모양과 같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논배미를 말함.

17) 반만큼.

18) 연자(燕子). 즉, 제비.

19) 추녀 끝에다.

20) 나가며 보고 들어오며 보아도.

니가무슨 반달이고~에 새복달-이²²⁾ 반달이지

절레야꽃은 장가가고~오 석노야꽃은²³⁾ 상각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러 씨종자바래가 내가간다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테 어테가노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젓먹으러 내가갔다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개가 알을낳여
그알한배 조았시문²⁴⁾ 금년과게로 내할구로

[정관면 민요 18]

창부타령

남영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 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뒷동산도 봄이라고 꽃이피어서 들을덮고
밤중밤중 야밤중에 우런님도 나를안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정관면 민요 19]

모심는 소리

이봉임(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21) 새별같은.

22) 새벽달이.

23) 석류꽃은.

24) 그 알 한 배(한 쌍) 주웠으면.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오 주인양반은 어딜갔노
(이절은 뭐꼬?) (조사자 : 문에야 전복.)
문에야전복 에와들고²⁵⁾ 침의야집에다 놀러갔네

[정관면 민요 20]

창부타령

이봉임(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저건네라 남산밑에 나무야 비는 저총각아
온갖나무 다베어내도 초록대 하나만 키아주소²⁶⁾
금년 키와 내년을 키와 낚싯대를 후아잡고²⁷⁾
연등안에 별당안에 옥담는 처녀를 낚아내자
잘낚아내면 내사령되고²⁸⁾ 못낚아내면은 상사로다 (청중 : 좋다. 잘 한다.)

얼씨구나 좋나 절씨구나 아니야 놀지를 못하리라

서월이라 남산밑에 나무야 비는 저총각아
(아 함경, 잘못됐는 겐다.)
함경도라 구월산밑에 주초야 캐는 저치녀야
너거집은 어디다 두고 해다진데서 주초캐노
너의집을 가실라 하면 만첩산중 구름밑에
초가야 삼칸이 나집이요 (청중 : 아이구 잘하고.)
얼씨구야 좋네 지화자 좋네 요령기 좋다가 논팔겠네

25) 감싸서 들고.

26) 키워주소.

27) 휘어잡고.

28) 내 사랑되고.

[정관면 민요 21]

청춘가

이봉임(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 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청춘하늘에~에 잔별도 많고요~오~요
요내야 가슴에는~어~히 수심도 많더라~아

[정관면 민요 22]

모심는 소리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 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내훗달에는 열매열게

남창남창 베루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야죽어 남자되여~이 처자곤석을²⁹⁾ 낄지줄래

이논뺨이 모를심어~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이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모시야적삼 반적삼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야보몬 뺨될기고~이³⁰⁾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29) 처자 권속을. 즉 처자 식구들을.

30) 병 될 것이고.

유월이라 새빛달에 처녀들이가 도망가네
석자야수건 목에걸고~이 총각들이가 뒤따리네³¹⁾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수자가³²⁾ 울고가노
부모야형제 유별하고~이 갈곳이없어서 울고간다

알승아달쑥 무자쑤치~이³³⁾ 팔석동동 끈을달아
인지야주까 전지주까~이³⁴⁾ 닭히울어도³⁵⁾ 아니주네

[정관면 민요 23]

베 짜기 노래[옥단춘 노래]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 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제비제비 초량제비³⁶⁾
능금한쌍 물어다가
대궐안에 집을지어
그집짓던 삼년만에
우리아베 서울양반
우리엄마 진주때기
춘아춘아 옥단춘아
그베짜가 누줄라노³⁷⁾

31) 뒤따르네.

32) 어떤 소자가. 수저(小姐)는 낭자나 아가씨를 말함.

33) 무자 주머니. 모직, 즉 털실로 짠 주머니.

34) 인지는 '지금', 전지는 '천천히'의 뜻. 지금 줄까 천천히 줄까.

35) 닭이 울어도.

36) 초록제비. 푸른색 제비.

37) 그 베 짜서 누구 줄라느냐.

서울갔던 울오라베³⁸⁾
자주비단 좌철놓고
홍에비단³⁹⁾ 후철놓고
철록철록 짓고지라⁴⁰⁾

[정관면 민요 24]

다리 세는 소리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래짐치 장도칼
서울양반 피아노가
진주대기 여섯냥
까마구 까우
양철 버짐 노래이 좇이 빵 [웃음]

[정관면 민요 25]

각설이타령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그자저자로 날리고

38) 우리 오라버니.
39) 붉은 비단.
40) 짓고 싶어라.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일자요
일월⁴¹⁾ 송송 야송송
밤중 새별이 완연하다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조눔우 각설이 조래도
하리짜만 몬보모⁴²⁾
기집자석을 다가 운다⁴³⁾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이자요
진주에 기생 의암이⁴⁴⁾
진주에 난간에⁴⁵⁾ 떨어졌다
품바 [웃으며] 허리구나 각설아 [웃음] (청중 : 아이구 잘 한다.)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삼자요
삼층계 밑에 노총각
장가로 몬가 수심이요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청중 : 잘하네. 아이구 놀랬다.) (조사자 : 또 사자는?)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사자요

41) '일월'을 이렇게 불렀다.
42) 하루만 못 보면.
43) 계집과 자식 모두 운다.
44) 의암이. 의암이는 논개를 말한다.
45) '남강에'를 이렇게 불렀다.

소환 행칠 가는 길에
중간참이 늦어온다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아이구 이것도 어릴 때 배웠다.)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오자요
우리 형제 오형제여
(아이구 그라고 모리겠네.)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육자요
육환대승 성지기⁴⁶⁾
우리 조선 귀할라고⁴⁷⁾
조선팔도 다맹기도
요터 하나가 제일이네 [웃음] [일동 박수]
(조사자 : 또 한 자 칠자쥬.)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칠자요
치른치른 단머리⁴⁸⁾
옥비네 한쌍 짝을 맞춰
성길성길 날아든다
[웃으며]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46) 육환대사 성진이.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불렀다.

47) 구하려고.

48) “치렁치렁 단발머리”를 이렇게 부른 듯함.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팔자요
우리형제 팔형제
진주야겔은 너린⁴⁹⁾ 읍에
과게자를 힘을썬다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웃음]

그자저자로 날리고
또 한자로 들고 보니
들고나 보니 구자요
구읍산중 늙은중
염주를 풀에⁵⁰⁾ 걸고
담주⁵¹⁾를 목에 걸고
철두작지 둘러 짚고
절로절로 찾아든다
품바 허리구나 각설아 [웃음]

[정관면 민요 26]

창부타령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이청저청 마루야 청에 뱅뱅도는 백모님요
빌립시다 빌립시다 막걸리 한잔을 빌립시다
막걸리 한잔에 청춘가요 청춘가 한 잔에 양산도요

49) 넓은.

50) 팔에.

51) 담주(膽珠). 푸른색이 나는 담반(황산구리로 이루어진 광물, 반투명 푸른색)으로 만든 구슬.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요러콧⁵²⁾ 좋다가 논팔겔네

[정관면 민요 27]

도라지 타령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여~도 바구니 반실만 캐노~라
에이 에히요 에히 에히요 앵 에헤요 에히여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 간장 스리살살 다 녹힌다

[정관면 민요 28]

밀양아리랑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처마 입에물고 입만뺨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날쫓보소 날쫓보소 날쫓보소

⁵²⁾ 요렇게.

동지첫달 꽃본듯이 날좁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관면 민요 29]

노랫가락[그네 노래]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추천당 세모진낭게 가지가지에 추천을맺어⁵³⁾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정관면 민요 30]

노랫가락[나비 노래]

임규옥(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나비야 청산을 가자 호랑나부야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앞에 붙어가 자고 가소
앞이가 박대를 하면은 속에속앞에 자고나 가~소

[정관면 민요 31]

모심는 소리

53) ‘매어’를 이렇게 불렀다.

함마리아(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대한노인회 정관분회노인정]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던고
서월이라 꼬신청애⁵⁴⁾ 마리반이가⁵⁵⁾ 올랐구나

[정관면 민요 32]

모심는 소리⁵⁶⁾

심말라(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절레야꽃은 장가로가고 석류야꽃은 유곽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바래 내가간다

알금삼삼 고운독에 놀리뻬다⁵⁷⁾ 금청주⁵⁸⁾야
꽃은깎거⁵⁹⁾ 안주를놓고 처녀야한량이 술을붓네

단장⁶⁰⁾안에 화초를심어 단장밖으로 후아넘네
질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질안건네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개⁶¹⁾ 알을낳아
그알한배 주왔이몬 금년과게로 내할구로

54) 꼬신 청어.

55) 한 마리 반.

56) 제보자는 <모심는 소리>를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57) 누룩이 뻬다.

58) '금청주'는 쌀로 빚은 최고의 청주, 즉 최고의 술을 뜻한다.

59) 꽃은 꺾어.

60) 담장.

61) 금비둘기.

남창남창 베루끝에⁶²⁾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여자부텅 건질라네

[정관면 민요 33]

모 찌는 소리

오금옥(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한강에 ~ 모를부아⁶³⁾ 모찌기도 난감하다
하늘에 ~ 목화심어 모찌기도 (청중 : 목화따기도.) 목화따기 난감하다

[정관면 민요 34]

모심는 소리

오금옥(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글체(그렇지)?]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연다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정관면 민요 35]

모심는 소리

62) 벼랑 끝에.

63) 모를 부어.

김영자(여, 194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산곡마을 제보자 자택]

절레야꽃은 장가를가고 석로꽃은 상각하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바래서 나는간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이슬오도록 기다리
(그래가 맞는가 모리지예.) (조사자 : 봄이슬 오도록 기다린다.) (예, 맞는
가 모르겠심더.)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롱오기만 기다린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떠한 형상이 떠나간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형상이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에 또 그라고는.) (조사자 : 우리야 님은 어테 가고.) (야.)
우리야 (아저씨 내보다 더 하네요.)
우리야님은 어테가고 (아이고 그라고는 모르겠다.) (조사자 : 연기 낼
줄.) (맞아.)
연개낼줄 모르는고

[정관면 민요 36]

모심는 소리

김종연(여, 192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테갔노
문에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갔는구나

[정관면 민요 37]

다리 세는 소리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상김치 담아서
너도 묵고 나도 묵고
멤

[정관면 민요 38]

송깃대 놀이 노래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송긋대⁶⁴⁾야 망긋대⁶⁵⁾야
질로질로⁶⁶⁾ 가다가
꿩알한대⁶⁷⁾ 조아주소

[정관면 민요 39]

산비둘기 소리 노래

64) 송깃대. 송기는 소나무의 속껍질.
65) 망깃대. 깃발을 걸어놓은 망대의 깃대.
66) 길로 길로.
67) 꿩알 한 대.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지집죽고⁶⁸⁾ 자식죽고
내호무차⁶⁹⁾ 어째살고
구구구구

[정관면 민요 40]

중머리 노래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중아중아 미깔레라⁷⁰⁾
뱀이잡아 회치고
깨구리잡아 땅치고
이중주고 저중주고
아래택이⁷¹⁾ 까웃
위택이⁷²⁾ 까웃

[정관면 민요 41]

비야비야 소지마라 [비 노래]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68) 계집 죽고.
69) 내 혼자서.
70) 미끄러워라.
71) 아래택이.
72) 위택이.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비야비야 오지마라
가매문에⁷³⁾ 비들친다
우리언니 흥매쳐매 어룽진다

[정관면 민요 42]

쌍가락지 노래⁷⁴⁾

정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에보이 처일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들일레라
청도복숭 오라부니 거짓말도 말으시소
남풍이 드리부니 풍지떠는 소릴레라

[정관면 민요 43]

모심는 소리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빈대벼룩⁷⁵⁾ 꿇는방에이 구신⁷⁶⁾같은 저임봐라
분통걸은 이내몸에 아등다등 손들온다 이후후후

73) 가마문에.

74) 이 노래는 제보자가 읊조리듯이 했다.

75) 빈대 벼룩.

76) 귀신.

서월같은 선부네요 우리야손부 안오더나
오기야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려온다 이후후후후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이 딸넌에 땀기던고

서월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둘기 알을낳야
그알함께 주왔으면이 백년하례로 내할거로 이후후

초랑초랑 용사초령 어이 임의방에 불밝히소
임도눕고 저도눕고이 저불끝이가 누있겠노

남창남창~허이 베로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

(나도 커서가.) (조사자 : 죽어.) (나도 죽어.)
나도죽어~이 화승해여 낭군조침 만낼라네⁷⁷⁾

[정관면 민요 44]

모 찌는 소리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한강수에 허이 모를부아 찌내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다 허이 목해갈아⁷⁸⁾ 목해따기가 애럽더라⁷⁹⁾
(거 애럽더라 겠나?)

77) 나도 죽어 화승해서 낭군부터 만낼라네.

78) 목화 갈아.

79) 어럽더라.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정관면 민요 45]

양산도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에헤에헤이요~
신장로 널러서 질가기가⁸⁰⁾ 좋~다 허어허어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가 좋~다

에헤에헤히요~
메레치꿍치는 중바닥에⁸¹⁾ 놀고~오호
뒷집에 중바닥에 놀~고~호
총각 처녀는 골방에 논~다

에헤이헤이요~
양산읍네 물레방우 물을안고 돈~다 어허허허
뒷집에 총각은 나를안고 돈~다~아

[정관면 민요 46]

창부타령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80) 길 가기가.
81) 중간 바다에.

술장사 십년에~에헤 주전자만 처지고~호
넘의집 십년에~에헤 골병만 처졌구나
만주벌판에 술 떼운 양반 정떨어진데는 못떼우나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내가 또 불렀다.) (조사자 : 아이고 할매 창부타령 잘 하시네.)

동래온천장 술 떼운 영감 정떨어진데는 못떼우나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부산 연락선 떠나신데 물길과 파도만 남았구나
기성활려⁸²⁾ 떠나신데는 장구 열채만 남았구나
임떠나간 빈방안에 눈물과 한숨만 남았구나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정관면 민요 47]

못 갈 장가 노래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가난하고 강대롱아
장개만개 가신다고
장개쭈치 흘치차고
앞집에가 궁합더니
궁합에도 아니맞고
책력에도 아니맞고
몬갈장개 가는가베
한고개라 넘어가니
갓꼭대기 올라앉아

82) “기생 한량”을 이렇게 부름.

까막간치 진동하네
몬갈장개 가는가베
또한고개 넘어가니
까막간치 진동한다
그버물에⁸³⁾ 들어서니
처갓집이 빠치는데
대문밖에 들어서니
처남들이 앓아운다
대문우에 들어서니
이방저방 머리방에
자는듯이 눕었구나
일어나소 일어나소
후루치다리 내왔심더
곰배팔이 내왔심더
붕애눈을⁸⁴⁾ 부릅뜨고
곰배팔이 휘날리고
사흘나흘 가던길에
낮을반에⁸⁵⁾ 내왔심더
일어나소 일어나소
그말한문⁸⁶⁾ 한뒤에는
방치장을⁸⁷⁾ 걷어보니
평양끼 노는방에
내새끼야 기린듯네
일어나소 일어나소
자는듯이 눕었구나
이방저방 걷어보니
물맹지⁸⁸⁾야 집처매는

83) 그 근처에.

84) 붕어눈을.

85) 하루 낮 만나절에.

86) 그 말 한 번.

87) 방 치장을.

백비단⁸⁹⁾을 말을달아
입을듯이 입을듯이 걸어놓고
일어나소 일어나소
전자지 접저구리⁹⁰⁾
만자지 깃을달아
입을듯이 걸어놓고
물맹지야 고도바지⁹¹⁾
백비단을 말을따라
입을듯이 걸어놓고
일어나소 일어나소
붕애눈을 부릅뜨고
곰배팔로 휘날리고
사흘나흘 오던질에
낮을반을 내왔심더
(아이고 그라고는 인자.)

[정관면 민요 48]

산비둘기 소리 노래

곽두애(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⁹²⁾
내호무차⁹³⁾ 우째살꼬
구구구구 구구구구

88) 옅은 남빛 명주실로 짠 천.

89) 흰 비단을.

90) 겹저고리. 숨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 지은 저고리.

91) 고의(袴衣) 즉 속곳과 바지.

9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93) 내 혼자.

[정관면 민요 49]

돈 타령⁹⁴⁾

김석필(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돈돈~돈 좋~다
일전이라 하시는 돈은 옛구리⁹⁵⁾ 전이 일전이요
이전이라고 하시는 돈은 어지⁹⁶⁾ 아래가 이전이고
삼전이라 하는 돈은 이삼전이가 삼전이요
사전이라 하는 돈은 못씨는⁹⁷⁾ 돈이 사전이요
오전이라고 하시는 돈은 열두시 아래가 오전이요 (칭중 : 잘 한다.)
육전이라 하는 돈은 소고기전이 육전이고
칠전이라 하는 돈은 변소간이가 칠전이요
팔전이라 하는 돈은 부산 사거리가 팔전이요
구전이라 하는 돈은 동네 소년이 구전이고
십전이라 하는 돈은
[웃으며 잠시 중단] (조사자 : 그걸 해야지요.)
부산 사거리가 십전이요

[정관면 민요 50]

모심는 소리

손부수(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94) 창부타령의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이다.
95) 가까운 옛날의 뜻으로 말한 듯하나 정확하지 않다.
96) 어제.
97) 못 쓰는.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장안안에 화초숨가 담장밖으로 후아님네
질로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지랑가네 이후후후후후

절레꽃은~이 장가가고 석류꽃은 상각가-네
만인간아 어이 웃지마라 씨종자를 바래간다 이후후후후후

포람포람 봄배추는 봄이슬 지철찾아서 오건만은
우리님은 어디가고이 날찾아올질을⁹⁸⁾ 모리던고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몬 병들기고 쌀날만틈만 보고가소 이후후후후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전복 대전복을이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가네 이후후후후 (청중 :
아이고 잘 한다.)

해는해는 산을넘고이 지름가기가 천리로네
말은가자고 굶을치고이 해는해는 산을넘네 이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목마중 연개나네
울의님은 어디가고이 연개넬줄은 모리던고 이후후후

해는해는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유별행상이 떠나가네 이후후후

포람포람 봄배추는 지철찾아서 오건만은
김도술이는 어디가고이 날찾을줄을 모리던고 이후후후후

98) 날 찾아 올 줄을.

포람포람 봄배추는 지철찾아 오건만은
옥에가둔 춘향이는 이대룡오도록⁹⁹⁾ 기다리네 이후후후후

서월이라 왕대밭에-어~이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한개 주웠시몬 백년하례로 내할구로
(조사자 : 백년 뭐 할구로?) (백 년 한 해로.) (조사자 : 아, 백 년 한 해로.)
백년하례로¹⁰⁰⁾ 내할구로

[정관면 민요 51]

창부타령

손부수(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아¹⁰¹⁾ 부모님 몽상¹⁰²⁾을 입었던가
소복단장 곱기나하고 짱다리¹⁰³⁾ 발으로 넘나드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후후후후

[정관면 민요 52]

송깃대 놀이 노래

양순자(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99) 이도령 오도록.

100) 제보자가 “백 년 한 해로”라고 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백년 하례로”라고 했다. 오히려 후자가 타당하다.

101) 흰나비아.

102) 몽상(蒙喪). 부모상을 당하고 상복을 입음

103) 장다리.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송깃대야¹⁰⁴⁾ 망깃대야
질로질로 가다가
꿩알한배이 조아서¹⁰⁵⁾
우루루루 편지뿐다

[정관면 민요 53]

다리 세는 소리

양순자(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예림마을 예림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래춤치 장두칼
오젼이 짚금 빵구가 탕

[정관면 민요 54]

모심는 소리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104) 송기는 ‘송구(송구)’의 방언. 송깃대는 소나무의 어린 가지.

105) 꿩알 한 쌍을 주워서.

물끼랑처칭칭 흘려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룡오기만¹⁰⁶⁾ 기다린다

낭창낭창 벼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랴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아내부터 생각할래
(그래 인자 시누올케 떠내려가는데, 저거 각시부터 건지주거든 그래놓
이.)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마시는 어데가고 사우판에만 다올랐노

[정관면 민요 55]

쌍가락지 노래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잘에보니 처널레라
그쳐녀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레라
청두복시 오라버니 거죽말씀 말아주소
내자는 방문앞에 신도보니 두거리래
한거리는 상척이고 한거리는 바람이요
니자는 방문앞에 숨소리도 둘일레라
천도복시 오라버니 거죽말씀 말아주소
바람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106) 이도령 오기만.

[정관면 민요 56]

베 짜기 노래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지베짜는 저큰아가
명지베 광단짜여 뭐할라노
서울갔던 울오라베 행건짓고 두건짓고
다문석자 남있는거 이내적삼 비이노이
깃도없고 섶도없고
배꽃을런 섶을달고 유자꽃은 깃을달고
(줄대 걸대 걸어놓고 오며가며 탈탈 털어가 다 떨어지더랍니다. 예빠가
지고.)

[정관면 민요 57]

모 찌는 소리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성한에성밖에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다
연당안에 연못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무슨연밥도 따기도 어렵다

[정관면 민요 58]

모심는 소리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오늘해가 이만되면 점심참이 늦어오네
서른세칸 정지안에 돌고보이 늦어온다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심참이 늦어오네
이등저등 양등넘어 칩이걸리가¹⁰⁷⁾ 늦어온다

모시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른 뱅날기고 살날같이만 보고가소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가네

오늘해가 요만되면 골목골목에 연기나네
우리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도 모르던고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빵실빵실 웃는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정관면 민요 59]

애원애기 노래

김을순(여, 1935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107) 칩나무에 걸리어.

한살죽어 애미죽고 두살먹어 아비죽고

(몇 살에 시집갔는지 그거로 잘 모르겠네. 그래 시집가이까네. 어찌 식구도 많은지. 그래 인자 시할매, 시할배, 또 시엄마이, 시아바이, 서방님, 시누부 다 있는데, 그래 마 일도 너무 많애가지고, 인자 애기는 연년 생을 낳았는데. 그래 인자 애원애기가 참 정지 썰어 부석 넣고 마당 썰어 마구 넣고 뒤편 열두 반상 채리고, 마 일을 어찌 잘하는지, 마 저승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마 애오내기 잡으러 왔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한날 아침에 인자 마 새벽에 일어나 말죽 끓이 대놓고 소죽 끓이 대놓고 뭘 뭘, 밥을 몇 되를 했다 카더라. 그래 해가 열두 반상 차리놓고 그래도 반찬이 모지래가.)

뒤뜰밭에 가가지고 수시깨비 초을가

새한마리 잡아다가 열두반상 갈라놓고

또뒷동산에 올라가가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리오는 늦고사리

알금잘금 꺾어다가 새별같은 동서단에

꾸불치고 끓는물에 새 파라이¹⁰⁸⁾ 데치내어

열두반상 갈라놓고

(그래가 밥 다 드리고.)

시금시금 시어머님 고만자고 일어나서

명지수건 닦을땡아 진지 잡수이소

(그래 시누부까지 다 깨우는 기라.)

시금시금 시누부야 그만자고 일어나

처매끼이가 놔두고 아침이나 묵어라

(인자 부잣집은 부잣집이라. 원도 손에 들고 인자 물 일러 나가니까네.

마 애원애기 딱 잡으러 오거든. 마 물도 못 길고 다부 돌아가가지고, 인

자 마 뒤뜰 밭에 가만 숨어가 있어가지고 서방님한테 날 잡으러 왔다고,

나 숨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인자 서방님이 그래 인자 한시부터

묻더랍니더.)

시금시금 시어머니 이내대신에 갈란교

108) 새파랑게.

소뿔도 깎께기 염불도 목메이고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고
(안갈라쿠고. 아무도 안갈라 카는데. 시누부도 안 갈라캐, 다 안 갈라 카는 데. 그래)
아랫방에 정소녀요 내대신 갈란교
(할 수 없이 아업고, 내리와서 물으니까네.)
니대신은 내갈꾸마 어린애기 잘키아라
(대신 갈라 카거든. 근데 애원애기가 대신은 안 데리꼬 갈라 카거든. 기 어이 인자 그 사람만 잡아 갈라 쿠니깐에. 그래 인자 쪼작쪼작 걷는 애 기, 우뚝우뚝 서는 애기 울어났는데 그래.)
우뚝우뚝 서는 애기 앞전반에 젓 짜났다
(고, 시누부 있는데 그거갖고 달래라.)
쪼작쪼작 걷는애기 밥줄라고 울거걸랑
뒷잔반에 밥이있다.
(쿠고, 그래 할 수 없어 따라갔다. 잡으러 왔는데. 시누부가 알라가 어찌 울어났는지. 마 젓 주도 그 얼마나 하루밖에 못 주제 울어싼께. 그래 얼마나 애원애기가 저승 가서 잘 했는지. 나는 애기 있고 우짜든지 가야 된다고 애원을 해가지고. 저게 시누부 울어싸며 치다보니깐에 저거 올케 가 오거든. 얼른 오라고 손을 치니까네 가라카는가 여기고 다분 가뿌가 지고. 그 애원애기 길을 막아 뿌가지고, 이제 저승 사람들이 절대로 못 온답니다. 그기 끝이라요)]

[정관면 민요 60]

모심는 소리

이경수(여, 192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이물길저물길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삼지야게를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첩의야 방으는 꽃밭이고 본택의 방으는 연당이라
(꽃밭이 아무리 좋아도 삼사월이면 낙화가 돼 안 좋고,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노는 잉어는 춘풍사절로 논다고 그래 제일 좋다 칸단다.)

[정관면 민요 61]

모심는 소리

이말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오늘해가 이만되면 골목골목에 연개나네
우리야임은 어데가고 연개닐줄 모르더노 이 후후후

저건네 저산밑에 주추캐는 저처녀야
아니언제 커서로 내낭군 될라노

담안에 꽃을숨아 담밖으로 후아넘네
질¹⁰⁹⁾로가는 호걸양반 그꽃을 지나가네

[정관면 민요 62]

청춘가

이말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울너매 담너매 풀비는 총각아
니언제 커서는 내낭군 될라노

109) 길의 지역말.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어서
정기정 마당이 한강수가 되노라

아실다실 달밤에 백양산 들고요
가시발이 천리라도 발벗고 가는구나

[정관면 민요 63]

화투 타령

이말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똑떨어졌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뜬다
구월국화 굳어진마음
시월단풍에 툇떨어진다
동짓달오동이 많다해도
십이월비에 똑떨어졌다

[정관면 민요 64]

사발가

이말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퐁퐁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정관면 민요 65]

너냥 나냥

이말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마을경로당]

아침에 우는새 배가고파 울고요
지녁에 우는새는 임기립워 운다
나냥 너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가고요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정관면 민요 66]

쌍가락지 노래

김필금(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임곡리 임곡마을 임곡마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짚에보니 처널레라
그쳐이는 자는방에 숨소리도 열두가지

[정관면 민요 67]

도라지 타령

김필금(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임곡리 임곡마을 임곡마을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도라지 캐리간다고 요핑계저핑계 대고는
에헤용 에헤용 에여라난다 디어라
니가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정관면 민요 68]

너냥 나냥

이덕순(여,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임곡리 임곡마을 임곡마을경로당]

너냥나냥 둘이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한라산 철쭉꽃은 곱게도 피는데
우리집의 서방님은 어디를 갔나

[정관면 민요 69]

모심는 소리

조차영(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7일 채록

[임곡리 임곡마을 임곡마을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개넝줄을 모르더나

5) 철마면 민요

[철마면 민요 1]

모심는 소리

김수연(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넌만 맏기노니

[철마면 민요 2]

청춘가

김수연(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청춘은 소년몸 되어서
문명에 학문을 닦아를 봄시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가슴속에 수심도 많구나

[철마면 민요 3]

아리랑

김수연(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육십에 저승사자가 날테리러 오거든
부모님이 계셔서 못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칠십에 저승사자가 날테리러 오거든
애인이 있어서 못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팔십에 저승사자가 날테리러 오거든
할일이 많아서 못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구십에 저승사자가 날테리러 오거든
내발로 걸어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백세에 저승사자가 날테리러 오거든
좋은날 좋은시에 간다고 전해라

[철마면 민요 4]

모심는 소리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이논에 모를숨가 금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서마지게땅 줄로나여 교대마당 오시는고
이등저등 건넛등에 질이야걸려서 더디오네

[철마면 민요 5]

모 찌는 소리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밀치매 달치매 모두잡아 훌치소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이나 놀리라

[철마면 민요 6]

창부타령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노세 젊어나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를 못하니라

아니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옛날옛적 과거지사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잊어야만 옳은줄을 나도 번연히 알건만은
어리석은 여자로서 그래도 못잊을 한이로다

낭게라도 고목이되면 눈먼새도야 아니오고
못도늙어서 노수가되면 노던고기도 아니놀고
꽃도피어서 낙화가되면 오던나비도 돌아가고
좋은음식 쉬어지면 수채구녕¹⁾을 찾아가고
비단옷도 헤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우리야인생도 늙어지면 북망산천으로 돌아간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서 무엇하리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풍풍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서 무엇하나
아니 나서지를 못하겠다

[철마면 민요 7]

태평가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1) 구멍의 지역말.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짜증만 내어서 무엇하냐 한숨만 쉬어서 무엇하리
인생일장은 춘몽인데 아니나 놓고서 무엇하리
니나노 놀리리야 놀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꽃나비는 휘리훅훅 꽃을 찾아서 날아들고

[철마면 민요 8]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수천당 세모난가지 빠든가지에 그네줄매어
임이타면은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저임아 줄놓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철마면 민요 9]

최심곡

박생금(여, 192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지전 뼈를빌고
어머니전 살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알을손가
 이삼십이 당하여도 부모공덕 몬다갸고
 어이없고 애닭고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나고
 망령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닭고도 서런지고 절통하고 원통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호환백발 늙어간다
 인간의 이공록을 누가특히 알을손가
 춘추는 연연록이오 왕손은 기불기라
 우리인생 늙어지른 다시젊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살아야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단사십도 못다산인생
 어제오날 청춘이디 오늘날에 백발되니
 백발되어 뉘우친들 후회막급 어찌하리
 이세상을 견고한줄 태산길이 바랬더니
 일년간 몬다가고 백발되기 슬프도다
 몸은어찌 오는백발 귀밑에 명확하고
 정처없이 오는백발 사람마다 다겪는다
 인생부터 한소년은 풍물중에 명답이라
 삼천갑자 동방석은 전세후세 조문이요
 봉우같은 이세상에 초록같은 우리인생
 물우에 거품이고 이슬에 부평이라
 칠팔십을 살줄알고 일장춘몽 꿈이로다
 어제날 청춘이디 오늘날 백발되어
 백발되니 뉘우치니 후회막급 어찌하리

[철마면 민요 10]

진주난봉가

안애자(여, 194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덕]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설그덕설그덕 씻는중에 난데없는 발자국소리가
덜커덕덜커덕 나는구나 옆눈이라고 쳐다보니
태산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못본듯이 지나가네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둥빨래는 검게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사랑방문을 열어봐라 사랑방문을 열어보니
아홉가지 술을놓고 기생첩을 옆에두고
권주가에 잠겨있네 하도보기 원통하여
석자수건에 목을매와 이세상을 하직하네
이말들은 서방님이 여보여보
기생첩은 삼년이고 본처는 백년인데
이런일이 어데있소

[철마면 민요 11]

모심는 소리

안애자(여, 194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덕]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댁죽고 이별행상이 떠나가네

[철마면 민요 12]

모심는 소리

송갑순(여, 193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올라가면 올고사리 내리오면은 늦고사리
뒷집에 김도령아 앞집에 김처자야
아금자금 꺾어다가
(옛날에는 찢이라 하면 모르지요? 찢을 이래 한 뚝배기 해가지고, 니 한
그릇 내 한 그릇 그리 묵었다 카는 그 노래라요.)

[철마면 민요 13]

모심는 소리

안용수(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숨가 영화로다

[철마면 민요 14]

모심는 소리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소

문에야대전복 손에 들고 첩의야방으로 놀러갔네

[철마면 민요 15]

노랫가락[그네 노래]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추천당 세모시낭게 오색가지다 추천을매어
내가타면은 임이나밀고 님이타면은 내가민다
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철마면 민요 16]

모심는 소리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후생가여 낭군님을 건자줄래

[철마면 민요 17]

사발가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네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에야라 난다 디어라

[철마면 민요 18]

사랑가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사랑사랑 내사랑이여 잠든사랑이 자네로다
사랑의 불과같으면 가슴인들을 어디가나
가슴만 타고나니라 오만전신이 다타노라

[철마면 민요 19]

화투 타령

유필남(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구칠마을 구칠마을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흠어졌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올라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다 달이떴네
구월국화 굳은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동지선달 서남풍에
낙엽만날라도 고향생각

[철마면 민요 20]

남녀연정요

김재윤(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저건너 남산밑에 나무비는 남대롱아
산천초목을 다비어도 초생대는 비지마소
금년길러 땡년을길러 낙숫대를 후아내어
낙아낼세 낙아나낼세 옥단치녀를 낙아낼세
못낙으면은 열녀로다 낙아만내면은 상사로다
열녀야상사 골을맺어 금모딕폴미들 살아보자

[철마면 민요 21]

태평가²⁾

김재윤(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간다더니 왜또왔소 기왕앞에³⁾ 왔시난걸음에
발치잠이나 자고가소
자고가도 대장분데 발치야잠이 웬말이나

2) 노래의 곡조가 <태평가>의 곡조인데다 <태평가>로 부르는 사실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제목을 붙였다.

3) 기왕지사(既往之事).

[철마면 민요 22]

모심는 소리

정귀태(남, 1941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이물길저물길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에워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철마면 민요 23]

화투 타령

정귀태(남, 1941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지화자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구나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헐쳐놓고
오월난초 날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흥록한마음에
팔월공산에 달도나뵈아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오동지선달 길던이밤에

임의생각만 절로난다
얼씨구나 좋다 저얼씨구

[철마면 민요 24]

창부타령

정문영(남,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에헤라 두여
노세 놀을까 저어쫄어서 놀아
늣고야 병들면은 나는야 못노리라
아서라 말어라 너그리 마라
늣고야 병들면 나는 못노리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할레라
너아니 돌아선들 너를쫓아서 내갈쏘냐
나무를먹고 물을마시고 팔을비고 누워서니
대장부 살림살이는 요만하면은 넉넉하라

함양의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님의 가슴에 나를안고 돈다
아서라 말어라 너거가 그리마라
늣구나 병들면 나는 못노리라

[철마면 민요 25]

권주가

정문영(남,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받으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칠마면 민요 26]

모심는 소리

정문영(남,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칠마면 민요 27]

달거리 노래

정문영(남,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얼씨구 얼씨구 좋을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정월이라 대보름날은 달구경하는 명절이다
청춘남녀 짝을지어서 많은달구경 하건만은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달구경할이 어찌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계자추도 녀이던가
북망산천에 찾아가서 무덤을안고 통곡하니
무정하다 야속한님이 왔느냐말씀도 어찌없나
삼월이라 삼짳날은 연자한쌍 날아든다
작년에왔던 제비한쌍 금년에도 오건만은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집찾아 올줄은 모르던고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여래님 탄신인데
집집마다 관등을 달고 자손발원도 하건만은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자손발원도 어찌없나
오월이라 단옷날은 주천뛰는 명절이다
녹의홍상 맨들어 오락가락에 뛰노는데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주천발도 어찌없나
유월이라 유두날은 보통명절이 아니던가
멤쌀전 찹쌀전은 올기줄기도 맛도좋네
님없는 빈방안에서 혼자앉아 먹자하니
금천이 막혀서 못먹겠네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만나는날
머나먼 오작교에도 일년에 한번은 만나건만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십년이지나도 소식없나
팔월이라 한가위는 중추가절이 아니던가
청춘남녀 짝을지어서 많은성묘도 하건만은
우리님은 어디를가고 성묘말씀도 어찌없나
구월이라 구일날은 기러기옛집을 찾아든다
우리님은 어디가서 집찾아올줄을 모르던가
시월달은 상달이라 집집마다 고사칠석
백성님전에는 백설기요 시준님전에는 백설기라
재수살망도 빌거니와 우리님명복도 빌어보자
동진달을 접었더니 나이는 한살더하는데
님은하나 안생기나
섣달은 막달이라 빗진사람 줄리낸다
허둥지둥 지나고보니 섣달그름이 곧이로다

[칠마면 민요 28]

최심곡

정문영(남, 193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마을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도 또있던가
여보시오 시주님네요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은 너덕으로 나왔던가
석가여래님 공덕으로 아부님전에 뼈를빌고
어머님전에 살을빌고 제석님전에 복을빌고
칠성님전에 영을빌어 이내일신이 탄생하야
한두살에 절을몰라서 부모의은공을 못할래라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을 못할래라
어이없고 애닦고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닦고도 서런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공안백발 늙어가니
인간의 이공덕을 누가능히 막을쏘냐
춘춘은 연연녹이오 왕손은 기불기다
우리인생 다살아야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은 단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팔에 병이더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효력이 있을쏘냐
무녀를불러 굿을한들 굿덕인들 있을쏘냐
관수불러 경읽은들 경의덕이 있을쏘냐
재미⁴⁾쌀을 썰고썰어서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뽕을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화탕에 수죽을씻고 향로향불은 불갓추고
소지한장 던진후에
비나니다 비나니다 부처님전에다 비나니다

4) 재미(齋米), 승려나 사찰에 보시로 주는 쌀을 말함.

신장님전에다 발원하고 제석님전에다 봉향한들
어느성현이 알음이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는 초왕대왕
제삼전에는 송장대왕 제사전에는 오광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는 전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는 경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는 전눈대왕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는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고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길을 뇌성같이 소리치며
성년삼자 불러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사자님아 사자님아 시장한데 점심먹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고 애절한들
들은체도 아니하고 쇠뿔치로 등을치며
어서가자 바빠가자 저승저승 들은날에
저승문이 다다르니 우두라차 좌두라차
전후좌우 벌어서서 형벌기구 갖춰놓고
대성호령을 기다린다

[철마면 민요 29]

태평가

김성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경로당]

짜증을내어서 무엇하나 한숨을수여서 무엇하나
속상한일 하도많아요 태평가나 불러보자
모두다 잊으라 꿈이로다
옛날옛적 과거지사를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철마면 민요 30]

창부타령

김성수(남,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경로당]

노세 젊어나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오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철마면 민요 31]

모심는 소리

진정이(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한강에다 (안자 하낫도 안 넘어간다.)
모를부아 잔나락에 반치로다⁵⁾
등넘어 성밖에 첩을두어 기생첩이 반치로다 이후후후후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에야전복⁶⁾ 에와들고⁷⁾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이후후후후

절레야꽃은 장가가고 석노야꽃은 요각가네
만중생아 웃지마라 씨종자마래서 내가가네 이후후후후
(청중 : 어이 잘 한다.)

5) 반치는 '반 정도'의 뜻으로 반밖에 되지 않는다.

6) 문어야 전복.

7) 손으로 감싸 쥐고.

풍당풍당 찰수집에⁸⁾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뭐라 켜노?) (청중 : 우리 님은 어데 가고.)
울언님은 어디가고 (또?) (청중 : 딸년아 [청취 불능].) (아아.)
딸년으로 맬깃던고 (동자로 맬깃든가 그래.)

낭창낭창 베리끝에⁹⁾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환승해여¹⁰⁾ 낭군님부텀 생각할래 [웃으며] 이후후후후

[칠마면 민요 32]

모 찌는 소리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일월이~에이 돌아와도 이슬겉줄¹¹⁾ 모르더라
맹꽁대를¹²⁾~이 끊어들고 이슬털러 가자시라
(그거는 뒤에 답이고.) (조사자 : 소리 주모 인자 받고.) (어 주모 또 받
거든. 그래 인자 또 썩 들어서모.)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만 놀리소
(마 마 아이구 하다가 잊어뿌네. 모르겠데이.) (청중 : 천천이 생각하소.)

한강에~ 모를부어 찌내기가 난감하-다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만 놀리-소
(그거는 인자 답이거든.)

8) 찰수제비.

9) 벼랑 끝에.

10) 환생해서.

11) 이슬이 개일 줄. 즉, 이슬이 건힐 줄.

12) '맹꽁대'는 명아주의 줄기를 말하는 듯하며, '맹앗대'가 와전된 표현으로 보임.

한데한섬 모를부와 잔나락이 반이로-다

성안에성밖에 첩을두고~이 기생첩이 반이로다

(그거는 인자 잔나락이 많고 첩이 많애도, 기생첩이 또 있단 말이야. 그
래 노래하고.) (조사자 : 아까 이거 아침에 모심는 소리죠? 아침소리죠?)
(청중 : 모 쫄 때.) (처음에 들어설 때 인자 이슬이 짝 차가 있을 때는
“일월이 돌아와도 이슬 겹 줄 모르노, 모르도다.”) (조사자 : 한강에다 모
를 부와.) (그거 아이다. “명훤대를 쟁겨주고 이슬 털러 가자시라.” 그거
인자 이슬 털어야 되거든. 그리고, “한강에 모를 부와 모찌기도 난감하
다.” 아, 처음에는 “모찌기도 난감하다 영해 영천 초목에 호미손만 놀리
소.”) (조사자 : 아, 호미손만 놀리소.) (놀리소. 고래 하몬 고기 짝이 되
고. 내가 또 금방 뭐라 했노? “한강에 모를 부와 잔나락이 반이로다.”)
(조사자 : 고거는 또 안 했다. 한강에 모를 부와 잔나락이 반이로다.) (청
중 : 그거 했다 금세.) (반이로다. “성 안에 성 밖에 첩을 두고 기생첩이
반이로다.”) (조사자 : 고거 다시 한 분. 할매 고. 고거 해주소.) (한 분
더 하까?)

한강에~이 모를부와 잔나락이 반이로다

성안에성밖에 첩을두고~이 기생첩이 반이로네

서월이라 궁노숲에¹³⁾~이 목화따~

(아이 그기 아이다. 잘못했다.)

사래¹⁴⁾길고~이 장찬발¹⁵⁾에 목화따기 난감하-네

서월이라 궁노숲에~이

(고거는 또 오래 하이 마 인제 오리 되이 모리겠테이.)

목화따기 (아, 목화가? 뭐 따가 궁노숲에.) (청중 : 왕대발에.) (그거 아이
다. [기억을 하기 위해 읊조리며] 서월이라 아이고 아, 사래진 잘못했다.)

13) 서월이라 궁노숲에. ‘궁노숲’은 궁궐에서 가꾼 숲을 뜻하는 듯하나 정확하지 않다.

14) 발의 이랑.

15) 이랑이 매우 긴 발.

사래길고 장찬밭에~이 목화따는 저처녀야
서월이야 궁노숲에~이 [다시 멈추고 기억을 하며] (하이고 잊어뼌네. 궁
노숲에.)
궁노숲에~이 (조사자 : 뭐뭐 하기 난감하다든가.) (뭘 따는 저 수자야.
처이가 있고 총각이 있거든.) (조사자 : 아이 연밥 따는 저 처자야.) [맞
다는 듯이] (아.)
연밥따는 저처자야 (청중 : 아저씨가 더 잘하구만.)

[철마면 민요 33]

모심는 소리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절레꽃은 장가가고~이 성노꽃은 상각가네¹⁶⁾
만인간아 웃지마소~이 씨종자¹⁷⁾를 바래간다

풍당풍당 찰수지비~이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숨이 차서 노래를 멈추고] (하이구 아이고 대라.) (조사자 : 또 거 뭐 뭐는
어데?)
허언감태¹⁸⁾ 자빨치고¹⁹⁾ 물국묵기가²⁰⁾ 더욱습네

풍당풍당 찰쌀수지비~이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마~멈은 어디가고~이 딸에동제로²¹⁾ 시깁던고²²⁾

16) 석류꽃은 상객 간다. 상객(上客)은 혼례 때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임.

17) 씨종자는 남자 아이를 뜻함.

18) 일반적으로 ‘파란 감태’라 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다. 감태(甘苔)는 김을 말함.

19) 자빠뜨리고. 즉, ‘넘어지게 하고’의 뜻이나, 여기서는 빠뜨리고의 뜻으로 부름.

20) 멸건 국을 먹기가.

21) 딸 동자. 즉, 어린 딸.

포름포름 봄배차는 참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이논빼미~이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이 술을심어 영화로네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이 첩의방에 놀러갔-네

담안에~이 꽃을심어 담장밖-을 후아넘네²³⁾
길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길안가네

저기가는 저구름은 어떤신선이 타고가노
대국이라 천자국에~이 놀던신선이 타고가-네

모시야적삼 안섣안에~이 연젓²⁴⁾겉은 저젓보소
땀이야보면 병될기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사공아~이 배둘러라²⁵⁾ 우리동생 보러가자
너거동생 무슨죄로 죽도섬에 귀양갔노

서월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둘기가 알을낳여
그알한배 주왔던들 금년과게로 내할구로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행상이²⁶⁾ 떠나가노

22) 시켰든가.

23) 휘어서 넘네.

24) 연젓 연꽃의 연밥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연밥은 연자(蓮子)로 '저젓'과 상응하는 발음으로 와전되어 '연젓'이라 한 것으로 판단됨.

25) 배 돌려라.

26) 웬 행상(行喪)이.

이태백이 본처앓고~이 이별행상이 떠나가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임은 어디가고~이 연기널줄로 모르는고

초령초령 영사초령 모야방에²⁷⁾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눕고 초롱불은 누가끌고

손치는데는 밤에가고~이 주모야집은 낮에가소

낭창낭창 벼루 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빠야
나도야죽어 연자되어~이 처마밑에다 집을 짓고
날면보고 들면보면 낭군님한분 사귄라네

[철마면 민요 34]

쌍가락지 노래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널로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이로다
청도복숭 올라버니 거짓말씀 말아마소
남풍이 들어불면²⁸⁾ 풍지²⁹⁾떠는 소릴레라

27) 일반적으로 부르는 “임의 방에”를 이렇게 불렀다.

28) 남풍이 세차게 불면.

29) 문풍지.

[철마면 민요 35]

음부 노래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대국만주로 갔던강 털모자는 왜 썼노
순사보장을³⁰⁾ 갔던강 빨간대³¹⁾는 왜 둘렀노
칠팔월이 되었는가 양대꽃은 왜 뺐노
사흘만에 똥침맞고 달달이도 세련받고
삼년만에 난리닥네³²⁾ 어허 거참 산란하구나 [청중 웃음]

[철마면 민요 36]

베틀 노래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베틀낱여³³⁾ 베틀낱여
옥난강³⁴⁾에다 베틀낱여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애기다리는 두다리라
그우에 앓인양은
난공작에로 하신듯네
허리안개 두른양은

30) 순사 부장을. 순사는 일제 강점기 때의 순경.

31) 빨간 허리 띠.

32) 난리가 닥치네.

33) 베틀 놓아요.

34) '옥난간'의 와전.

북도칠성 두른듯네³⁵⁾

챗발³⁶⁾이라 앵긴양은³⁷⁾

동에동산 무지갯가

서기있기도³⁸⁾ 앵기신다 [웃음]

보디집³⁹⁾ 치는양은

하늘에 베타인강⁴⁰⁾

베타치는 소릴레라

챗발이라 앵긴양은

동에동산 무지갯가

서기있기도 앵기신다

잉앗대⁴¹⁾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호불애비⁴²⁾

(이이구 대라.) [청중 웃음] (조사자 : 호불애비 어 잉앗대는 삼형제.) (잉
앗대는 삼형제 아이가.) (조사자 : 그렇지 맞습니다. 잉앗대.) (잉앗대. 또
뭇이라 카노? 아이고 뭇이라 카노?)

지질걸대 당군양은⁴³⁾

강태국에 낚싯댄가

누수강에 당군것네

잉앗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호불애비

사침⁴⁴⁾사침 걷는사침

단숨에도 걷는듯네

비기밋대⁴⁵⁾ 드는양은

35) 북두칠성을 두른 듯하네.

36) 챗발은 베타에 딸린 기구의 하나. 짜 낸 피륙이 구김살이 지지 않고 곧게 펴지도록 양쪽으로 팽팽히 버티게 하는 데 쓴다.

37) 안긴 모양은.

38) 서기(瑞氣) 있게도.

39) 바디집. 피륙의 울을 굵기대로 고정시키는 베타기구.

40) 베타인가.

41) 잉앗대. 베타에서 위로는 눈썹줄에 대고 아래로는 잉아를 걸어 놓은 나무

42) 호불애비. 즉 홀아비.

43) 담긴 모양은.

44) 사침은 베타의 비경이 옆에서 날의 사이를 띄어 주는 두 개의 나무나 대.

팔만진중을 헤치고
 들어가는 지상이라
 궁절지구 도투마리⁴⁶⁾
 정절지구 잘넘는다
 배빋대⁴⁷⁾라 뜯는양은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혈은⁴⁸⁾ 지상이네
 절로굽은 신나무⁴⁹⁾는
 헌신쩍이로⁵⁰⁾ 목에다 걸고
 올라가매 시적놀이⁵¹⁾
 내리가매 시적놀이
 궁절지구 도투마리
 정절지구 잘넘는다

[철마면 민요 37]

창부타령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동네원아 내아들아 동방화초는 내메늘아
 만대유전 내손자야 천하일색은 내딸이야
 연못에 붕어 내사위야
 배띄아라 배띄아라 한강수에다 배 띄아라

45) 비기미는 ‘비경이’의 방언. 비경이로 베틀에 팔린 기구의 하나로 잉아의 뒤와 사침대 앞 사이에 낄실을 걸치도록, 가는 나무 세 개를 일레 비슷하게 벌려서 만든 것이다.

46) 베틀 짜기 위해 낄실을 감아 놓은 틀.

47) 배빋대는 ‘뱌뱌이’로 베틀로 베틀 짤 때 쓰는 연장의 하나.

48) 낙엽이 떨어진.

49) ‘베틀신대’의 잘못. 베틀의 용두머리 중간에 박아 뒤로 내뺀, 조금 굽은 막대.

50) 헌신쩍으로.

51) 시적거리(느릿느릿 움직이는) 움직임을 표현한 말.

우리야가족 듬뿍실고 강릉경포대 달구경가자
달구경이 좋다해도 우리야가족이 더욱좋네
삼정승은 났다마는 육판서를 마련하소
얼씨구 좋아 절씨구나 아니 놀고는 못하리라

[철마면 민요 38]

각설이타령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얼 ~ 씨구씨구 들어간다
요놈의 각설이 요래도
하루짜만 빠지면 기집애 자식 골는다⁵²⁾
일자로 한자 들고봐
일월이송송 내송송 밤중셋별이 완연하다
이자로 한자 들고봐
이성만이는 대통령 아주산은 부통령⁵³⁾
삼자로 한자 들고봐
삼월이라 삼진날 제비한쌍이 날아든다
사자로 한자 들고봐
사식행천⁵⁴⁾ 가는길에 중간참이 늦어온다
오자로 한자 들고봐
오월이라 단오에 처녀총각이 마주앉아 청춘가가 좋을시고
육자로 한자 들고봐
육십묵은 늙은이 손지보기도 바쁘다
칠자로 한자 들고봐

52) 굶는다.

53) 이성만 정권의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인데, 이렇게 불렀다.

54) 사행천(蛇行川)이 와전된 표현인 듯함. 사행천은 뱀처럼 구불구불 길게 뻗은 하천을 말함.

칠년대한 가물었네 비한방울이 떨어지니 만인백성이 춤을춘다
팔자로 한자 들고봐
우리형제 팔형제 한서당에 글을읽어 서울과게로 힘을써네
구자로 한자 들고봐
굶실굶실 엮은중 아홉상좌로 거느리고 육관대사로 찾아가네
장자로 한자 들고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앓고 또왔구나
뿌옴 뿌옴 각설아

[철마면 민요39]

장타령

성순이(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아가리 크다 대구장
너무 널러서 못보고
코풀었다 흥애장⁵⁵⁾
더럽아서도 못본다
가시나 머시마 합천장
분간없어 못본다

[철마면 민요 40]

성주풀이⁵⁶⁾

송문기(남, 1958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55) 흥해장. 포항시 흥해에 서는 장.

56) 이 <지신밟기 성주풀이>는 제보자가 직접 팽과리를 치면서 구연한 것이다. 팽과리를 치는 부분에서 [팽과리 소리]라고 표시한다.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팽과리 소리]

여봐라 북쇠야 우리가 밤낮 주야 궁마나 켱켱 궁마나 켱켱 메구만 칠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가 오늘 이택 가정에 좌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천개에 자고 지백에 죽거니 사람은 이 새에 생겼고 그중에 성주 부친이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황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부인이 분명하다. 슬하에 일점 혈육 없어 무주 남산 지치 달아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옥황상제께서 알으시고 자식도 주고 만복수복도 주고 건강을 주라 분부하시니 그 근본이 성주 근본이라. 성주풀이 한 번 해보세 [팽과리 소리]

서울로 지치달아 [팽과리 소리]

삼각산 일체봉 아주루루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 받아 아주루루 훑어져 태백산이 되었네
태백산 줄기 받아 아주루루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나 줄기 받아 아주루루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 받아 주루루 훑어져 철마산이 되었네
철마산 줄기 받아 주루루 훑어져 이리에 당산이 되었네
당산에 줄기 받아 이집 터가 되었구나 [팽과리 소리]

집짓자 집짓자 집을 짓자 집을 지어
용의 머리에다가 터를 잡고
학의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산위에다 풍경⁵⁷⁾달고 동남풍이 디리부니
풍경소리가 듣기가 좋다 [팽과리 소리]

해루 지신이야 성주지신을 올리보자 [팽과리 소리]
사바세계 계벽 후에 태고천지 돌아들 때 [팽과리 소리]

57) 풍경(風磬).

유유피창 하늘 천자 자방자시 열려 있고 [뽕과리 소리]
 음지오행 따지자는 죽방축시에 벌어져서 [뽕과리 소리]
 태고라 천왕신은 복덕으로 왕은할 때 [뽕과리 소리]
 우리 인간 나타날 때 인방인시로 나타나고 [뽕과리 소리]
 우리 중생 집이 없어 바위틈을 집을 삼고 [뽕과리 소리]
 나무 열매 밥을 삼고 나뭇잎을 옷을 삼아 [뽕과리 소리]
 신농씨는 나타나서 남산 밑에다 밭을 갈고 [뽕과리 소리]
 농사 짓는 법을 내어 농사짓게도 힘을 쓰고 [뽕과리 소리]
 수찬씨는 나타나서 불을 빌려 화식할 때 [뽕과리 소리]
 삼시세 때 밥을지어 처음으로 먹게 하고 [뽕과리 소리]
 현원씨는 나타나서 억조창생 구제할 때 [뽕과리 소리]
 모진 병이 몸에 들어 주야 없이도 앓는 사람 [뽕과리 소리]
 만병통치 약을 지어 모진 병도 낫게 하고 [뽕과리 소리]
 성주님은 나타나서 화도낙서⁵⁸⁾를 둘러보고 [뽕과리 소리]
 무주공산 터를 닦아 초옥산간에 집을 짓고 [뽕과리 소리]
 남훈여치 법을 내어 장가 들고 시집 가서 [뽕과리 소리]
 아들낳고 딸을 낳아 모진 눈비도 아니 맞고 [뽕과리 소리]
 문벽사창 좋은 방에 아들딸이 장성하니 [뽕과리 소리]
 장하도다 장하도다 성주공덕이 장하도다 [뽕과리 소리]

억조창생 만민들아 성주님을 잘 모시소
 성주님을 모실라니 성주근본을 알아야지
 성주 부친 천공대왕 성주 모친은 개화부인
 사십년간 지나가고 오십년간 돌아와도
 부부간에 탄식 끝에는 눈물이라
 수미산 팔봉채서 도사님이 내리서나
 개화부인 문전 앞에 목탁 치며 공양 빌 때
 개화부인 거동 보니 그 중 태도가 범상하여
 문전 앞에 목탁 치며 목탁 치며 공양 빌 때

58) 하도낙서(河圖洛書). 고대 중국에서 예언(豫言)이나 수리(數理)의 기본이 된 책.

중아중아 들어봐라 우리 절에 부처님은
 우리 절에 부처님은 영험이 많은고로
 백일정성 기도하면 기양⁵⁹⁾ 태자를 볼 터이요
 서물서물 나시더니 오고간데가 흔적없다
 수미산 팔봉재서 개화부인 거동보소
 높은산 정기빌고 낮은산에는 기도하고
 수화거목 탑을모아 부처당에다 다리놓고
 산이라도 앞산이면 산신제도 지내주소
 물이라도 개천이면 용왕제도 지내주고
 나무 역시 고목이면 목신제도 지내주소
 수미산을 올라서서 급읍당을 중수하니
 법당안에 아무타불 염불꽃이 만발하다
 천년성주 만년성주 수수만대 내려온 성주
 초가성주 와가성주 성주 근본이 어데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이런가
 제비원도 본 아니다 강남원이 본이로세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 솔씨 한 쌍을 물어다가
 일도당산 높이 떠서 삼천리강산에 흘렸더니
 밤이 되면 이슬 맞고 낮이 되면 태양 받아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까막솔이 되었구나
 까막솔도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도 자라나서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천지풍아 막아주고 치아풍아 막아주소
 손재풍재 막아주고 관재곳을 막아주소
 나라에는 충심 빌고 부모님께 효자 빌고
 단명자⁶⁰⁾ 수명 빌고 무자인원⁶¹⁾ 생낭⁶²⁾ 빌고
 이 집에라 대주양반 성주님의 은덕으로

59) 그냥. 바로.

60) 단명자(短命者). 단명하는 사람.

61) 자식이 없는 사람.

62) 생랑(生郎). 자식이 태어남.

말소리 향내 나고 걸음걸이에 꽃만 피소
 일년하고 열두 달 과년하고 열석 달에
 삼백하고 육십일 오늘같이만 점지하소
 잡귀잡신은 물알로 가고 만복수복만 내려주소
 잡구잡신은 물알로 가고 만복수복은 이리로 [팽과리 소리]

여봐라 복쇠야 우리가 이 집에 와서 줄 복도 다주었고 막을 액도 다
 막았으니 우리가 이 집을 휘하니 돌아 들을 때는 만복수복이 따라들어
 올 거고 우리가 이 집을 휘하니 돌아 나갈 때는 만복이 따라나가지 않겠
 느냐 일 년하고 열두 달 과년하고 열석 달에 우리 집 대주양반한테 만복
 수복과 건강이 따라 붙을 때는 불 붙은 화로에 엇 달라붙듯이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 붙듯이 가슴 부푼 처이한테⁶³⁾ 충각 달라 붙듯이 다갈
 다갈 달라 붙으소서 [팽과리 소리]

여봐라 복쇠야 우리가 갈 길이 아무리 바쁘다지만은 그래도 오늘같이
 좋은 날 이 집에 와서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신나는 풍악이나 한번 울
 리고 가세 [팽과리 소리]

[철마면 민요 41]

성주풀이⁶⁴⁾

송정옥(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OO이 왔던 정조새⁶⁵⁾는
 술씨를 한장 물어다가
 뒷동산천에 뿌렸더니
 그 술씨 한장 자라나서

63) 처녀한테.

64) 성주풀이로 부르던 사설이 뒷부분에서는 ‘선유가’라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로 변화되었다.

65) 소쩍새. 며느리가 시집을 살다가 술이 작아 죽어 소쩍새가 되었다는 설화와 관련하여 술 정
 (鼎)자와 작은 소(小)를 합성한 ‘정소’가 ‘정조’로 와전되어 정조새라 하기도 함.

곶은 낭구는⁶⁶⁾ 곶기 크고
곶은 낭구는 곶기 크고
김대목아 박대목아
하도 손재주 있어가주
곶은 낭구는 곶다듬고
곶은 낭구는 곶다듬고
요롱조롱 배를 모아
죽도섬에다 띄아놓고
일등 기생만 모아타고
일등 신사만 모아타고
니도 타고 나도 타고
그 배를 타고서 유랑갔네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 좋다고나 하지 마소
한강수 물에다 배 띄아놓고
배 떠러지면은 말 못한다

[철마면 민요 42]

지초 캐는 처녀 노래

서복순(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안평리 안평마을 안평마을경로당]

우리동산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저처녀야
너거집은 어디다두고 해다진데 주추캐노
우리집을 찾을라거든 두리동산 구월산밑에
초가삼간이 내집이오
오실라거든 오십시고 가실라거든 가십시오

66) 나무는.

[철마면 민요 43]

화투 타령

서복순(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안평리 안평마을 안평마을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가지
이월매조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곱으난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철마면 민요 44]

진주난봉가

서복순(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안평리 안평마을 안평마을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매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돌도좋고 물도좋아
흰빨래는 희기씻고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집이라꼬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여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사랑방을 내다봐라 사랑방을 내다보니
첩의년을 옆에끼고 진수성찬 채려놓고
권주가를 하고 있더라

[철마면 민요 45]

사발가

서복순(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안평리 안평마을 안평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요내가슴만 울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풍풍나네

[철마면 민요 46]

모심는 소리

이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안평리 안평마을 안평마을경로당]

이물길저물길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이~후후후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이대롱은 춘향이오도록만 기다린다

풍당당풍당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의동자를 맷갯던고

[철마면 민요 47]

화투 타령

강정희(여, 1940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정월속가지⁶⁷⁾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⁶⁸⁾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육월목단에 춤잘춘다 얼씨구
(조사자 : 오월 난초.)
오월난초 나비가 되어
유월목단에 날아든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맹세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오동삼십 값많다해도
비삼십에 당할소냐 (청중 : 잘 한다.)
얼씨구 좋다 저절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겠네

[철마면 민요 48]

다리 세는 소리

김연자(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67) 술가지.

68) 매조에.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소리받고 뚝 받고
연지 철걱 열두 장

[철마면 민요 49]

파랑새요

김연자(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앉지마라
녹두가지 뿌러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웃음]

[철마면 민요 50]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

김연자(여, 1931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를 따듬아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부모 모셔놓고
천년만년 살고싶고 천년만년 살고싶다

[철마면 민요 51]

모심는 소리

문성숙(여, 192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이논빼미 모를숨어이 금실금실 영하로다⁶⁹⁾
우리부모 산소등에이 술을숨가 영하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님은 어디가고이 연개넬줄 모르던고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손에들고이 첩의방에 놀러갔소

포름포름 봄배추는 참이슬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갔던 춘향이는 이대롱오기만⁷⁰⁾ 기다린다

서월가는⁷¹⁾ 선부님요이 우리선부 안오시나
오기-야 오지마는은 칠성판에 실리온다

[철마면 민요 52]

모심는 소리

박경조(남, 1937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69) 영화로다.
70) 이도령 오기만.
71) 서울 가는.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자라 열매주리
이달가고 저달가고 저훗달에 열매맺으리

[철마면 민요 53]

창부타령

최성만(남,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가 좋다
하니 노지는 못하리라
양산읍네 물레방아는 물을안고~호 비빙빙 돌고
뒷집에 큰아기는 나를안고 비빙빙 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가 좋다
와이러콤 좋다가 논팔쫓네

[철마면 민요 54]

모심는 소리

최성만(남,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이 술을심어서 영화로다

서월이라⁷²⁾ 왕대밭에이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한대 주웠시면이 금년과계를⁷³⁾ 내할구로 이하하하 [웃음]

72) 서월이라.

걸구마삼삼 고운처녀이 울뽕낭게서 앉아우네
울봉줄뽕 내따주마이 내강같이 살아가자

풍당풍당 찰수집이⁷⁴⁾ 사우야반상에 다올랐네
기집년은 (할마이를 기집년이라 카거든.)
어딜가고 딸애년을 땀깁든가
(영감쟁이가 억수로 슬푸다 이 말이라.)

해다졌~네 해다졌네이 양산땅에 해다졌~네
골목~골목 당이는처녀⁷⁵⁾ 갈곳이없어 울고가네

새별같은 저바보라 반달겉이 떠나온다
(저 점심 이고 오거든.)
너가무슨 반달이고 초생달이 반달이지
(점심을 이고 온다 말이야. 우리 노래 부를 때는 그래 불렀어.)

[철마면 민요 55]

모 찌는 소리

최성만(남, 1928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한강에다~이 모를부어 모찌개도⁷⁶⁾ 난감하네
하늘에다이 모를부아 어는중생이 모를찢까

73) 금년 과거를.

74) 찰수제비.

75) 다니는 처녀.

76) 모찌기도.

[철마면 민요 56]

모심는 소리

황임선(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모시적삼 안섰안에이 분통같은 저젓바라
많이보면 병이들고이 쌀날마치만⁷⁷⁾ 보고가소

[철마면 민요 57]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황임선(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마지회관]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⁷⁸⁾
가매문에 비들치고
다홍치마 어렁지고
고운낮에 분채지고⁷⁹⁾
소주뱅이 물드간다⁸⁰⁾

[철마면 민요 58]

모 찌는 소리

77) 쌀날만큼만.
78) 우리 형 시집간다.
79) 분칠 진다.
80) 소주병에 물 들어간다.

문필금(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철마면 민요 59]

모심는 소리

문필금(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이물기 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 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 집으로 놀러갔네

[철마면 민요 60]

다리 세는 소리

문필금(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경상남도 도맹근
도리짐치 장둑간
칠팔한지 불서리
동지선달 되었을

[철마면 민요 61]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문필금(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⁸¹⁾
가매문에 비들치문
다홍치매 얼룩지고
소주병이 물뜨러간다⁸²⁾

[철마면 민요 62]

화투 타령

문필금(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야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아
구월국화 굳은마음

81) 시집 간다.

82) “물 들어간다”가 와전되어 불렸다.

십월단풍에 다떨어졌네
오동지선달 긴긴밤에
넘오시기를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지화자자 저얼씨구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서 누워났더니
대장부 살림사리 요만하면은 자족하리

[철마면 민요 63]

모심는 소리

오선이(여, 1918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이논빼미 모를숨겨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숨아서 영화로다 [웃음]

콩당콩당 찰수지비~이 사우야판상 다올왔네
할무니는 어데가고~이 사우야안에⁸³⁾ 다맬깃노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행상⁸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이 이별행상 떠나간다

[철마면 민요 64]

낭군 이별 노래

이귀량(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83) 사위의 안사람, 곧 딸에게.

84) 웬 행상.

기장땅 송달선배
팔십당사 아바두고⁸⁵⁾
칠십당사 엄마두고
온달같은 본댁두고
반달같은 첩을두고
글씨문자 아들두고
바늘동참 딸을두고
충정도야 초개산에
객사죽음이 웬말이나

[철마면 민요 65]

다리 세는 소리

이귀량(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새야새야 파랑새야
너거삼촌 어데갔노
남산에 갔다
뭇하러 갔노
새 잡으러 갔다
오거든 한 마리 주가⁸⁶⁾
꿍어먹자⁸⁷⁾
두 마리 주가
찌지 먹자
찌진 낭게⁸⁸⁾ 불이 불어

85) 아비(아버지) 두고.

86) 한 마리 다오.

87) 구워 먹자.

88) 나무에.

오줌이 짬뽕 빵구가 탕

[철마면 민요 66]

놀아 봄시다

이귀량(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나무나 춘향이요
나이는 십팔세요
생일은 사월 초팔일
이 좌석에 재밋게 놀아봄시다

[철마면 민요 67]

산비둘기 소리 노래

이귀량(여, 1936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지집죽고⁸⁹⁾ 자석죽고
동짓선달 빨래 우째할고

[철마면 민요 68]

모심는 소리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89) 계집 죽고.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절레야꽃은 장가가고~오 석류야꽃은⁹⁰⁾ 유곽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를 바래간다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잡에있는⁹¹⁾ 나를두고 먼데있는 각시잡네
나도죽어 남자되여 각시먼침⁹²⁾ 생각할래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어미년은 어텔가고~오 딸년동채를⁹³⁾ 맬깃던가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택죽고~오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살금살금 고운독에~에 놀리뒀다 금청주야
그술한잔 먹었으면~ 금년과거를 내할구로

해다지고 저문날에~에 골목골목이 연기나-네
우리님은 어디가고~오 뉘넬줄을⁹⁴⁾ 모르던가

머리야 좋고 실한처녀 달상고개를 넘나드네
오맨가맨⁹⁵⁾ 빛만보고 대장부간장만 다독히네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울명당안에서 손을치네
손치는데는 밤에가고 주모야집에는 놀러가세

90) 석류꽃은.

91) 곁에 있는.

92) 각시 먼저.

93) 딸 동자를. 즉, 딸아이를.

94) 뉘새 뉘 줄을.

95) 오며 가며.

담안에 꽃을숨가 담밖으로 넘나드네
길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길못가네

이논에다 [말을 바꾸어]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철마면 민요 69]

진주난봉가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울도담고 없는집에 시집 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님 하시는 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 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오독토독 빨래를 하니 난데없는 발자죽소리가
자작굵자작굵 들려오네
옆눈을 흘겨보니 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지나가네
하도보기 기가막혀 오독토독 빨래를 해서
집에라고 돌아오니
기생첩을 옆에끼고 술상을 차려놓고
권주가를 부르시네
하도보기 속이상해 명주수건 목에걸고
명주수건 목에걸고⁹⁶⁾ 자는잠에 죽어가네
이말듣던 서방님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여보여보 마누라여 너그랄줄 내몰랐소

96) 다음 가사를 기억하기 위해 먼저 부른 가사를 다시 부른 것이다.

기생첩은 삼년이요 본처는 백년이라
너그랄줄 내몰랐소

[철마면 민요 70]

다리 세는 소리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독간
까마구 까
양 지 버 리 동 태 야

[철마면 민요 71]

노랫가락[사랑가]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사랑아 내사랑아 참된사랑이 자네로다
사랑이 불같으면 가슴인들 오죽타리
가슴만 탈뿐아니라 온몸전체가 다타노라

[철마면 민요 72]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수천당 세모진낭게⁹⁷⁾ 낙낙끝에다 그네를달아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저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철마면 민요 73]

노랫가락[나비 노래]

최복득(여, 193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령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길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가자
꽃에서 팔세를하면 앞에서라도 자고가자

[철마면 민요 74]

모 찌는 소리

김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한강에 이모를부아 모찌내기 난감하다
하늘에 이모를부아 모찌기가 난감하다

97)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철마면 민요 75]

모심는 소리

김 화 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내양반 어데갔노
문어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간다 이~후후후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더노
전라도라 고신청에~이⁹⁸⁾ 마리반이가 올랐더라

사공아~이 배둘러라 우리동생 보러가자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두섬에 귀양갔노 이~후후후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한개 주웠시믄 금년과개로 내할구로

서울갔던 선부네요 우리선부 아니오요
오기사 오졌만은 칠성판에 실리온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어떤행상이 떠나오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온다

오늘해가 다졌는고 시골마중 연개나네
우리야임은 어디로가고 연기넬줄을 모르던고

절레야꽃은 장개가고 석류야꽃은 상각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하나를 바래가요

98) 고소한 청어.

머리야 좋고 실한 처녀 달운산고개를 넘나드네
울뽕달뽕 내다주면 살림살이를 내강살자 이~후후후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로가고 딸을동제로 맏겼던고

비문었네 비문었네 진주야덕산에 비문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요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더라 울오랍아
나도죽어 환생해서 낭군님부터 생각할래

[철마면 민요 76]

창부타령

김 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황해도라 구월산밑에 비둘기한쌍이 날아들라
암놈으로 물어다가 수놈주고
수놈으로 물어다가 암놈주니
암놈수놈 구별지어 팔도강산을 구경가니
늙은과부는 한숨을쉬고 젊은과부는 붓짐싼다
얼씨구 질씨구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철마면 민요 77]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김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알강달강 세월가서
밤을한대 주워다가
불담으로 다까묵고
다만한개 남왔는거
어마이는 보내주고
아바이는 껍디주고
니강내강 갈라묵자
왈강달강 왈강달강

[철마면 민요 78]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김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는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가
술으는 술으는
어데 술이고
울산에밑에 아미술이로다
물밑에는 성계씨
물위에는 이끼씨
높은낭게는 활가지
낮은낭게는 곁가지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새는새는 저랑새
전라도 *○○*새
오두막집에는 서귀씨
불타는데는 하비씨

[철마면 민요 7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종리마을노인정]

자장자장 자장개야
우리애기 자는데는
뒷집개도 짖지말고
앞집개도 짖지말고
눈에잠이 머리오고
머리대면 눈에잠이온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우리애기 잠잘자게
앞집개도 짖지말고
앞집개도 짖지말고
꼬꼬닭아 우지마라
머리대고 잠이고
눈에대고 잠이온다

[철마면 민요 80]

밀양아리랑⁹⁹⁾

99) <밀양아리랑>의 후렴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래 사설은 <밀양아리랑>의 가락으로 불렀다.

김화숙(여, 1929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웅천리 중리마을노인정]

꽃같은 처녀가 콩밭을 메는데
호랑이같은 우리오빠 망보고 있노라
야이 처녀야 그말을 말어라
호랑이같은 너거오빠 골아내쳐면 되노라
얼씨구 절씨구

술이라고 먹거든 주정을 마시고
님이라고 정커든 이별을 말아라
얼씨구 절씨구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 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철마면 민요 81]

모심는 소리

방필한(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3일
[이곡리 이곡마을 제보자 자택]

한강에이 모를부아 그모찌기 난감하다
서산에이 상추갈아 상추초기 난감하네

이논에이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은 에와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오늘해가 요만되면¹⁰⁰⁾ 굴뚝마중¹⁰¹⁾ 연개나네
우리야임은 어디가고 연개널주로¹⁰²⁾ 모르는공

포름포름 봄배추는이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춘향이간힌 이대룡은¹⁰³⁾ (조사자 : 아! 옥에 간힌.)
옥에간힌 이대룡은 [가사를 바꾸어] 춘향이는 이대룡오도록 기다린다

[철마면 민요 82]

창부타령

김재옥(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서월이라 남대밖에¹⁰⁴⁾ 연꽃같은 울엄마야
임의정도 좋지만은 자식정을¹⁰⁵⁾ 띠고갈까
불쌍하다 우리동생 솟불속에 묻어놓고
한강에라 한강이라 시퍼런 저바당¹⁰⁶⁾ 한강이라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아니나 노지를 못하리라

100) 요렇게 되면.

101) 굴뚝마다.

102) 연기 널 줄을.

103) 이도령은.

104) 서월이라 남대문 밖에.

105) 자식 정을.

106) 시퍼런 저 바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아니나 놀기를 못하리라
시퍼런 저바당에 뿌리없는 낭게서요¹⁰⁷⁾
예가지 열두가지 꽃잎은 서른백장
그렇게 열매가 열어 당신캉 내캉 영화로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아니아니 놀기를 못하리라 (와이구 대라.)

[철마면 민요 83]

모심는 소리

김재옥(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알금삼사이 고운독에 누룩을평저어¹⁰⁸⁾ 김청주야
국화화초를 안주놓여 처녀총각이 잔질한다¹⁰⁹⁾ 이호호호호 [웃음]

[철마면 민요 84]

모심는 소리

박호순(여, 1932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머리 좋고 실한 처녀어 달삭이고개로 넘나드네
오면가면 빛만뵈고 대장부간장을 다녹힌다

107) 나무에서.

108) 누룩을 펴 저어.

109) 사랑 수작을 한다.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아이구 모르겠다.) (청중 : 울명당.)
울명당안에서 손을치네
손치는데는 낮에가고 [얼버무리며] 방에는 밤에가자
(조사자 : 첩의야 집에는?) (청중 : 낮에 가자.) (조사자 : 어 낮에 가자.)

소주곡고¹¹⁰⁾ 약주뜨고 국화정자에 놀러감세
우리는언제 활랑되어¹¹¹⁾ 국화정자에 놀러가고

오늘해가 요만되니 점삼참이 늦어오네
시금추야 미나리야 맛본다고 더디대요¹¹²⁾

[철마면 민요 85]

아가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박호순(여, 1932년 생) 구연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알강달강 서울가서
뺨을한대¹¹³⁾ 주와다가
부뚜막에 묻어노니
오면가면 생쥐가
(뿔이라 카노? 아!)
다까묵고 하나치나 남안거를¹¹⁴⁾
니캉내캉

110) 소주 고우고, “소주 담고”를 이렇게 불렀다.

111) 한량 되어.

112) 늦대요.

113) 뺨을 한 대.

114) 하나만 남은 것을.

부너는¹¹⁵⁾ 니 묵고
알키는¹¹⁶⁾ 니캉내캉 갈라묵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안 카나 그제.)

[철마면 민요 86]

모 찌는 소리

손귀연(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다 (이래 안 하나.) 이후후후후 (이
카고 안 그러나.)

[철마면 민요 87]

모심는 소리

손귀연(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로갔나
문에야전복은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리갔다 이후후후후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숨가서 영화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이 떠나가노

115) 보너는. 보너는 밤의 속껍질.

116) 알맹이는.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나네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기넬줄을 몰랐더나

술잘먹는 이태백이 술안먹는다 맹세하고
술을보고 안주를보니 명세한것이 간곳없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오기를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대롱오기만 기다린다

[철마면 민요 88]

시집살이 노래¹¹⁷⁾

손귀연(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애야아가 메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검은빨래 껌기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시 하는말씀 애야아가 메늘아가
(뭉더라 또 인자 잊어뻘다. 아!)
밥이라고 주는것은 삼년묵은 콩보리밥이요
장이라고 주는것은 삼년묵은 된장국이요
숟가락이라고 주는것은 십리밖에 떨어진더라
(그래가지고 인자 바아 들어가가 인자 또 하는 말이, 그래 열두 폭을 인

117) 처음에는 <진주난봉가>로 부르다가 “밥이라고 주는것은”부터는 이른바 <중 노래>로 바꾸어 부르다가 계속 가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둘 다 시집살이와 관련된 노래이다.

자, 치마을 뜯어가지고.)

한쪽뜯어 바람짓고 한쪽뜯어 장삼짓고

(한 쪽 뜯어 또 뭐 집었더라. 그래가지고 절로 가. 절로 갔다 아인교. 그
래 절로 가고 그라고는 모르겠어요.)

[철마면 민요 89]

화투 타령

손귀연(여, 1926년 생) 가창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 내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앓아

육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힌다

구월국화 굳어신 내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오동지선달에 오시는손님

무엇으로 대접할까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란다.)

[철마면 민요 90]

모심는 소리

김갑진(남,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이논에이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철마면 민요 91]

모심는 소리

박복남(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사공은 어이배둘러라 우리동생 보러간다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귀향갔노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며늘네는 어데가고 딸들만 있더노

금실금실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알금아쌈쌈 고운독에 이누룩이떴다 금청주야

[철마면 민요 92]

양산도

박복남(여, 1933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에헤~이요
알뜰한 이내청춘 다늬어지고

우리청춘은 어디로 갔노

에헤~이요

알뜰한 이내청춘 어디서가고

오지마란 백발은 앞에와가 있네

에헤~이요

[철마면 민요 93]

모심는 소리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초령초령 영사초령¹¹⁸⁾ 임의야방에 불밝히라
임도높고 나도높고 저불끝이가 누있으리

[철마면 민요 94]

모심는 소리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알금아쌈쌈 곱은독에 놀리야뻘다 금청주야

[철마면 민요 95]

애원새기 노래

118) 초롱초롱 영사초롱.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한살묵어 엄마죽고 두살묵어 아비죽고
호부다섯 절에올라 열다섯에 가관¹¹⁹⁾해어
시집이라 가이까네
시금시금 시어머니 나무래고 시아버이 나무래고
그말이 원통해서
(말로 하면 이래 된대이. 저 이래 목을 빼면 소리가 되고 말로 하면 이
래 된다.)
열다섯에 가관해어
시금시금 시어머니 키작다고 나무래네
시금시금 시아버이 발작다고 나무래네
시금시금 시할매는 눈작다고 나무래네
시금시금 시할매는 입작다고 나무래네
(오만 거 다 할라 하면, 신랑꺼지 할라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래 다
어른들이 나무랬어.)
그말이 원통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십리되는 장단질에 물한물통 여다놓고
열두바리 말간에 여물소채 다해주고
소뜸바리 말뜸바리 여물소채 다해주고
시금시금 시할매요 아적진지¹²⁰⁾ 하오리소
시금시금 시아버이 아적진지 하오리소
세살방창 해뜰니더 큰방에 올라와서
시금시금 시할머니 아적진지 하오리소
시금시금 시어머니 아적진지 하오리소
(그래 다 해놓고. 그래 인자.)
쪼고만한 재피방에

119) 가관(加冠), 갓을 처음 쓰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성년식을 행했다는 의미.

120) 아침 진지.

시금시금 시누바야 아즉이나 묵으시라
그말이 원통해서 쪼꼬만한 재피방에 들어가서
석사석사 김석사요 아즉진지 하오리소
(그거는 저거 신랑이라. 저거 신랑이 그래. 아적 진지 하오리소 카이까
네, 그래 다 아즉 묵으라고 해놓고.)
십리되는 장단질에 물한통을 여다놓고
오른손에 주개들고¹²¹⁾ 왼쪽손에 행주들고
아실바실 들어가서 밥펼라고 들어가니
애온아가 애온아가
(애원애기가 저승서 일 잘한다고 잡으로 왔더란다 저승서.)
애온아가 애온아가 대문전에 나오너라
(그래 원통해서.)
시금시금 시할배요 이내대신 가실란교
(그래 시할배가 하는 말이.)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시금시금 시할배요 이내대신 가실란교
아가아가 며늘아가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아랫방에 내리가서
시금시금 시아비요 이내대신 가실란교
아가아가 며늘아가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큰방에 올라서서
시금시금 시어머이 요내대신 가실란교
아가아가 며늘아가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그래 또.)
쪼꼬만한 재피방에 들어가서
시금시금 시누부야 요내대신 가실라나
성아성아 울키성아 니대신은 니가가고
내대신은 내가가지

¹²¹⁾ 주걱 들고.

아실바실 내리가서 재피방에 들어가서
 석사석사 김석사요 요내대신 가실란교
 니대신은 내가꾸마
 (그는 신랑이라.)
 니대신은 내가꾸마 내대신은 니오나라
 (그래 생각카이 애원애기가, 신랑 가면 못 살거든.)
 당신가른 내못사요 내대신은 내갈랍니더
 아실바실 들어가서
 (그래 지가 갈라꼬 인자. 지 목숨을 갈라꼬 그래.)
 큰방에 들어가니 성주님이 뭐라카네
 (밀어내고 성주님이 못오라꼬. 저승가라꼬.)
 청에라 들어가니 세존님이 뭐라카네
 정지에라 드가시니 조왕님이 뭐라카네
 마당감은 들어가니 텃신성진 뭐라카네
 대문전에 갈라카니
 (저승을 갈라 카이, 이 집이 아깍애가 그래.)
 석사석사 김석사요 이래가른 언제오노
 정지바닥 흐른물은 강되거든 내올것이
 부뚜막에 흐른밥이 싹나거든 내올것이
 오뚝오뚝 서는애기 신행갈때 내올것이
 쪼닥쪼닥 걷는애기 상각갈때 내올것이
 (그래 애원애기가 그래, 지 인자 아들 애기꺼정 다 해놓고, 그래 지 대신
 은 지 갈라 카이 그래.)
 마당에라 들어서니 지하가 천동하네
 골목에라 나가서니 천동이 지하하네
 (그래가 지 대신에 지가 가더란다. 다 했다. 그래 저승을 갔단다.)

[칠마면 민요 96]

밭 매는 소리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피로석삼 짓는논에 순서이라 매든논에
성아성아 우리성아 니캉내캉 매라하네
그논을 다매놓고 물길청청 도아놓고
물을청청 실어놓고 서느른¹²²⁾ 정자밑에
잠이잠깐 들었구나 다슨엄마 거동봐라
다깨지나 박쫓가리 등거¹²³⁾밥을 밥이라고
아실바실 가주오디 논안매고 잠잔애기
밥주여서 뭐하겠노 어실바실 가주가네
우리대문 들어가디 우리아배 그말듣고
큰칼으는 손에들고 짝개칼은 몸에품고
어실버실 나오시디 우리형아 목에다가
칼을찔러 직이놓고 물길청청 돌아보고
탄복하고 가심치네 마사에다 가는양반
전처에다 자석두고 채치장개 가지마소
마사동동 울아배야 수셋개비 움막집에
이달에는 알을낳여 저달에는 새끼쳐서
우리모야 제삿적에 짝맞차아 울어주가
시맞차아 울어주가
(그 처자가 저거 아배 목에다가 칼을 찔러가 원통해서 닭이 돼가, 저거
엄마 제사 때나 떠나 고래 울어줄라 카더란다. 인제 끝났다.)

[칠마면 민요 97]

쌍가락지 노래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122) 서늘한.

123) 등거의 지역말.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삭질로 늦가락지
먼데보니 처잘래라 잘에보니 달일래라

[철마면 민요 98]

사발가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요내가슴 타는데 한품에든님도 몰라준다

[철마면 민요 99]

홍두깨 방망이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민정사젯골 박달나무 홍두깨방마치¹²⁴⁾ 다나간다
홍도깨방마치 팔자가좋아 큰아기손길에 녹아난다
큰아기손질에 녹아야나쁜 서답두리¹²⁵⁾는 불이가난다
서방님웃에는 눈이가났다

[철마면 민요 100]

지신밟기 쉯주풀이

124) 홍두깨 방망이.
125) 빨래감의 지역말.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얼씨얼꾸 지신아
어떠어떠 지신아
금우산이 체체달라 철마산이 생겼구나
철마산이 체체달라 이맹산이 생겼구나
이집짓던 대목은 어느냐대목이 지왔노
김대목이 지왔나 박대목이 지왔나
어떤사람 재주좋아 이집성주가 되었던노
어떤사람 팔자좋아 이집대주가 되었던노
유자이불 잡비개는 여기저기 더디놓고
새별같은 저요강은 발치마장 밀치놓고
얼씨 얼씨나 지신아

[철마면 민요 101]

모심는 소리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만오도록 기다린다
옥에간힌 춘향아는 이대롱오기만 기다린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아행상이 떠나오꼬
이태백이 본택죽고 유별행상이 떠나온다

동자야 먹갈아주가 임의앞에다 편지를하자

임의는편지는 가거나마는 임의소식은 몬나온다

[철마면 민요 102]

사가 어르는 노래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번개번개 번개번개
달이랑가 달아니냥
물랑발에 닭의씨
꾸중물통에는 호박씨
등개등개 내등개야
(그래 키웠구만은 그제?)
불난집에는 하비씨
등개등개 내등개야

[철마면 민요 103]

양갈보 노래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태산이 무너져서 신작로가 됐네
신작로 양가새¹²⁶⁾ 뽀뿌라를 숨가
뽀뿌라 복판에 하이야¹²⁷⁾가 노네
하이야가 뭇데 양갈보란다

126) 양쪽의 지역말.

127) 고용[하이야(ハイヤー)]. 여기서는 고용된 여성 즉, 창녀를 지칭함.

양갈보 풀목¹²⁸⁾에 금시계 찼네
금시계 가분데¹²⁹⁾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나청춘 하나만 늙지를 마소

[철마면 민요 104]

노랫가락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나무를타고서 꽃밭을간게 자죽자죽 비상내가난다
싸내가 나진만은 임의소식은 몬이나듣는다

[철마면 민요 105]

저승사자 노래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육십살에 저승채사¹³⁰⁾ 날떠벌러¹³¹⁾ 오니가네
부모에 걸려서 못간다고 전해시라
칠십살에 저승채사 날떠벌러 오니가네
구부¹³²⁾에 걸려서 못간다고 전해시라
팔십살에 저승대사 날떠벌러 오니가네

128) 팔목의 지역말.

129) 가운데.

130) 저승차사. 즉 저승사자.

131) 나를 데리러.

132) 구멍의 지역말.

가는길을 못다해서 못간다고 전해주가
구십살에 저승채사 날떠벌러 오니가네
내발로가 걸어간다고 전해시라
백살묵어 저승채사 날떠벌러 어니가네
좋은날 좋은시에 가신다고 전해시라

[철마면 민요 106]

남녀연정요[삼 삼기 노래]

이연악(여, 1924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남산밑에 남대롱아 서산밑에 서처자야
서처녀바굼치¹³³⁾ 둘러지고 남도령아 들어지고
뒗동산천 지치달아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리가는 늦고사리
한바굼치로 흠칫구나
길쭉길쭉 미역치야 반듯반듯 피붙이야
한바굼치로 흠칫구나 한바굼치로 흠칫구나
남대롱춤치¹³⁴⁾ 보니까네 남대롱춤치 보니까네
돈이칠푼 들었구나 남대롱춤치 툅툅털어
서처녀춤치 보니까네 돈이팔푼 들었구나
그돈으로 다주고 점슴밥을 먹을라꼬
좋은정자 들어갔네 좋은정자에 들어가니
서처자밥은 보니까네 삼년에묵은 쌀밥이네
남대롱밥을 보니까네 삼년묵은 콩보리밥
서처자밥은 남대롱묵고 남대롱밥은 서처자묵고
바꾸매여 들었구나

133) 바구니의 지역말.

134) 주머니의 옛말.

서처자반찬 보니까네 삼년에묵은 더덕끼미
남대룡반찬 보니까네 삼년묵은 콩이파리
남대룡반찬 서처자묵고 서처자반찬 남대룡묵고
바뀌무로 묵었구나 좋은정자 밑에들어가니
서처자처매 벗아가주 장판으로 나옴구나
남대룡우와기¹³⁵⁾ 벗아가주 채와하나 찢었구나
(그래가 뭐, 그거는 그 뒤에는 서처자강 남대령강 딱 늙우자고, 아들 딸
낳아 성공을 하더란다.)

[철마면 민요 107]

모심는 소리

정남석(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새별걸은 저밭꼬리 온달걸이도 떠나오리
니가무슨 반달이라 초승달이 반달이지

사공아 배돌려라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귀양갔노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에와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철마면 민요 108]

양산도

정남석(여, 1930년 생) 가창

135) 우와기(うちぎ). 즉, 상의(上衣). 윗옷.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구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의 낭군님은 나를안고 돈다

[철마면 민요 109]

화투 타령

정남석(여, 1930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정월술가지 쏙쏙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란하야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으신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철마면 민요 110]

화투 타령

정복년(여, 1925년 생) 가창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허락받아
오월난초 날으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니
오동잎십이 좋다해도
비삼십에는 못당한다

2. 남구 민요

[남구 민요 1]

모심는 소리

손봉순(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물꼬는철철 흠어놓고 우리양반 어데갔소
문어전복 손에들고 첩어에집에¹⁾ 가고없네

[남구 민요 2]

다리 세는 소리

손봉순(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맹근²⁾ 또맹근
짜발이 회양근
도로매춤치 장독간
머구발에 북설이
칠팔설에 대설이
동지선달 대설이

1) 첩의 집에.

2) 진주 망건.

[남구 민요 3]

모심는 소리

정갑년(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 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러 나는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자³⁾ 연기나는데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기넬줄 모르는고

[남구 민요4]

첩 노래

정갑년(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갓을하고⁴⁾ 어디가요
(이거 아주 옛날 노래거든예.)
산너매라⁵⁾ 첩을두고 첩의방에 나는가오
첩의방은 꽃밭이요 요내방은 연못이요
꽃밭에 노는나비 봄한철만 잠깐이고
연못안에 노는고기는 주와장찬⁶⁾ 띠코논다

3) 골골마다. 골목골목마다.

4) 옷을 입고 갓을 쓰고.

5) 산 너머에.

6) 주야장천(晝夜長川).

[남구 민요 5]

노랫가락[그네 노래]

정갑년(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수천당⁷⁾ 새모신⁸⁾낭계⁹⁾ 당사실로 그네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6]

화투 타령

정갑년(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에 나비가앓아
유월목단에 춤잘치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뜨고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7) 추천당(鞭鞭堂).

8) 세모진. 세모로 갈라진.

9) 나무에.

오동추야 달밝은데

임오 (뭐라 쿠더라. 끝머리 모르겠더라.) (조사자와 청중 : 임의 생각이.)

임오생각이¹⁰⁾ 절로난다

(이 노래도 저 오래 된 거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얼싸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다

[남구 민요 7]

노랫가락[나비 노래]

정갑년(여, 194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강변부녀 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건네나비야¹¹⁾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면 꽃에붙어서 자고가자

꽃지고 (뭐? 단, 뭐 또 있는데. 그라모.) (조사자 : 푸대접하거든.) (아.)

[얼버무리며] ~하거든 앞에붙어서 자고가자

[남구 민요 8]

모심는 소리

윤경수(남,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 노인정]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로 나는가네

10) 임의 생각이.

11) 건너에 있는 나비야.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부모 어데가고 연개넬줄로 모르는고

[남구 민요 9]

모심는 소리

이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한달크고 두달크모 석달만에는 (청중 : 칠팔월에는.) 열매연다

이물끼저물끼 다허라놓고¹²⁾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을 놀러갔네

콩닥콩닥 찰수지비¹³⁾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애미년은 어데가고 딸년을 땀깎던고

이논빼미 모를숨겨¹⁴⁾ 금실금실 영화로다
하늘에다 목화숨가 목화따기도 애럽더라¹⁵⁾

늦아오네 늦아오네 점심참이¹⁶⁾ 늦아오네
주인네양반 어데가고 점심참이 늦아오노
쌈나물 무친다고 멋없이도 늦았구나

12) 다 헐어 놓고.

13) 보통 ‘찰수제비’로 부른다.

14) 모를 심어.

15) 어럽더라.

16) 점심참이.

낭창낭창 베루끝에¹⁷⁾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아 남자되어 처자곤석¹⁸⁾ 샘길라네¹⁹⁾

삼오반들²⁰⁾ 장판방에 호야²¹⁾박가 걸어놓고
임도눅고 나도눅고 저불끝이가 누가있노

모시적삼 속적삼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날맨보고 들맨보고²²⁾ 어느누기가 다볼거나

사래질고 장찬발에²³⁾ 목화따는 저큰아야
목화색은 쥐색인데 처녀얼굴은 철색이네²⁴⁾

[남구 민요 10]

모 찌는 소리

이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노인정]

밀치라 닥치라 모두 잡아서 흘치라
영천하 초승에²⁵⁾ 모두야 잡아서 흘치라

[남구 민요11]

다리 세는 소리

-
- 17) 벼랑 끝에.
18) 처자 권석. 처자 식구.
19) 샘길라네. 섬기려고 하네.
20) 삼오(三五). 즉 보름.
21) 남포등. 즉, 석유등불.
22) 나오면 보고 들어가면 보고. 나고 들면서 보고..
23) 이랑이 매우 긴 밭.
24) 철색은 누런 색.
25) 초생(初生). 음력으로 그달 초하루부터 처음 며칠 동안.

이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춤치 장두 깐

[남구 민요12]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이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노인정]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가모
가매문에 비들친다 분홍처매 어룽진다²⁶⁾

[남구 민요13]

남녀연정요

이분순(여, 193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동향부녀노인정]

울도담도 없는집에 초가집짓는 저낭군아
그냥군 살았시몬 내낭군될랑가 알수없네

[남구 민요14]

모심는 소리

26) 얼룩진다.

원선희(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장수경로당]

낭창낭창 벼락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곤석 섬기볼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임의행상 떠나온다

[남구 민요15]

청춘가

김학엽(여, 193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2동 동천경로당]

청전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어린이 내가슴에 잔별도나 많구나

언제는 좋다고 나를오라 하더니
언제는 궂다고 좋~다 나를반대 하느냐

시내 강변에²⁷⁾ 자갈이 금전만 같으면
어따난 친구를 좋~다 못사와 볼거나

바람이 불라면 십원짜리나 불고요~오
풍년이 들라면 좋~다 큰애기풍년이나 들어라~

어따난²⁸⁾ 잡년이~이 임종다 하였냐~아

27) 강변에.

말없는 봉토지 돈닷돈 여비삼고~오
강넘고 산넘어 좋~다 임찾어 가잔다 (청중 : 좋다.)

사람이 늙으면 맘조차 늙느냐~아
요내나 내마음 좋~다 더 젊어가는구나

그물농제 그물농제 밤중밤중 야밤중에
그물이라 농거들랑 아무고기도 들지마고
큰애기 풍년이나 들어라

술비산갈고~요 서방님 말소리 좋~다 기쁨안에 든구나²⁹⁾

날데리러 올때는 반뚝을 달더니~이
날실어 농게로 좋~다 온뚝을 단구나³⁰⁾

한길두길 수깊은물속 깊음에 얹푸름 아련만은
이세상에 남자의 마음을 모리겠네

[남구 민요 16]

모심는 소리

권기숙(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넝청넝청 베리끝에 저기서는 저오빠요
나도죽어 후생에가면 낭군님부터 섬길라요

28) 어떠한.

29) 드는구나.

30) 다는구나.

[남구 민요 17]

노랫가락[그네 노래]

권기숙(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수천당 세모시낭개 그나무에 그네를매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18]

양산도

권기숙(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정선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유정님은 날안고 돈다

[남구 민요 19]

백발가

권기숙(여, 1930년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아침 청춘인데 오늘날에 백발왔네
새끼야 백발은 쓸데가 있는데

인간의 백발은 쓸데가 없다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 있고
사람은 늙으면 쓸곳이 없다

[남구 민요 20]

어랑 타령

김순이(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저건네 잔술밭에 좇대서말을 심었더니
공알새가 다까묵고 빈좇대만 꺼떡꺼떡

저건네 딱따구리는 참나무구녕을 뚫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뚫버진구녕도 못뚫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힘마 디어라

뒷집처녀를 불러꼬 정지모티³¹⁾를 가다가
호박넝쿨에 걸려서 십개월십역을 간단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힘마 디어라

[남구 민요 21]

각설이타령

김순이(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나오신다

31) 부엌 모퉁이의 지역말.

우리네부모 날길러 좋은영화를 불라고
병신의자식을 놓아서 병신의팔자 기박해
팔도강산을 땀긴다

[남구 민요 22]

좌투 타령

김순이(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임을맺아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유월목단에 앓아주소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을 달밝히자
구월국화 구속한마음을
시월단풍에 다씨러졌네
오동지선달에 백설이날려

[남구 민요 23]

모심는 소리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소
등넌에라 첩을두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할맘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땀박땀박 찰수제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우리야할맘 어디가고 딸을동자 시켰는고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할사 저오랍아
나도야죽어서 군자되어 처자한번 섬기볼래

모시야적삼 안섰아래 분통걸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이나요 담배씨만큼 보고가소

[남구 민요 24]

모 씨는 소리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가 극락이네
한강에다 모를심어 모찌내기가 난감하네

[남구 민요 25]

진주난봉가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니 하시는말씀이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 빨래를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산도좋고
우당탕탕 검은빨래 흰빨래
검은빨래 김계빨고 흰빨래는 희게빨고
난데없는 말굽소리가 나서 힐끗돌아보니
하늘같은 갓을씩고 구름같은 말로타고
자기남편이 못본듯이 지나가는기라.
(못본듯이 지나가니께네, 그래 인자 퍼뜩 씻거가지고 이제 낭군님이 집
에 가시께네. 오이께네.)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마니 하신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이 오셨으니
아랫방에 나가봐라
아랫방을 나가보니 기생침을 옆에끼고
온갖가지 안주에다 권주가를 부르더라
그것을본 며늘아기 아랫방에 내려와서
아홉가지 약을먹고 목을메어 죽었더라
그것을본 진주낭군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이럴줄 왜몰랐을까
하룻정은 삼년이고 본택정은 백년인데
내이럴줄 왜몰랐던고 어화둥둥 내사랑아
너는죽어 꽃이되고 나는죽어 나비되어
천년만년을 살고지라

[남구 민요 26]

사발가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네
에헤야 어허야

[남구 민요 27]

권주가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잡으나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묵고노자는 금화주요

[남구 민요 28]

모심는 소리

노분조(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저게저 찾아가자 백두산을 찾아가자
을긋불긋 봉우리는 오룡초룽에 꽃노래라

어화쌍쌍 고운독에 술을해여 금화주요

[남구 민요 29]

양산도

배종근(남,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돌고
뒷집에 큰애기 나를안고 돈다

[남구 민요 30]

너냥 나냥

배종근(남,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우리집에 신랑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남구 민요 31]

무정 천리

윤순월(여, 1922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무정천리 오다가가다가 만난사람

정을 주지를 말아야지
가는님 잡고서 울어나볼까
손수건 흔들면 웃어나볼까

[남구 민요 32]

창부타령

최강이(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설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텅빈 내가슴 속에는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사랑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것이 무엇인가
보일듯이 아니나 보이고 잡을듯 하다가 놓쳤으니
나혼자만이 혼인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근본인가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설지는 못하리라
한송이 꽃이 떨어진다고 낙화가 진다고 설어마라
한번 피었다 시드는줄을 갖고 보면은 알건만은
모진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아니나보고 무심코 밟고가니
진드라미가 슬플소냐 수면정이 운명이라며
너무도 아파서 못살겠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남구 민요 33]

보지 타령

최강이(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2동 천지경로당]

보지내력을 들어보소
금도끼를 찍었는가 감씨조차 왜배겠노
십이야 별판을 잤다왔나 털옷조차 와입었노
감기야 몸살이 들었던가 콧물조차 와흐르노
선술집을 채렸는가 나까우리³²⁾ 꼬치가 들락날락

[남구 민요 34]

너냥 나냥

장임순(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동부부녀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열흘만 불어

[남구 민요 35]

사발가

장임순(여, 1933년 생) 가창

32) 판매원(なかうり). 극장 안에서 먹을 것을 팔러 다니는 일 또는 팔러 다니는 사람.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동부부녀 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남구 민요 36]

밀양아리랑

장임순(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동부부녀 경로당]

날쫓보소 날쫓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쫓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겨주소

[남구 민요 37]

모심는 소리

김임순(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시집갈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내맹년에 시집갈래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남구 민요 38]

화투 타령

김임순(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지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놓어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남구 민요 39]

다리 세는 소리

김임순(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나사머리 은두칼

[남구 민요 40]

이별 노래

김임순(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날두고 가신님은 가고싶어 가나

[남구 민요 41]

모심는 소리

김임순(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낭창낭창 벼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저승가서 낭군님한번 섬기볼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옥갓을 쓰고오는님
날두고 가신님은 가고싶어가나

[남구 민요 42]

모심는 소리

송효순(여, 1936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흉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다리밭으로 꼭날아든다

울어머니 날설적에 죽신나물 즐기더니
그죽신이 왕대되어 왕대끝에 학이샀아
울어머니는 간데없고 왕대끝에 학이샀아
학은점점 쭉어온다

[남구 민요 43]

시집살이 노래

정순점(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중우벗은 시아지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쫓그만한 도리판에 상보기도 어렵더라

[남구 민요 44]

권주가

정순점(여, 193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고보면 늙도젊도 안합니다

[남구 민요 45]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순례(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세천당 세모시낭게에 쇠사슬로 그네를매고
넘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어
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끈어지면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46]

모심는 소리

최순례(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해는지고 저문신날에 옥갓을하고 어디를가오
첩의집에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을 보고가오

첩의집은 꽃밭이고 나의집은 연못이다
연못과금붕어는 사시사철이고 꽃과나비는 봄한철이다

[남구 민요 47]

사발가

최순례(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김도 풍풍나고
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 난다

[남구 민요 48]

다리 세는 소리

최순례(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0일 채록
[대연3동 송선노인정부인회]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세만세 주머니끈
돌돌말아 장도칼
하예 금사 허리띠

[남구 민요 49]

풍년가

문월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높으신 우리나라 편편옥도가 일가니가
높은데가면 밭이되고 낮은데가면은 논이된다
에 헤 에헤헤야 상사디야

봄이되면 소를몰아 상편하편에 논밭갈고
씨를뿌려 덮어노니 에라종구나 잘도큰다
여름이되면 비가와서 아리논빼미 물대주고
모를심어 훔쳐노니 에라종구나 잘도큰다
에 헤 에헤헤야 상사디야

가을이되면 추수하야 오곡과백과로 사라놓고
아들딸나매 옹개종개 에라종구나 풍년일세
풍년이왔네 풍년이왔네 삼천리강산에 풍년이왔네
하느님은혜 감사하야 이렇게노래를 불러본다
에 헤 에헤헤야 상사디야

[남구 민요 50]

모심는 소리

문월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이논에다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의 산소등에 솔을숨아 영화로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오르네
에미년은 어테가고 딸이년을 시켰던고

이물끼저물끼 헐아놓고 주인네양반 어테갔노
주인네양반은 첩의야방에로 놀러갔소

[남구 민요 51]

다리 세는 소리

문월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양산도맹 도맹건
도리쭈치 장독간
신깨기 열석냥
까마구 까옥 양주바리
범 사시 노리
빵구 똥

[남구 민요 52]

모 찌는 소리

송성례(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서 홀치라

[남구 민요 53]

모심는 소리

송성례(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 늦어온다
서른세칸 정지칸에 도니라꼬 늦어온다
시금초야 미나리를 맛본다고 더디온다

서울이라 유담안에 해달뜨는 구경가자
상주땅 홍골못에 잉어노는 구경가자

서울이라 양대밭에 금비들기 알을놓아
그알한개 주셨으면 금년과개 내할거로

[남구 민요 54]

이야기 노래

송성례(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4동 석포경로당]

이바구 때바구 강때바구
강때한짐 짊어지고
밀양땅땅 올라가이
사또인데 매만맞고
저거아바이한테 통제하니
에고놈 잘죽었다
저거어머이한테 통제하니
에고놈 잘죽었다

[남구 민요 55]

다리 세는 소리

김차금(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0일 채록
[대연5동 용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독칸
까마구 까옥 양지붕지

[남구 민요 56]

백발가

김차금(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0일 채록
[대연5동 용남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너저도 늙어지면

[남구 민요 57]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말숙(여, 1937년 생) 가창
2013년 2월 10일 채록
[대연5동 용남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게 오색당사실 그네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58]

모심는 소리

김옥환(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물꼬청청 헐어놓고 주인네한량이 어데갔노
문어를 에와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다
무슨년의 첩이건데 밤에가고 낮이가느냐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갔다

첩아첩아 요내첩아 신을벗고 니오데 가느냐
타래깁기 숙마총에 따름따름 신발이야
[쿠는데, 그기 아마 삼을 가지고, 신발 해가 있는 신을 신고 오데 갔던 모양
이지.]

[남구 민요 59]

최심곡

김옥환(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어라세상 시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못하갓고
이삼십이 당도하야 부모은공 할라하니
어이없고 애닭구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이 절로난다.
망령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달코도 설운지고 철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호항백발 늙어간다
인간의 공로를 누가 막을소나
춘추는 연년록이고 왕소는 기불기라
어제온날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간백년 다살아야 잠든날과 병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고나면은 단사십도 못살인생

[남구 민요 60]

권주가

김옥환(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칠년대왕가물음에 이슬받은금조주요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 사오리다.

[남구 민요 61]

모심는 소리

김옥환(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알금쌀금 고분처년 줄뽕낭게서 앓아우네
줄뽕올뽕 다따주면 내품안에 잠들거라

[남구 민요 62]

신세한탄가

박종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술과 담배는 내심정 아는데
에야 좋다
한품에 든임도 내심정 모른다
배고파 지어나밥은 미도 많고서 돌도 많다
미 많고 돌 많은것은 임이 없느난 탓이로다

[남구 민요 63]

화투 타령

박종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매자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지고
오월난초 나눈나비
유월목단에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십월흑풍에 떨어진다

[남구 민요 64]

쌍가락지 노래

박종숙(여, 192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질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차이네라 절에보니 달일레라
홍달바시 오라바시 거짓말씀 말아주오
남한풍이 드리부니 풍지떠는 소릴레라

[남구 민요 65]

회심곡

배석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일심으로 공들으니 극락세계라 염불이며
 동서사방 신주님네 평생심중 잡순마음
 연만하신 백발노인 일편상³³⁾을 잘노시고
 잘사시다 왕생극락으로 발원하오니
 젊으신네 생남발원 없던아기 생남이요
 장함하신 서방님들 효자충랑 도련님
 한남여자에게 처끝에는 금년 생 일년 생을
 사시자하니 삼봉길법 불법만체 관재구설
 삼재팔란 우환질병 걱정근심 힘으로다
 무인도 깊은성중에 등실이 다버리고
 소원성취 발원할때 이대가중 대통할때
 대명당에 집을짓고 수명당에 우물파고
 아들나면 효자놓고 딸을노면 열녀로다
 동방석에 명을빌고 강대공에 나이빌고
 선팔십 후팔십 일백육십으로 점지하고
 석중에다 복을빌어다가 물복은 흘러들고
 구룡복은 숨어들고 시냇개문 만복래요
 피리소리 황금출이라 인생오복으로 몸수태평으로
 귀한아들 딸린전에 명복축원 하옵니다
 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처창생 하명하달 신주님네 이내말삼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사람밖에 또있나요
 탐구탄생 불법말삼 들어보니
 제일여래 석가여래 공덕으로
 어머님진 살을빌어 아버님진 뼈를받아
 칠성님전에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석달만에 피를보고 여섯달만에 육신생겨
 십생만에 탄생하니
 그부모가 우리길러낼때 어떤공덕 들었을까

33) 일평생.

진자리는 불쌍하신 어머니가 누워시고
 마른자리는 아기를 눕히시고
 음식이라도 맛을보고 쓴디쓴것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맛있는것은 아기를주고
 오뉴월단한밤 모기빈대들썰리 공곤한잠을 못다주무시고
 다떨어진 살부채를 손에들고 온갖시름 다하다가
 어리둥실 나를주시면은 동지선달 서남풍에
 백설이 날치는데 그자손이 추울세라
 덮은데 덮어주고 바른팔 원젓을 물리놓고
 양인양친이 앉아서 그자손의 엉덩이를 툇툇치고
 사랑스러워서 하신말씀이
 은자동아 금이로구나 만집춘산에 보배로다
 순디건곤 일월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형지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에는 화목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오색비단에는 채색동아 비단에는 오색동아
 금을주니 너를사나 은을주니 너를살까
 애지중지 길르정 사람마다 보모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않겠습니다
 어라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검은머리 백발되고 얼굴은 주름잡아
 아니먹던귀가 절벽되고 박씨같은이가 다빠졌으니
 이아니도 원통한데
 자손들은 나를보고 망령이라 하는소리
 애닭코도 원통하다 닫는문을 탁차면서
 여보시오 청춘들아 너희가본래부터 청춘인가
 낸들본래부터 백발이나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 그저께 청춘소년해라 하엿구만
 금일백발 원수로다 우리부모 나를배였을때
 백일정성 산친기도라 명산대천을 찾으시면
 온갖정성을 다드렸으니 힘든낭게 꺾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질까 지성이만 감천이라
 부모님에 뼈를빌러 삼각산에 탄생하니
 지극하신 우리부모 나를 길렀을때
 겨울이면 추울쎄라 따뜻한데 눕히시며
 여름이만 더울쎄라 서운한데 눕히시며
 온갖정성 다들여서 천금주어 나를곱게 길렀구만
 무정세월 유수같이 가는봄도 오고가고 하건만은
 인생한번 늙어지면 다시젊지는 못하는가
 어지오날³⁴⁾ 성튼봄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실날같은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썬들 약효험이나 있을쏜가
 명인불러 설경한들 경덕이나 있을쏜가
 무너불러 곶을한들 곶덕이나 있을쏘나
 명산대천 찾아가서 소지한잔 바친즉
 천상님진 비나이요 모진목숨 꺾어질때
 제일전에 친광대왕 제이전에 초광대왕
 제삼전에 성지대왕 제사전에 옥황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평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네 평정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정루대왕
 열대왕의 명을받아 일즉사자 월즉사자
 한손에는 장검짚고 또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쇠사줄을 비끼차고
 활동같이 굽은길을 화살같이 달라와서
 닫는문을 탁차면서 석면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저승에 문닫는다
 달라들어 인정사정 슬픔없다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끝이없고

34) 어제 오늘.

두렵기도 청량없다 대명하고 기다릴때
 어사장에 분부듣고 남자죄인 정대할 때
 정신차려 살펴보니
 열시왕에 좌개하고 재판관이 무섭구나
 남자죄인 여자죄인 들어와라
 인간세상 살어갈때 무슨공덕 하얏는가
 바른대로 아뢰오라
 임금에게 극간되고 나라에는 충신되고
 부모에는 효자되고 형지간에 금년되어
 배고픈이 밥을주어 아사구제 하얏던가
 헐벗은이 옷을주어 구난공덕 하얏던가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얏던가
 부처님에 공양올려
 마음닥아 성심하야 염불공덕 하얏던가
 병등중생 약을주어 하림공덕 하얏던가
 방방곡곡 학당지어 명인공덕 하얏던가
 너의죄목 신중하니 풍두옥에 가두이라
 선한사람 불러들어 위로하고 대집한다
 모쓸사람 보았는가
 이사람은 성심으로 기회되어 가나니라
 그아니 좋을쏜가 소원대로 하야주마
 극락으로 가라니아 연화대로 가라니아
 사왕모에 사왕되어 반도소림 하라니아
 난중절색 대란이야 백만군중 도둑되어
 장군몸이 되겠는가 어서바빠 아뢰오라
 산신불러 의논하여 석가여래 아미타불
 여자죄인 불러들어 시부모께 지성으로 하얏던가
 동생형제 우애하고 부모말씀 거양하고
 형제부모하얏으라 충두옥에 차례대로 체결하니
 도산지옥 하산지옥 한번지옥 급수지옥
 발산지옥 독사지옥 철룡지옥 거해지옥

철산지옥 킴킴한 험한지옥
공경하매 하는말이 소원대로 아뢰어라
선녀되어 가겠는가 그아니 좋을소냐
소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에로 가겠으니 그아니 좋을손가
나무아미타불
저창생 마면하라 신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날적에도 빈손빈몸 들고오니
가실적에도 빈손빈몸 들고가시는데
무릇 탐심내지마소
만당절하 모아놓고 묶어가나 지고가나
두손꿍덕 배우에엮고 가는인생
한심하고 가련하구나 끝이없는 부평초로다
천년살면 만면살고 반백년을 못사는 인생목숨같이
사람되어 태평하게 사시라
회심곡을 가소롭게 쉽게여겨 선심공덕 아니하고
무술유를 수상하며 구룡백 분수되어
억만겁대 몸이나요
인생고생 하는것이 전생죄로 그러하니
한을말고 원을말고 전생죄로 벗어놓고
후생귀인되어 가롭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구 민요 66]

지신밟기 성주풀이

배석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성주본이 어데던고 주홍국이 본이던가

주흥국도 본아니다 황토섬이 본이던가
 황토섬도 본아니다 서천고개 정근예나
 성주부친 천궁대왕 성주모친 옥진부인
 성주조부 전광광씨 성주조모 월미부인
 성주부친 천궁대왕 다말대왕이 무자숙하면
 일일이한탄할 우리전생에 팔자조화로서
 나라의 공록을먹고만은 추워 주춘에돌아
 전대전송 봉지사와 서형하하를 누구한테다 전하리
 성주부친 옥진부인 다말대왕이 무자숙하면
 첩의죄로서 있다만은 이국상에 부처님영험이
 있다하니 우리도 정신으로 벌어나보사이다
 부인이 대왕에다 허락받아 문전에도사리니까
 그날도사를 불러다가 점을하니 도사가 하는말씀이
 이십삼십전에 사주팔자 있건만은 사십평생에 두는자숙
 성심공덕 처이하며 푸른시집하여 우인후인대월일까
 부인이 그말씀듣고 그날부터 정신할때
 상탕에 머리감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삼천이복 저이하고 머리감아 다시씻고
 우문산 절을찾아 석경에 좁은길로 점점이 들어가니
 좌편에는 청산이요 우편에는 녹수로다
 녹수천상 봉봉에 소아³⁵⁾있고 성주골은 우글한데
 서경치는 관세소리 영력이 들리사데
 차차로 사문박 따다로이 금자로 사귀
 우문산 절간이 다두루하게 반기거날 반기하니
 성함대에 밥을지어 천제당에 천제하고
 칠성당에 반론하고 산제당에 산제하고
 부처님께 축원하고 사귀시던 제왕단
 석달열흘 백일불공하야 내집으로 돌아왔세
 아기부처 평생태몽이 환연하다

35) 솟아.

그달부터 태기있어 식사를 고히가려
 천상선녀 하강하여 부인에 순산날을
 가리받아 아기를 탄생하니 활달한 귀남자
 부인이 반길하고 아기를 살펴보니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라
 득례는 사방직성 정기가 엄해있고
 후주미간에는 천지풍월 조화가 감아있고
 대왕이 담에들어와서 영강사십에 두은자스
 이별이 웬말이나
 관상장이 불러들여 아기상을 평론할때
 명지간 지피어놓고 요지은에 물을찍어
 오미봉에다 먹을갈아 한묵한필 붓을잡고
 청청히 높이쓰니 부귀영화 하라만은
 이십전에 부모이별 관상이 분명하다
 대왕이 깜짝놀라 영강사십에 두은자스
 이별이 웬말이나 작명장이 불러들여
 아기이름 잘지으만 이별수나 없어질까하고
 아기이름 지어낼 때 이를성자 구할구자
 성국이 벼로로 성주시라 하시더라
 성주님 거동보소
 한살묵어 말을하니 소진장이 구근이요
 두살묵어 인사하며 천성본을 받고
 세살묵어 걸음걸어 못갈때가 저이없고
 네살묵어 서당에 입학하야 맑은세상
 무불통지하야 모른거이 천지에 없난지라
 세월이 여루하여 성주나이 십오세라
 우리도 이세상에 나서 이천지에
 빛나는 이름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주인공 살펴보니 인생이 인간에서 집이없어
 수풀로 집삼고 있던그날 부모양인 고하시
 쌀낭게 쌀이열고 옷나무에 옷이열고

밥나무에 밥이열고 성주님 거동보소
 오만산천 다둘러도 나무한주 없는걸로
 나랏님께 상소하니 술써서말 담아주신거
 성주님 거동보소
 치울씨를 받아다가 무주야남산에다 흠어놓고
 부모양인전에 고아하심 부모님이 반길하고
 성주님 장가드릴 의논할때 김정승이정승
 모두앉아 성주님은 부모님의 불로하여
 황토섬에 귀양할때 삼년 귀양할 때
 성주다 황토섬에 나리갈때
 엄동설한 찬바람 쌀쏜듯이 불어오고
 송죽은 우울한데 엄동설한 나무열매 밥을삼고
 이삼월에 당도하여 칩뿌리심고 밥을삼고
 유월영천 더운날 바닷가에 나리가서 고기잡아 묵게하고
 하수염장 몸을보니 오만식들이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수 없는지라
 이배성주모친 옥진부인 성주님을 이별하고
 이날저날 소식몰라 이리한참 한탄할때
 난데없는 청조새 날라든다
 새야새야 청조새야 우리성주 소식전해주가
 너를냥야 길르적에 저른자리 오마놓고
 마른자리 가리가메 고히고히 길렀네
 엄동설한 춥다하면 덮어주고
 유월영천 덮다하만 목욕시켜 애지중지 길른애야
 이리한참 탄식할때 청조새 거동보소
 편지를 입에물고 임은전에 전할꺼나
 반기하고 떼어보니 성주글씨 분명하다
 제출을 하얏사데 옴마옴마 우리옴마
 영강사십에 나를냥여 고히고히 길러내
 말년잠이 포자한들 사주팔자 할수있소
 내년춘삼월 봄이오면 나도 고국에나리가서

부모양인 모시고 인연유전 하오리다
지체안부 하옵소서 성주모친 옥진부인
그날부로 성주님을 모시러가자시야
황토섬에 들어가서 낭글비여 크다큰 배를모아
아미타불 주인되고 천상무편 열시강 사공되고
아방물에 세존신고 뒷물에 극락신고
침대위에 용왕신고 옥담에다 성주님을 모시고
동남풍을 빌리다가 출렁출렁 배질하야
이가중에 나리와서 부모양인전에 인사하고
지어보세 지어보세 이집으로 지어보세
나무비로 나갈썩에
앞집에 김대목아 뒷집에 박대목아
어장망태 둘러메고 서른세명 일꾼들아
뒷동산 천지천지 달라들아 씨렁씨렁 도끼하야
고품나무 곱다듬고 곱은나무 곱다듬고
오행으로 들어서와 비생그물 주치놓고
유리기도 행장을 들보삼고 청정목을 들보삼고
오갈비 상랑에다 만대유전 색깔이다
거무줄로 활매치고 연잎으로 붙어놓고
사모에 편경달아 동남풍아 때리부라
백년설이 환연하다 이집으로 좌정하소

[남구 민요 67]

노랫가락[그네 노래]

엄갑순(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세천당 새모지낭게 널어진가지에 그네를 메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 줄잡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68]

아기 재우는 노래

엄갑순(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뒷집개도 낚지말고
꼬꼬닭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운다

[남구 민요 69]

사발가

엄갑순(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퐁퐁 나군만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남구 민요 70]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

엄갑순(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달가운데 계수나무 홀로서서

[남구 민요 71]

노랫가락[그네 노래]

송봉염(여, 1924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세모시 세모난가지 오색가지다 그네를매고
내가타면 임이나밀고 임이타면은 내가민다
그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네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72]

밀양아리랑

송봉염(여, 1924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다 나를 남겨 주소

[남구 민요 73]

모심는 소리

송봉염(여, 1924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몽상을 입었던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다리발으로 날아든다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남구 민요 74]

모심는 소리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물꼬랑처정청정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낮으로는 주모야 술집에 놀러가고
밤으로는 등넰에다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가네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위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딸에동제 시키던고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겉이 떠나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라 초생달이 반달이지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랴아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처자야권속 섬길라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소자가 올고가노
어린동생 옆에끼고 부모님찾아 내가간다

[남구 민요 75]

창부타령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네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고 저절씨구
이장단에 아니놀면 아니 오지를 못하리라

[남구 민요 76]

쌍가락지 노래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레라 절에보니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망에 숨소리도 들일레라
홍달바니 오라바니 그런말씀 말아주소
단풍이 디리부니 풍이뜨는 소릴레라

[남구 민요 77]

권주가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달아 뚜렷한달아 임의동창에 비추는달아
임홀로 누워났더니 어떤부랑자 품었더니
동자야 잔잡아라 먹고노자는 알감주로다

[남구 민요 78]

권주가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받으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금청주요

[남구 민요 79]

양산도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양산읍네 물레방에 물을안고 돌고요
우리집에 저문이는 나를안고 돈다
 둥게디아라 뚱땅땅땅둥게 디아라 땡땅땅땅
 능기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넘어간다

[남구 민요 80]

너냥 나냥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우리집 영감은 명태동태잡아러 나갔는데

[남구 민요 81]

모심는 소리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이삼삼아서 옷해입고 무적산에 구경갈래
무적산천 올고사리 밤이슬맞아서 다피었네

달아 뚜렷한달아 임의동창에 비추는달아
동자야 먹갈아라 임의편지가 날라서왔네

한자씨니 눈물이요 두자쓰니까 옷깃을적셔
편지는 왔구나만은 임은언제나 오실란고

[남구 민요 82]

달거리 노래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정월이라 대보름날 농사밥밖에 하는게더있나요
이월이라 초하룻날 천상에내려온 영동할매 내려온다고하고요
삼월이라 삼짱날은 꽃을따서 화전굽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부처님이 오시는날
오월이라 단오일에 쟁피따서 머리감고
유월이라 유두날은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 만나는날
칠월이라 백중날은 농사짓는 농부들이요

[남구 민요 83]

아기 재우는 노래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눈썹에 붙은잠이
눈안으로 다더가라
머리끝에 붙은잠아
눈안으로 다더가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에 보배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리
금을준들 너를사리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조부에게는 효손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간에 화목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온구전에는 파내기

높은낭게는 활가지
낮은낭게는 절가지
국가에는 충신동아
어허 등실 등실아

[남구 민요 84]

야기 어르는 노래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을한대 좇어다가
부석에다³⁶⁾ 넣어놔디
생쥐가 다까먹고
다문³⁷⁾하나 남은것을
부엌에다 넣어놔디
하나남은거를 다까먹고
하나도 없더란다

[남구 민요 85]

모심는 소리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방티 뜨고있다

36) 부엌에다.
37) 다만의 지역말.

미나리라 서금채를 맛본다고 더디닷네
명화야태릉 속삼밭에 눈매고운 저처녀야
보니마니 옆눈질마라 대장부간장을 다녹힌다

서울에는 정승판사가 몇몇인고
하늘에는 별이많에 칠성별이 몇몇겐고

[남구 민요 86]

창부타령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몽상³⁸⁾을 입었던양
소복단장 곱게나하고 장다리³⁹⁾발으로 날아드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남구 민요 87]

최심곡

안두임(여, 1931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솔목산천 깊은골에 소년초록 깊이숨가
양네꽃이 피어나니 오죽좋아서 사랑하리
낭글숨가 낭글숨가 극락등에다 낭글숨가
낭글숨가 배를모아 부처님이 배를모아

38) 몽상(蒙喪), 부모상을 당해 상복 입는 것을 말함.

39) 배추나 무 따위의 꽃줄기.

만비단은 풍석달고 서상강에 띄어놓고
보현보살 앞에앉고 문수보살 뒤에앉아
어머님은 금판신고 아버님은 본판신어
형제간에 우애신고 일가간에 화목신고
동네사람 구경신어 두리청경 저극락을
아니나 가고서 말것인가 나무아미타불

[남구 민요 88]

베 짜기 노래

유양임(여, 1936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오늘날 하심심하여서 베틀이나 놓아볼까
노인이짜면 노방주요 저젊은이가짜면 하비단일세
노방주하비단 다짜버리고 우리낭군 바지저고리는 언제짤까

[남구 민요 89]

모심는 소리

이상남(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부모 산소등에 젓먹으러 내려간다

[남구 민요 90]

모심는 소리

장화순(여, 1937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해는지고 저문진날에 옷갓을하고서 어디가요
첩의집에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을 보고가소

첩에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연못에금붕어는 사사사철이고 첩의야집은 삼년이오

[남구 민요 91]

어랑 타령[신고산 타령]

장화순(여, 1937년 생) 가창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뽕짐⁴⁰⁾만 싸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허어 난다 디어라 내 사랑아

[남구 민요 92]

풀국새 노래⁴¹⁾

김영자(여, 193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갯골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⁴²⁾

40) 간단하게 꾸린 뽕짐. 뽕짐은 등에 질 수 있도록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꾸린 짐을 말함.

41) 풀국새를 빼꾸기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풀국새는 산비둘기를 말한다.

4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내혼자 우째사노
풀국풀국
지집죽고 자석죽고
우째살꼬

[남구 민요 93]

이갈이 노래

제서분(여, 1939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갯골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이빨은 가져가고
새이빨은 내도가
(그럼서 편지지 뭐.)

[남구 민요 94]

이갈이 노래

엄남선(여, 1937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미연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이 주께 새이 주세요

[남구 민요 95]

모심는 소리

김수명(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용당동 용당현대아이파크경로당]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가소.
등넝에라 첩을두고 첩우집에 놀러갔소

이산저산 야산중에 슬피우는 송낙새야
야산중에 어데두고

모시적삼 안삽안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번 답삭쥐면 영길영천 귀양갈래

낭창낭창 비루끝에⁴³⁾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귀신⁴⁴⁾ 신기볼래⁴⁵⁾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장⁴⁶⁾ 연개나네
우리부모는 어디가고 연개넬줄 모르는고

[남구 민요 96]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김수명(여, 1938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용당동 용당현대아이파크경로당]

불미불미 불미야
이불미가 누불미고

43) 벼랑 끝에.
44) 보통 “처자 권속”이라 부른다.
45) 섬겨볼래.
46) 산골마다.

정상도⁴⁷⁾ 대불미
어름궁개는 수잘피⁴⁸⁾
옹구전에는 바래기⁴⁹⁾
불미불미 불미야
어따불미 잘한다
이불미가 누불미고
정상도 대불미

[남구 민요 97]

다리 세는 소리

임영식(여, 1936년 생) 가창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한거리 직거리 갓거리
인사만사 주머니끈
뜰뜰말아 장독간
집이딱딱 먹은죽
가을경사 허리띠

[남구 민요 98]

화투 타령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47) 경상도.

48) 어름 구멍에는 수달피.

49) 옹기전에는 바라기. ‘바래기’는 바라기의 방언으로 음식을 담는 조그마한 사기그릇을 말함.

정월술가지 속속한 마음에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마음에
사월흑싸리 흩어진다
오월난초 노던 (거들어라.)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 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흰양산 쉬고가는 저잡년아 [웃음]

[남구 민요 99]

못 갈 장가 노래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열하고 스물이되니 못갈장가를 가라카네
앞집에라 궁합을보고 뒷집에라 책력보고
책력에도 못갈장가 궁합에도 못갈장가
못갈장가를 가라카네
한고개 썩넘어서니 여우새끼가 (등, 모르겠네.)
두고개를 썩넘어서니 길 끝에있던 여우새끼
길우로 진동하네
또한고개를 썩넘어서니 신부곡소리만 진동하네
또한고개 썩넘어서니 신부야죽었다 부고오네
대분밖에 썩들어서니 꽃쟁이는 꽃만들고

각쟁이는 각을짜네⁵⁰⁾
사우스아 내사우야 이왕잎에⁵¹⁾ 왕걸음에
신부야방을 들어가라
날줄라고 지은밥은 뱃머리밥을 젓어놓고
날줄라고 만든음식 발연제나⁵²⁾ 잘지내소
가오가오 나는가오 왔더나길로⁵³⁾ 나는가오

[남구 민요 100]

모심는 소리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운제커서⁵⁴⁾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히후후후후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에야가락 짹어지고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뜸북뜸북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울언님은 어디가고 딸에 (조사자 : 동자를.)
(청중 : [노래로] 빨갚는고.)
우리야할멈은 어디가고 딸에동자를 시겼던가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며는 병날기고 쌀래끼반마이만⁵⁵⁾ 보고가소

50) 곱쟁이는 곱을 짜네.

51) 이왕지사.

52) 발인제나.

53) 왔던 길로.

54) 너 언제 커서.

보면보고 말몬말지⁵⁶⁾ 쌀래끼마이가 머선말이⁵⁷⁾
낭창낭창 베루끝에⁵⁸⁾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연자⁶⁰⁾되어 임의권속 생각할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형상이⁵⁹⁾ 떠나가노
이태백에 본처죽어 이별형상이 떠나간다
나도죽어 연자⁶⁰⁾되어 추성끝에⁶¹⁾ 집을지어

[남구 민요 101]

진주난봉가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울도담도 없느난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메늘아가
너그냥군을 불러거든 진주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를가서
흰빨래는 희게야씻고 검은빨래는 검기씻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하 기억이 나지 않아 중단함]

[남구 민요 102]

노랫가락[그네 노래]

-
- 55) 쌀래끼 반만큼만. 쌀래끼는 쌀알을 뜻하는 방언.
56) 말면 말지.
57) 쌀래끼만큼이 무슨 말인가.
58) 벼랑 끝에.
59) 웬 행상(行喪)이.
60) 연자(燕子). 즉, 제비.
61) 추녀 끝에.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가지가지에 군데를매어
너가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넘어민다
정님이 줄미지말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남구 민요 103]

노랫가락[달 노래]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달아 두렷한달아⁶²⁾ 임의사랑에 비춘달아
저달이 나심중알면 저래밝기는 만무하다

[남구 민요 104]

사발가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도 풍풍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개도짐도 안나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62) 뚜렷한 달아.

니가 내간장 스리슬슬이 다독힌다

[남구 민요 105]

다리 세는 소리

김부금(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이거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박구 두박구
영두토 칼투야
윤삼월이 윤 두 칼

[남구 민요 106]

사기 어르는 노래

손명금(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을한되 받아다가
찰독간에 여엿다가
머리깎은 새앙쥐가
오맨가맨 다까묵고
단지하나 남안거는
껍띠기는⁶³⁾ 아부지주고
분이는⁶⁴⁾ 엄마주고

63) 껍떼기는.

알키는⁶⁵⁾ 니캉내캉⁶⁶⁾ 갈라묵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남구 민요 107]

다리 세는 소리

손명금(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사남고 도맹고
짹발이 휘언도
육도육도 전라도
전라감사 도래야
아래이 다래이
청산에 목을비어
육 칠 팔

[남구 민요 108]

이야기 노래

손명금(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이바구 떼바구 강태⁶⁷⁾바구
강태한짐 짚어지고

64) 보늬는. ‘보늬’는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65) 알맹이는.

66) 너하고 나하고.

67) 강원도 명태.

용당고개 올라가다가
매만맞고 똥만싸고
울아버지 있는데 기벌하이⁶⁸⁾
아이고 고놈 잘못았다
울엄마 있는데 기벌하이
아이고 고놈 잘못았다
내친구인데 기벌하이
아이고 답답을 내친구야

[남구 민요 109]

사모쇼⁶⁹⁾

손명금(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쪽을숨가 쪽쫓구리 이탈리아 다홍치마
꽃나우 신을신고
만금산찬⁷⁰⁾ 바우밑에 엄마라고 찾아가이
엄마는 간곳없고 시오야 메구름이
엄마라고 날속인다

[남구 민요 110]

쌍가락지 노래

손명금(여, 193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68) 기벌하니.

69) 가창을 하지 않고 읊조리듯이 부른 것이다.

70) 만금산찬. 온갖 산찬.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뚫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에보이⁷¹⁾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가지네
청대복싱⁷²⁾ 오라버시 거짓말씀 말아주소
동남풍이 디리부니 풍지우는 소릴레라
짜깨칼로⁷³⁾ 품에품고 석자수건 목에걸고
자는듯이 죽고지라

[남구 민요 111]

사발가

송명식(여, 1928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기차전차 가는데는 연개짐이나⁷⁴⁾ 나것만은
이내심정 타는데는 연개짐도 아니나네

[남구 민요 112]

다리 세는 소리

정옥자(여, 194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이다리 저다리 각다리
진주남강 또만강

71) 곁에 보니. 가까이 보니.

72) 천도복숭.

73) 자깨칼로. 주머니칼로.

74) 연기나 김이나.

썩바리 해양강
자넌에 줌치 장독강
머구발에 석사리

[남구 민요 113]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정옥자(여, 194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알강달강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한되를 가져와서
살강밑에⁷⁵⁾ 두었더니
시양취가 다까묵고
한톨이가 남았더라
껍질랏건 애비주고
보늬랏건 애미주고
알을랏건 아들주고 [웃음]

[남구 민요 114]

아기 재우는 노래

정옥자(여, 1945년 생) 가창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75) 선반 밑에.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남구 민요 115]

모심는 소리

최정숙(여, 1933년 생) 가창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해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주인네 양반 (조사자 : 문어전복 손에 들고.)
문에전복⁷⁶⁾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옛날 우리 마이 했다 그래도.) (청중 : 옛날에 마이 했는데 인자 다 잊어
뻘다.) (조사자 : 무슨 첩이 그리 좋아.) (야?) (조사자 : 무슨 첩이 그리
좋아 낮에 가고 밤에 가노.) (또 뭇이고 또?) (청중 : 오래 돼서 다 잊아뻘
다.) (그래 또 마이 했는데.) (조사자 : 물끼 철철.) (아이다 그거 아이고.
또 저 새별같은 저 밭골에.)

새별같은 저밭골에 반달각시가 떠나온다
(밤이니까 떠나온다 카는 기라 그리. 또 거 뭐신고 모르겠다. 그래 하고.)
(조사자 : 니가 무슨 반달이가.) (니가 무슨 반달이가 카고.)

[남구 민요 116]

모심는 소리

김경순(여, 1924년 생) 가창
2013년 2월 15일 채록

76) 문어 전복.

[용호2동 백운노인회]

이물기저물기⁷⁷⁾ 헐어놓고 주인아양반 어데갔소
문어야전복을 고아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남구 민요 117]

모 찌는 소리

백복도(여, 192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한강수에다 모를부어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숨가⁷⁸⁾ 목화따기 난감하다

해돋았네 해돋았네 저달에 해돋았네
임아임아 정든님아 무슨정에 잠이오노
울엄매야 산소등에 낭기좋아⁷⁹⁾ 잠이오네

[남구 민요 118]

모심는 소리

백복도(여, 192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물길랑철철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가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77) 이 물꼬 저 물꼬.

78) 목화 심어.

79) 나무가 좋아.

유자캥탕주캥⁸⁰⁾ 근원이좋아이 한꼭지에 둘열었네
총각캥처녀캥 근원이좋와아 한비개비고⁸¹⁾ 잠들었네

낭창희창 베베루끝에⁸²⁾ 무정하다 시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여자군자 신기보몬⁸³⁾

비문었네 비문었네이 진주야덕산 비문었네
그것이라 비안이라 억만군자 눈물이네

밀양삼당 궁노슌에 연밤⁸⁴⁾따는 저큰아가
연밤줄밤 내따줍세 내품안에 잠들어라
잠들기야 어렵잖소⁸⁵⁾ 연밤따기 늦어가요

[남구 민요 119]

남녀연정요

백복도(여, 1920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강남땅 강선부는 글씨좋다 소문듣고
의령땅 하처지는⁸⁶⁾ 인물좋다 소문듣고
한분가도 문볼레라⁸⁷⁾ 두분가도 문볼레라
삼십분 거득가니⁸⁸⁾

80) 유자하고 탕주하고.

81) 한 베개 베고.

82) 벼랑 끝에.

83) 섬겨 보면.

84) 연밤.

85) 어렵지 않소.

86) 하처자는.

87) 한 번 가도 못 볼레라.

삼시킨 마리청에⁸⁹⁾ 앞문에는 꿩기리고⁹⁰⁾
 뒷문에는 용기리고
 매새끼라 노던방에 꿩우새끼⁹¹⁾ 노던방에
 삼십분 거뜰가니
 의령땅 하처지는 인물 좋다 소문 듣고
 밭에치로⁹²⁾ 보자하니 밭공사재 꼬장바지⁹³⁾
 처매치러⁹⁴⁾ 보자하니 남단비단 홀단처매⁹⁵⁾
 저고리로 보자하니 정줄비단 접저고리⁹⁶⁾
 하단비단 단속곶을⁹⁷⁾ 사타리다 꼭깁구고⁹⁸⁾
 석자시치 지은이불 돌이엿자 지엿더니
 혼차덥기 우인말고
 자식비기 지은비개⁹⁹⁾ 돌이비자 지엿더니
 혼차비기 우인말고
 새별겉은 저요강은 밭치밭치 밀치놓고
 애시같이¹⁰⁰⁾ 지은보신 밭치밭치 밀치놓고
 강선부를 언제볼고
 명년이라 큰물들거든 너더불러 내오꾸마¹⁰¹⁾

[남구 민요 120]

모심는 소리

-
- 88) 삼십 번 거뜰 가니.
 89) 삼 세 칸 마루청에.
 90) 꿩 그리고.
 91) 꿩 새끼.
 92) 밖의 치레.
 93) 고쟁이 바지.
 94) 치마 치레.
 95) 홀단치마. 한 겹의 옷단으로 지은 치마.
 96) 겹저고리. 숨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 지은 저고리.
 97) 단속곶을.
 98) 사타구니에 꼭 끼우고.
 99) 지은 베개.
 100) 여우같이.
 101) 너 데리러 내 오마.

황말복(여, 1929년 생) 가창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풍당풍당 수지비 사우판에 다올랐네
요놈의할마이 어데가고 딸네동지 시겼든가

모시적삼 안섶안에 언적같은¹⁰²⁾ 저젓바라
그젓한번 답석지면 영불영천 귀향간다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젓먹오러 나는간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 떠나가네
니가머슨 반달인고~이 초승달이 반달이지

밀양삼당 궁노숲에 슬피우는 저큰아가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이 연기낼줄 모르는고

물꼴랑허정칭 혈어놓고 주인네한량 어디갔노
등념에라 첩을두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유월달이 두달인가 첩을바라 불이사네
구시월이 닥쳤는가 첩의생각 절로난다

102) 연적(硯滴)같은.

3. 수영구 민요

[수영구 민요 1]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마일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¹⁾ 시집간다
가매꼭대 물흐리고²⁾
비단옷에 얼룩진다³⁾

[수영구 민요 2]

모심는 소리

서인수(남,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꼬
이달크고 저달커서 내훗달에 열매열지

[수영구 민요 3]

모심는 소리

유봉화(여, 1926년 생) 가창

1) 우리 새이. 즉, 언니.
2) 가마 꼭대기 물 흐른다.
3) 얼룩진다.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물길랑처정칭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덜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이 첩의방-에도 놀러갔다

절래야꽃은 장가를가고 석노야꽃은 노곽간다⁴⁾
만인간아 잊지말고 씨종자바래서 노곽간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도 다올랐네
만인간아 (아 그건 아이다.) (조사자 : 에미넌은 어데가고 뭐.) (에- 쫘
대충 아네.)
에미넌은 어더로가고 딸애애기로 빨깃던고

남창남창 베리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야죽어서 환석되어⁵⁾ 임의 (나도 죽어 환생되어 같다 아.)
같은님으로 만내보까

오늘아해가 요만되몬 점심참이 늦어오네
이등저등 건넛등에 [멈칫거리다] (그 뭐 칠기.)
칠기끝이가 늦어온다 (이러카나?)

해다지고 (쫘매 갈치주이 알겠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저게 꼴작⁶⁾,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꼴작 아, 꼴작 꼴작 연기나고, 우리
야 임은 어데 가고.)
우리야임은 어들가고 연기넬주로 모리던고

4) 석류꽃은 유곽(遊廓) 간다.

5) 환생되어.

6) 꼴작. 꼴짜기.

초롱아초롱아 영사초롱 임의방에도 불밝혀라 (조사자 : 안자 기억났다.)
임도높고 나도높고 저초록불으는⁷⁾ 누가끄노

[수영구 민요 4]

야기 재우는 노래

유봉화(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마라
뒷집개도 짓지마라

[수영구 민요 5]

다리 세는 소리

유봉화(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래줄치 장두칼
서울양반 두양반

[수영구 민요 6]

모심는 소리

7) 저 초롱불은.

박귀임(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1동 광일아랫땀경로당]

바다야거튼 이모구자리⁸⁾ 장구판같이 남았구나
장구판은 좋다만은 두물이없어⁹⁾ 못두루졌네¹⁰⁾
(일한다꼬 두물 이가 없단 말이다. 모도 일한다꼬. 둘 사람이 없단
말이야. [웃음])

모야모야 나란모야¹¹⁾ 니언제커서 한상할래¹²⁾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한상할래

물길랑처렁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으야집에 놀러갔지 이후후
(첩이 얼마나 좋건데, 물길로 혈어 놓고, 그 모 숨구고 하는데 첩의 집에 가뵈
다 말이다. [웃음])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주인네양반 어디가고 딸로동제 시겼는가 이후후
(딸로 동제 시키노이 저그 신랑 판에 다 올렸뵈다 말이다. 처갓집에
가가지고. 친정 가가지고 그래.) (조사자 : 시아부지는 안 주고, 아 저그
남편만 다 주고.)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반달 떠나오네
니가머슨 반달이라 새벽달이¹³⁾ 반달이지 이후후

8) 이 못자리.

9) 둘 이가 없어.

10) 못 두겠네.

11) 노랑 모야.

12) 화승할래 또는 환생할래.

13) 새벽달이.

낭창해창 비루끝에~이¹⁴⁾ 무정하다 정오랍아
 나도야죽어 남자가되어 처자곤속¹⁵⁾ 신길라네¹⁶⁾
 (즈그 올케캉 둘이, 우리 우리 촌에 거는 우리 고향에는 요 낭창 비루
 끝이 있그던. 바다가 이래 물이 이래, 강이 내리가는데, 똑 산비탈로
 요래 질이 요래 쪼부당하이 요래 있다. 짱 나가지 산 붙어서. 고 가다가
 고 비루 끝이거든. 고 좁은 데 가다가 올키캉 시누부캉 둘이 가다가
 둘이 마 물에 풍당 빠지뻤어. 미끄러지가. 풍당 빠지뿌나이께네,
 시누부가 빠지노이 올케가 건질라꼬 들어갔어. 들어가 둘이 다 빠지뻤는
 기라. 동동 떠니러가이께네, 인자 저거 여동생이, 그래 저거 오빠가,
 여동생이 인자 이래 벽을 타고 막 올라오는데 그거 건지고 건질라 카이
 저거 마누래는 떠내러갔부는 기라. 저거 여동생은 이래 손을 올라오는
 걸 데 밀어뿌고, 저거 마누래를 건졌어. 마누래를 건졌어. 그래나이
 낭창해창 비루 끝에 무정하다 정오랍아, 나도 죽어 남자가 되어 여자,
 처자곤석 섬기볼래. 그래 노래가 나온 거.)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땅에 젓묵으로 나는간다 이-후후

녹수야청산 흐르는물에 상추씻는 저큰아가
 누간장을 녹힐라코 눈매야까지 고리곱노

은을준들 너를사리 돈을준들 너를사리
 은도금도 내사싫고 모비단이불에 담요깔고
 하룻밤만 잠지아주소 이-후 [웃음]

연줄가네 연줄가네 해다진데 연줄가네
 그연줄따라 반만가면 부모형제 보리만은 이-후

14) 벼랑 끝에.

15) 처자 권속.

16) 섬길라네.

모시아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그것보고 넘노다가¹⁷⁾ 영길영천 귀향간다 이-호호

[수영구 민요 7]

진주난봉가

박귀임(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1동 광일아랫땀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았더니
시오마시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느리아가
진주야남강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를가니 돌도좋고 물도좋아
그빨래를 씻글시라
난데없는 발자국소리 알그락찰그락 나는구나
옆눈을 힐기보니¹⁸⁾ 하늘같은 가장님이
태산같은 갓을씨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치로 지나가네 그것을보고 다황해가¹⁹⁾
흰빨래를 껌기씻고 껌등빨래 희기씻어
집이라꼬 들어서니 시오마님 하는거동
아가아가 며늘아가 사랑문을 열어봐라
번개같이 달려가서 사랑문을 열고보니
하늘같은 가장님이 기생침을 옆에놓고
열두가지 술을부어 권주가를 하고있네
그것을보고 다황해가 큰방에다 달려가서
쩍게칼로 품에품고 명주수건 목에메고
자는듯이 죽었구나

17) 너무 놀다가.

18) 흘겨보니.

19) 당황해서.

시오마님 하는거동 사랑문을 열어치미
아이고야야 큰방에라 올라봐라
버신발로 달려가서 큰방문을 열고보니
자는듯이 죽었구나
기생첩은 삼년이요 당신과나와는 백년인데
이리될줄 내몰랐다 (하더란다. [웃음])

[수영구 민요 8]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귀임(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1동 광일아랫땀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오색가지를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9]

모심는 소리

권원희(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2동 호암노인정]

낭창낭창 거루끝에²⁰⁾ 원통하다 울오라바
난도죽어 후세상에 낭군님을 만나보세

20) 벼랑 끝에. 일반적으로 ‘베루(리)끝에’로 부른다.

[수영구 민요 10]

다리 세는 소리

권원희(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2동 호암노인정]

인거리 전거리 갓거리
동서맹금 도맹금
수구리 박구 독박구
연지탄개 열두양
조래짐치 장두칼

[수영구 민요 11]

잠자리 잡는 노래

권원희(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2동 호암노인정]

잠자라 잠자라
불은자리에 불거라
멀리가문 니모가지 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12]

모심는 소리

신경남(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2동 호암노인정]

오늘해가 다졌는강 산골마중²¹⁾ 연기나네
(그런 거 한 분씩 했어요.) (조사자 : 고 다음에 받는 소리는?) (야?)
(조사자 : 받는 소리?) (청중 : [노래로] 울어넘은²²⁾ 어데가고 연기낼줄.)
울어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는고

[수영구 민요 13]

모심는 소리

이창우(남, 1931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논빼미 서마지기 반달반달 떠나온다
지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낭창낭창 저벼럭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바
나도죽어 후생가서 낭군님부터 섬기볼래

[수영구 민요 14]

모심는 소리

강경자(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이산저산 낭기²³⁾를베어 경비산천에 절을지어

21) 산골마다.
22) 우리 넘은.
23) 나무.

그 절안에 피나는꽃은 반만피어도 화초로세

[수영구 민요 15]

창부타령

강경자(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잠은죽어서 하주가되고 목당에유지는 생앳줄이구나
에헤라 노여라 아니나 못놀것네
능지를 하여도 그래도 못놀것네

[수영구 민요 16]

권주가

강경자(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술을 묵자고 맹세를 하였더니
권주가 바람에 녹초가 됐네

[수영구 민요 17]

노랫가락[그네 노래]²⁴⁾

강경자(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24) 가사는 노랫가락으로 했으나, 후렴은 창부타령으로 했다.

수천당 세모시낭개 당사오사로 줄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어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수영구 민요 18]

사발가

강외순(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수영구 민요 19]

너냥 나냥

김갑례(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울의집은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선달열흘만 불어라

[수영구 민요 20]

청춘가

김갑례(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길갓집 담장은 높아야 좋구요
술집에 아주머니는 곱아야 좋다

[수영구 민요 21]

모심는 소리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물끄청청 흘러나놓고 이곳한량 어데갔노
등넘에 첩을두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수영구 민요 22]

화투 타령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날아든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뜨고
구월국화야 꽃자랑마라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오동양반 값많다해도
비삼십만 몬하더라

[수영구 민요 23]

노랫가락[그네 노래]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수천당 세모시낭개 오색가지 줄를메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마소 모진강풍에 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24]

백발가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이팔청춘 소녀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어제같이 소녀이지 백발되기 잠시더라

[수영구 민요 25]

사발가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뽕뽕나누라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난다

[수영구 민요 26]

다리 세는 소리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천사맹도 도맹도
짜발이 해양근
도래쭈치 장도칼

[수영구 민요 27]

모심는 소리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산천초목 불을질러 진주남강에 물실러갔네
진주남강에 물이없어 산천초목이 다탸구나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록 기다리고
옥안에서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수영구 민요 28]

도라지 타령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광아리만큼 되노라

[수영구 민요 29]

남녀연정요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남산밑에 남도령아 서산밑에 서도령아
오만잡놈 다벤파나 오동나무 베지마소
올²⁵⁾키아가 내년을키아 낚싯대를 후아다가
압록강에 물담거든 옥단처녀를 낚을라요

[수영구 민요 30]

못 갈 장가 노래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앞집에 궁합보고 뒷집에 책력보니
책력에도 못갈장가 궁합에도 못갈장개
그래도 나는가요
한모랭이 돌아간께네 까막까치 진동하니

25) 올해.

두모랭이 돌아간께네 말죽거리 진동하고
세모랭이 돌아간께네 초가삼간 집에
옥단처녀가 죽어서 막울고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끝을 모르겠다.]

[수영구 민요 31]

아리랑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정든님 고개는 당고개라

[수영구 민요 32]

한량 타령

신분도(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옛날한량은 활잘싸고 신식한량은 돈잘씨고
활을잘싸야 한량되나 돈을잘싸야 한량이지
돈나오네 돈나오네 찌고리장단에 돈나오네
이장단에 돈안씨고 무슨장단에 돈쓸것고
춤나오네 춤나오네 찌꼬리장단에 춤나오네
춤을잘춰야 한량이야 돈을잘씨야 한량이지

[수영구 민요 33]

사발가

예옥조(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수영구 민요 34]

양산도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에헤이여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울의집에 울의님은 나를안고 돈다
에라 둥개디여라 아니나 못노리라
능지를하여도 나는 못노리라

[수영구 민요 35]

사랑가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해질적에는 빙모님사랑 뒷머리능청 동네사랑

오늘날에는 내사랑이요

[수영구 민요 36]

최심곡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이제가면 언제오나
부모님전 살을빌고 아버님전 뼈를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절을몰라
부모은공 못하라바
무정세월 여루하여 없던망경 절로나네
구석구석 굽는모양 절통하고 통분하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광대왕
제삼전에 송진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육전에 병선대왕 제칠전에 평등대왕
제팔전에 도시대왕 제구전에 성주대왕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뿔이, 모르겠다. 그것도 오래되니 잊어버리 가지고.]
배고프면 밥을주어 하사국지 하였는가
헐벗은데 옷을주어 불암공덕 하였는가
목마른데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였느냐
높은산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는가
저승길이 멀다해도 문턱밧이 저승인데
친구끼리 좋다해도 어느누가 동행할까

[수영구 민요 37]

모심는 소리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임이죽어서 체비가되어 처마끝에 집지었네
들면보고 날면봐도 임인줄로 내몰랐네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가야다졌는데 어테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러 나는간다

[수영구 민요 38]

노랫가락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부맥사천 고분방에 쌍을지아 앓았고나
이방안에 군자씨는 잠만자로 오셨느냐
백상이 저폴항아 니나와서 저불꺼라
어따사람 그말마소 불꺼주리 내여있소
춘풍은 실실노래로다 해뜨자 배떠나자
만구호걸을 언제볼꼬
어떤사람 그말마소 춘풍은 실실노래로다

[수영구 민요 39]

청춘가

이순조(여, 194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어떤 노랫가락이 염치가 없어서
시아바시 밥상들고 청춘가로 부르니

산너머 갈적에는 개가공공 짓고요
임품에 들자마자 닭이꼭꼭 울더라

[수영구 민요 40]

권주가

임백순(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금련노인정]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등배주라

[수영구 민요 41]

모심는 소리

김판윤(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모야모야 니언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여지

[수영구 민요 42]

쌍가락지 노래²⁶⁾

윤옥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락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다이로다 잘해보이 처자로다

[수영구 민요 43]

시누올케 노래²⁷⁾

윤옥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낭창낭창 베루끝에 시누올케 꽃꺾다가
낙동강에 떨어졌네
(그런 거는 다 옛날 노래요.) (조사자 : 맞아 맞아요.)
삼단같은 이내머리 물살에가 해롱하네
(어 저게.)
백설같은 이내얼굴 고기밥이 다되었네
우리오빠 거동보소 동상먼저
(둘이 시누올케 꽃 꺾다가 낙동강에 떨어졌버렸는데.)
우리오빠 거동보소 동생먼저 안건지고
새이먼저 건지더란다

[수영구 민요 44]

시집살이 노래

26) 가창을 하지 않고 읊조리듯이 했다.

27) 가창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했다.

조문자(여, 194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땠디까
야야야야 말도마라 고추보다도 더맵더라

[수영구 민요 45]

백발가

조문자(여, 194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 백발보고 웃지를마라
나도그저께 너와같았건만 내가이렇게 늙을줄
넌들 알았겠느냐

[수영구 민요 46]

모심는 소리

김무선(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요논에다가 모를심어 잔잎나서 영화로다
우리아들 곱게길러 갓을씩와서 영화로세

서마지기 요논빼미 반달같이 에워내세
니가무신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바람부채 청도부는 해다진데 어데가요
첩의방에 놀리가네
첩의집은 꽃밭이고 나의집은 연못이라

농창농창 벼르끝에 시누올키 연밥따네
시누올케 연밥따다 옥난강에 빠졌는데
무정할사 저오라배 울킬랑은 건져주고
시누랑은 밀어버린다
나도죽어 후시상에 낭군부터 섬길라네

[수영구 민요 47]

쌍가락지 노래

김무선(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수싯대기 밀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이로세 옆에보니 처녀로다
저처녀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이나네
홍돌복숭 오라바시 그른말씀 마옵소서
동남풍이 디리부니 풍지떠는 소릴래라

[수영구 민요 48]

나비 노래

김무선(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밭에라도 자고가자
내품안이라도 자고가자

[수영구 민요 49]

모심는 소리

김부자(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룽오도록 기다린다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홍단화초 밝은방에 일월같은 내사우야
내딸주고 너를사니

[수영구 민요 50]

모심는 소리

박재임(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에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먹으러 나는간다

우리엄마 날설적에 죽신나무 원하더니
그대커서 왕대되고 그대끝에 하계하네

[수영구 민요 51]

아기 재우는 노래

박재임(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나
금을주면 너를사나

[수영구 민요 52]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박재임(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불미불미 불미불미
밤한되를 사왔더니
독밑에 묻었더니
눈멀은 새앙쥐가
들미날미 다까먹고
한톨이가 남았는데
껍지는 애비주고
본이는 애미주고
알키는 니랑내랑 갈라묵자

[수영구 민요 53]

모심는 소리

전남옥(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야갈거를 니왜왔노
이왕지사 왔거들랑 밭채잠이나 자고가라
아이고장모 그말마오 품안에잠도 솔자는데
밭채잠이가 가당하오

해는지고 어두신날에 옥갓을씨고서 어테로가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첩의집은 꽃밭이오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오 연못의붕어는 사시절이라

따복따복 따복네야 니오더로 울고가노
우리엄마 몸진골로 젖줄받아 울고간다
돌아서니 개똥참외 열은것을 하나따사
맛을보니 우리엄마 젖맛일세

[수영구 민요 54]

모심기 노래

채정순(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에헤야데야 에헤야데야
이배미심고 저배미심고 장구배미로 가자

[수영구 민요 55]

물레 노래

채정순(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경로당]

오로롱 오로롱 어로롱 물레야
물레야 물레야 잘도나 돌아간다
너세월이 잘도 돌아간다

[수영구 민요 56]

사발가

강무숙(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풍풍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수영구 민요 57]

모심는 소리

문영숙(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화로뒀는 저처녀야
누구의간장을 녹힐라고 고령계곡게도 생겼느냐

[수영구 민요 58]

모심는 소리

최석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저기저기 저구름속에 비들었나 눈들었나
비도눈도 아니야들고 내가살을 내가들었네
얼씨구야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수영구 민요 59]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석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수천당 세모시 가지에 그네를매여
님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님이밀고
님아님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60]

시집살이 노래

최석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형아형아 사촌형아 시집살이 어떻더냐
아이고야야 말도나 말어라

시집살이 맵다한들 고추당추처럼하여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도 어려웁고
시아바지 시아바지앞에 걸음걸기도 어려워라
이내팔자 왜이래서 시집살이 못살겠네

[수영구 민요 61]

권주가

최석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시요 잡으나시요 이술한잔을 잡으시요
이술은 술이아니고 먹고놀자는 동백주요

[수영구 민요 62]

좌투 타령

최석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정월소화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맺어나볼까
삼월사쿠라 산란헌마음 사월흑싸리에 다떨어진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아보자
칠월칠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맞이가자
구월국화 곱인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동지선달에 오시는손님 선달눈비에 다간헐네

[수영구 민요 63]

다리 세는 소리

문옥선(여, 1928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도맹도 도맹도
조래밑에 상주칼
집네발가 훌쩍쿵

[수영구 민요 64]

모심는 소리

박은수(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오늘해는 다졌는데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의부모는 어데가고 연기피울줄 모르나

[수영구 민요 65]

노랫가락 차차차

예기양(여, 191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중앙노인정]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 달도차면 기우나니
열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좃구나 차차차
만나방창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수영구 민요 66]

사발가

예기양(여, 191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중앙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건만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수영구 민요 67]

부녀가

예기양(여, 191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중앙노인정]

어화변천 노소보니 이내속이나 들어보소
천지만물 번성한데 귀한것 사람이라
광주귀천 남녀본가 니아니 그뿐인가
애잔한 아녀본분 이팔년 십구성장
타문우기 삼중법은 성현의 훈기시니
니라서 먼하리오 부모님의 태산낙마
오복금전 창성하게 좌우간 일반님들
구로생아 이어시건 불초무상 일인자라
여자직분 경기말쌈 여공대사 근검절약

[수영구 민요 68]

사친가

예기양(여, 191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중앙노인정]

가소롭다 가소롭다 여자유행 가소롭다
못할래라 못할래라 부모생각 못할래라
우리엄마 날설적에 닭고기를 먹었던가
닭다리가 보고잡고
우리엄마 날설적에 소고기를 먹었던가
속속들이 보고지라
우리엄마 날설적에 물괴기를 먹었던가
물물이가 보고지라

[수영구 민요 69]

창부타령

예기양(여, 191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1동 망미중앙노인정]

대궐성중 들어가니 날달로 변할무색
조원안직 무궁이여 열문열문 구경하니
극무소도 잠잠하네 우리조선 삼천강토
하얀성 두고봐야 오백년 왜양문놀
일조에 허사되고 이적천지 되다말고
부색이 사색염에 일장춘몽 가이없네

[수영구 민요 70]

화투 타령

김삼례(여, 194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들이
이월매조에 맺었구나
삼월사쿠라 살자는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아들고
유월목단에 목이매여
칠월홍사리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수영구 민요 71]

모심는 소리

김순년(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같이 메와나네
그기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반달이지
초승달만 반달이가 그믐달도 반달이지

다풀다풀 다박네야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로 간다쿠턴가

허둥지둥 가고보니 물이있어 정신없이
묵고보니 울어마니 옛날묵던 젓맛이네

[수영구 민요 72]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순년(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게 오색당사실 줄을매어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이타면은 내가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73]

모심는 소리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나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수영구 민요 74]

창부타령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야짐도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짐도 아니난다
얼씨구 얼씨구나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수영구 민요 75]

백발가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깐이다

[수영구 민요 76]

모심는 소리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갈길을 왜왔느냐
이왕있에 왔거들랑 밭치잠이나 자고가라

[수영구 민요 77]

각설이타령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저얼씨구 들어간다
칠팔월도 아닌데 양대꽃으노 왜 피았노
얼씨구 들어간다

북만주를 갔던가 금둥트립아 너왜받노
상주꽃감을 먹었는가 감씨조차 쪽나왔네
얼씨구 들어간다
유행감기가 들렀나 콧물은 줄줄흘리노
야구방망이로 맞았는가 시퍼런명은 왜들었노
부산역안을 짓는가 나까오리 십년이 들어갔다 나왔다
얼씨구 들어간다

[수영구 민요 78]

사친가

염정순(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하늘님의 조화보소 비오다가 별이나고
우리어머니 조화보소 베짜다가 나를놓고
얼씨구 얼씨구나 우리엄마 고맙습니다

[수영구 민요 79]

화투 타령

김옥순(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본동부녀경로당]

[여럿이 함께 노래]
정월술가지 속속한 마음
이월매조 맺아놓고 [웃음] (청중 : 한 사람이 해야지.)
[제보자 혼자 노래]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 꽃에앉아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일동 : 좋~다.)
정기오동 오신손님
선달비바람에 딱닫쳤네

[수영구 민요 80]

노랫가락

전순조(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본동부녀 경로당]

수천당 고목아나무²⁸⁾ 날과같이도 속이씩어
속이씩어 남이나아나 곁이씩어야 남이알지

[수영구 민요 81]

모심는 소리

최현옥(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본동부녀 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 열매열래
이달가고 훗달가면 칠팔월에 열매연다

28) 고목(古木) 나무.

[수영구 민요 82]

모심는 소리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이후후후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또 그라고.) (청중 : [노래로] 등념에라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조사자 : 할매 고거만. 받는소리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받는 소리 한 번만 더. 등 념에라.)
등념에라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무슨년에 첩이걸래 밤에가고 낮에가노

땀복땀복 수제비는 사우상에 다올랐네
(뭐라 쿠노 또. 노랑.)
노랑감태
(두건이 뭘 할마이 죽어노이카네 노랑감태가 두건 아이가.)
노랑감태 둘러싸고 몰국식이²⁹⁾ 웬말인고

모시적삼 안섶방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송 딸라하니 호령소리 백력걸네³⁰⁾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마다 연기나네
우리할맘 어데가고 연기날줄 모르는고

29) 멸국식이. 멸국은 국물. 즉, 건더기가 없이 국물만 있는 음식이.

30) 백력(霹靂)갈네.

다풀다풀 다박머니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선산등에 쫓먹으로 내가가네

서마지기 논빼미는 반달겉이 떠나가네
지가무슨 반달이냥 초생달이 반달이지

[수영구 민요 83]

쌍가락지 노래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쌈금쌈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니
먼데보니 달이로세 절에보니 처자로세
그처자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이로세
호랑같은 울아버지 그런말쌈 말으시오
찌꼬리라 기른밤에³¹⁾ 뭉지떠는³²⁾ 소리로다

[수영구 민요 84]

시집살이 노래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쪼그만은 수박반티
밥담기도 애럽더라

31) 찌꼬리가 그리운 밤에.

32) 뭉쳐서 (목을) 떠는.

중우벗은³³⁾ 시아재비³⁴⁾ 말하기도 애롭더라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제놓기 애롭더라

[수영구 민요 85]

다리 세는 소리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장도맹근 또망도
짹바리 도장군
도래쭈치 장도칼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선달에 대 설

[수영구 민요 86]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이불매가 뉘불맨고
깡상도 대불매
불어라 불어라 불불
은도천냥 돈도천냥

33) 중의(中衣) 벗은.

34) 시아주버니.

[수영구 민요 87]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알콩달콩 서울갔다
(뭘로 쿠노? 뭇이가.)
뽕한되를 주었더니
장독간에 묻었더니
머리카만 새앙쥐가
들락날랑 다까묵고
한톨이가 남았더라
겹질은 애비주고
보늬는 애미주고
살은 니랑내랑 갈라먹자 남남남

[수영구 민요 88]

피꼬리 노래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쫓니쫓니 쫓닌새야
얹인새야 피꼬리야
니오데서 자고왔노
등넘에라 재넘에라
거울비단 이불밑에
댁기울어³⁵⁾ 내가왔네

[수영구 민요 89]

아기 재우는 노래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우리애기 자는대는
개도개도 안오니라
앞집개고 아니오고
뒷집개도 아니오고
우리애기 잘도잔다

[수영구 민요 90]

풀국새 노래

최손덕(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풀꼭풀꼭
기집죽고 자식죽고³⁶⁾
서당빨래 니가할꼬³⁷⁾

[수영구 민요 91]

모심는 소리

35) 택이 울어.

36) 계집 죽고 자식 죽고.

37) 누가 할꼬.

강도윤(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뱅뱅 연두지안에 잠들은처녀야 문열어라
바람불고 비온다고 안오실줄알고서 문닫았소
바람불고 비온다꼬 오던님이 아니오나

[수영구 민요 92]

지초 캐는 처녀 노래

강도윤(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구월산 남산밑에 주초를캐는 저처녀야
너거집이 어데걸래 해다진데 주초캐노
울의집을 찾을라거든
비가오면 비줄기요 눈이오면 백두산이라
삼사십일 열두등넘고
앞뜰에는 맹화심어 뒤뜰에는 목화심어
엄지동 검지동 삼오지동안에 삼간초랑³⁸⁾이 내집이오
오실손님은 그리를오시고 안오실손님은 묻지마소

[수영구 민요 93]

노랫가락[그네 노래]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38) 삼간 초가집.

수천당 세모시낭개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저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수영구 민요 94]

모심는 소리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대천지 한바다에 뿌리없는 낭개나서
가지는 열두가지요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수영구 민요 95]

쌍가락지 노래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랜가 곁에보니 처잘랜가
그쳐녀를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일래라
오빠오빠 사춘오빠 그짓말씀 하지마소
조그만한 지피방에 돌곶놓고 물레놓고
아홉가지 약을봐서 석자수건 명지수건
목을매어 죽고싶네

[수영구 민요 96]

모심는 소리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농창농창 벼리 끝에 시누올케 꽃꺾다가
낙동강에 뚝떨어졌네 무정할사 저오래비
절에있는 동생두고 먼데있는 올케건지네
나도죽어 후세가면 서방님부터 섬기줄래
삼단같은 요내머리 버들가지 다걸리고
분칠같은 요내몸은 고기밥이 되었구나

[수영구 민요 97]

시집살이 노래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형님형님 사촌형님 그런말씀 말으시오
중우벗은 시동생에 말하기도 정어럽고
조그만한 도리판에 수저놓기 정어럽네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퍼기도 정어럽고

[수영구 민요 98]

모심는 소리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테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앞에 젓먹으러 내가간다

날은가자 니꿈을치고 임은찾고서 낭루하네
저임아 날잡지말고 지는저해를 잡아매요

창밖에 창치는님아 니창친다고 나일어날까
너보다 더고운님이 나의팔비고 떨어졌네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안에간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임에빙에 누운빙에 약방약산다고 일어날까
옥안에 간힌 춘향이가 매맞는다고 허락할까

모시적삼 안석삼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날같이 보고가라

[수영구 민요 99]

백발가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이팔청춘은 소년몸 되었나
백발을 보고서 반말을 말어라
어제날로 소년이되 오늘날로 백발이다

[수영구 민요 100]

권주가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백주라

[수영구 민요 101]

노랫가락 찬자풀이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하늘천따지 땅에다 집우집자로 집을지어
날일자 영창우에다 달월자로 달아놓고
밤중만 임오시게로 별진잘숙

[수영구 민요 102]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가

부루락딱딱 불매야

[수영구 민요 103]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달강 달강 달강
서울가서 밤한되주어다가
가마솥에 삶아서
깍뎀길랑 애미주고
비늘랑은 애미주고
알맬랑 너랑나랑
갈라묵자

[수영구 민요 104]

베틀 노래

유동순(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그네라 벼툼양은 채와를친듯이 높이오고
사천대는 이형지요 덜커덕덜커덕 도투마리

[수영구 민요 105]

밭 매는 소리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논두렁꾸네 밭두렁꾸네 시집을가고 보니
여름에는 두텁바지요 겨울에는 삼베적삼
아고야 나는 못살겠네
물을동동 길러다가 머리를동동 감어빚고
뒷동산에야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리오면서 늦고사리 우닥딱딱에 꺾어가줘
금수강산에 흐르는물에 설러덩설러덩 헤어가줘
열두야상을 차리놓고 사랑에 시아버님
일어나서 진지잡소
아랫웃방에 동세들과 일어나서 밥먹게나
간다간다 나는간다 소백산절로다 나는간다
내가가면 아주를가나 아주간다고 못잇는다

[수영구 민요 106]

모심는 소리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높은산에 눈날리고 얇은산에는 재날리고
옥수야장마 비퍼붓고 찬바다에 물이고여

[수영구 민요 107]

청춘가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일본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수영구 민요 108]

백두산이 높다해도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백두산이야 높다해도 잔솔밭밑으로만 돌고보이오
한강수가 깊다나해도 우에우로만 흐릅니다

[수영구 민요 109]

사발가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나 퍼버석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김도나 아니나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여라난다 지어라하 허송세월을 말어라

[수영구 민요 110]

청춘가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알뜰한 요청춘이 좋다 다늬어지노라

[수영구 민요 111]

다리 세는 소리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천도만두 도만두
짜발이 해양근
조리쭈치 장도칼
중래천지 발개동

[수영구 민요 112]

모심는 소리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뒷동산에 할미꽃은 무슨³⁹⁾꽃이 몬이되어⁴⁰⁾
허리굽고 등굽으네 할미꽃이나 되었느냐

39) 무슨.

40) 못되어.

[수영구 민요 113]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상달궁시 상달궁
밤한되를 묻었더니
머리껌은 생쥐가
올라가든 먹고
내리가든 먹고
들락날락 다까먹고
벌거지탱이 남은거를
가마솥에 삶을까
노고솥에다 삶을까
밥솥에다 삶아가지고
겉껍데기는 할아버이드리고
속껍데기는 할머이드리고
속의알맹이는
너하고나하고 둘이먹자

[수영구 민요 114]

아기 어르는 노래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푸라푸라 풀무여
이풀무가 어디풀무

경상도 안동풀무
풀무락 풀무락
어서 불자
샘물 놓는다
어서 불고
점심먹고

[수영구 민요 115]

베틀 노래

이정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애기다리는 두다리요
잉엣대는 삼형제고 놀림대는 독신이오

[수영구 민요 116]

노랫가락

최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 지나
니를두고 가는내가 가고싶어 가나

[수영구 민요 117]

노랫가락 한자풀이

최현순(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앞동산에 봄춘자요 뒷동산에 푸를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굽이굽이 내천자라
정상도 절로절로 수절로 산절로하니
신수강에 나도절로

[수영구 민요 118]

사발가

패순녀(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삼천만의동포가 다아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한품에든님도나 몰라주네

4. 해운대구 민요

[해운대구 민요 1]

모심는 소리

강명이(여, 191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꽃밭에 앉은나비는 바람만불어도 떨어지고
연못에 노는고기는 주야장창 잘만논다.

[해운대구 민요 2]

시누올케 노래

강명이(여, 191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낭창낭창 벼루끝에 시누올케 둘이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남강물에 떨어졌네
무정하다 울오라방 곁에있는 동생두고
먼데있는 처를잡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식구 생겨보세

[해운대구 민요 3]

화투 타령

송두리(여, 1921세)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 1동 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내마음
이월난초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내마음
사월흑싸리 다떨어졌다
오월난초 나르던나비
유월목단에 날아들고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흑싸리 다떨어졌다.

[해운대구 민요 4]

모심는 소리

송두리(여, 1921세)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 손에들고 첩우방에 놀러갔다

[해운대구 민요 5]

노랫가락[그네 노래]

송정숙(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추천당 세모진나무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고

내가밀면 니가뛰고 니가밀면 내가뛰고
님아님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생이별한다.

[해운대구 민요 6]

노랫가락[나비 노래]

송정숙(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나비야 청산에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에앉아 자고가지

[해운대구 민요 7]

사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송정숙(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불매불매 불어라
딱딱 불매야
어디불이 제일썸냐
경상도하동불이 제일썸지

[해운대구 민요 8]

화투 타령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히안에
이월매조 이상하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몸은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아든나비
육월목단 꽃에앉아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피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동기오동 눈비가와서
뜰장마에 갇혔구나

[해운대구 민요 9]

시집살이 노래[양동가마 노래]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시집가던 삼일만에
(옛날에 시어머니가 참깨 서 말, 들깨 서 말로 서 말씩이면 엿{여섯} 말
이다 아이가. 그걸 볶으라고 내주더라고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걸 다 볶
고 나니까, 가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어져버리고 주걱도 불이 나버렸
어. 지도 그래 되면 사람도 얼마나 벌개가지고 얹구졌겠노. 그런 이야긴
가 노랜가 있는데 모르겠다.)
시어머니 거동보소
며늘아기 양가매¹⁾도 부리티리고
양주개²⁾도 부리티리땀고

1) 양동으로 만든 가마솥.

(마 호룽을 차고 나오더래요. 고생했다고는 안 하고.)
양가매도 사오너라 양주개도 사오너라
(그리 호통 치고. 또 그 담에도 많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옛날같이로매로 시집오기 전에처럼
취똥걸은 요내몸을 깻단걸이로 만들어주면
양가매도 사오고 양주개도 사오고
(다 사오겠다고 그래 답을 했대요, 며느리가. 똑똑하지요? 그래도.)

[해운대구 민요 10]

모심는 소리[의암요]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해운대구 반송1동 반송 1동 경로당]

진주기생 의암이는 우리조선 살릴라고
왜놈장수 목을안고 진주남강에 죽어졌네

[해운대구 민요 11]

노랫가락[남해 노래]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남해처녀가 인물좋아서 창선총각을 눈을줘서
남시대를 낚아낼까 돌물레로 돌리낼까
오늘치면 님이알고 부리면떨어서 못듣고

2) 양동으로 만든 주걱.

[해운대구 민요 12]

사발가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대는 연기만물경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대는 연기도안나고 잘도타네

[해운대구 민요 13]

사랑가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임은가고 봄은오니 꽃만피어도 임의생각
앓아생각 누워서생각 생각만 생길뿐이요

[해운대구 민요 14]

베틀 노래

이성녀(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오늘날은 하심심하여서 베틀다리를 놓아볼까
베틀다리 사형제는 동서남북을 갈라놓고
잉앳대는 삼형제도 놀깃대³⁾는 홀부애비

3) 누름대.

[해운대구 민요 15]

창부타령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임만가고 봄은오니 꽃만피어도 임의생각
구십월에 서단풍이 낙엽만떨어져도 님의생각
앉아생각 누워서생각 생각만하여도 임의생각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나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나라

[해운대구 민요 16]

베 짜기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낮에짜는건 일광단이요 밤에짜는건 월광단이요.
일광단월광단 다짜서는 서방님의수발을 해줘보자

[해운대구 민요 17]

모 찌는 소리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모를송가 모를심어 한강수에다 모를심어
그모찌기를 난감하네

[해운대구 민요 18]

모심는 소리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일월가고 훗달가고 칠팔월에 열매를열지

이물끼저물끼 폭파놓고 첩우야집을 놀러간다
주인네집은 어디가고 첩우야집을 놀러가노
첩우야집은 꽃밭이되고 우리집은 연못이라
울뽕돌뽕 내따줍세 백년하루 내강살자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골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해다지고 다저문날에 산주마중 연기나도
우리엄마는 어디가고 연기별줄을 모르던가

모시적삼 안섶밑에 연적같은 저젓보소
저젓한번 불라지면 연길동천을 귀향가요
먼데보면 귀감이되고 덩석쥐면 귀향간다

낭창낭창 추빌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환생해서 낭군한번 섬겨볼래
곁에있는 동생두고 먼데있는 처를건져
무정하다 저오랍아

밀양삼랑 궁노숲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너의집은 어데두고 해다진데 연밥따노
연밥줄밥 내따줍세 백년결혼 내캉하자.

풍당풍당 찹쌀수제비 사우판에만 다올라간다
딸며느리 동제를시켰더만 딸을동제를 시켰구나.

[해운대구 민요 19]

보리타작 소리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보리타작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제수씨라고 시숙하고 하는데 시숙이 혀
가 짧은 기라.)
에이야 때리라
에이야 처라
어이야 처라
어이야 때리라
제쥬쥬요 때리주쥬
형쥬쥬요 때리주쥬
허이 처라
저보지대가리 촉나왔다
저보지대가리 때려주쥬

[해운대구 민요 20]

보지 타령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단지단지 보단지는 늙도죽도 안한단지
우리나라 진시황도 단지만보면 좋다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단지만보면 좋다하네
얼씨고 절씨고 좋을시네

[해운대구 민요 21]

시집살이 노래[박복환 팔자]⁴⁾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한살먹어 엄마이죽고 두살먹어 아밤죽고
삼오십오 묵은나이 시집이라고 갔더만은
하늘같은 서방님이 태산같은 병을실어
약을쓰니 약발받나 은을쓰니 은덕받나
산천초목에 들어가니 굿떡이나 받을소나
인삼보약을 쓰니 약덕이나 받아주나
동삼을사다 삶아주니 동삼덕이나 받나

[해운대구 민요 22]

주머니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달은따서 걸붙이고 하루해는따서 걸붙여서

4) 발매기 소리로 불리는 서사민요이기도 하다.

무지개라 선두리고 대구팔산에 끈을달아
용지줄대 걸어놓고 내려가는 신관사들아
올라가는 구관사야 거즘치를 사고가나

[해운대구 민요 23]

쌍가락지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곁에보니 처이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일레라
어제왔던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으소서
베틀넣고 물레넣고 열두가지 약을넣고
베틀한쌍 모았더니

[해운대구 민요 24]

창부타령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무정한 세월아 오고가지 말아라
아까운 요내청춘 또늙지 않는다
싫거들랑 두어라 싫거들랑 고만두어라
이잡는 만이라도 또잡으니 했던구나

[해운대구 민요 25]

밀양아리랑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날쭙보소 날쭙보소 날쭙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쭙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넘겨 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는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병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넘겨 주소

양산읍네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넘겨 주소

날넘겨 줄때는 열두고개되고
임고개 될때는 단한고개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넘겨 주소

오동나무 열때는 울긋불긋하고
처녀야 젓가슴은 몽실몽실하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 넘겨주소

[해운대구 민요 26]

화투 타령

이순희(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정월에속가지 속속한내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내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높이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해운대구 민요 27]

모심는 소리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뒷동산에 공알새를 줍씨한되를 뿌렸더만
공알새가 다까먹고 빈뚫대만 끄잡고

[해운대구 민요 28]

구멍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뒷동산 딱따구리는 없는구멍도 잘뚫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있는구멍도 못뚫는다

[해운대구 민요 29]

각설이타령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얼씨구씨구씨구 들어간다
어절씨구나 들어간다 저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갔던 각설이는 죽지도않고 또왔네
일자나한잔 들어내 일월에 송송 해송송
이자나한잔 들어내 이승만씨가 대통장 아죽소가 부대통장
삼자나한잔 들어내 삼십만명 우리농부들 군대군대를 들어갔다
사자나한잔 들어내 사심의 맘에 *○○○*들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오자나한잔 들어내 오십리밖에 툇떨어진 대포소리 막날아든다
육자나한잔 들어내 육이오사변에 짐떨어지고 거러지신세가 웬말이고
칠자나한잔 들어내 칠십에나는 우리*○○*이 성공하기를 기다린다
팔자나한잔 들어내 팔십평생 기다려도 오지도않는 자식이다
구자나한잔 들어내 굵이굵이 흐른눈물 낙동강물이 핏물됐다.
십자나한잔 들어내 십년에도 못간장가 첫날에 소집됐다

[해운대구 민요 30]

애원새기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병풍에 기른닭이 헛치면 오실랑가
술안에 앉힌밥이 싹트거들 오실란가
살강밑에 흘린밥이 싹나거든 오실랑가
언제나 오실란가

[해운대구 민요 31]

쌍가락지 노래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곁에보니 처잘레라
그쳐녀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이로다
어제왔던 오라버니 거짓말씀을 말으시오
베틀놓고 물레놓고 열두가지 약을 놓고
죽고지라 죽고지라 자는듯이 죽고 지라
어제오신 오라버니가 거짓말을 많이하니
열두가지 약을놓고 자는듯이 죽고지라

[해운대구 민요 32]

밀양아리랑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뻥긋
니가죽고 내가살면 열녀가 되나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 죽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새끼야 백발은 세꼬시나 있고만
우리청춘 늙어지니 설곳이 없다
호박은 늙어지면 단맛이나 있고
우리청춘 늙어지니 슬픈소리만 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저건너 저산이 대명산이구나
오동지 선달에 함박꽃이 피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해운대구 민요 33]

창부타령 [백발가]

이순희(여, 191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청춘소년들아 백발을보고 웃지를 마라
우리도 어제청춘이디 오늘잠시도 백발이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나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해운대구 민요 34]

창부타령

이관수(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1동 반송1동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
인생은 춘몽한인데 아니놀고는 무엇하나

니가 날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신벗고 가노라

[해운대구 민요 35]

삼팔선아 문 열어라

김두이(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삼팔선아 문열어라 김일성이 손들어라
삼대독자가 내나간다 삼대독자 니만가나
사대독자도 내도간다 사대독자는 가거만은

우리선산이 묵어난다

[해운대구 민요 36]

방귀 타령

김두이(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시아버지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방구는 양살방구
며느리방구는 도둑방구

[해운대구 민요 37]

못 갈 장가 노래

김두이(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서른아홉 스물아홉 첫장개를 갈라하니
궁합에도 못갈장개 책력에도 못갈장개
내갈라요 내갈라요 못갈장개라도 내갈라요
(그라 인자 장개를 간다.)
한등을 넘어서니 까치가 째작째작
또한등을 넘어서니 까마귀가 까옥까옥
뒤오는 상각삼촌 이계무신 소리던가
(가지마라 쿠는 기라. 까마구 운다고 가지 마라고. 그래도.)
내갈라요 내갈라요 못갈길이라도 내갈라요
(그래 간께네, 그만 각시가 죽었뻔어.)
장가갈라고 채린음식 바린지음식을 채리놓고

둘이벨라고 만든베개 한참 혼자베고서 잠들었네
(신랑이 혼자 베고 잠들었다. 각시가 죽어뻗어.)

[해운대구 민요 38]

모심는 소리

김두이(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진주남강 흐리는물에 달솟는것이 안좋던가
우리문전 문전앞에 임노는것이 안좋던가

[해운대구 민요 39]

화투 타령

윤정수(여, 194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2층]

정월은 술씨를삼아
이월매조에 댕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월난초 나르느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구월이라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지선달이 좋다해도
비삼십 못당한다
얼시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이렇게 좋다는 꽃달농네

[해운대구 민요 40]

모심는 소리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모시야적삼에 반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야보면 뱅날테고 담배씨만큼만 보고가소

진개야맹개야 너른들에 갱피훔는 저마누라
나싫다고 가디만은 간데쪽쪽 갱피로다

머리야종고서 잘난처녀 울뽕남게서 앓아우네
울뽕아줄뽕아 나따줄터이 백년언약을 나강하세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낳네
이알저알 날쫓으면⁵⁾ 금년과게는 내했는데

해는다저서 저문날에 어디메행상이 떠나가노
이태야백이야 본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백설같은 흰나비아 부모님몽상을 입었던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잔대미밭으로 넘나든다

[해운대구 민요 41]

첫날밤 노래

5) 내가 주웠으면.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화초동반⁶⁾ 첫날밤에 부끄럼도 가이없소
버선발로 쫓아나가 낭군님손목을 열싸잡고
들갑시다 들갑시다 내자는별당으로 들어갑시다

[해운대구 민요 42]

춘향이 노래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불쌍하다 가련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하다
먹을것을 옆에다끼고 옥문앞에 당도할때
이년아 춘향아춘향아 허락이나 한마디 떼어봐라
아이고 어머니 그말씀마소
옥에서 곧죽을망정 허락이란말이 웬말이오
꽃따라 울지마라 너가울면 나죽는다
나죽는것은 싫지않소 내하나 죽어지면
우리엄마 어나누가⁷⁾ 위로할까

[해운대구 민요 43]

시집살이 노래[박복찬 팔자]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6) 화촉동방.

7) 어느 누가.

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한살먹어 어미그늘이 두살먹아 아비그늘이
삼오십오 열다섯살에 시집이라고 가였더니
하늘같은 높은남자 태산같은 병을실어
비녀를팔고 월자를팔아 대한약국에 약을지어
청로화에 불을피어 약탕관을 걸어놓고
요몹쓸놈 잠이들어 낭군님숨떨어질줄 나몰랐네
아이고답답 내팔자야 이래될줄 몰랐구나

[해운대구 민요 44]

노랫가락[못된 부인 노래]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철뚝에 뭉칠년아
어린자식 잠들에놓고 아픈가장 밀쳐놓고
우수달밤에 단뫼짐싸는 저년보소

[해운대구 민요 45]

권주가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사랑앞에 국화를심어 국화밑에다 술부어놓고
술쫓아 임이오시자 저달이 둥실

[해운대구 민요 46]

일중년 월중년 하니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일중년 월중년하니 배를타고서 금능에나려
물우에 하늘이오 하늘가운데 명월이라

[해운대구 민요 47]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도불매
불락딱딱 불매야

[해운대구 민요 48]

구멍 타령

임춘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저건너산 딱따구리는 나무로 딱딱쫓는데
우리집 정든님은 뚫어진구멍도 못뚫는다

뒷집에 큰아기는 자동차바퀴를 돌리는데
우리집에 저멍텅구리는 쳇바퀴도 못돌린다.

[해운대구 민요 49]

모심는 소리

정재금(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황천가면 처자부터 심길라요.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생할래
이달크고 훗달크면 칠팔월에 환생하요

푸름푸름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황천간데 젓먹으러 내가가요

[해운대구 민요 50]

남녀연정요

정재금(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삼각산 흐르는물에 배차씻는 저처녀야
그곁데기 다돌리뿌고 속에속잎만 나를주오

당신이 나언제왔다고 속에속있을 달라하요

[해운대구 민요 51]

진주난봉가

정재금(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⁸⁾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하늘같은 서방님이 태산같은 갓을써고
(본체만체 하고 간단 말이야. 마누라를 삼년을 시집을 살았는데 본체만
체하고 가서.)
검은빨래 검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어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야야 며늘아가 진주낭군 만날려면
사랑방을 들어가라 사랑방에 들어가니
기생첩을 옆에끼고 열두가지 술을놓고
(권주가를 하고 있다 말이라.)
너무나 숨이차서 자기방에 올라와서
열두자 명주수건 목을매가 죽었는데
남편이와서 하는말이 에이 나쁜사람
첩의정이 삼년이면 본처정은 백년이라
(죽었다고 뭐라 하더란다. 지 잘몬 한 거는 없고.)
나이럴줄 내몰랐다

8) 시집.

[해운대구 민요 52]

화투 타령

정재금(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육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팔월공산만 쳐다보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날리뿌고
동지섣달 설한풍에
정든님오기만 기다린다

[해운대구 민요 53]

달거리 노래

정재금(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정월이라대보름 찰밥밥묵으면 마른버짐 낫고요
랄라랄라 랄랄라
이월영동할머니 바람불고
랄라랄라 랄랄라

삼월이라삼진날 강남제비 나와서 소금잔치하지요
랄라랄라 랄랄라
사월이라초파일 석가모니오신날짜 절에가서 기도하고
랄라랄라 랄랄라
오월이라단오일 그네타고
(뭐 타고. 모르겠네.)
유월이라유디날 은하수에 목욕하고
칠월이라칠석이라 은하수에 견우직녀만나고
(모르겠다 인자.)
팔월이라대보름날 강강술래하고요
(아이고 모르겠다. 인자 잊아뻘네.)

[해운대구 민요 54]

해방가

정점열(여, 1938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일천구백사십오년 팔월십오일 해방이되어
집집마다 만세소리 삼천만동포가 춤을춘다
해방이되어 좋다고하더만은 육이오사변이 웬말이고
어린자숙 등에다업고 잘란자숙 손을잡고
늙은부모 앞에모시고 한강철교를 건너가서
부산으로갈까 대구로갈까 이런참담이 어디있노
김유신장군은 남북통일을 시켰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원자폭탄을 맞았는가
남의집 서방님은 다오셨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아니오시네

[해운대구 민요 55]

창부타령

홍제분(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그꽃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해운대구 민요 56]

노랫가락[나비 노래]

홍제분(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1층]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나도가세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밭에서 자고가세
꽃에서 푸대접하면 잎이라도 쉬어가자

석양은 재를넘고 나의갈길은 천리로다
말은가자고 미곡을넣고 임은살자고 막늘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57]

모심는 소리

홍제분(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간밤에 꿈중더니 임에게서 편지가왔네

편지는 왔다마는 임은어이 못오는고
동자야 먹갈어라 임에게 답장하자

[해운대구 민요 58]

노랫가락[그네 노래]

홍제분(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1층]

새천당 세모진낭게 청실홍실로 추천을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59]

진주난봉가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⁹⁾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는말이 아가아가 메늘아가
너거야낭군을 만낼라면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로가니 물도좋고 돌도좋네
하늘같이 높은님이 다락같은 말을타고
구름같은 옷을입고 새별같은 갓을쓰고
기생첩을 눈에걸고 몬본듯이 지나가네
검은빨래 꺾기하고 흰빨래는 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같이 높은님이

9) 시집 삼 년.

기생첩을 무릎에앉아 소주잔에 술을부어
수제땅땅 치는소리 본처간장이 다녹는다
석자세치 맹지수건¹⁰⁾ 목을매어 죽고지아
석자세치 맹지수건 목을매어 죽고나니
하늘같이 높은님이 보선발로 뛰나오맨
석자세치 맹지수건 목을매어 죽었구나
본댁사랑 백년사랑 첩의사랑 석달사랑

[해운대구 민요 60]

맹기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한냥주고 떠온맹기 두냥주고 접은맹기
담안에서 널뛰다가 담밖으로 날렸구나
군아군아 서당군아 주원맹기¹¹⁾ 나를도아
허리굽하¹²⁾ 주원맹기 소문없이 너를주까
장뚝바리 마주놓고 밥먹을때 너를주마 [웃음]

[해운대구 민요 61]

창부타령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10) 맹지 수건.
11) 주운 맹기.
12) 허리 굽혀.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내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려마는
우리같은 인생들은 한번가면은 다시오기가 어렵구나
북망산천 돌아갈때 어이갈까 심사로다

[해운대구 민요 62]

사친가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시친구라 나실뜰에 떡잎같은 울엄매야
분꽃같은 나를두고 지은자리 뱅이들어 약탕거리를 걸어놓고
모전열어 잠이들어 부모가는줄 내몰랐네
동상머리¹³⁾ 석가머리 내머리는 대자머리¹⁴⁾
은장도 드는가세¹⁵⁾ 속곰속곰 숨아내어
열석세 금발위에 금비없이 베로나여 배우함에 담아이고
청태산 너른골에 망태산 깊은골에 어마꼬¹⁶⁾ 울고가니
어마소리 광고듣고 속상기 베루끝에¹⁷⁾ 명매기가¹⁸⁾ 대답하네
그리해도 원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사랑동창 뒷문밖에 금살구 유자낭게 저승채사¹⁹⁾ 앓아오네
채사채사 이채사야 울어멀랑 뒤에울고 금책이나 패어봐라
부모야 화상이 있을란가
금책을 패어보니 다른화상 다있어도 부모화상이 없는구나

13) 동생 머리.

14) 긴 머리.

15) 드는 가위.

16) 엄마라고 부르며.

17) 벼랑 끝에.

18) 명매기가. 명매기는 칼새를 말함.

19) 저승차사.

이채사야 먹갈아라 삼채사야 붓들어라 부모화상을 기리보자
부모화상을 기릴라하니 눈물이 진동해서 책이젖어 몬기리네
아가아가 우지마라 너거어머니 저건네라 잔술발에
진나래 대작밑에 살림살기 장착해서 니크는줄 모른단다 [웃음] [일동
박수]

[해운대구 민요 63]

모심는 소리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는 반달같이도 내나간다
니가무신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초승달만 반달이나 그믐달도 반달이다 [웃음]

[해운대구 민요 64]

삼삼기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던산골 구경가자
무던산골 구경가면 다시오지로 못하니라
이삼삼아 옷해입고 행기폭포 구경가자
행기폭포 구경가면 늪도젼도 안하니라 [웃음]

[해운대구 민요 65]

베 짜기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하늘잡아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에걸고
놓고땅땅 들고땅땅
누야누야 금사누야 그베짜서 니뵈할래
우리오빠 장개갈때 짐님베고 도복베고 한자두자가 남았구나
요내적삼을 베고나니 집도없고 섶도없네
맹자고름 살피달아 [웃음]
(옛날에 이런 노래로 지금 부르게 청송지긴다고²⁰⁾ 카는 기라.) (조사자 :
아입니다. 아입니다.)

[해운대구 민요 66]

잠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잠아잠아 오지마라 시오마시 눈에난다
시오마시 눈에나면 서방눈에 절로난다
서방눈에 절로나면 자석눈에도 절로난다

[해운대구 민요 67]

벅거지 타령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20) 궁상스럽고 처량하게 보인다고.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얼싸 뺱거지²¹⁾ 절싸 뺱거지
던졌다 뺱거지 주웠다 뺱거지
섰다 뺱거지 간다 뺱거지
뺱 뺱 뺱거지
(조사자 : 뺱거지가 뭔교?) (보릿단 모자 그기 뺱거지 아이가.)

[해운대구 민요 68]

베 짜기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베짜는 아가씨 베틀노래
낮에짜면은 노비단이오 밤에 짜면은 하비단이라
노비단~ 하비단~ 다짜가지고
정든님 와이사서나 지어나볼까 [웃음]

[해운대구 민요 69]

노랫가락[이몸이 학이 되면]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몸이 학이나되면 나래우에를²²⁾ 임을실코
수만리 날아나가서 이별없는곳 잘살아보세

21) 뺱거지. 모자를 속되게 하는 말.

22) 날개 위예를.

장미꽃이 곱다고해도 꺾어보닌께 까시더라
사랑이 좋다고해도 맺고보닌께 눈물이라
내언제 참사랑만나 눈물근심없이두 잘살아보리

[해운대구 민요 70]

노랫가락[그네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수천당 세마디낭게²³⁾ 오색도당실 군데를 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미소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정떨어진데는 지화로 떼우고 술떨어진데는 좋~다 무쇠로 떼와라

[해운대구 민요 71]

서방 부음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진주땅 김서방은 글씨좋다 소문이야
강남땅 강처녀는 솜씨좋다 소문이야
혼연하자²⁴⁾ 혼연하자 백년살이 혼연하자
날이라꼬 받은날이 긴긴삼을 열여섯날 [웃음]
(조사자 : 그것도 삼 삼으면서 불렀던 노래네요?) [웃음]
그로그로 날이닥치이

23) 세 가지로 난 나무에.

24) 혼인하자.

한술에는 소주로그아 한술에는 약주로질러
 약주소주 질러놓고 한참일을 하고나니
 대문밖에 편지왔네²⁵⁾
 오라바시 받은편지 아버지가 패여보고
 어허불캉 부주편지²⁶⁾
 쪼꼬만은 재피방에 방문열고 들어가서
 열두폭 넘을치매 한폭따서 고깔짓고 두폭따서 바랑짓고
 한모래기²⁷⁾ 돌아가니 까막까치가 지죽깨죽
 두모래기 돌아가니 여시할님이 객객우네
 세모래기 돌아가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쪼꼬만은 재피방에 방문열고 들어가서
 꼭꼭쪼사 초록단이 자를듯이 지어놓고
 뽕작뽕작 갱내장롱 보열듯이 지어놓고
 머슴잠이 깊이들어 날온줄을 모르는고
 동네사람 이웃사람 가족이름 짓지말고
 처녀야 이름만 지어주소 [웃음]

(조사자 : 그 언자 장개를 갔는.) (내일같이 결혼할 낀데 오늘같이 죽어뻗어, 신랑이 죽어뻗어.) (조사자 : 신랑이 죽어뻗구나.) (응. 그런께네 인제 열두폭 너울치매 어 한 폭 따서 고깔 짓고 그 전자는 고마 못갔거든 처녀가. 두 폭 따서 바랑 짓고. 그래갖고 인자 총각 저거 갔는 기라. 그래 간께 한 모래기 돌아간께 여시, 그 까막까치가 췌죽췌죽 두 모래기 돌아간께네 여시할람이 객객 그게 벌써 방정이거든. 그래 세 모래기 돌아가니 곡소리가 진동하는 기라. 어, 그래갖고 그 신랑 방아 드간께네, 그 옛날에 초록단이 있었다 아이가. 그래 꼭꼭 쪼사 초록단이 잘 듯이 지어놓고, 뽕작뽕작 갱록장롱²⁸⁾ 볼 듯이 지어놓고. 뽕작뽕작 한이불은 덮을 듯이 지어놓고. 가고 없네 가고 없네 쥐뿔같이 가고 없네. 머슴 잠이 깊이 들어 날 온 줄로 모르는고. 그래갖고 동네사람 이웃사람

25) 편지 왔네.

26) 부고 편지.

27) 한 모퉁이.

28) 경대 즉 거울이 있는 장롱을 말하는 듯함.

가족이름 짓지 말고 처녀 이름을 지어둘라 카는 기라. 그 인자 날이, 옛날에는 그 날 받아갖고 거 해도 그집 식구라 했거든. 그런데 이제 처녀 이름을 지아달라 안 켜나.) (조사자 : 그렇지, 맞아. 시집 가몬 출가외인 되이카네.) (응. 그래.)

[해운대구 민요 72]

노랫가락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첩첩산중 고드름은 봄바람이 풀어내고
요내가슴 맺힌수심 어느누가 풀어주리
(조사자 : 이것도 노랫가락이지요?) (노랫가락.)

[해운대구 민요 73]

남녀선정요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우중충충 빼들기야 알송달송 피꼬리야
니어데다 자고왔노 앵금사 장개들어 궁금사에 자고왔다
궁금사 매초리는 머리좋다 대자머리
슬슬머리 내리빚기 단발머리 늦기따고
진주물삭 촌수댕기 어깨너매 남타리고
나비얏인 책을들고 연아방에 놀라가자
연아씨는 어데가고 강가아들 강서방이 홀목잡고 노자하네
그홀목이 말을하나 우리부모가 말을하지

너그부모 우리부모 앉진자리 허락받고 결혼하자

[해운대구 민요 74]

노랫가락[나비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파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들랑 꽃에붙어서 자고가자
꽃이지고 없거들랑 잎에붙어서 자고가자
잎은 낙하없어지면 요네품안에 자고가자

[해운대구 민요 75]

청춘가[나비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나비는 꽃찾아 청산을 가는데
나는야 입을찾아 좋~다 어디를 가리라
나비는 나비야 포랑나비야 해가 지면은 어디로 가나

[해운대구 민요 76]

노랫가락[꽃 노래]

강도아(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꽃 좋다 탐내지 말고 모진손으로 꺾지마라
꺾거든 버리지 말고 버릴라면은 꺾지마소
꺾든지 문꺾든지 그꽃이름을 알고가자
그꽃이름이 단장하다
꽃이사 좋거나마는 남의꽃에다 손댈수있나
(님의 꽃에 손 문대는 기라.)

[해운대구 민요 77]

모심는 소리

공소두(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졌는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젓묵으로
(청중 : 산소등에.) (산소.) (청중 : 산소등에.) (아! 산소등에 간다꼬.)

[해운대구 민요 78]

이 노래

김동희(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야이야 옷엿이야
니발이 육발인들
사십팔팔 걸어왔나
니등어리²⁹⁾ 납딱한들

29) 너 등어리. '등어리'는 등의 방언.

땅의선상 지을적에
돌한덩이³⁰⁾ 실어봤나
니주덩이³¹⁾ 쪼뻗한들
내임자가 죽었을제
곡한자리 해줘봤나

(이 노래가 그래요, 이 노래가.) (조사자 : 그기 무슨 노래인교?) (이.
옛날에 옷에 이, 옷에 이.) (조사자 : 옷에 이 노래. 아아아 옷에 이
노래.) (청중1 : 옛날에 참 많았대, 이가.) (청중2 : 지금 부석캐하지요.)
(조사자 : 아아, 아따 할때 그렇네. 그 귀한 노래네.) (야.) (조사자 : 이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네 그제.)

[해운대구 민요 79]

모 찌는 소리

김봉림(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한강에다가 모를붓어 모찌내기도 난감허네
회개낭창 상추갈아 상추썰기도 난감하네
(조사자 : 아, 맞아. 이게 모 찢 때 소리. 그지예?)

이논에다 모를숨겨
우리동상 곱게키워 갓을씩어 영화로다

[다시 말하듯이 읊조리며]
노랑노랑 노랑모는 논에다가 키워 영활보고
우리동생 곱게키워 갓을씩어서 영화로다

30) 돌 한 덩이.

31) 너 주둥이.

[해운대구 민요 80]

모심는 소리

김봉림(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노랑노랑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내훗달에는 열매여요

[해운대구 민요 81]

댕기 노래

김봉림(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울아부지 서울가서 천냥주고 떠온댕기
울어머니 접은댕기 우리올키 눈치댕기
우리동상 눈물댕기 우리오빠 웃음댕기
담안에서 널뛰다가 담밖으로 잊었구나
저기가는 저총객이³²⁾ 요내댕기 좇았글랑
넘모르게 나를주소
좇기사도 좇았건만 치매자락 도포자락
마주치면 너를주마

[해운대구 민요 82]

모심는 소리

32) 저 총각이.

박이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모야모야 노란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이 닥쳐오면 열매열래

[해운대구 민요 83]

청춘가

박이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우수경첩에~헤³³⁾ 대동강 풀리고~오
울엄니 말썸에 에~헤 내가슴 풀린다

청춘하늘에³⁴⁾ 잔별도 많고요~오
요네야 가슴에 에~헤 수심도 많구나

니가 날맞이~히이 사랑을 한다면
까시말이 천리라도 에~헤 밭벗고 오리라

[해운대구 민요 84]

화투 타령

박이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33) 우수 경첩에.
34) 청천(晴天) 하늘에.

정월술까지 술속한 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사리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비앓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떴네
(청중 : 구월은 어째하는고.)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다

[해운대구 민요 85]

모심는 소리

변남세(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폭파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대장부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조사자 : 또, 거서 이어야지.) (야? 거 끝이랴요.) (조사자 : 그래 인자
받는소리제.) (청중 : [노래로] 첩의야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한철
연못에 금붕어는 사철이오. [말로] 이래하지. 그게 끝이랴.)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관에 다올랐네
이놈의할마이 어텔가고 딸애동지 시깃는고 (청중 : 아이구 잘 하신다.)

낭창낭창 저귀리끝에³⁵⁾

35) 저 벼랑 끝에.

(아이고, 인자 이자뿌리뿔다.) (조사자 : 무정하다 울오랍아.)

무정하다 울오라바

난도죽어서 후생가여 낭군님버텨 신기볼래³⁶⁾

모시야적삼 안섰안에~이 분통거튼 저젓봐라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내끼만침³⁷⁾ 보고가소

오늘해가 다졌는강 산골마중 연기나네

우리야부모님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공

초령아초령아³⁸⁾ 영사초령³⁹⁾ 초령아방에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누워 초령아불을 누가끄리

[해운대구 민요 86]

다리 세는 소리

변남세(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박거리

동서맹금 도맹금

짹바리 해양금

도래쭈치 장두칼

도고발에 독서리

동지선달 백설이

[해운대구 민요 87]

36) 섬기볼래.

37) 싸라기만큼.

38) 초롱아 초롱아.

39) 청사초롱.

창부타령

변남세(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노자노자 젊어서 노자 늙고병들마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해운대구 민요 88]

청춘가

변남세(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술이랑 먹거들라~양 치장들말고요~오여
임이라꼬 젊거들랑 좋~다 이별을 맏시다

산차지 들차지~이 총독부차진데 에~헤
병모님 딸차지 좋~다 내차지로다~아

[해운대구 민요 89]

노랫가락

변남세(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돌아오면 너는다시 피려니와
우리네인생은 한번가면 다시오기가 어렵더라

[해운대구 민요 90]

모심는 소리

우춘호(남,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모야모야 나랑모야~40) 니운제커서41)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물꼬야어정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등넘에다가 첩을두고 첩의야만나러 나는가네

[해운대구 민요 91]

창부타령

이둘금(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청야하에 양귀비요 이도령은 춘향이라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일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40) 노랑 모야.

41) 너 언제 커서.

[해운대구 민요 92]

상여 소리

장도진(남,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저승길이 멀다하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어하~ 어하~ 어허이 허하~
간다간다 나는간다
천년집을 하직하고
말년집을 찾아간다
어하~ 어하~ 어허이 허하~

[해운대구 민요 93]

태평가

장도진(남,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짜증은 내어서 무엇허나
성화는 받쳐서 무엇허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뉘리리야 뉘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 좋네

벌나비는 이리저리 퍼벌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온다

공수레 공수거하니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니나노~ 놀리리야 놀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 좋네
별나비는 이리저리 포볼폴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해운대구 민요 94]

논매는 소리

장도진(남,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⁴²⁾ 내따줄게 내품에 잠들어라
어허러구 저허러구 한다

[해운대구 민요 95]

정선아리랑

정옥순(여, 1930년 생)⁴³⁾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오늘갈런지 내리갈런지⁴⁴⁾ 정수정원이 없는데~에
만두라미 줄봉숭아는 왜심어 놓았소

눈이올라나 비가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42) 연밥 줄밥.

43) 정옥순은 1930년 경오생으로 83세이다. 강원도 정선에서 1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정선이며 정선에서 63살 때까지 거주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으로 온 지는 20년 정도 된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학력은 무학이다.

44) 내일 갈런지.

만수산 꺾은구름이 막 모여든다

물검아리 검은오리는 무신에죄를⁴⁵⁾ 지어서
큰아기 손질에 칼침을 맞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한치뿔산 곤드레딱죽이 낮이매맘만 같으면
그것만 뜯아먹어도 봄한철 살지

임아부채 먹기야⁴⁶⁾ 좋기는 입참쌀감주
말부채 하기야⁴⁷⁾ 좋기는 빙모님⁴⁸⁾ 따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정선읍에 물레방애는 물레를안고 도는데
우리집에 낭군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야 요만하면 만족하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날버리고 가시는님은 가고싶어 가나

45) 무슨 죄를.

46) 입 붙여먹기에.

47) 말 붙이 하기야.

48) 빙모님.

[해운대구 민요 96]

모심는 소리

권점순(여, 192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모양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⁴⁹⁾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환승할래

풍당풍당 수지비
이놈의영감 어디가고 딸이동제 시깃는공

[해운대구 민요 97]

모심는 소리

김경어(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모를숨거서 꺾은들에~ 잎이넓은 반춧대야~
그반춧대 속잎에는 이슬꺾날 전이없네⁵⁰⁾

아침이슬도 채럼발에⁵¹⁾~ 상추씻는 저큰아가이~
겉에겉잎 제쳐놓고~ 속에속대 나를도라이~

오늘해가도 다졌는가~ 골골마당 연기가이나네
울언님은 어디로가고~ 연기별줄 모리는고 (그러쿠대.)

49) 환승할래.

50) 전혀 없네.

51) '채전발에'인 듯함.

[해운대구 민요 98]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김경어(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 시집간다⁵²⁾
가매꼭지 물담는다
(그것 빼이 모르겠는데.) (조사자 : 다홍치마.) (다홍치마 얼렁진다.)

[해운대구 민요 99]

아기 어르는 노래 [불미소리]

김경어(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히딱히딱 불어라
이불매가 누불맨고
갱산도⁵³⁾ 진불맨가
히딱히딱 불어라

[해운대구 민요 100]

뽕 노래

김경어(여, 1930년 생) 가창

52) 우리 언니 시집간다.

53) 경상도.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꺄꺄 장서방
오라쿨때 왔시면
낙주꺄고 술한잔

[해운대구 민요 101]

이 빠진 아씨 놀리는 노래

김경어(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앞니빠진 기앵이
새미질에 가지마라
붕어한테 뺨맞는다

[해운대구 민요 102]

다리 세는 소리

한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송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정두맹근 도맹근
짹발이 희안해
연두딱개 열두양
붕자머리가 사래가 육

[해운대구 민요 103]

청춘가

김금순(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무정실경로당]

노세 젊어서노세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우면 기우나니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놀고서 무엇하리

[해운대구 민요 104]

모심는 소리

김상복(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무정실경로당]

포동포동 봄배추는 봄비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해운대구 민요 105]

각설이타령

윤향임(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무정실경로당]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각설이타령이 들어간다
절구통이 벌어진데는 찰쌀보리밥이 제격이고
목침대침 벌어진데는 빈대벼룩이 제격이요

과부사탈이 벌어진데는 홀애비연장이 제격이요

[해운대구 민요 106]

모심는 소리

모규일(남,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남자실]

땀복땀복 찰수제비 사우야판에만 다올랐네
에미란넌은 어텔가고 우리야임은 어딜가고
딸이란넌에 맬겼던고

진개맹개 너른들에 모충이던저놓고 어데갔노
문에야전복을 양손에들고 칩우야방에 놀러갔네

[해운대구 민요 107]

모심는 소리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공자님 심으신낭게 안해정자⁵⁴로 물을주어
자사로 뺨은가지 맹자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꽃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화라

[해운대구 민요 108]

창부타령

54) 공자의 제자인 안희와 증자를 말함.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문날에 빛발같이도 반길사랑
구년지수 긴장마에 햇빛같이도 반길사람
당명황의 양귀비요 이도령의 춘향이라
일년삼백육십일을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열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해운대구 민요 109]

모심는 소리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물길랑처정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에야전복 사서들고 기생방에 놀러갔다

저기가는 저구름은 어데신선이 타고가노
웅천하고 천자봉에 놀던신선이 타고간다

남창북창 열고보니 구월이라 단풍꽃밭이라
꽃밭속에는 나비가놀고 구름속에는 신선이논다

유월이라 새비달에 처녀들이가 난절갔다

석사수건 목에걸고 총각들이 길따라갔다

서울이라 한골뭇에 금붕어나는 구경갔소
금붕어잡아다 회쳐놓고 춘향이불러 술따르라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다
그알한개 주웠으면 금년과게 내할꺼로

청천하늘에 구름모아 만인간에 정자로다
그누가 모았던고 우리네상대가 정자로다

저기가는 저구름은 어데신선이 타고가노
웅천하고 천자봉에 놀던신선이 타고간다

남창북창 열고보니 구월이라 단풍꽃밭이라
꽃밭속에는 나비가놀고 구름속에 신선이논다

모시적삼 안섰밑에 연적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담배씨만큼 보고가소

[해운대구 민요 110]

저승사자 노래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육십세에 저승사자가 모시러오니
집에 안계신다고 여쭙어라
칠십세에 저승사자가 모시러오니
아직은 일찍다고 여쭙어라

팔십세에 저승사자가 모시러오니
아직은 쓸모가있다고 여쭙어라
구십세에 저승사자가 모시러오니
서두르지 말라고 여쭙어라
백세에 저승사자가 모시러오니
때를봐서 내발로가겠다고 여쭙어라

[해운대구 민요 111]

아리랑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정든님 오기만 고대고대한다

[해운대구 민요 112]

밀양아리랑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날좁보소 날좁보소 날좁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좁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해운대구 민요 113]

사친가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어머님 높은연세 백살이 되어도
팔십된 자식걱정 떠남이 없네
아버이 크신은혜 헤아릴수 없고
배푸신 크신사랑 그칠세 없네

[해운대구 민요 114]

너냥 나냥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그리워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좋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호박은 늙을수록 맛이 나 좋고요
사람은 늙을수록 보기가 싫어져요

[해운대구 민요 115]

해방가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징용으로 끌려갈때 다신뭇을줄 알았더니
일천구백 사십오년 팔월십오일 해방이되어
연락선에다가 몸을실고 부산항구를 당도하니
문전문전 태극기달고 방방곡곡 만세소리
삼천만동포가 춤을추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왜뭇오시나
원자폭탄을 맞으셨는지 왜이다지도 소식이없나
해방이되어 좋다고 하더니 지긋지긋한 육이오가 웬말이나
어린자숙 등에없고 자란자식 손목을잡고
늙은부모 앞에모시고 한강철교를 건너서서
대구로갈까 부산으로갈까 이런닥달이 어데있노
미아리고개는 악마고개 삼팔선고개는 원수고개
옛날옛적 김유신장군은 삼국통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남과북은 어느시절에 통일이되느냐

[해운대구 민요 116]

지신밟기 노래

박순이(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전천지 후천지에 억만세계 무궁하라
산지조조는 곤룡산이요 수지조조는 황해수라
곤룡산 일천맥에 우리나라 생겨날때
백두산이 주산되고 한라산이 안산되고
두만강이 청룡되고 압록강이 백호가되어
건곤이 개벽후로 별계를 이뤘을때
기세도 좋거니와 풍경도 더욱좋다
예의범절 바로서니 소중하게도 되었구나
열두강산 좋은경치 역역히도 둘러보자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영산강이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세계 일러섰데
제주도라 한라산은 태평양이 둘러있고
밀양이라 종남산은 남천강이 둘러있고
열두강산 좋은경치 역역히도 끌어다가
이강중에 모셨으니 천하대비가 이아닌가

[해운대구 민요 117]

노랫가락[그네 노래]

서차득(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수천당 세모시낭게 오색가지를 군데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118]

모심는 소리

안순덕(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도 떠나가네

지가무슨 반달인고 초생달이 반달이지

밀양아삼랑진 궁노쉴에 풀풀나는 저부영보소

[해운대구 민요 119]

밀양아리랑

안순덕(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낭군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우간다

[해운대구 민요 120]

모심는 소리

안순덕(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우덤가에 젓먹으로 나는간다

[해운대구 민요 121]

발원문

안순덕(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팔만사천 대장경에 일만사천 화염경에
얼마고도 중화로다 명화봉에 모시놓고
자느잠에 열만하옵소서
천년자리 만년자리 내가치수 맞는자리
황금씨를 뿌린자리 하루살이 닿는자리
이내인생 갈적에는 좋은날 좋은시에
자느잠에 인도하옵소서

[해운대구 민요 122]

모심는 소리

안순덕(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농청농청 저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여 임을한번 섬길테다

[해운대구 민요 123]

청춘가

정준남(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삼화 경로당(왕자맨션) 여자실]

술과담배는 나심정 아는데
한품에든님은 나심정 몰라주네

청춘하늘에 참별도 많고요
요내가슴엔 수심도 많더라

그세월을 어느누가 알아주나
세월은 잘도 팔십년이 희떡넘어갔구나

동서야 오너라 삼동서 모여라
시어머니 잡아다가 단지곰 해먹자

[해운대구 민요 124]

노랫가락[나비 노래]

문재특(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해저물거든 꽃밭수렁에 잠들거라
꽃도지고 없거들랑 잎속에나 잠들어라

[해운대구 민요 125]

쌍가락지 노래

문재특(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이 처일래라 잘해보이 둘일래라
그쳐자님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래라

[해운대구 민요 126]

베틀 노래

문재특(여, 1929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베틀농자 베틀농자 옥남강에 베틀농자
베틀몸은 두몸이요 이내몸은 단몸이요
베틀다리 네다리요

[해운대구 민요 127]

태평가

이정희(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짜증을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마치어 무엇하나
속좁은일도 하도많니 놀기도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봄나비는 이리저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낭군이 다시온다
공수레는 공수거요 놀아나가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봄나비는 이리저리펄펄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해운대구 민요 128]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정희(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수천당 세모짓낭게 오색당주를 주천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129]

최심곡

이정희(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무정세월 여로하야 사람마다 품은공뭇다하고
인간백년 살자하니 공두라미 백발이요
문전활동 죽어지면 검은머리 백발되고

꽃든얼굴 주름지고 귀는먹어 절백⁵⁵⁾되고
이느빠져 낙지되고 키는커서 넘어간디
없던망령이 절로난다 달은문을 박차면서
여보아라 청춘들아 년들본래 청춘이면
난들본래 백발이나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옛그저께 소년행랑 하였건만
황금같은 세월이 원수로다
[옳게 가사가 안 된다. 잘 안돼.]
만당찰영을 모아다놓고 못다먹고 못다잊고
인간백년을 살자하니 두손모아 배에얹고
한심없이 가는님이 한심하고도 가련하다
인간칠십은 고래해요 팔십장년 구십중간
장차백개를 다산다해도 병든날과 잠든날에
걱정근심 다제하면 한사십을 못사는인생
한번왔다 죽어지면 싹이날까 움이날까
이내 인생 만고로다

[해운대구 민요 130]

진주난봉가

조분수(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살이를 삼년을하니
시어머니 하신말씀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돌도 좋고 물도 좋고 오동토동 빨래를하니
난데없는 발자죽소리가 열그덕철그덕 나는구나
옆눈으로 힐끗보니 하늘같은 갓을씨고

55) 절벽.

구름같은 말을타고 문본듯이 지나가네
 흰빨래는 희게씻고 감등빨래는 껌게씻어
 집에라고 돌아오니 시어마시 하는말씀
 아가아며늘아가 사랑방으로 내리가니
 오색가지 술을놓고 기상침을 옆에다두고
 권주가를 부립니다 내방으로 올라와서
 아홉가지 약을먹고 명주석자 수건에다가
 목을메어 죽어뵈네
 사랑방에 서방님이 버선발로 나리와서
 이사 와죽었는 와죽었노
 기생이정은 석달이요 본택의정은 백년이요
 이말저말 암말도없이 왜죽었노

[해운대구 민요 131]

모심는 소리

조분수(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타박타박 타박네야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어머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낭창낭창 버리끝에 시누올케 꽃따다가
 대동강에 떨어졌네 무정하나 울오라비
 동생손을 안잡고 자기 마누라 손을 건져가이
 나는죽어 뱀이되어 니는죽어 개구리되어
 오월이라 단오날에 미나리깡에 만나보자

강내리고 너린강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을 따지말고 내품안에 잠들거라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영화볼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열지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해운대구 민요 132]

아리랑

조분수(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우리님 오는고개는 한고개요

[해운대구 민요 133]

모심는 소리

송정숙(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중리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소를숨가 영화로다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고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봇대야 들고 첩우야방으로 놀러갔다

해다지고 저무신날에 옷갓을쓰고서 어딜가나
첩우아집을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소

서울이라 남정자에 점심참이 늦어온다
미나리랑 숙주나물 맛보느라 더디오나

담장밖에 숨근하초 담장밖을 후아넘네
길가는 선비양반 그꼴보고 길뭇가네

[해운대구 민요 134]

아기 재우는 노래

송정숙(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중리경로당]

개야개야 김둥개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낯지말고
뒷집개도 낯지말고
형제간에 우애있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해운대구 민요 135]

쌍가락지 노래

오의순(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종리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늦가락질
먼데보다 달일래라 곁에보니 달일래라

[해운대구 민요 136]

시집살이 노래

정금선(여, 1953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종리경로당]

형님온다 형님온다 분고개로 형님온다
형님마중 누가갈까 형님동생 내가가지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쩔딛까
애애 그말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고추심고 뒷발에는 당초심어
고추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찼어다가
아홉술에 불을때고 열두방에 불지피고
외나무다리 어렵더라 시아버지보다 더어려우랴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하나 한림새요
시누하나 뽕쪽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자식하나 우는샬세
귀먹어서 삼년이요 눈어두워 삼년이요
말못해서 삼년이요 석삼년을 살고나니
배꽃같은 요내얼굴 호박꽃이 다되었네
삼단같은 요내머리 비사리춤⁵⁶⁾이 다되었네

[해운대구 민요 137]

권주가

정금선(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중리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고 묵고놀자는 동배주⁵⁷⁾요

[해운대구 민요 138]

모심는 소리

정금선(여, 1935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중리경로당]

모시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거고 눈만살끔 뜨고보소

[해운대구 민요 139]

쌍가락지 노래

배옥년(여, 1922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닳을래라 곁에보니 추질래라

56) 땀싸리비 모양으로 거칠고 뭉뚝해진 머리털을 말함.

57) 동배주(同杯酒), 하나의 술잔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라는 뜻으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을 말함.

그쳐자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일래라

[해운대구 민요 140]

모심는 소리

배옥년(여, 1922년 생) 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 경로당]

풍당풍당 수제비는 장모할머니 어디가고
사위상에 다올랐네

농창농창 비리끝에 시누올케 꽃따다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낙동강에 떨어졌네
무정하네 우리오빠 시누애기 안건지고
첩우부터 건지더라
나도죽어 후상가서 낭군부터 섬길라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꼬깔쓰고 어디가요
첩우집에 가거들랑 나죽는꼴 보고가소

[해운대구 민요 141]

모심는 소리

조순이(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한달크고 두달크고 석달만에 열매열지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고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해운대구 민요 142]

모심는 소리

박명순(여, 193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이물길저물길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로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우방에 놀러갔네
첩우방에는 연꽃이요 본처방에는 한강이요

낭창낭창 베리끝에 임건지는 울오빠야
임건지고 날건지면 어느하늘이 무너질까
나도이길로 황천가서 임부터 살릴라네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대룡오도록 기다리고

모시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나 보지말고 쌀날만큼만 보고가소

[해운대구 민요 143]

모심는 소리

미상⁵⁸⁾(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하승할래
한달크고 두달크고 석달열흘만에 하승한다.

[해운대구 민요 144]

아기 재우는 노래

미상(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금자동아 은자동아
철기청청 곱아동아
값을준들 너를살까
은을준들 너를살까

[해운대구 민요 145]

노랫가락[그네 노래]

미상(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오월이라 단옷날에 높이높이 그네매어
내이타면 님이밀고 님이타면 내가밀고
줄떨어지면 정떨어지고 정떨어지면 줄떨어지고

[해운대구 민요 146]

58) 제보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명을 알 수 없다.

모 찌는 소리

김봉화(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갈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한강거튼 이모자리 장기관만치 남았구나
장기관을 있다만은 장기들이가 누있으리
(고게 인자 모 다 찌갈 때 하는 소리고. 마지막 쪼를 때는 인자.)

밀치라 닥치라 모도잡아 훑치라
영에영천⁵⁹⁾ 초목에 [웃으며] 호미손이나 놀리자

[해운대구 민요 147]

모심는 소리

김봉화(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덜갔노
문에야대전보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모시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날만침 보고가소

남창남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람에

59) 영해 영천.

나도죽어 (거 잘 한다 할때.) 저승가서 임의버텨 생각할래
(조사자 : 누구부터?) (임버텨⁶⁰) 생각할래. 큰물이 저가, 큰물이 저가지고
동생하고 마누라하고 떠내리가거덩. 떠내려가는데 둘이로 낚질라 카이
몬 낚지겠고, 마누라만 낚지고 동생이 떠내려가매. 동생이 떠내려가매 하
는 노래라 그제.)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해미년은⁶¹ 어데가고 딸애동자를 땀깃던고
(딸로 하라 캐노이 지 신랑 판에만 다 주고 아버지 판에는 국물만 줘어.
그러니 그거는 그래 또 지은 노래고. 거기 그렇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소자가 울고간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간다

오늘해가 이만되면 산골마다 연개난다
울어넘은 어데가고 연개넬줄 모르던고 이후후후

초롱초롱 영사초롱 임의방에다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눕고 저불끌이가 누가있든가

[해운대구 민요 148]

최심곡

김봉화(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네말씀 들어보소

60) 임부터.

61) 예미년은.

이세상에 나온사람 누덕으로 나왔는고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빼를빌고
 어머님 살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덕 알은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닭구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닭고도 슬픈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흉한백발 늙어간다
 인간의 이공덕을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연연록이요⁶²⁾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몬 다시젊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살아도 잠든날과 병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몬 단사십도 못산인생
 어제오늘 성탄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길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나 약효힘이 있을손가
 관수불러 경이른들 경에덕이 있을손가
 문어불러 굿을하나 굿덕인들 있을손가
 (그래 인자 다 문어 불러가, 무당 불러 굿해도 안 되고, 봉사 불러가 경
 일러도 안 되고, 그래가 인자 명산대천을 찾아간대. 명산대천 찾아가서,
 아 재미쌀을 실고실가, 아 아이다. 마이 알았는데 와 안 생각키노.)
 재미쌀을 실고실가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매를짓고 중탕에 모욕하고⁶³⁾
 하탕에 수족씻고 향로향에 불갓추고
 쫓대한쌍 벌려놓고 향로향에 불갓추고
 소지한장 들인후에

62) 연연록(年年錄)이오. 해마다 푸르고.

63) 목욕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양 이름이어 가명이나 할까보나

(인자 대왕 간대.)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강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발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능대왕

열시왕의⁶⁴⁾ 명을받아

(하이고 거는 인자 모리겠다. 그래 열두대왕 다 거치고. 거 안자 마 안
보고 몬 외우겠네.)

[해운대구 민요 149]

다리 세는 소리

김봉화(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오끼나끼 버물개야

너거당신 어데갔노

삼산에 갔다

뛰하러 갔노

새잡으러 갔다

한마리 주우가 꿈아묵자

64) 열 세 왕의.

두마리 주우가 찌지묵자
찌짐낭게 불이불다
요록쫓록 복쫓록
생이새끼 납쫓록

[해운대구 민요 150]

풀국새 노래

김봉화(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지짐죽고 어흐 자석죽고
내호무차 어흐 어째살꼬
홀쭉 홀쭉

[해운대구 민요 151]

모심는 소리

이묘념(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심시간 더디온다
서울나물 시락나물 맛본다고 더디온다

[해운대구 민요 152]

쌍가락지 노래

정만순(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낫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해보니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아 숨소리도 혼란하다
(이라 안 하나.) (조사자 : 그 다음에 무슨 복숭?) (그라모.)
천도복상 오라버지 거짓말로 말씀하소
(말로 몬 하라 카는 기라. 그래 천도복상 오라버지 거짓말로 말씀하소.)
그쳐이 자는방아 숨소리도 혼란하다
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조사자 : 처자가 억울하이 카네. 어.) (그래 거짓말 하지 마라. 저거 오
랩이 거짓말 하지 마라고. 남풍이 디리 불어 풍지 떠는 소리라.)

[해운대구 민요 153]

다시 세는 소리

정만순(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한거리 두거리 땃장거리
신라 너자 버무 개야
당다 골로
시라라 내라라

[해운대구 민요 154]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정만순(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불매 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불매나 한문 불어보자
불매 불매 불매
(이전에 손주 안고 그래 안 하나.)

[해운대구 민요 155]

모심는 소리

김달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춘여자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우야집으로 놀러갔네

첩우야집은 꽃밭이요 내야집은 연못이요
꽃과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에금붕어는 사시절이요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네

[해운대구 민요 156]

비야비야 소지마라[비 노래]

정만순(여, 192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예⁶⁵⁾ 비들친다
다홍치매 어룽진다⁶⁶⁾
소지뱅이⁶⁷⁾ 물드간다
깜둥까지⁶⁸⁾ 물때 낚다

(그래 거 노래 아이가.) (조사자 : 예, 맞습니다.) 이전에 그래 안 했나,
옛날에. (조사자 : 할매 거 기억 좋네.) (깜둥까지 물때 낚다. 다홍치매
어룽진다. 소주뱅이 물 드간다. 이전에 그래 동싱이가 저거 새이 시집간
데 가매 따라오면서난 이바구로 그래 노래로 그래 안 하나.)

[해운대구 민요 157]

사발가

김달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춘여자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김이 나구만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김도 안난다

[해운대구 민요 158]

다리 세는 소리

김달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춘여자경로당]

65) 가마 문예.
66) 얼룩진다.
67) 소주병예.
68) 김은 가지.

이거리 저거리 잣거리
청사맹군 도맹군
도리짐치 장독간

[해운대구 민요 159]

아리랑

김달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춘여자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고개
우리님 고개는 한고개요

[해운대구 민요 160]

모심는 소리

김달순(여, 192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춘여자경로당]

말을타고서 꽃밭을가니 자죽자죽 상내나네
상내가나네 상내가나네 아가씨가 상내나네

술집사우만 되었다면 술잘먹고서 돈잘쓰지
돈잘쓰면 한량이나 활을잘쏘야 한량이지

저기가는 저 구름아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야비도 아니나들고 소리와명창만 들었구나

[해운대구 민요 161]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수천당 세모시낭게 둘이타자꼬 그넛줄메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야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162]

화투 타령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나비
사월흑싸리에 헛송하고
오월난초 나비가날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똑떨어지네
오동지선달 긴긴밤에
누웠으니 잠이오나
샷샷으니 임이오나

임도잠도 아니오고
이일감당을 누가할꼬

[해운대구 민요 163]

시집살이 노래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성아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가 어떻드노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재 놓기도 에렵드라
중우벗은 시아지바님 말걸기도 에렵더라

[해운대구 민요 164]

모심는 소리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우야방에 놀러갔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을동자를 맺겼던고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임부터 생각할래

[해운대구 민요 165]

아기 재우는 노래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자장자장 우리애기
엄마품에 폭안겨서
칭글칭글 잠노래를
그쳤다가 또하면서
저녁노을 사라지면
돌아오는 밝은달에
우리애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비춰주네

[해운대구 민요 166]

다리 세는 소리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청사맹군 도맹군
노래짐치 장독간
지임떼기 여섯냥
까마구 깡
양지 범
사시눈 둘이야
빵구야 똥 땡

[해운대구 민요 167]

방귀 타령

김정금(여, 193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시아바이 빵구 용심빵구
시어마이 빵구 앙살빵구
시누빵구 도둑빵구
아들빵구 웃음빵구

[해운대구 민요 168]

모심는 소리

이소매(여, 1928년 생)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우동 장지부녀노인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를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리고

[해운대구 민요 169]

모심는 소리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물꼬청청 흘러놓고 주인네양반 오데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이 알을낳여
그알하나 주웠으면 금년과개 내할거로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마이는 어데가고 딸을동자로 맏갔든고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리애기 울고가노
우리어매 산소등에 젓목으러 나는가요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안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택죽어 이별행상 떠나가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하승할꼬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하승할래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는 저오랍아
우리도죽어서 하생하여 임의부터 생각할래

[해운대구 민요 170]

모 찌는 소리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어 찌내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모케숨어 따내기도 난감하네

[해운대구 민요 171]

베 짜기 노래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불러보자
밤에짜른 월광단 낮에짜른 일광단
월광단일광단 다짜가지고 서방님수발이나 해여보자

[해운대구 민요 172]

다리 세는 소리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이다리 저다리 갓거리
천사맹근 도맹근
도래줍치 장독간
나랭이 좇이가 땡

[해운대구 민요 173]

아기 어르는 노래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뉘불맨고
경상도 대불맨가

[해운대구 민요 174]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을한되 주아다가
쌀독안에 여어노니
새앙쥐가 다까먹고
하네인가 두나친가
불쑥안에 넣어노니
이웃집 할머니가
불담으로 와가지고
한쪼가리 까먹고
한쪼가리 남은거는
아버지는 껍질주고
어머니는 번디주고
알키는 니강내강
갈라묵자

[해운대구 민요 175]

아기 재우는 노래

정순년(여, 192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자장자장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치기청청 보배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나
돈을주면 너를사나
은도금도 나는싫고
우리아기 제일좋네
은자동아 금자동아
부모잘에 효자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동네방네 부귀동아
나랏님께 진사동아

[해운대구 민요 176]

모심는 소리

변경화(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낭창낭창 벼루끝에 시누올케 그네매어
무정하다 우리오라버니 올케랑은 건지고
날랑은 안건졌네
나도죽어 후세상에 낭군부터 될라네

[해운대구 민요 177]

모심는 소리

변경화(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출렁출렁논에 물을실어 이논빼미 모심을세
한논빼미 심어놓고 두논빼미 심으니까
꼬꼬닭이 울음우네
파릇파릇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테 어데가노
울엄마 산소옆에 젓 먹으러 나는가요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마치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해운대구 민요 178]

다리 세는 소리

변경화(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맨도 도맨도
작발로 이에서
모래쭈치 오리어
육계육계 전라육계
당산에 먹을갈아
질 똥
말 똥

[해운대구 민요 179]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변경화(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달강달강 서울가서
밤한톨이 구해다가
장독간에 묻었더니
머리감은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한톨이만 남았구나
[아 달래는 기지.]
껍데길랑 애비주고
비늘랑은 애미 주고
알랭이랑은 너랑나랑
당당당 갈라묵자

[해운대구 민요 180]

아기 재우는 노래

김복순(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꼬꼬닭도 울지말고
멍멍개도 짖지말고
돌아오는 새벽달이

우리아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비춰주네

[해운대구 민요 181]

해녀 노 짓는 노래

김복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 사이
우리나배는 잘도간다 통나무에 지은배다
이어라 사나 처라 처라

[해운대구 민요 182]

소돌또기

김복순(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올뜰기 저기천장이 난다
달도밝고 내가어디로 갈까나
둥글레 당실 둥글레 당실
너도 덩실 던져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해운대구 민요 183]

사발가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폭폭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난다

[해운대구 민요 184]

노랫가락[그네 노래]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수천당 세모시낭게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185]

화투 타령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정월술술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매자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지선달 기나긴밤

[해운대구 민요 186]

사랑가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함양산청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낭군 나를안고 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운대구 민요 187]

비야비야 오지마라[비 노래]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형아 시집간다
가매⁶⁹⁾꼭지 물들어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해운대구 민요 188]

파랑새요

69) 가마의 지어말.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어디까지 울고가노 진주까지 울고간다

[해운대구 민요 189]

뽕 노래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뽕뽕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고
이산저산 넘어서
오두막집이 내집이다.

[해운대구 민요 190]

노랫가락[나비 노래]

변경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한적골경로당 근처 가정집]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지물면 꽃에서라도 자고가지
꽃에서 푸대접하면 앞에서라도 자고가지

[해운대구 민요 191]

모심는 소리

권춘화(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구월이라 구월산밑에 주초캐는 저 처자야
너의집이 어데길래 해가저도 아니가노
나의집을 찾으라거든 저산넘어 저언덕넘어
초가삼간이 내집이로구나

[해운대구 민요 192]

다리 세는 소리

성태선(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짹바리 히양근
도루메쭈치 장독간
머구발에 덕서리

[해운대구 민요 193]

노랫가락[그네 노래]

우연자(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수천당 세모시낭게 높다가지에 그네를메고
니가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메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194]

시집살이 노래

우연자(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형님형님 사촌형님 쌀한되만 잣았시면
니도먹고 나도먹지 그뜸물을 받았으면
니손먹지 내손먹나 그누룽지 굶었으면
니가먹지 내가먹나

[해운대구 민요 195]

방귀 타령

우연자(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시아버지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방구는 개살방구
딸에방구는 연지방구
며느리방구는 조심방구

[해운대구 민요 196]

모심는 소리

우연자(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낭창낭창 벼루끝에 시누올캐 빠졌건만
무정하다 울오랍아 올캐만건져주고 이내나는안건지네
후세상에 가거들랑 낭군부터 챙길란다

[해운대구 민요 197]

권주가

윤정수(여, 194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수영산 고사리꺾어 남강에다가 고기를წყ아
은잔놋잔 옥수술잔에 술부어요
이술은 자네가먹고 우리딸책임은 자네가지게

[해운대구 민요 198]

다리 세는 소리

이희윤(여, 193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망근 도망건

도리짐치 장독간
까마구 까우 양지머리
진때기 무슨양
두리야 뽕구야
땡 땡

[해운대구 민요 199]

아기 재우는 노래

이희윤(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리
금을준들 너를사리
부모에게 효자동아
형제에게 우애동아
나라에게 충신동아

[해운대구 민요 200]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쇼]

이희윤(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밤한말을 세어다가
실경⁷⁰⁾에 었어왔더니

70) 시령의 지역말, 물건을 올려 놓는 선반.

머리깎은 생쥐가
다까먹고 한개가남았네
살강⁷¹⁾밑에 묻은밤을
까가지고 껍질은
애비주고 보내는
애미주고 알맹이는
니캉내캉 나눠먹자
왈강달강 왈강달강

[해운대구 민요 201]

화투 타령

최금악(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챙기보자 챙기보자
화투한모 챙기보자
정월이라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매자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흘러가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육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홍산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추야 달이밝아

71) 발처럼 엮어 부엌 벽면에 다는 선반.

[해운대구 민요 202]

모심는 소리

최금악(여,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대천지 한바당에도 불이없누나 낭기나나서
가지가지 열두나가지
앞은피어서 삼백에육십 그냥게 열매가열려서
열매이름이 평화로구나

[해운대구 민요 203]

노랫가락[그네 노래]

하순례(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수천당 세모시낭게 돌이띠자고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세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204]

창부타령

하순례(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황해도운사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저큰아가
너의집은 어데두고 해다진데 주추캐나
우리집에 오실라거든 어둡침침 안개속에
초가삼칸이 내집이오 오실손님 오십시고
가실손님 가십시오

[해운대구 민요 205]

창부타령

하순례(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하해와같이 높은사랑 바다와같이도 넓은사랑
칠년대왕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사람
청룡하게 양귀비요 이도령에는 춘향이다
일년 삼백육십오일에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해운대구 민요 206]

노랫가락

하순례(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날잇는 둥가네 꽃피에서 무엇하리
임없는 이내몸이 고운들 무엇하리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우런님 말한마디 내가슴 다풀린다.

싫커든 두여라 싫커든 두여라
산넘에도 산이고 물넘에도 물이있다.

[해운대구 민요 207]

권주가⁷²⁾

하순례(여, 1925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사랑앞에 국화를심어 국화꽃밑에 술밀어놓고
술내자 국화꽃피자 임이오시나 달숫았네
아가동자야 국화주걸러라 저달이지도록 먹고놀자

[해운대구 민요 208]

모심는 소리

강선이(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해발름밤발름 꼬장바지⁷³⁾ 알궁디시럽어⁷⁴⁾ 잠몬잘세⁷⁵⁾ [웃음]
(조사자 : 그거는 무슨 소린교?) (모심는 소리. 모 송구는 소리.) (조사자 : 모 송구는 소리, 우스개로?) (야.) (청중1 : 거 달아야 좋아.) (청중2 : 달아서 하소.) (조사자 : 고 받는 소리가 뭐 있는?) (청중1 : 달아야 고기 나오지.)
덮어주소 덮어주소~이 한삼소매로 덮어주소 (이라대.)

72) 노랫가락의 곡조로 부른 것이다.

73) 꼬쟁이 바지. 꼬쟁이는 방언으로 ‘꼬장주’라 한다.

74) 엉덩이 시러워. ‘알궁디’는 살갓이 드러난 엉덩이를 속되게 하는 말임.

75) 잠 못 자겠네.

모시야적삼 안섰안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마이보면 병날끼고~이 담배씨만창만⁷⁶⁾ 보고가소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요놈의할마시 어디가고 딸을동제 시깃던공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청중1 : 눈물 날라 칸다.) (조사자 : 거 인자 받는 소리? 문에야 전복
이래.) (뒤편 카더노?) (청중2 : 아저씨가 더 아네. 우리카마.) (뒤편 뒤편
무슨?) (청중3 : 문에야 전복 손에 들고.) (아! 문에야 대장부.) (조사자 :
대전복.) 대전복 손에 들고 첩의 방에 씨러졌네.) (조사자 : 고거 한 번
더, 받는 소리.) (청중2 : 더 잘하구마.) (다 잊어뿌리고 모르겠네.
오십년꺼정 그런 거 안 했거덩.)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이 첩의집에 씨러졌네

오늘해는 다졌는데~이 집집마다 연개나네
(조사자 : 또 받는 소리로.) (청중 : 우리님은 어디가고 연개넬줄을
모르시냐.)

초롱아초롱아 청사초롱~이 임의방에 붉밝히라
임도눕고 나도눕고~이 저초롱불 누가끌꼬

[해운대구 민요 209]

쌍가락지 노래

강선이(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76) 많이 보면 병 날 것이고 담배씨만큼만.

먼데보이 달일레라 절해보니 처잘래라
저쳐자라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이더라
오로바시 흥둘바시 그말씀 마라시소
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해운대구 민요 210]

문경새재 박달나무

강선이(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민갱아 세자야 박달나무
흥두께 방마치 다돌아간다
(뭐라 카노 또.)
흥두께 방마치 팔자가좋아
큰애기 손질에 놀아난다

[해운대구 민요 211]

노랫가락

강선이(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일부 녹음 안됨] 군대를 매어
임이뛰면은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마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나비야 청산을가세 노랑나비야 너도가세
(뭐라 카노 또.)

가다가 길저물거든 꽃속에 떠나 자고가소
꽃속에 몬자거들랑 잎에 떠나 자고가소

[해운대구 민요 212]

창부타령

강선이(여, 192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에~에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황소가 디디도 안꺼질솔뎡
닐리리 바람에 다떨어졌네

[해운대구 민요 213]

모심는 소리

김추자(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갓을하고 어데갔소
(이라거든. 또 뒷소리는 인자.)
첩의집을 가시거든 나에말씀 듣고가소

[해운대구 민요 214]

모 찌는 소리

김추자(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쫓르자 쫓르자 중상투를 쫓르자
쫓르자 쫓르자 이모칸을 쫓르자
(카고 양쪽에서 막 안 하는교 이래. 그래 한다 아인교. 모판, 모판 짚 때.)

[해운대구 민요 215]

논매기 소리

김춘석(남, 1938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어~야~ 디~이야~
오늘 우리가 이논을 매어서
내일 배부르게 먹고 살자는 거다
에헤야~ 데야~
(논맬 때 그래 불러요.)

이지심 다매면 무엇을 할까요
내일은 또다시 새날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내넘어 가누나
(조사자 : 논맬 때 아리랑 노래도 하고?) (예, 그거예요.)

[해운대구 민요 216]

보리타작 소리

김춘석(남, 1938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요기에 때리라 옹헤야
저기 있구나 옹헤야
아이고 여기 또나왔다
요기 때리자 옹헤야

(예. 그래 해. 보리타작할 때 도리깨질을 하면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이리.
도리깨가 많아요. [노래로] 요게 때리라 옹헤야.) (조사자 : 그렇지.
종도리깨꾼이 안자 소리를 넣으론 같이 한문 따라서 하고.) (예,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듣던 소리예요.)

[해운대구 민요 217]

모심는 소리

왕선임(여, 1936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이논에다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에부모 산소등에 술을숨가서 영화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에 행상이 떠나간다.

[해운대구 민요 218]

모심는 소리

이상배(남,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농사야 바보는 있건만은 신농씨⁷⁷⁾는 어들갓노

77) 신농씨(神農氏)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농업·의료·악사(樂

태고때 시절이 언제라고 신농씨가 있을소나 (청중 : 이 후 후 후 후)

오늘이 해가져 어이됐노 골목골목이 연기나네
우리야임은 어들가고⁷⁸⁾ 해지는줄 모르는고

[해운대구 민요 219]

상여 소리

이상배(남, 1934년 생) 가창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경로당]

꽃이피면 맹년삼월
봄이오면 피건만은
초록같은 우루인생⁷⁹⁾
한번가면 다시올까

[해운대구 민요 220]

모심는 소리

김명숙(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엔행상⁸⁰⁾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택죽고 이별행상 떠나가네 이 후 후 후 후

師)의 신.
78) 어디로 가고.
79) 우리 인생.
80) 웬 행상(行喪).

[해운대구 민요 221]

행경장사 보고지라

김명숙(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어데마침 가싶는고
어던고을⁸¹⁾ 가싶는고
보고지라 보고지라
행경장사⁸²⁾ 보고지라
어텐고을에 가싶는공
다시올순 없던가요
보고지라 보고지라
하룻밤만 쉬어가지
이틀밤만 쉬어가지
어던고을 어던산에
어던산을 가싶는고

[해운대구 민요 222]

창부타령

김명숙(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손님떠난 이방안에 담배꽂초만 남아있고
임떠나신 부둣가에는 파도물결만 남아있고
임떠나신 정거장에는 선로두줄만 남아있고

81) 어떤 고을.

82) 이곳저곳을 다니며 거울 등 생활용품을 팔러다니는 일종의 방물장사로 보임.

임떠나신 이방안에는 뒤통비개만⁸³⁾ 굴러있고
얼씨구나 좋네 정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로다

노자노자 젊어서놀자 늙고병들면 못노리라
얼씨구 절씨구나 지화자자 정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팔청춘 소연들아⁸⁴⁾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 검은머리 먹칠하고 소연당에 놀러가자 (청중 : [웃으며] 가라.)
얼씨구 절씨구 정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로다

샛바람불고 갈방비⁸⁵⁾올때는 뒷동산 풀잎이 춤잘추고
가싯거리 기동소리에는 신부야 신랑이 춤잘추고
대변죽도 뱃노래는 갈매기란놈이 춤잘춘다
얼씨구 절씨구 정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로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로다

[해운대구 민요 223]

화투 타령

김명숙(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정월속까지 속속한마을

83) 대통 베개만.
84) 소년들아.
85) 가랑비의 방언.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마음
사월흑싸리에 흐쳐뿌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등독히떴네
구월국화 굳은절개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동지선달 오신님은
선달눈비에 울고가네

[해운대구 민요 224]

징거미 타령

김명숙(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옛다바라 앵금아 내돈석냥을⁸⁶⁾ 갚아라
앗다바라 징금아 니돈석냥 내갚으마
머리는 비어서 달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내갚우께
옛다바라 앵금아 내돈석냥을 갚아라
눈까리는 빼어서 눈까리사탕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을 내주마
엇따바라 앵금아 내돈석냥을 갚아라
옛다바라 징금아 니돈석냥 내갚으마
내머입은 팔아서 마이끄전에 팔아도
니돈석냥은 내갚우께

86) 네 돈 석 냥을.

엇다봐라 앵금아 내돈석냥을 갚아라
엇다봐라 징금아
내젓은 비어서 우유통에다 팔아도
니돈석녕은 내갚으마

[해운대구 민요 225]

비야비야 오지마라 [비 노래]

김복금(여, 1931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고
다홍치마 어렁지고⁸⁷⁾
소지병이 물디간다⁸⁸⁾

[해운대구 민요 226]

청춘가

김복금(여, 1931년 생) 외 여럿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김복금]
[일부 청취 불능] 너하나 뿐이나
산넘어 산있고 물건너 물있네
(뭐라 카노 또. 잇아뻘다.)

87) 다홍치마 얼룩지고.

88) 소주병에 물 들어간다.

[김소학]

[일부 청취 불능] 산상우야 외롭다 저술나무
날과같이도 외롭게 생겼구나~아 좋~다 [일동 박수 치며 웃음]

[조말이]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느냐
날버리고 가신임은 좋~다 가고싶어 가느냐

[김복금]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요
요내가슴이 수심도 많구나

무정한 기차야 소리없이 가거라
아까뿐 내청춘 다늪어지누나

[조말이]

열두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일이삼사 몰라서 좋~다 새복한시에 만났네

[해운대구 민요 227]

백발가

김소학(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 못노리라
어제날이 청춘이더니 오늘같이 백발이네

[해운대구 민요 228]

성주풀이

김소학(여, 1933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주석잡기에⁸⁹⁾ 다웁시고
여자라 하는것은
열분에 한분만 잘못하면
주석잡기에 다없어지느라
에라 만수 어이야 좋~다

[해운대구 민요 229]

모심는 소리

조말이(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낭창낭창 벼락끝에⁹⁰⁾ 무정하다 우리오빠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일색을 심기볼래⁹¹⁾
모야모야 나락모야 니운제커서⁹²⁾ 열매열라노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월팔월에 열매연다

[해운대구 민요 230]

노랫가락[그네 노래]

조말이(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89) 주석잡기에.
90) 벼랑 끝에.
91) 심겨 볼래.
92) 너 언제 커서.

[중1동 미포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⁹³⁾ 오색가지다⁹⁴⁾ 군데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해운대구 민요 231]

청춘가

조말이(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김복금]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를 돌려라

[이하 조말이]

청춘가를 못돌리면 유행가를 돌려라

산이 깊어야 골도 깊으지
조고만은 여자속이 얼마나 깊으겠노

[해운대구 민요 232]

창부타령

조말이(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아들농기를 힘쓰지말고 딸농기를 힘을쓰세

93) 세모로 갈라진 나무에.

94) 일반적으로 ‘오색당사실로’로 부른다.

춘향이같은 딸을놓아 이도령같은 사위삼아
너와내와 만날적에는 화초밭에서 만났는데
너와내가 이별을하니 경찰서문전이 웬말이나
얼씨구 좋다 정말로 좋네 요령기 좋다가 딸놓겠네

[해운대구 민요 233]

진주난봉가

조말이(여, 1940년 생) 가창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너거낭군 불러거든 진주난간에 빨래가라
진주야난간 빨래가니 경치 좋고 물도 좋네
난데없는 발짜죽소리 덜커덕덜커덕 나는구나
구름같은 갓을쓰고 하늘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지내가네
깜둥빨래 꺾기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너거낭군을 불러거든 사랑문을 열어봐라
사랑문을 열어보니 기생첩은 옆에끼고
청춘가를 불러주네
못본듯이 문을닫고 옷방으로 올라와서
석자세치 맹지수건에⁹⁵⁾ 목을메어 죽을라하니
사랑방에있던 낭군님이 버선발로⁹⁶⁾ 쫓아와서
기생첩은 꽃밭이요 본택에집은 연못이라

95) 맹지수건에.

96) 버선발로.

꽃과나비는 한철이고 연못에금붕어 사시장철
좋다~

[해운대구 민요 234]

다리 세는 소리

김상옥(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아무야 디야 니어데 갔더노
새끼 잡으리 갈거다
몇마리 잡았노
다섯마리 잡았다
두마리는 끝아먹고
세마리는 찌지묵고
찌짐나무 불이붙어
오룩도룩 빵

[해운대구 민요 235]

풀국새 노래

김상옥(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기집죽고 자식죽고
내혼자서 어찌살고
으.흐.흐.흐.흐

[해운대구 민요 236]

모 찌는 소리

김상옥(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밑치라 흘치라 모두잡아서 흘치라

[해운대구 민요 237]

모심는 소리

김상옥(여, 1939년 생) 가창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래
한달가고 두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이물기저물기 다혈아놓고 주인네양반이 어디갔노
문어야전복 옆에끼고 첩에집에 놀러갔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넌은 어디가고 딸넌만 맬깃던고

남창남창 벼룩끝에 무정하는 울오빠야
나도죽어 남자되어 님의부터 낄질라네

시금시금 시누부야 점심참이⁹⁷⁾ 늦어오네
서울배추 시락나물 맛본다고 더디오네

97) 점심참이.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단장하고 어디가노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붕어는 사시사철

영천이라 치받이골에 쟁피 훑는⁹⁸⁾ 저가줍마야⁹⁹⁾
작년에 훑던쟁피 금년에도 훑는구나

[해운대구 민요 238]

모심는 소리

강금수(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이 주인양반은 어데갔노
요네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이 유별행상 떠나가네 유후후후

[해운대구 민요 239]

다리 세는 소리

강금수(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98) 강피 훑는.
99) 저 아줍마야.

도리쭈치 장독간
서울양반 두양반
(또 모르겠다. [웃음])
도리쭈치 장독간
(또 머라 카노?) (청중 : 진주댁이 열석냥.)
진주댁이 열석냥
까마구 까아
양기 벌이 범 사슴
요리조리 빵 깨야
똥 깨이

[해운대구 민요 240]

모심는 소리

김모선(여, 192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초롱초롱 영사초롱
(모르겠다. 그것도 잊어뿌고 인자 마.)
임의방에 불밝히라
임도눕고 나도눕고~이 저불끝이 누있으리

[해운대구 민요 241]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 소리]

김모선(여, 1922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김선달네 불매다

[해운대구 민요 242]

모 찌는 소리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한강에다 모를심어 모찌기도 난감하다

[해운대구 민요 243]

모심는 소리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나 다올랐네
우리부모님 어데가고 딸로동자로 시겼던고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서 정자로다 이후후후후후

낭창낭창 벼룩끝에 무정하다 울오빠야
나도죽어 후승가면 처에곤석을 심기줄래 (그라나?)
오늘해가 다졌는거~이 산골마중 연개나네
울어님은 어데가고~이 연개넬줄을 모르던고 이후후후후후

[해운대구 민요 244]

다리 세는 소리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갯걸이
청사맹근 두맹근
도리줍치 장독간
진주택이 열석냥
까마구 까아
양주 버리
범 사침
노래이

[해운대구 민요 245]

아기 재우는 노래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잠도잔다
껌둥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또 머라 카노. [웃음]) (조사자 : 나라에는 충신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동네안에 칭찬동이

형제간에 용기동이
이웃간에 인정동이
친구간에 의리동이

[해운대구 민요 246]

비야비야 오지마라[비 노래]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친다
다홍치매 어룽진다

[해운대구 민요 247]

아기 어르는 노래[둥게요]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둥게둥게 둥게야
적자동아 금자동아
은을주고 너를사까
돈을주고 너를사까
이손지를 키아가지고
진사급자를 할라나
국회의원을 할라나
판사검사를 할라나

동네방네

(저 뭐라 카노?)

부모에게는 효자동아

부부에게는 열녀동아

국가에는 충신동아

형지간에는 용기동아

이웃간에는¹⁰⁰⁾ 인정동아

친구간에는 의리동아

(뭐라 카노 또?)

동네방네

동네방네 칭찬동아

(착착해야 되는데 다 잊아뒀다.) (조사자 : 그래가 둥게둥게.)

둥게둥게 둥게야

아프지말고 잘듣거라

종기도없이 잘듣거라

경기도없이 잘듣거라

[해운대구 민요 248]

새 타령

이연순(여, 1927년 생) 가창

2012년 2월 15일 채록

[좌동 좌동경로당]

제비란놈은 맴시가좋아 기승오빠로¹⁰¹⁾ 돌리고

까마구란놈은 까죽이낌어 도둑놈고수로 돌리고

까치라는놈은 집을잘지아 목수재목을 돌리고

비둘기란놈은 양식이좋아 무술재목을¹⁰²⁾ 돌리고

100) 이웃간에는.

101) 기생 오빠로.

102) 무수리 재목으로.

참새라는놈은 나락을잘까 방앗간재목을 돌리고
칠면조란놈은¹⁰³⁾ 꼬리를잘패¹⁰⁴⁾ 부채재목을 돌리고
꿩은¹⁰⁵⁾ 벼실이좋아¹⁰⁶⁾ 식당주례로 돌리고
다질은¹⁰⁷⁾ 알로잘까 주방장재목을 돌리고
뿌꿈새는 노래를잘불러 라지오재목을 돌리고

103) 칠면조란 놈은.

104) 꼬리를 잘 펴서.

105) 꿩은.

106) 벼슬이 좋아.

107) ‘닭으로’의 뜻으로 말한 듯함.

제보자 색인

■ 기장읍

강무순(여, 1917년 생, 대변리 무양마을)
 강영열(남, 1933년 생, 동부2리)
 공을갑(여, 1929년 생, 만화리 동서마을)
 김경순(여, 1931년 생, 교리)
 김금지(여, 1924년 생, 죽성리 월전마을)
 김말복(여, 1933년 생, 동부1리)
 김명조(남, 1937년 생, 장곡리 대곡마을)
 김모순(여, 1927년 생, 내리 내동마을)
 김문연(여, 1950년 생, 연화리 신암마을)
 김분열(여, 1924년 생, 석산리 석산마을)
 김상갑(여, 1934년 생, 내리 소정2구)
 김순금(여, 1935년 생, 만화리 동서마을)
 김오금(여, 1932년 생, 내리 소정2구)
 노순영(여, 1927년 생, 서부리 서부마을)
 송소남(여, 1930년 생, 교리)
 손정조(여, 1928년 생, 동부1리)
 안계로(남, 1933년 생, 만화리 동서마을)
 안길태(남, 1934년 생, 신천리 신천마을)
 이동희(여, 1929년 생, 죽성리 두호마을)
 이말명(여, 1932년 생, 만화리 동서마을)
 이묘숙(여, 1932년 생, 교리)
 이순자(여, 1935년 생, 동부1리)
 이정수(여, 1939년 생, 서부리 서부마을)
 정귀순(여, 1946년 생, 장전리 대곡마을)
 정동선(여, 1941년 생, 죽성리 두호마을)
 정명선(여, 1922년 생, 장전리 대곡마을)
 정옥봉(여, 1931년 생, 동부2리)
 정옥숙(여, 1936년 생, 청강리 무곡마을)
 정임순(여, 1935년 생, 동부1리)

정잠술(여, 1920년 생, 신천리 신천마을)
조분순(여, 1929년 생, 교리)
지순애(여, 1931년 생, 동부1리)
최말년(여, 1937년 생, 내리 소정2구)
허상금(여, 1934년 생, 내리 소정2구)
홍경순(여, 1928년 생, 대변리 무양마을)
최상연(여, 1939년 생, 석산리 석산마을)

■ 일광면

권태열(여, 1928년 생, 이천리 이동마을)
김묘숙(여, 1934년 생, 신평리 신평마을)
김성남(여, 1935년 생, 이천리 이동마을)
김수열(여, 1935년 생, 신평리 신평마을)
김수이(여, 1921년 생, 신평리 신평마을)
김정자(여, 1938년 생, 용천리 대리마을)
문임순(여, 1936년 생, 원리 상리마을)
신순이(여, 1932년 생, 원리 상리마을)
오쌍금(여, 1920년 생, 이천리 이동마을)
유봉님(여, 1934년 생, 용천리 대리마을)
이석남(여, 1934년 생, 이천리 이동마을)
정영자(여, 1935년 생, 용천리 대리마을)
한복열(여, 1943년 생, 이천리 이동마을)

■ 장안읍

강봉매(여, 1937년 생, 명례리 도야마을)
권영숙(여, 1925년 생, 임랑리)
김근수(남, 1929년 생, 명례리 도야마을)
김명엽(여, 1926년 생, 길천리 길천마을)
김봉기(여, 1929년 생, 좌천리 시장마을)
김부용(여, 1930년 생, 좌천리 시장마을)
김석권(남, 1937년 생, 장안리 하장안)
김염이(여, 1940년 생, 덕선리 내덕마을)
김영경(남, 1932년 생, 반룡리 구기마을)

김옥이(여, 1923년 생, 명례리 대룡마을)
 김정례(여, 1930년 생, 명례리 신명마을)
 김종선(여, 1925년 생, 장안리 상장안)
 김필련(여, 1933년 생, 길천리 길천마을)
 나경출(남, 1949년 생, 반룡리 구기마을)
 박애선(여, 1921년 생, 오리 신리마을)
 방정자(여, 1939년 생, 반룡리 반룡마을)
 손금란(여, 1934년 생, 반룡리 반룡마을)
 손소례(여, 1931년 생, 명례리 대룡마을)
 안두리(여, 1923년 생, 장안리 하장안)
 오정숙(여, 1935년 생, 길천리 길천마을)
 이덕필(여, 1929년 생, 덕선리 내덕마을)
 이두애(여, 1929년 생, 기룡리 기룡마을)
 이복명(여, 1918년 생, 임랑리)
 이옥선(여, 1938년 생, 명례리 도야마을)
 정분개(여, 1934년 생, 기룡리 하근마을)
 장봉애(여, 1929년 생, 길천리 길천마을)
 주계순(여, 1931년 생, 덕선리 내덕마을)
 최인순(여, 1924년 생, 명례리 대룡마을)
 최 전(여, 1929년 생, 반룡리 반룡마을)
 홍근례(여, 1911년 생, 좌천리 좌천마을)

■ 정관면

곽두애(여, 1924년 생, 예림리 예림마을)
 구순남(여, 1926년 생, 매학리)
 김복수(여, 1937년 생, 두명리 두명마을)
 김석필(여, 1927년 생, 예림리 예림마을)
 김영자(여, 1941년 생, 매학리 산곡마을)
 김을순(여, 1935년 생, 월평리 월평마을)
 김종연(여, 1922년 생, 예림리 서편마을)
 김필금(여, 1927년 생, 임곡리 임곡마을)
 남영순(여, 1935년 생, 매학리)
 박말순(여, 1940년 생, 두명리 두명마을)

손부수(여, 1926년 생, 예림리 예림마을)
심말라(여, 1924년 생, 매학리 매곡마을)
양순자(여, 1933년 생, 예림리 예림마을)
오금옥(여, 1933년 생, 매학리 매곡마을)
이경수(여, 1921년 생, 월평리 월평마을)
이덕순(여, 1938년 생, 임곡리 임곡마을)
이말순(여, 1932년 생, 월평리 월평마을)
이봉임(여, 1934년 생, 매학리)
임규옥(여, 1929년 생, 매학리)
정인순(여, 1932년 생, 예림리 서편마을)
조차영(여, 1927년 생, 임곡리 임곡마을)
함마리아(여, 1930년 생, 매학리)

■ 철마면

강정희(여, 1940년 생, 안평리 마지마을)
김갑진(남, 1933년 생, 장전리 장전마을)
김성수(남, 1929년 생, 구친리 점현마을)
김수연(여, 1940년 생, 고촌리 고촌마을)
김연자(여, 1931년 생, 연구리 마지마을)
김재옥(여, 1932년 생, 임기리 임기마을)
김재윤(여, 1932년 생, 구칠리 신리마을)
김화숙(여, 1929년 생, 웅천리 중리마을)
문성숙(여, 1927년 생, 연구리 마지마을)
문필금(여, 1936년 생, 와여리 와여마을)
방필한(여, 1926년 생, 이곡리 이곡마을)
박경조(남, 1937년 생, 연구리 마지마을)
박복남(여, 1933년 생, 장전리 장전마을)
박생금(여, 1923년 생, 고촌리 고촌마을)
박호순(여, 1932년 생, 임기리 임기마을)
손귀연(여, 1926년 생, 임기리 임기마을)
서복순(여, 1939년 생, 안평리 안평마을)
성순이(여, 1924년 생, 송정리 입석마을)
송갑순(여, 1934년 생, 구칠리 구칠마을)

송정옥(여, 1932년 생, 송정리 입석마을)
 안애자(여, 1942년 생, 고촌리 사등마을)
 안용수(여, 1925년 생, 구칠리 구칠마을)
 오선이(여, 1918년 생, 와여리 와여마을)
 유필남(여, 1936년 생, 구칠리 구칠마을)
 이귀량(여, 1936년 생, 와여리 와여마을)
 이연악(여, 1924년 생, 장전리 장전마을)
 이임순(여, 1932년 생, 안평리 안평마을)
 정귀태(남, 1941년 생, 구칠리 신리마을)
 정남석(여, 1930년 생, 장전리 장전마을)
 정복년(여, 1925년 생, 장전리 장전마을)
 정문영(남, 1938년 생, 구칠리 신리마을)
 진정이(여, 1930년 생, 백길리 백길마을)
 최복득(여, 1939년 생, 와여리 와여마을)
 최성만(남, 1928년 생, 연구리 마지마을)
 황임선(여, 1933년 생, 연구리 마지마을)

■ 남구

권기숙(여, 1930년 생, 대연1동)
 김경순(여, 1924년 생, 용호2동)
 김부금(여, 1933년 생, 용당동)
 김수명(여, 1938년 생, 용당동)
 김순이(여, 1930년 생, 대연1동)
 김영자(여, 1935년 생, 용당동)
 김옥환(여, 1928년 생, 대연6동)
 김임순(여, 1930년 생, 대연3동)
 김차금(여, 1931년 생, 대연5동)
 김학엽(여, 1935년 생, 감만2동)
 노분조(여, 1928년 생, 대연2동)
 문월숙(여, 1925년 생, 대연4동)
 박말숙(여, 1937년 생, 대연5동)
 박종숙(여, 1925년 생, 대연6동)
 배석분(여, 1931년 생, 대연6동)

배종근(남, 1934년 생, 대연2동)
백복도(여, 1920년 생, 우암1동)
손명금(여, 1934년 생, 용호1동)
송봉염(여, 1924년 생, 문현3동)
손봉순(여, 1944년 생, 감만1동)
송성례(여, 1931년 생, 대연4동)
송효순(여, 1936년 생, 대연3동)
안두임(여, 1931년 생, 문현3동)
엄갑순(여, 1934년 생, 대연6동)
엄남선(여, 1937년 생, 용당동)
원선희(여, 1925년 생, 감만1동)
유양임(여, 1936년 생, 문현3동)
윤경수(남, 1925년 생, 감만1동)
윤순월(여, 1922년 생, 대연2동)
이분순(여, 1932년 생, 감만1동)
이상남(여, 1934년 생, 문현3동)
임영식(여, 1936년 생, 용당동)
장임순(여, 1933년 생, 대연3동)
장화순(여, 1937년 생, 문현3동)
정갑년(여, 1944년 생, 감만1동)
정순점(여, 1930년 생, 대연3동)
정옥자(여, 1945년 생, 용호1동)
제서분(여, 1939년 생, 용당동)
최강이(여, 1938년 생, 대연2동)
최순례(여, 1938년 생, 대연3동)
최정숙(여, 1933년 생, 용호1동)
황말복(여, 1929년 생, 우암1동)

■ 수영구

강경자(여, 1933년 생, 광안4동)
강도윤(여, 1934년 생, 수영동)
강무숙(여, 1937년 생, 망미1동)
강외순(여, 1935년 생, 광안4동)

권원희(여, 1929년 생, 광안2동)
 김갑례(여, 1936년 생, 광안4동)
 김무선(여, 1928년 생, 망미1동)
 김부자(여, 1932년 생, 망미1동)
 김삼례(여, 1945년 생, 망미2동)
 김순년(여, 1931년 생, 망미2동)
 김옥순(여, 1936년 생, 민락동)
 김판윤(여, 1931년 생, 남천1동)
 마일녀(여, 1930년 생, 광안1동)
 문영숙(여, 1932년 생, 망미1동)
 문옥선(여, 1928년 생, 망미1동)
 박귀임(여, 1931년 생, 광안1동)
 박은수(여, 1933년 생, 망미1동)
 박재임(여, 1921년 생, 망미1동)
 신경남(여, 1932년 생, 광안2동)
 신분도(여, 1929년 생, 광안4동)
 염정순(여, 1931년 생, 망미2동)
 예기양(여, 1919년 생, 망미1동)
 예옥조(여, 1928년 생, 광안4동)
 유동순(여, 1934년 생, 수영동)
 유봉화(여, 1926년 생, 광안1동)
 윤옥순(여, 1924년 생, 남천2동)
 이순조(여, 1942년 생, 광안4동)
 이정례(여, 1930년 생, 수영동)
 이창우(남, 1931년 생, 광안4동)
 임백순(여, 1932년 생, 광안4동)
 전남옥(여, 1921년 생, 망미1동)
 전순조(여, 1940년 생, 민락동)
 조문자(여, 1941년 생, 망미동)
 채정순(여, 1929년 생, 망미1동)
 최석규(여, 1940년 생, 망미1동)
 패순녀(여, 1934년 생, 수영동)
 최손덕(여, 1932년 생, 민락동)

최현순(여, 1929년 생, 수영동)

최현옥(여, 1934년 생, 민락동)

■ 해운대구

강금수(여, 1927년 생, 좌동)

강도아(여, 1935년 생, 반송2동)

강명이(여, 1911년 생, 반송1동)

강선이(여, 1926년 생, 채송동)

공소두(여, 1921년 생, 반송2동)

권점순(여, 1921년 생, 반송2동)

권춘화(여, 1944년 생, 우2동)

김경어(여, 1930년 생, 반송2동)

김금순(여, 1935년 생, 반여1동)

김달순(여, 1924년 생, 우1동)

김동희(여, 1925년 생, 반송2동)

김두이(여, 1936년 생, 반송1동)

김명숙(여, 1939년 생, 중1동)

김모선(여, 1922년 생, 좌동)

김복금(여, 1931년 생, 중1동)

김복순(여, 1940년 생, 우1동)

김봉림(여, 1923년 생, 반송2동)

김봉화(여, 1931년 생, 송정동)

김상복(여, 1935년 생, 반여1동)

김상옥(여, 1939년 생, 중2동)

김소학(여, 1933년 생, 중1동)

김정금(여, 1930년 생, 우1동 우동)

김추자(여, 1940년 생, 채송동)

김춘석(남, 1938년 생, 채송동)

모규일(남, 1930년 생, 반여1동)

문재특(여, 1929년 생, 반여1동)

박명순(여, 1932년 생, 석대동)

박순이(여, 1925년 생, 반여1동)

박이순(여, 1940년 생, 반송2동)

배옥년(여, 1922년 생, 만여4동)
 변경화(여, 1937년 생, 우1동)
 변남세(여, 1926년 생, 만송2동)
 서차득(여, 1927년 생, 만여1동)
 성태선(여, 1933년 생, 우2동)
 송두리(여, 1921년 생, 만송1동)
 송정숙(여, 1930년 생, 만송1동)
 송정숙(여, 1926년 생, 만여1동)
 안순덕(여, 1930년 생, 만여1동)
 오의순(여, 1932년 생, 만여1동)
 왕선임(여, 1936년 생, 재송동)
 우연자(여, 1926년 생, 우2동)
 우춘호(남, 1934년 생, 만송2동)
 윤정수(여, 1944년 생, 우2동)
 윤정수(여, 1946년 생, 만송1동)
 윤향임(여, 1940년 생, 만여1동)
 이돌금(여, 1937년 생, 만송2동)
 이묘님(여, 1939년 생, 송정동)
 이상배(남, 1934년 생, 재송동)
 이연순(여, 1927년 생, 좌동)
 이성녀(여, 1930년 생, 만송1동)
 이소매(여, 1928년 생, 우1동)
 이순희(여, 1912년 생, 만송1동)
 이정희(여, 1930년 생, 만여1동)
 이관수(여, 1932년 생, 만송1동)
 이희운(여, 1937년 생, 우2동)
 임춘남(여, 1935년 생, 만송1동)
 장도진(남, 1936년 생, 만송2동)
 정금선(여, 1953년 생, 만여1동)
 정만순(여, 1920년 생, 송정동)
 정순년(여, 1923년 생, 우1동)
 정옥순(여, 1930년 생, 만송2동)
 정재금(여, 1934년 생, 만송1동)

정준남(여, 1935년 생, 반여1동)
조말이(여, 1940년 생, 중1동)
조분수(여, 1932년 생, 반여1동)
조순이(여, 1933년 생, 반여4동)
최금악(여, 1934년 생, 우2동)
하순례(여, 1925년 생, 우2동)
한순자(여, 1932년 생, 반송2동)
홍제분(여, 1930년 생, 반송1동)
미상(여, 1937년 생, 석대동)

민요 제목 색인

- (ㄱ)
- 가래질 소리 56
- 각설이타령 401, 100, 172, 193,
250, 309, 434, 473
- 구멍 노래 90, 434
- 구멍 타령 443
- 권주가 87, 115, 144, 165, 184,
236, 313, 320, 327, 342,
343, 376, 386, 395, 413,
442, 491, 520, 525
- 피꼬리 노래 407
- 꿈 노래 72
- 평 노래 471, 517
- (ㄴ)
- 나비 노래 389
- 남녀연정요[삼 삼기 노래] 295
- 남녀연정요 234, 305, 364, 381,
444, 457
- 낭군 이별 노래 267
- 너냥 나냥 5, 13, 115, 164, 183,
221, 222, 314, 316, 343,
377, 478
- 노랫가락 차차차 396
- 노랫가락 한자풀이 413, 419
- 노랫가락[그네 노래] 74, 114,
198, 228, 232, 272, 301,
308, 320, 326, 338, 340,
355, 373, 376, 379, 394,
400, 409, 422, 449, 455,
480, 485, 494, 504, 515,
518, 523, 537
- 노랫가락[꽃 노래] 458
- 노랫가락[나비 노래] 198, 273,
30, 302, 423, 448, 458,
483, 517
- 노랫가락[남해 노래] 425
- 노랫가락[달 노래] 356
- 노랫가락[못된 부인 노래] 442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53
- 노랫가락[사랑가] 272
- 노랫가락[이몸이 학이 되면] 454
- 노랫가락 24, 25, 26, 27, 27,
28, 31, 35, 52, 109, 146,
159, 163, 294, 385, 403,
419, 457, 465, 524, 527
- 논매기 소리 136, 529
- 논매는 소리 468
- 놀이 봅시다 269
- (ㄷ)
- 다리 세는 소리 3, 4, 9, 15, 19,
43, 53, 70, 81, 83, 85,

89, 106, 140, 142, 187, 193, 202, 213, 259, 265, 268, 272, 299, 304, 318, 321, 323, 325, 352, 357, 358, 360, 369, 374, 380, 395, 406, 417, 464, 472, 498, 502, 506, 509, 512, 518, 520, 540, 542, 545, 500	모심는 소리[의암요]	425
달거리 노래 76, 99, 118, 237, 344, 446	모심는 소리 3, 6, 7, 11, 18, 21, 22, 28, 29, 30, 32, 34, 35, 40, 42, 43, 49, 50, 53, 54, 56, 56, 57, 59, 61, 62, 69, 69, 70, 73, 78, 79, 82, 83, 84, 86, 87, 87, 89, 93, 98, 105, 108, 109, 110, 113, 127, 129, 133, 137, 138, 138, 142, 145, 160, 166, 168, 168, 169, 178, 180, 184, 186, 188, 189, 191, 198, 199, 200, 200, 201, 204, 210, 213, 215, 218, 219, 223, 224, 226, 230, 231, 231, 231, 232, 235, 237, 241, 244, 258, 261, 261, 262, 264, 265, 267, 269, 274, 278, 280, 280, 282, 284, 285, 286, 286, 292, 296, 299, 300, 302, 303, 305, 307, 310, 313, 317, 319, 319, 321, 323, 324, 326, 328, 340, 341, 344, 346, 348, 348, 350, 354, 362, 362, 363, 365, 367, 367, 369, 373, 374, 375, 375, 378, 380, 384, 386, 388, 390, 390, 392, 393, 394, 396, 399, 400,	
달아달아 밝은 달아[달 노래] 18, 36, 111, 260, 339		
담배 타령[담바구 타령] 66, 172		
댕기 노래 9, 156, 450, 461		
도라지 타령 197, 222, 380		
돈 타령 210		
(口)		
망개 소리 49		
모 찌는 소리 5, 11, 23, 39, 48, 50, 62, 71, 78, 78, 90, 93, 108, 114, 127, 133, 136, 145, 169, 188, 200, 205, 215, 226, 242, 263, 264, 273, 282, 304, 311, 324, 363, 427, 460, 494, 508, 528, 541, 544		
모심기 노래 392		

401, 403, 404, 408, 410, 411, 411, 415, 417, 421, 422, 428, 433, 439, 440, 444, 448, 452, 459, 461, 461, 463, 466, 470, 473, 474, 474, 475, 481, 481, 482, 487, 488, 491, 492, 492, 493, 493, 495, 499, 501, 503, 505, 507, 507, 511, 511, 518, 520, 523, 525, 528, 530, 530, 531, 537, 541, 542, 543, 544,		베 짜기 노래[옥단춘 노래] 192
못 갈 장가 노래 130, 207, 353, 381, 438		베 짜기 노래 73, 215, 348, 427, 452, 454, 508
무정 천리 314		베틀 노래 12, 247, 414, 419, 426, 484
문경새재 박달나무 527		베틀 타령 169, 172
물레 노래 393		보고 싶어 보고 싶어 61
밀양아리랑 185, 197, 277, 317, 340, 432, 435, 477, 481		보리타작 소리 429, 529
		보지 타령 316, 429
		부녀가 397
		비야비야 오지마라[비 노래] 16, 47, 81, 85, 104, 140, 203, 264, 266, 305, 367, 471, 501, 516, 535, 546
	(ㄴ)	
(ㄴ)		사랑가 60, 233, 383, 426, 516
반편 딸 노래 42		사모요 359
밭원문 482		사발가 60, 115, 163, 184, 220, 232, 258, 291, 313, 316, 321, 339, 356, 360, 377, 379, 383, 393, 397, 416, 420, 426, 502, 514
방귀 타령 438, 507, 519		사친가 397, 402, 451, 478
밭 매는 소리 289, 414		산비둘기 소리 노래 140, 143, 202, 209, 269
백두산이 높다해도 416		산타령 41
백발가 118, 163, 167, 308, 325, 379, 388, 401, 412, 536		삼 삼는 소리 116
뱃노래 24, 170		삼삼기 노래 452
병거지 타령 453		삼팔선아 문 열어라 437

상여 소리	467, 531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 노래]	
새 타령	547		143
서방 부음 노래	455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 소리]	
성주풀이	101, 251, 255, 536		3, 543
송깃대 놀이 노래	202, 212	아기 어르는 노래[불미소리]	
수심가	162		177, 276, 351, 391, 406,
시누올케 노래	387, 421		413, 423, 443, 471, 500
시집살이 노래[박복한 팔자]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430, 441		8, 80, 176, 275, 281, 361,
시집살이 노래[부모부음요]	63		407, 414, 418, 510, 513,
시집살이 노래[양동가마 노래]	424		521
시집살이 노래	40, 58, 65, 73,	아기 어르는 노래	60, 88, 112,
	175, 181, 283, 320, 387,		176, 181, 293, 346, 357,
	394, 405, 411, 490, 505,		418, 509
	51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16,
시집식구 노래	142		17, 38, 47, 58, 277
신세 타령	106	아기 재우는 노래	35, 88, 144,
신세한탄가	26, 29, 328		175, 339, 345, 361, 369,
쌍가락지 노래	4, 17, 23, 31,		391, 408, 489, 494, 506,
	33, 55, 57, 62, 82, 89,		510, 513, 521, 545
	101, 111, 130, 153, 158,	아리랑	40, 74, 183, 224, 382,
	178, 187, 204, 214, 221,		477, 488, 503,
	246, 290, 329, 342, 359,	애원애기 노래	14, 44, 119,
	386, 389, 405, 410, 431,		147, 175, 216, 286, 435
	435, 484, 489, 491, 499,	액풀이 노래	167
	526	양갈보 노래	293
(○)		양산도	10, 206, 285, 296, 308,
아기 어르는 노래[등게요]	37,		314, 343, 383
	95, 107, 546	어랑 타령[신고산 타령]	349
		어랑 타령	309
		연애 타령	159

연치 놀리는 노래	15	징거미 타령	534
오돌또기	514		
용왕 풀이	55	(ㄸ)	
음부 노래	247	창부타령[백발가]	436
이 노래	459	창부타령 13, 19, 29, 39, 51,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472	52, 54, 66, 71, 72, 86,	
이갈이 노래	350, 350	95, 114, 135, 138, 164,	
이별 노래	318	189, 190, 196, 206, 212,	
이야기 노래	24, 324, 358	226, 236, 241, 249, 262,	
일중년 월중년 하니	443	275, 279, 315, 342, 347,	
		376, 398, 400, 427, 431,	
(ㄷ)		437, 447, 450, 465, 466,	
자진방아 타령	20	474, 523, 524, 528, 532,	
잠 노래	453	538	
잠자리 잡기 노래	10, 105, 374	첩 노래	300
장타령	251	첫날밤 노래	440
저승사자 노래	294, 476	청춘가[나비 노래]	458
정관 꽃 노래	154	청춘가 67, 191, 219, 224, 306,	
정관 노래(1)	152	377, 385, 415, 416, 462,	
정관 노래(2)	153	465, 473, 483, 535, 538	
정선아리랑	468	축원	77
제비 노래[옥단춘 노래]	12	춘향이 노래	441
주머니 노래	430	춘향이 옥중가	94
중머리 노래	203	친구 이별 노래	13, 37
지신밟기 노래	165, 479		
지신밟기 성주풀이	291, 334	(ㄹ)	
지초 캐는 처녀 노래	256, 409	패지나 칭칭나네	48
진주난봉가 31, 67, 92, 182,			
229, 257, 271, 312, 355,		(ㄴ)	
372, 445, 449, 486, 539		탄로가	27

태평가 75, 227, 234, 240, 467,
484

(표)

파랑새요 42, 260, 516

풀국새 노래 22, 349, 408, 499,
540

풍년가 185, 322

(ㅎ)

한랑 타령 382

항굴레비 노래 100

해녀 노 짓는 노래 514

해방가 447, 479

행경장사 보고지라 532

홍두깨 방망이 291

화투 타령 7, 21, 32, 36, 65,

75, 111, 135, 141, 160,

166, 171, 173, 182, 220,

233, 235, 257, 259, 266,

284, 297, 297, 301, 310,

318, 328, 352, 378, 395,

398, 402, 421, 423, 433,

439, 446, 462, 504, 515,

522, 533,

회심곡 228, 238, 327, 329, 347,

384, 485, 496

■ 현장조사자

● 현장조사 1팀

책임자 : 박경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사자 : 강아영, 공유경, 김민지, 박소영, 오소현(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재학 또는 졸업)

● 현장조사 2팀

책임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조사자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강미지, 신주승, 최지은(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 박은경(동아대학교 교수)

위 원 :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HK교수)

위 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 원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3]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기장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편

발행인	강창석
편저	박경수 · 황경숙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집분과위원회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인쇄	산지니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 S B N	979-11-85308-03-6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4121~3 / FAX : 051) 888-4129

자료검색 부산시(www.busan.go.kr) > 해양수도부산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